KACCLA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1971-2024

KACCLA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1971-2024

KACCL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KACCLA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1971-2024

KACCL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KACCLA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목 적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각 회원들의 사업과 한인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 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개발 부분과 한인 커뮤니티에 관한 현행 법규 부분 등을 수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로스앤젤레스 City뿐만 아니라, Greater Los Angeles Area의 한인 상공인들의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 표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협조와 정보교환을 도모한다.
2. 한인사회 및 상공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3.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의 공익을 위해 제공한다.
4. 타 경제단체, 한미 정부 및 타 민족사회와 유대관계를 증진한다.
5. 홍보활동을 통해 한인사회 및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발 간 사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제47대 회장 김봉현

1971년 6월 7일은 현 LA 한인상공회의소의 모태가 된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가 태동한 날로서 53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정리하여 한권의 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어 무한한 기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56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LA 한인상공회의소는 130여 명의 이사를 보유한 미주 최대 모범 한인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가주 한인 경제인 및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이사님들과 지나온 50여 년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인 경제 및 한인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을 돌이켜 보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전임 회장단 및 임원진, 그리고 모든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이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년이란 긴 시간을 한 권의 책에 담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에드워드 구 LA상의 5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집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내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 훌륭하게 결실을 맺어주신 정성업 주필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지난 50여년의 기록을 담아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LA 한인상공회의소가 나아갈 앞으로의 5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4. 6. 7.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 봉 현

축 사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LA 한인 경제인 여러분!
재외동포청장 이기철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LA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1971년 설립 이래 한인 경제인들에게 비즈니스 기회 제공, 한인 경제인들의 권익과 친목 도모, 한인 경제 활성화 및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LA 폭동, 9.11 테러, 모국의 IMF 사태 등 미국 및 모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미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는 708만 재외동포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여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설립 직후인 작년 10월, LA와 인접한 애너하임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제21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 기업인 수, 전시 부스 운영 기업인 수, 상담 건수, 계약 상담 금액 최종 계약 체결 금액 등 모든 지표에 있어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LA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 세계 재외동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도와주셔서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WKBC in USA)' 격년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재외동포를 보듬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현장 중심의 재외동포청을 우리 재외동포청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 경제 발전상 알리기' 사업을 통해서 미국내 한인 동포사회의 지위가 향상되고 동포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LA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LA 한인상공회의소 김봉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김영완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70주년 미주 한인의 새로운 120주년을 열어갈 첫해라고 볼 수 있는 2024년에 'LA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가 발간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1971년 발족 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한인타운 경제와 커뮤니티 성장에 함께 힘써오며 한인타운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오일쇼크, LA 폭동,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 9.11 테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동포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인 정치력 신장 유권자 실태 조사 한인타운 안전대책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당면한 사회 현안 해결에도 힘써왔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 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상공인들을 지원하여 한인 동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2024. 6. 7.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김영완

축 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LA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미국 최초의 한인상공회의소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방문 사절단 파견, 한국제품 수출 등 한인 기업인들의 발전과 한인사회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미 경제교류의 선구자 역할을 해 온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은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LA는 세계 20위권 국가와 견줄만한 GDP를 가진 미국 서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LA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기업들에게 풍부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LA는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의 요충지로서 더욱 부상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LA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주 한인 상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인 기업들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의 시너지로 한미 경제협력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LA 한인상의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2024. 6.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KAREN BASS
MAYOR

May 1, 2024

Dear Friends,

I want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KACCLA) on celebrating its 50th anniversary.

Founded in 1971 to advocate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merchants residing in LA, KACCLA holds a variety of programs and seminars to benefit its members and help develop their businesses. I appreciate the profound relationship we share with KACCLA, which serves as a cornerstone of collaboration and mutual support in advancing the interests of Korean American businesses in Los Angeles.

I am proud of the large population of people in Los Angeles with Korean heritage, and the many cultural and economic contributions you make to our vibrant city.
Thank you for the work you do to support Korean American businesses and the entire City of Los Angeles.

You have my best wishes for many more years of success. Sincerely,

Karen Bass

Los Angeles City Mayer, Karen Bass

목 차

발간사	3
축 사	4
제1장 창립과 배경	9
제2장 창립기 활동	31
제3장 성장기 활동	53
제4장 안정기 활동	95
제5장 확장기 활동	133
제6장 성숙기 활동	195
부 록	251
편집후기	262

제1장 창립과 배경

1. 미주 한인사회 형성 과정

2. LA 한인타운 건설

3. LA 한인상공회의소 창립

1 미주 한인사회 형성 과정

1776. 7. 미합중국(USA) 건국

1787. 미국, 금본위제 헌법 명시

1866. 10. 병인양요 (프랑스)

1871. 6. 신미양요 (미국)

1876. 2.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

1882. 3.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7. 임오군란

1883. 11. 조영수호통상조약

1984. 2. 동학농민혁명

1884. 6. 조이수호통상조약

1894. 7. 갑오개혁

1896. 2. 아관파천

1896. 4. 제1회 하계올림픽 개최
그리스 아테네

1886. 6. 조불수호통상조약

1897. 10. 대한제국 성립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50년간 미주, 특히 남가주 한인사회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LA 한인상의의 창립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LA 한인상의의 전신인 남가주한인상공 회의소 태동의 배경이 되는 미주 한인사회와 남가주 한인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별 미주한인사회

조선과 미국은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저항하여 일어난 신미 양요로 처음 관계하여, 그로부터 1년 후인 1882년 3월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으로 수교하였다. 한국인의 첫 미국 진출은 정부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미국 유학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인사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미국에 남아 재미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미주 한인사회 선두 주자들로서 조국 광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1903년 하와이의 농장에 노동자로 건너온 102명을 필두로 하는 초기 이민자들이다. 초기 이민자들은 1903년 1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3년 10개월에 걸쳐 65척의 이민선을 타고 온 7,226명의 농장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후손인 2세대와 3세대 들은 미국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한인사회의 리더로 성장 하였다.

세 번째는 중기 이민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45년부터 1964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이주한 한인들이다. 주로 미군정청에서 일하다가 미국 이주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과 한국전쟁에 참전 하거나 한국 주둔 미군들과 혼인한 한인 여성들, 전쟁고아와 입양아들이다. 한국전쟁 이후 1964년까지 미군과 혼인하여 이주해 온 여성은 약 6,500여 명에 달하였는데, 그들은 부모 형제들을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유학생, 연구원,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들이었다.

네 번째는 근대 이민 세대로서 현재의 미주 한인사회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이 발효되어 한국인들 에게 이민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이민자들과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들이 신분 변경을 통해 합법 체류로 인해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최초 하와이 이민선 갤릭호

남가주에는 1965년 신이민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하와이 농장 이민자들과 1905년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갔던 농업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일부는 쿠바로 가고, 일부는 캘리포니아로 들어와 유학생들과 함께 한인사회를 이루었다. 교육열이 높은 한인들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가주 명문 사립대학인 남가주 대학교(USC) 근처인 제퍼슨 대로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모여 살았다.

한인사회를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은 교회와 학교 그리고 단체이다. 하와이 이민자들의 샌프란시스코 상륙과 프레즈노 카운티 리들리 한인 커뮤니티를 이어 남가주에 자리 잡게 된 환경은 바로 세 개의 축이 충족된 것이다. 바로 남가주대학교(USC)와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중심역할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1948년에는 주 나성총영사관을 개설하고 교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남가주지역에서는 대한인국민회뿐만 아니라 1919년에 세워진 대한여자애국단과 1929년 세워진 대한인동지회 그리고 유학생회 등의 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했다. 1962년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결속과 커뮤니티 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초기 이민 원로, 국민회와 동지회, 유학생회, 교계의 대표들이 모여 가주한인커뮤니티센터 설립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1902. 12. 최초 하와이 이민자 121명 제물포(인천) 항구 출발

1903. 1. 최초 이민자 하와이 도착 갤릭호 102명

1903. 2. 제2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캅틱호 63명

1903. 3. 제3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코리아호 72명

1903. 4. 제4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니흔마루호 113명

1903. 10. 한인감리교선교회 창립

1903. 8. 신민회 조직

1904. 2. 러일전쟁 발발

1904. 11.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1904. 6. 제5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캅틱호 130명

1904. 7. 제6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몽골리아호 176명

1904. 8. 제7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캅틱호 154명

1904. 9. 제8차 이민자 하와이 도착 몽골리아호 152명

1905. 5. 멕시코 유카탄 이민 출발 1,033명

1905. 7. 테프트–가쓰라 각서 협정

1905. 4. 공립협회 창립 (안창호, SF)

1905. 12. 대동보국회 설립 (패서디나)

1905. 12. 을사조약 체결

1905. 12. 공립협회 래드랜드지부 설립

1906. 3. 공립협회 LA지방회 설립

1906. 4.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발생

1906. 5.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창립

1907. 7. 한인합성협회 조직 (24단체)

1907. 10. 미국, 경제공황 (은행 패닉)

1908. 5. 한국부인회 조직 (밀리사 김)

한인센터는 김호 씨와 최진하 씨를 모금위원으로 선출하고 모금을 시작하여, 다음 해에 2525 W. Vernon Ave. Los Angeles, CA 90008에 한인센터 건물을 구입하였다. 한인센터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가 미국 이민법 개정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새 이민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며, 1975년에 현 한인 회관을 새로 구입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이민법 이후의 남가주한인사회

현재의 남가주 한인사회 형성은 1965년 린슨 B. 존슨 대통령이 개정 이민법 서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24년 아시안 이민 금지법으로 묶여 있던 한인 이민이, 신이민법 개정으로 한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다양한 그룹의 이민자들이 유입된 결과이다. 신이민법에 따라 한국인에게 배당된 이민 쿼터는 연 2만 명이었다.

그 첫 그룹은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다. 가족 초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초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제활동이 용이하고 한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남가주 지역으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 및 간호사 출신들의 미국 이민자들이다. 당시 7,936명의 광부와 간호 요원과 기능공들을 정부 차원에서 독일에 파견했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독일에 잔류할 수 있었는데, 그중 중에 일부는 미국 이민을 선택했으며, 남가주는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매력적인 이주지가 되었다.

세 번째 그룹으로는 한국 기업의 미주 지상사 직원들이다. 1970년대에 이후 한국의 공업화가 진행되고 80년대에 이르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에서 가까운 태평양 연안의 거대도시로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직원 가족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이유로 미국에 정착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본격적인 제3 이민 시대가 열리면서 전문인, 의료인, 기능인, 종교인, 투자 이민자 등 다양한 그룹의 한국인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을 찾을 때 일단 서울에서 직항편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들어왔다. 이 시기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08. 7. 애국동포대표회 소집 (덴버)

1909. 2. 국민회 조직

1909. 5. 멕시코 메리다 국민회 설립

1910. 5. 대한인국민회 통합
(국민회와 대동보국회)

1910. 8. 한일병합조약 체결

1911. 10. 신해혁명 발발 (청나라 멸망)

1913. 5. 흥사단 조직

1913. 대한부인회 조직

1913. 12. 연방준비제도(Fed) 설립

1914. 7.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4. 대한광복군 정부수립

1917. 한인부인회 조직

초기 남가주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대한인국민회'가 하였다면, 후기에는 '남가주한인회'가 주도하였다. 남가주 한인회는 1965년 5월 1일 한인센터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조용삼 박사, 부회장에 김하태 박사와 김창하 박사, 총무 이경동 씨, 그리고 21명의 이사를 선출하였다. 한인센터를 지원하여 활성화 시킴으로써 교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남가주한인회는 계속 변천하여 1968년 한인센터와 통합을 시도하고 '남가주한인거류민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일본식 명칭이라는 의견이 많아 1972년 정관 개정을 통해 '남가주한인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 이후 남가주에 지역한인회들이 발족하게 되자, 1982년 7월 13일 '로스앤젤레스한인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인회는 사회 분야에서 상공회의소는 경제 분야에서 남가주 한인 사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 형성의 특징

남가주지역이 한국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사회로 성장한 이유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장점은 국토가 2개의 대양을 끼고 있다는 점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이후 대영제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해양 진출을 통해 영역을 넓혀 나갔다. 미국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철강 산업과 조선업을 기반으로 패권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미국 산업 구조의 변화는 로스앤젤레스가 고속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대륙횡단철도를 완공했다.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까지 1,756마일 구간을 6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다. 이로써 태평양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선의 보급을 담당하는 군수 및 각종 공업이 들어서며 발전하였다. 뉴욕이 대서양 진출의 중심지라면 로스앤젤레스는 태평양 진출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지중해성 기후로 사철 온화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로스앤젤레스는 1848년 미국에 양도되기 전까지는 멕시코 알타 칼리포니아의 수도였다. 때문에 히스페닉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따라서 풍부한 노동력을 지녔으며 직업 창출의 기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572만 명으로 뉴욕주 다음으로 제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꾸준한 인구 증가의 결과 1963년에 이르러 뉴욕보다 171만 명이 많은 명실공히 미국 제1위에 올라섰다. 뉴욕 대도시권(New York metropolitan area)은 뉴저지 일부와 코네티컷 일부를 포함한 미국의 최대 도시권으로 약 2,500만 명이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은 5개 카운티의 인구가 약 2,600만 명으로서 뉴욕을 앞서고 있는 미국 최대의 노동시장이다.

남가주는 지정학적이고 자연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각종 산의 발달은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와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한국인들에게는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용이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한국인 사로 성장했고, 해외 교민사회를 대표하게 되었다.

1917. 러시아혁명 발발
1918. 1. 윌슨, 민족자결주의 선포
1919. 3. 3. 1 만세운동
1919. 3. 대조선독립단 창설 (박용만)
1919. 4. 대한부인구제회 조직
1919. 8. 대한여자애국단 조직
1919. 신한부인회 조직
1919. 부인친애회 조직
1919.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 8. 대한여자애국단 창단
1919. 8. 한인친우회 조직 (1,000명)
1920. 1. 국제연맹 창설
1920. 4. 샌프란시스코 한인학생 총회
1921. 7. 대한인동지회 조직
1922. 3. 국민회, 대한인교민단 개편
1922. 12.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2 LA 한인타운 건설

세월을 거르러 올라가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창립될 당시의 한인타운 모습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상공회의소 창립의 당위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가 1977년 최초로 발간한 '미주생활정보'에 따르면, 1940년대 남가주지역에 산재한 한인 업체는 70여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수가 무려 4,000여 개 업체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이민법 발효 후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르게 한인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1923. 9. 동경대지진 발생(조선인학살)
1924. 5. 아시안 이민금지법 통과
1924. 9. 나성대한인교민단 조직
1925. 3. 상해임시정부 이승만 탄핵
1928. 1. 스탁턴 한인공제회 조직
1929. 6. 쿠바한인천주교회 설립
1928. 9. 플레밍, 페니실린 발견
1929. 9.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 9. 세계경제대공황 발발 (Black Tuesday)
1930. 12. 제15회 인구센서스 조사 (한인 1,810명 집계)
1930 소련, 대기근 발생
1931. 9. 만주사변 발생
1931. 1. 미주한인연합회 조직(리들리)
1933. 뉴딜정책 (금본위제 폐지)
1936. 8. 손기정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코리아타운의 시작

한인들의 거주지로 60년대까지는 제퍼슨 블루버드와 버몬트 에비뉴가 교차하는 USC 부근이었다. 주변에는 대한인국민회와 제퍼슨 장로교회 그리고 동양식품점, 식당으로는 고려정, 왕관, 한일관 등이 있었으나 한인타운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서독 광부 출신 이희덕 씨가 1970년 올림픽과 하바드 코너에 올림픽마켓을 오픈하며 주춧돌을 놓았다. 옆에는 김진형 씨가 서점을 오픈하고 사진관도 입점하면서 이곳은 한인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다. 게시판에는 친구를 찾는 쪽지와 직장을 구하거나 아파트를 구할 때도 이곳을 찾아 정보를 얻었다.

1937. 7. 중일전쟁 발발

1939. 9.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0. 2. 일본식 창씨 개명 강요

1940. 9. 한국광복군 창설

1941. 8. 대서양헌장 발표

1941. 12. 진주만 기습 공격 발생

1942. 10. 조선어학회 사건 발생

1943. 11. 카이로 회담

1943. 8. 조선건국동맹 결성

1944. 브레튼우즈 체제 체택 (고정환율제도)

1945. 2. 얄타 회담

1945. 7. 포츠담 선언

1945. 7. 미국, 원자폭탄 개발

1945. 8.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복투하

1945. 8. 8.15 광복

1945. 9. 미군정 실시

그는 일본 식품 도매상에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야채를 들여오고, 한국에서는 젓갈류와 미역, 김 등 수산물을 가져다 팔았다. 미화 50달러를 들고 미국에 들어와 10여 년 만에 3천만 달러를 벌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했을지 놀라울 뿐이다.

코리안 빌리지를 꿈꾸던 그는 북쪽으로 8가, 남쪽으로 11가, 동쪽으로 버몬트, 서쪽으로 웨스턴을 경계로 하는 코리아타운 설립계획을 수립했다. 마켓을 통해 돈이 모아지자 코리안 빌리지 건설에 착수하였다. 1975년 제1차 사업으로 그가 계획한 청사진의 한복판에 영빈관을 세웠다. 한국에 직접 나가서 청기와 1만 장을 들여오고 한옥 단청 장인들을 초빙하여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완성했다. 한국적 정서가 풍기는 영빈관은 한인들의 연회장소로서 결혼식, 생일잔치, 각종 축하 모임과 비즈니스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미국의 정치인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영빈관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그는 2차 사업으로 우선 인근 5개 블록을 사들였다. 코리안 빌리지 건설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로 VIP 플라자 빌딩을 건축하여 40여 개 업소가 입주한 한인 상가 시대를 열었다. VIP 플라자 역시 청기와를 사용해 한국의 정서가 한눈에 들어오는 건축물이었다. 한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주었고, 타민족들에게 한인들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제3차 사업으로 VIP 호텔 건립에 착수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 중도 포기해야 했다. 그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올림픽 거리에 한국을 상징하는 코리언 게이트를 세우길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희덕 씨가 꿈꾸며 시작했던 코리안 빌리지는 한인타운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고, 훗날 몇 배의 크기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성장하였다.

1945. 10. 국제연합(UN) 창설

1945. 1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설립

1946. 3.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의

1947. 3. 국제통화기금(IMF) 설립

1947. 3. 트루먼 독트린 선언

1947. 6. 마셜계획 공포

1948.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11. 주나성총영사관 개설

1948. 12. 주한 미군 철수 시작

1948. 12. 세계 인권 선언

1948. 12. UN, 대한민국 승인

1949. 1. 한미 수교

1949. 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설립

1949. 6. 주한 미군 완전 철수

1950. 1.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1950. 6. 6.25 한국전쟁 발발

한인업체 활발한 창업

올림픽 대로와 8가에 한인업소들이 하나, 둘 생겨나며 자연스럽게 한인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중에 '김방아간' 도 초기 코리아타운 상징의 하나였다. 김명한 씨는 1966년 이민 가방에 떡 기계 4대를 가지고 와서 떡집을 시작했다. 1969년에는 한인들이 모이는 웨스턴으로 자리를 옮기고 1973년에 이르러 현재의 올림픽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가 한 일은 떡을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향의 맛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고향의 정도 필요함을 깨달은 그는 방앗간 한 켠에 올림픽 노인회 간판을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다.

한인타운에 중국식당으로 아서원과 중원루 정도가 다였다. 그나마 한인들의 입맛과 다른 중국식이었다. 짜장 소스가 없어서 미소 소스로 짜장면을 만드는 형편이었다니 가히 짐작이 간다. 이후 1974년에 왕덕정 씨가 중앙일보 구사옥 건너편 올림픽 거리에 기린원을 열면서 정통 한국식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연이어 왕궁, 소왕궁, 금정식당, 용궁을 개업하며 한국의 맛을 한인들에게 선사하였다.

하이소사이어티는 임윤영씨가 1967년 한인타운 형성기에 한인이 문을 연 첫 번째 맞춤 양복점이다. 그는 디자이너나 재단사가 아님에도 미적 감각을 지닌 사업가로서 한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도 성공했지만,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영화 의상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헐리우드 영화가와 명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며 영화, TV, 연예인 의상 전문 양복점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기업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여 주로 알콜 중독자, 마약중독자, 전과자 등 재생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기술을 가르쳐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있다.

남가주에 한인으로서 첫 번째 개업한 의사는 양순택 박사이다. 1969년에 김창하 박사가 라브레아와 헐리우드에 개원하여 당시 한국말을 구사하는 의사를 겨우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1952년 미군 수송선을 타고 미국으로 유학 온 그에게 비쳐진 미국은 심각한 인종 차별의 현장이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전차가 나녔는데 백인과 유색인종이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고, 식당도 백인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었으며, 병원에는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입원실이 따로 있었다.

1950. 7. 한미행정협정 조인

1953. 7. 한국전쟁 정전협정 조인

1953. 10.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1955. 11. 베트남전쟁 발발

1956. 11. 한미통상우호조약 조인

1957. 3. 유럽공동체(EC) 발족

1957. 3. 소련우주선 스푸트니크 발사 (세계 최초)

1957. 5. 리들리한인재단 설립

1959. 중국, 대기근 발생 (수천만명 사망)

1960. 4. 4.19학생의거 발생–남가주 한국유학생회규탄대회

1960. 5. 재미한민족대동단결 촉진위원회 구성

1961. 3. 미한시민기구(AKCO) 조직

1961. 4. 소련, 최초유인우주선 발사

1961. 5. 5.16 군사정변 발생

1961. 6. 한미경제협정 체결

그가 LA에서 인턴과정을 하고 있을 때, 1962년 당시 LA 총영사가 찾아와 한인들이 보험이 없어 치료받으러 갈 곳이 없으니 한인들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LA에 개원하였다. 그가 진료 중 만난 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은, 당시 열악한 한인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게 된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

한인업소들이 올림픽 가를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며 한인타운이 형성되어가는 시기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늘어났다. 1970년 3월 주 라성총영사관이 주최한 LA 주재 수출상사지사장 회의에 40여 개에 달하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인 시장이 커지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한국의 은행으로서 제일 먼저 한국회환은행이 미국에 진출했다. 한국외환은행은 1967년 7월 3일 나성지점을 개설하고 김용권 씨를 초대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1974년 9월 현지법인 '가주외환은행' 을 설립하여 남가주 최초의 한인 은행으로서 출범하여 주류 은행의 높은 문턱과 언어 장벽으로 고심하던 한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요즘 같으면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은행 지점장이 교회나 단체들을 방문하여 대출을 홍보했다고 한다. 금융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교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당시에 마켓이나 리커스토아가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때 은행 대출로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게 되어 성공한 분들이 있다.

한국 시중은행 중 최대규모를 자랑했던 신탁은행도 미국에 진출하여 로스앤젤레스에 서울신탁은행을 설립했다. 주요 업무로 신용장 업무, 무역금융, 송금업무를 실시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업무와 한인들의 본국 경제 교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1962. 3. 가주한인커뮤니티센터 설립

1962. 10.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

1962. 11. 나성한국무역관 개설

1963. 4. 한인센터 개관
(2525 W. Vermont Ave.)

1963. 11. 존 F. 케네디 대통령 피살

1964. 4. 오리앤탈 헤리티지
한인록 최초발간

1965. 5. 남가주한인회 창립

1965. 6. 한일기본조약 조인
(한일국교정상화)

1965. 10. 존슨, 케네디 이민법 서명

1966. 3. 브라운각서 체결

1966.5. 중국, 문화대혁명 발생

1966. 7. 한미행정협정(SOFA) 조인

1967. 6. 제3차 중동전쟁(6일) 발발

1967. 7. 한국외환은행 나성지점 개설

1968. 1. 남가주한인회, 한인센터 통합
남가주한인거류민회 출범

이민 사회 태동기였던 1960년대 말 한인사회에는 소식을 알려 줄 수 있는 일간지가 없었다. 한국일보는 정식으로 지사가 개설되기 4년 전에 LA 다운타운의 유태희 씨 아파트에서 본국지를 받아 한국 소식을 전했다. 정재구 지사장은 1969년 6월 9일 스튜디오시티 단칸 사옥에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 간판을 걸고 한국 복사판과 미국 현지판을 제작하여 발행했다. 1978년에는 한국일보 미주 본사가 설립되었으며, 최전성기에는 뉴욕을 비롯하여 미 전국 14곳에 지사 또는 지국을 두고 신문을 발행했다. 처음 200부를 찍어냈던 신문은 전성기 500만 부를 발행하는 미국 내 최대의 한인 신문사로 성장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의 성장과 코리아타운의 확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한항공이 서울 로스앤젤레스 간 하늘 길을 튼 것은 1971년 4월이다. 도쿄를 경유하는 화물 노선으로 시작하여 이듬해에는 승객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B-747 점보여객기를 띄울 정도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인사회단체 활성화

한인회나 전통적인 봉사단체 외에도 한인사회단체는 각 분야에서 조직 되었다. 1952년에 창립한 '나성미술가협회' (회장 위상학, 부회장 김봉태), 1965년에는 '연세대학교동문회' (회장 권희상 목사), 와 고려대학교 교우회' 도 창립되었다.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가 1971년 창설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간호사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분자 씨는 미8군 KSC 병원 간호과장, 대한적십자사 초대 간호사업국장을 역임하였다. 1969년 도미하여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그는 후배 간호사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 년에 두 차래 있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간호사협회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하루 2시간의 강의를 개설하고 수많은 간호사를 배출했다.

남가주한국학원의 시작은 1972년 동요 작곡가 권길상 씨가 20여 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무궁화학원' 이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성장하면서 한 때 등록 학생 2,5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남가주한국학원은 초기 이민 생활에 바쁜 학부모들에게

1968. 6. 한국일보 나성지사 개설

1968. 4. 포항제철 설립

1969. 7. 미국, 아폴로 11호 달 착륙

1968. 4. 마틴 루터 킹 피살

1969. 7. 닉슨(괌) 독트린 선언

1970. 7. 주한 미군 감축 시작

1970. 올림픽마켓 오픈

1970. 5. 남가주기독청년연합회 발족

1971. 닉슨, 달러-금태환정지 선언

1971. 1. 남가주한인교회연합회 발족

1972. 1. 남가주한인거류민회를
남가주한인회로 명칭 변경

1972. 4. 대한항공 여객기 LA 취항

1972. 7. LA시와 부산시 자매결연체결

1972. 11. 남가주한인회 한인록 발간

1972. 6.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

1972. 7.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큰 힘이 되었다. 처음에는 노래와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한 학원이었지만 한글과 한국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민족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종교단체의 중요한 역할

한국의 종교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교나 부족 전통 종교가 있는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인은 종교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매우 자유롭다. 그러나 높은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가 국가나 사회집단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자율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능동적이다.

한국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반드시 종교 시설이 세워진다. 그곳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 문화를 공유한다. 이것은 미국 이민 사회도 동일하여, 종파나 교파를 초월한 종교 문화적 결집력을 형성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하와이 노동자 이주는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인천 지역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미국 최초의 한인교회는 1903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세워진 한인감리교회이다. 10년 후인 1914년에는 하와이의 한인교회 수가 39개로 늘어났으며, 교인 수는 2,800명에 이르렀다.

초기 유학생들의 경우도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가능했기에 종교적 색채를 많이 띠었다. 더구나 미국은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 문화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먼 이국땅에 와서 살면서 외로움이 더해졌고, 일에 바쁘다 보니 정기적으로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교회였기에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1973. 3. 베트남전쟁 미군철수

1973. 8. 브레들리 LA시장 8월 15일 한국독립기념일로 선포

1973. 10. 제1차 석유 파동 발생

1974. 8. 닉슨 하원탄핵결의 후 사임

1975. 11. LA한인회관 개관

1976. 킹스턴 체제 체택 (변동환율제도)

1979. 1. 미국과 중국 국교 수립

1979. 제2차 석유 파동 발생

1980. 1. 카터독트린 발표 (페르시아만 군사 조치)

1980. 5.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1982. 7. 남가주한인회, LA한인회로 명칭변경

1985. 9.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 교류

1985. 9. 사우디, 석유 대규모 증산 (6개월간 4배)

1985. 9. 플라자 합의 체결 (환율조정)

남가주에도 1904년 미국 본토 최초의 교회인 나성한인감리교회 (현, LA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지고, 1906년에는 제퍼슨장로교회(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중국인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차리고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한인 인구가 증가하는 비례로 남가주지역 한인교회가 급증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나성한인침례교회(김동명, 1957년), 동양선교교회(임동선, 1970년), 나성영락교회(박희민, 1973년), 나성한인교회(김의환, 1976년) 등이 초기 창립된 교회들로서 대형교회로 성장하며 한인사회의 안정화에 영향을 끼쳤다.

남가주지역에서는 1971년 범 교단 연합체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조직하고 이민교회의 리더쉽과 사회참여에 일조하였다. 남가주지역의 한인교회는 2019년에 정점을 찍어 3,468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1969년 성아그네스한인천주교회가 설립되었다. 남가주 천주교 사제협의회에 속한 교회는 19개 성당이 있다. 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의 국교로서 지위를 가지고 성행하였다. 조선은 유교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억불정책을 시행했으나, 백성들 여전히 불교를 신봉하였다. 그러기에 불교는 유교와 함께 한민족에게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주에서 한국 불교는 1964년 펜실바니아에 최초로 사찰(고성 스님)을 개원한 것을 효시로 한다. 최초의 한인 이민이 이루어졌던 하와이에는 1975년 대원 스님이 대원사(현, 무량사)를 창건하였다. 남가주에는 1972년 정달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하였으며 1975년부터 도안 스님이 이끌었다.

1973년 숭산 스님이 달마사를 창건하여 제자인 계정 스님을 초대 주지로 위촉하였다. 원불교는 한국에서 발흥한 종교로서 천도교(동학)보다 늦게 출발하였으나 현재 한국의 4대 종교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에는 1972년 이제성 교무가 로스앤젤레스에 파견되어 법인 인가를 받아 원불교 LA교당이 시작되었다.

코리아타운 공인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완성은 정부와 주류사회로부터 공인받는 것이다. 코리안 빌리지를 꿈꾸며 코리아타운의 시작을 주도했던 올림픽마켓과 이희덕 씨가 있다면, 코리아타운을 꿈꾸며 평생을 몸 바쳐 일구어낸 코리아타운 번영회와 김진형 씨가 있다. 이희덕 씨가 외형적인 면에서 기여했다면, 김진형씨는 내면적인 면에서 기여하였다.

1986. 4.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1987. 10. 블렉 먼데이 발생
(주가 대폭락)

1988. 미국, 종합무역법 시행

1988. 9. 88 하계 서울올림픽 개최

1989. 2. 라디오코리아 개국

1989. 6. 천안문 사건 발생

1989. 6. 동유럽 혁명 발생 (폴란드)

1989. 10. 노태우 대통령 LA 방문

1989. 11. 베를린 장벽 붕괴

1989. 12. 몰타회담 (부시, 고르바조프)

1990. 8. 걸프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

김진형 씨는 유학생으로 도미하여 미국에 정착하고 올림픽 거리에 한국 서적센터를 개업하였다. 그는 코리아타운 건설을 꿈꾸며 첫걸음으로 '한글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한인 겨우 약 5천명에 몇 개 되지도 않은 한인 상가에 한글간판달기 운동 을 시착한 것이다.

차이나타운이나 리틀 도쿄에는 그들의 문자로 쓰여진 간판이 있는데, 우리도 한글 간판을 붙여야 한인타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72년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조직하였다. 코리아타운 번영회라는 이름에서 처음 코리아타운이 등장한 것이다. 남가주한인회가 존재했지만 커뮤니티 봉사단체와 별도로 코리아타운 건설을 목표로 한인들의 조직적인 힘을 모으기 위함이었다.

올림픽 거리를 중심으로 한인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무렵인 1974년 코리아타운 번영회는 코리안 퍼레이드를 만들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우리의 소리를 내어 미국 땅에 한국문화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첫 퍼레이드에 200개의 태극기를 준비해서 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금세 동이 나고 말았다. 이 행사는 경찰 집계로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룬 감동적인 행사로 남아있다.

드디어 1981년 미주한인사회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로스앤젤레스에 코리아타운이 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코리아타운 행정 경계가 발의되어 통과됨으로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공인되었다. 2013년 '김진형박사광장' 이라는 표지판이 올림픽과 버몬트 교차점에 세워졌다. 그의 코리아타운 건설을 위한 열정의 마침표로 남아있다.

3 LA 한인상공회의소 창립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태동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50년간 남가주 한인사회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1971년 당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첫 삽을 뜨는 과정이었다. 급속히 늘어나는 한인업소들로 한인 상권이 형성되며 코리아타운의 면모를 갖추어 가자 한인상공회의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인 업계는 당시 인기 산업인 가발업소가 각 지역에 산재하며 한인 비즈니스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가발업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할 정도로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발업소의 팽창은 고질적인 과당경쟁과 덤핑 등의 상행위 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또 다른 한인들의 주력사업으로는 떠오르는 봉제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봉제업은 의류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재봉을 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의류생산업이다. 봉제 기술자 구하기가 어려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다반사였다.

한편 미국 경제는 1960년대 말까지 호황을 보이더니, 1970년에 들어서 스테그플레이션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이 찾아왔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달러-금 태환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악화시켜 많은 기업들은 도산하고 가계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황을 타개하고 성장하는 한인 커뮤니티 경제질서 안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몇몇 상공인들이 뜻을 같이하였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거리에 위치한 한영식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포 실업인 상호 간의 권익옹호와 사업의 촉진 및 상공인들의 단합을 위해 발의한 것이 본 회의소의 설립 계기가 되었다.

1990. 9. 한국과 소련 국교 수립
1991. 3. 로드니 킹 사건 발생
1991. 3. 엠파이어마켓(두순자) 사건
1991. 6. 존스마켓(박태삼) 사건 발생
1991. 9.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10. 한흑기독연맹 결성
1991. 11. 아시아나항공 LA 노선 취항
1991. 12. 소련 해체
1992. 4. LA 4.28 폭동 발생
1992. 5. LA 한인 평화대행진 거행
1992. 8. 한국과 중국 국교 수립
1993. 1. 한인최초 김창준 미연방하원 진출(캘리포니아 제41지구)
1993. 8. 대전세계박람회(EXPO) 개최
1993. 9. 한국 금융실명제 실시
1993. 11. 유럽연합(EU) 창설
1994.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 1. 노스리지 지진 발생

1995. 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1995. 7. 한국, 지방자치제도 실시

1995. 4. 역 플라자 합의 체결
(화폐평가절상요구)

1995. 5. SAT II 한국어 채택

1996. 12. 한국, OECD 가입
(29째 국가)

1997. 7. 영국이 중국에 홍콩 반환

1997. 12. 한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1998. 6. 김대중 대통령 LA 방문

1998. 11. 금강산 관광 시작

1999. 1. 유럽연합 유로화 도입

1999. 9. 재외동포특례법 제정

2000. 6. 최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김대중, 김정일)
"6.15 남북공동선언"

2000. 12.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가발 사업과 한인 경제

가발 사업은 한인 커뮤니티가 경제적 기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이민 초기의 유일무이한 사업이었다. 가발이 없었다면 한인들이 경제적 기반을 쌓기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고생도 훨씬 많이 했을 것이다.

가발 사업은 자본금이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마진이 높아 수익율이 좋았다. 이민을 왔건 유학을 왔건 많은 사람들이 가발에 손을 대어 이땅에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당시 가발 사업은 한인 커뮤니티로 돈이 흘러들어 오는 젖줄이었다.

가발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전설적인 인물로 김시면 씨가 있다. 매일 들어오는 돈을 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1960년대 당시에 인모를 사용해서 만든 가발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수요가 급증하자 그는 인조 가발을 개발하여 한국에 공장을 짓고 직접 만들어 왔다고 한다.

가발 사업이 돈이 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가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가발 사업이 번창하면서 한인들끼리 경쟁이 심해졌다. 같은 가발을 이 집에서 100달러에 팔면, 옆집에서는 90달러에 팔고, 하나 건너 옆에서는 80달러에 파는 것이었다. 동족끼리 피 흘리는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가발 사업은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뷰티 써플라이 사업으로 발전하였고, 뷰티 써플라이 사업은 아직도 미 전국 각지의 효자 사업으로 한인 경제에 큰 몫을 하고 있다.

2001. 3.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1. 9. 9.11 테러 발생
(뉴욕 세계무역센터 붕괴)

2001. 10. 아프카니스탄 전쟁 시작
(테러와의 전쟁)

2002. 5. 2002 한일월드컵(FIFA)
개최

2003. 1. 미주이민100주년기념식
거행 (하와이)

2003. 3. 이라크전쟁
(이라크 자유작전)

2006. 11. 노무현 대통령 LA 방문

2006. 11. 차병원 헐리웃장로병원 인수

2007. 1. 아이폰, 스마트폰 출시

2007. 4. 세계금융위기 발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 10.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무현, 김정일)
"10.4 남북공동선언"

2007. 10. 남가주 대형산불 비상사태

2008. 11. 강석희 어바인 시장 당선

2009. 1. LA 올림픽 경찰서 신설

봉제 사업과 한인 경제

봉제 사업은 가발 사업과 함께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산업이다. 한인 의류산업의 선봉에는 봉제업이 있다. 봉제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서 영어가 서툰 초기 이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경제 기반이 된 봉제업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자바시장을 배경으로 한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우크라이나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맨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는 "LA에 가면 이대 출신 이 바느질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인력이 집중하였다.

봉제업에 종사하는 한인 중에는 옷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한국인들은 금방 기술을 습득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한인들은 봉제업, 의류생산업, 의류도매업, 나아가 의류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의류업계의 강자로 우뚝 섰다.

한인 의류업계 파생 사업으로 스왑밋 영업이 있다. 스왑밋은 원래 건물 외부의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중고 물품을 파는 아웃 도어 시장 이었다. 그런데 한인들은 건물 내부에 '인도어 스왑밋' 이라는 상설 시장을 만들고 자바시장에서 생산되는 의류를 싼값에 팔기 시작하여 한 때 특수를 누리기도 하였다.

봉제 업계는 지난 1992년 폭동 이전까지 성장세를 거듭하였으며 2000년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에는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시장의 의류 사업과 봉제업은 여전히 오랜 세월 한인타운의 젖줄로 남아있다.

2009. 9. 다트머스대 김용 총장 취임

2010. 1. 아이티 지진 발생(30만 사망)

2011. 1. 다니엘유 첫 한인 장군 탄생

2011. 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014. 1. 오바마케어 실시

2014. 11. 중국, 일대일로 표방

2017. 8. 보훈처, 독립운동가 발표
(미주지역 229명)

2018. 2.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2018. 4.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 5.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 8.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2018. 6. 북미정상회담 개최(싱가폴)
2019. 2. 북미정상회담 개최(하노이)
(김정은, 트럼프)

2019. 6. 남북미정상회동(판문점)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2018. 11 영김 미연방하원 진출
(캘리포니아 제39지구)

2019. 1.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다양해지는 한인 경제

가발 사업과 봉제 사업이 한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가발산업이 초기 한인 경제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면 봉제산업은 한 인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인들이 가발과 봉제 및 의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인타운에 유입되면서 타운경제가 살아나고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 단단해지게 된 것이다.

한인 경제 규모가 커지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인구의 팽창을 들 수 있다. 1968년 남가주 한인 인구가 1만여 명이었던 것이 2년 만에 2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새로운 주거지와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한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였다. 올림픽 대로에 많은 사업체들이 생겨나며 한인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인 상가는 올림픽을 벗어나 웨스턴 길을 따라 북상하여 3가를 넘어 한인 가구거리가 형성되고, 8가에도 한인업소들이 입점하기 시작하였다.

인구 증가에 따라 실생활에 필요한 마켙, 식당, 미용실, 세탁소, 주유 소, 리커스토어, 자동차 정비소, 안경점, 인쇄소, 여행사, 가구점 등 다 양한 사업체들이 개점했다. 부동산, 보험, 회계사, 변호사, 병원 등 전문 직업체들도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한인들의 사업 성장의 증인이라면 공인회계사(CPA)일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인타운 인근에는 김종관, 이영일, 김성철, 조용직 씨 등 불과 네 명의 공인회계사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활동 중인 CPA가 500여 명에 달한다니, 한인타운의 경제 규모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발기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는 이교숙 씨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68년부터 가발 사업을 시작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한인들끼리 지나친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는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칙을 입수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회칙을 정리하

2019.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발생

2020. 5.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2020. 미셸 스틸 미연방하원 진출 (캘리포니아 제48지구)

2021. 7. 알래스카 강진 발생 (8.2도)

2021. 8.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2021. 9. 오커스(AUKUS) 동맹 결성 (호주, 영국, 미국)

2022.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 10.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2024. 3. LAPD 첫 한인 국장 탄생 (제58대 국장 도미니크 최)

당시 한인경제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가발 사업과 봉제 사업, 부동산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논의에 들어갔다. 남가주 한인사회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점에 상공인들의 사업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였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창립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준비 모임을 가졌다. 첫 번째 모임은 1971년 3월 3일 한영식당에 김중정 외 7인이 함께했고, 3월 10일에는 13명이 2차 모임에 참석하였다.

발기추진위원으로 김중정, 김종식, 김경진, 김시면, 김영권, 남궁봉, 박규현, 배기성, 소니아 석, 이교숙, 이용, 정화섭, 조지 최 이고, 이교숙 씨는 발기위원 겸 사무관장을 맡았다.

드디어 3월 28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힐튼호텔 대원각에서 36명의 실업인들이 참석하여 가칭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발기위원회는 4월 15일,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회원모집을 시작하였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창립

역사적인 창립총회가 1971년 6월 7일에 5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센추리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총 25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정관을 채택하여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의 창립을 선포하였다. 초대 회장에 김중정 씨를 부회장에 조지 최 씨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김중정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여, 상의는 6월 30일 다운타운 힐튼호텔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회장에 조지 최, 부회장에 최태범, 이사 11명, 감사 2명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최초의 사무실을 유니언 은행 빌딩(3810 Wilshire Bl. #1101 LA, CA 90010) 설치하였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정관
(제1차 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남가주 한인상공회의소라 칭한다.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Southern California)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로스앤젤레스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 및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상공인의 친목 및 상호협조, 상업정보의 상호교환, 권익의 상호옹호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회개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로 정한다.

제5조 (정관)

1. 본 정권의 원본은 본회 사무국에 필히 비치하고 본 회원은 한시라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2. 본 정관의 계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정관은 총회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나. 본 정관은 제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다. 본 정관 개정 절차는 기존 정관과 개정조항을 비교 명시하여 총회의 경우 회원들에게, 이사회의 경우 이사들에게 개정 여부 투표 2주 전까지 배부해야 된다.
   라. 통과된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고 정관 원본에 첨부 보관한다.
   마. 부결된 개정안은 동일 회계년도 내에 재심할수 없다.

제6조 (회의 진행) 모든 회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개회사
2. 국민의례
3. 귀빈소개
4. 경과보고(사무국장)
5. 재무보고
6. 업무보고(회장)
7. 위원회 업무보고
8. 미결사항
9. 사업계획
10. 차기회의 통보 및 폐회

제7조 (회의의 성립)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8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만료 2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0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둔다

1. 정기 이사회는 월례회로 한다.
2. 임시 사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7인 이상의 이사의 동의로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해산) 본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해산 시 본회의 모든 기능은 중지되며 납부된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은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해산 당시의 모든 자산은 타 한인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11조 (회원)

1. 본회는 남가주지역 내에 영업 및 사업소를 두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법인 및 자연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 자로서 구성한다.
2.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3.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의 납부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 (회원의 사임) 회원의 사임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거쳐 이를 행한다. 단, 미납된 회비는 징수되며 기납된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

제14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본회의 목적 및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예산 및 결산) 집행부는 예산 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1. 회장 1인을 둔다. 회장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으서 본 회 이사직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3인을 둔다. 부회장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이사 및 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로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사무국장은 모든 사무 집행과 재정 관리를 관장한다.

제18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주관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2. 부이사장 1인을 둔다.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3. 이사 31인을 둔다. 이사 입후보는 1년 이상 본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단은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갖는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정관의 유권적 해석 및 본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 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감사) 본회는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회장이 추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감사는 본회의 모든 사업 및 재정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선거)

1. 신임 회장단 선출은 선거년도 12월 중에 이사회에서 실시하며 입후보등록은 선거일 1주일 전에 소정의 입후보등록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선거한다.
3. 이사장단은 새로이 구성된 신 이사회의 첫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임기) 모든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보궐선거) 임원 및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 및 이사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모든 선거에 있어서 회비 미납자는 선거 또는 피선권을 가질 수 없다.

〈부칙〉

제1조: 본회의 운영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정관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창립기 활동

제1대 (1971)

제2대 (1972–1973)

제3대 (1974–1975)

제5대 (1976–1977)

제6대 (1978–1979)

제7대 (1980–1981)

Koreatown

부채춤

1

한인사회의 기둥

코리아타운 건설의 주역 조지 최 회장

초대회장 조지 최

1971. 3. 상의 발기 1차 준비 모임

1971. 3. 상의 발기 2차 준비 모임

1971. 3. 상의 발기인대회

1971. 4. 상의 창립총회 개최 공고

1971. 6.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창립
정관 채택(전문 25조 칙)
회장 김중정 선출
부회장 조지 최 선출

1971. 6. 회장사임, 임시총회 소집
회장 조지 최 선출
부회장 최태범 선출

1971. 6. 사무실 개설
3810 Wilshire Blvd. #1101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지 최 씨는 남가주 지역에서 최초로 부동산업을 시작한 한인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한 그는 고려대학교 정법대를 재학 중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육군본부에서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53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Azusa Pacific University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Bank of America 근무하던 그는 1962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코리아타운 건설에 기여한 인물로 앞서 이희덕 씨와 김진형 씨를 소개했었다. 그들과 비견할 만한 공로자들로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창립에 앞장선 조지 최 회장과 소니아 석 여사가 있다. 당시 한인 부동산 업계를 양분하고 있던 두 사람은 코리아타운이 올림픽에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그들의 안목이 크게 작용하였다.

올림픽 대로는 길이 넓고 주차가 편리한 이점이 있었고, 당시에는 가격이 저렴하여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권유하기가 좋았다. 처음에는 후버와 크렌샤우 사이 군데군데 한인업소들이 들어서고 커머셜 빌딩이 나오면 구입하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중간에 자리한 노르만디 부근이 자연스레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올림픽을 중심으로 웨스턴 길을 따라 남북으로 팽창되며 한인타운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조지 최 사장이 국제부동산을 시작하고 얼마 간은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1967년에 들어서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국제부동산에는 35명의 직원으로 늘었고, 에이전트들이 밤낮으로 뛰어야 할 만큼 성업을 이루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미 주류언론들이 올림픽가의 이례적인 부동산 붐을 특집으로 다룰 만큼 이때부터 한인타운의 발전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인 타운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던 그는 1967년에는 남가주 거류민회 총무로 봉사하였다. 조지 최 씨가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여러 그룹의 경제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늠케 한다.

1971. 6. 한인경로회 창립

1971. 7. 재미한국체육인협회 결성

1971. 7. LA한국어린이합창단 창단공연

1971. 8. 남가주한인여행사협회 결성

1971. 8. 한인낙시회 발기총회

1971. 9. 나성한국교회음악인협회 창립

1971. 9. 재미한인회총연합회 발기총회

1971. 11. 연예인협회 창립공연

1971. 11. 남가주거류민회 회장 당선
조지 최 회장 사임

한미은행 본점 기공식

남가주한인거류민회 & 코리아타운번영회

조지 최 회장은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초대회장에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아 남가주한인거류민회 제5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당시 상공회의 회장 임기는 2년이었으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퇴임하게 된 것이다. 회장이 된 그는 거류민회는 일본식 표기라는 의견이 있고, 미주 여타지역에서 한인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이름을 남가주한인회로 환원하였다. 이후 남가주지역에 소지역 한인회들이 별도로 창립되면서 1982년 로스앤젤레스한인회로 개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는 1975년에 코리아타운번영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1977년에는 윌셔상공회의소 이사가 됨으로써 한인 최초 미주류 상공회의소 이사가 되었다.

코리아타운 건설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한인타운을 넘어 미주류 사회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상공회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한미은행 창설의 주역

조지 최 회장이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든 것은 1982년 창설한 한미은행이다. 교포들의 자본으로 교포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세운 은행이 처음 탄생한 것이다. 당시 외환은행은 한국의 은행이 미국에 진출한 것이고, 윌셔 스테이트 뱅크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합작한 은행이었다. 한인 주주 11명이 모여 순수한 한인 자금으로 한인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조지 최 회장은 한미은행 초대 이사장과 명예회장을 역임했다.

한미은행은 자본금 6백만 달러로 시작했지만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미주 한인사회에서 안정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앞장섰던 일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닦아주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2

이민사의 중요한 전기

제2대 회장 이 용

1971. 11. 제2대 회장에 이용 선출

1972. 1. 한국상사지사협의회 결성

1972. 2. 이사장에 양회직 선출

1972. 2. 사무실 폐쇄
회장 사업소로 이전

1972. 2. 기독교상담센터 발족

1972. 2. 나성의료건강서비스센터 발족

1972. 2.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발족

1972. 3. 가발수입업자협의회 결성

이용 회장 취임과 이사장 선출

회장의 임기는 당시 2년이었으나 조지 최 회장이 남가주한인거류민회(LA한인회 전신) 회장에 당선되어 사임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앞당겨 총회를 열고 제2대 회장에 이용 씨를 선출했다.

상공회의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인사회 현안들을 소화하기 위해 회장 단일체제에서 이사장직을 세워 이원화 체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양회직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코리안-아메리칸

새 회기가 시작되는 1972년은 미주 한인 이민사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찾아온 해였다. 1965년 케네디 이민법이 시작되고 2년 후인 1967년경부터 새 이민법에 의한 영주권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72년 한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에서 한인들의 위치가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땅에 소수자로 살아가던 한인들이 코리아타운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한인 커뮤니티는 법적인 뒷받침 속에서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코리안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코리아타운의 활기

남가주한인사회는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신속하게 타운의 형태 갖추어 갔다. 남가주한인회는 한인록 발간하였으며, LA시와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상의를 비롯한 각계인사 23명으로 구성된 한인회관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72. 4. 제1회 남가주미스코리아선발

1972. 4. 대한항공 태평양노선 취항

1972. 6. 남가주한국식품조합 창립

1972. 7. 정치협회(KAPA) 지부 결성

1972 7. 무궁화학원 개원

1972. 8. 제1차 모국방문단 (130명)

1972. 8. 미서부지역 태권도협회 결성

1972. 9. 남가주한인요식업조합 발족

1972. 10. 전국체전 처녀 출전
(단장 소니아석, 선수 14명)

1973. 1. 이민 70주년 기념행사
(하와이)

1973. 1. 코리아타운번영회 발족

1973. 3. 한글 간판 달기 캠페인 시작

1973. 6.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결성

1973. 6. 내분으로 상의 기능 정지

1973. 8. 선거관리 준비위원회 구성
이사회 개편

한국일보사가 주관하는 제1회 남가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다.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5광복절 경축 기념식 행사에는 곽규석, 신성일, 조미미 등 연예인들이 출연하였으며 2,500여 명의 교포들이 참석 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국과 교류도 빈번하여 대한항공 여객기 미주취항이 시작되었으며 LA 국제공항에서 축하 행사가 거행되었다. 한국에 홍수가 났을 때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의연금품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다.

남가주상공회의소는 초대회장이었던 조지 최 한인회장과 연대하며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행사와 봉사활동에 앞장 섰다.

대한항공 태평양노선 취항식

시대별 미주한인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사회의 내분으로 사실상의 상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었다. 창립 멤버들은 상공인들이라기보다는 한인사회 지도자들 중심이었다. 상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상공인들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기존의 리더 그룹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기성 씨 외 4명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발기인 중심 이사회에서 전 상공인 중심의 이사회로 체제를 개편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재건 활동에 들어 갔다.

3

재건 총회

제3대 회장 이학조

1974. 1. 남가주상의 재건총회 개최
회장 이학조 선출
부회장 이재덕 선출

1974. 1. 가주한국외환은행 가주 인가

1974. 4. 사무국장 제도 도입
사무국장 이재근 임명

1974. 5. 한국경제사절단(단장 박충훈)
환영만찬회 개최

1974. 5. 제1차 정관개정 시행
임원 21명으로 증원
부회장 3명으로 증원

1974. 7. 사무실 재 개설

개편된 이학조 회장 체제 출범

갈등을 수습한 상의는 문화회관 강당에서 재건총회를 개최하고 제3대 회장에 가발업을 하던 이학조 씨를 선출하고, 이어 부회장에 이재덕 씨를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은 상의의 새 출발을 위해 체제 개편 단행하여 먼저 상설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제도를 두기로 하고 이재근 씨를 임명하였다. 사무실도 2140 W. Olympic에 재개설하고 사무국장이 상근하게 하였다.

5월에 들어서는 이사회에서 제1차 정관 개정을 단행하였다. 정관 수정을 통해 임원의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부회장을 3명으로 보강하고 배효식 씨와 신용학 씨를 추가 선임하였다.

회기 중반에는 조지 최 회장에 이어 양회직 이사장이 한인회장에 당선되어 후임에 최희만 씨를 이사장에 남궁 봉 씨를 부이사장에 선임하였다. 상의는 75년 정기총회를 계기로 제2차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을 31명으로 증원하고 명예 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5명의 명예이사를 두기로 하였다.

한국과 교류 시작

한국무역협회 박충훈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상공회의소를 내방하였다. 박충훈 회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상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했으며, 한국무역협회 15대 회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후일 그는 신현확 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총리 서리,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사절단 환영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LA에 상사 지사를 두고 있었기에 이들을 격려하는 일과 미국 기업들을 돌아보는 임무를 띠고 온 사절단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가 한국 경제계와 유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1차 재미실업인 모국방문

이학조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재미실업인 모국방문단이 1974년 11월 27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무역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경제단체와 기업체를 탐방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이 방문 중 가장 특별한 일정으로 청와대 방문을 들 수 있다. 방문단 가운데는 상의 창립 멤버이며 한인회관건립위원장 소니아 석 여사가 함께했다. 모국방문단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은 석 여사의 수완이었다.

소니아 석 여사는 1948년 일찍 미국에 유학 중에도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걸이었다. 16세의 나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한국 최초의 여성운전자이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구호품을 모아 미 해군 함정에 실어 보낸 억척꾼이었다. 1961년 처음으로 시작된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1시간씩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기도 하였다. 일찍이 부동산업에 뛰어들어 한인타운 건설의 선봉에 섰던 그녀는 한국의 정치계와 경제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석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에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15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냈다. 한인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한인회 운영에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매우 컸다. 소니아 석 여사를 필두로 조지 최 회장 그리고 상의 이사장을 지낸 양회직 씨가 한인회장을 역임하는 등 상공회의소는 인제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재미실업인 모국방문단 사업은 이듬해인 1975년도에도 제2차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매년 실시하는 상의의 연례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재미실업인 모국방문단 청와대 방문

1974. 8. 상공인친목파티 개최
(상하이 식당)

1974. 9. 양회직 이사장 사임
최희만 이사장 선출
남궁 봉 부이사장 선임

1974. 11. 한국무역협회 초청 제1회
재미실업인모국방문단 방한

1975. 1. 75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2차 정관개정
임원 31명으로 증원
명예회원 도입

1975. 5. 교포사업지도 세미나 개최

1975. 5. 한인청소년회관 개관

1975. 5. 재미대한침구사협회 발족

1975. 6. 재미승마협회 발족

1975. 8. 기독실업인동지회 발족

1975. 8. 재미해병동지회 창립

1975. 11. 남가주한국신문기자협회 발족

1975. 11. 제2차 재미실업인모국방문단

1975. 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발족

5

상공회의소 기초를 세우다

제5대 회장 윤병욱

1975. 12. 제5대 회장 윤병욱 선출

1976. 2. 76년도 정기총회 개최
이사 18명 개선
이사 35명으로 증원
부회장 잔 최 선임
부회장 양원호 선임
부회장 한군석 선임
이사장 배효식 선출
부이사장 김종관 선출
사무국장 민태식 임명
상의 활성화 사업계획 통과

1976. 2. 사무실 이전(한인회관)

1976. 3. 감사 황한경 선임
감사 문성환 선임

윤병욱 회장과 신진 세력 진출

상의가 전 회기에서 재건되어 조직을 정비하고 신규 회원을 대폭 늘리는 가운데 젊은 신진 세력들이 대거 영입되었다. 신구 세력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치러진 제5대 회장 경선에서 신진 세력의 대표로 나선 윤병욱 씨가 당선되었다. 투표에 참여한 31명의 이사 중 16표를 얻어 상대 후보를 단 1 표 차로 누르고 신승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패배한 후보와 지지자들이 대거 상의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4대가 없는 이유는 당시만 해도 '4'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터라 3대에서 5대로 건너뛰었다고 한다.

상의 첫 경선으로 선출된 윤병욱 회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였다. 미국에 유학하여 브링햄 영 대학에서 언론학 석사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하였으며, 일찍이 흥사단원으로 활동하여 미주위원부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한미동포재단 이사장, LA지역 이민100주년 기념사업회 대표회장, 미주한인재단 총회장, 남가주한국학원 이사장,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미주 한인사회를 빛낸 상공인이다.

윤 회장은 고향 서산에 한미역사역사박물관을 만들어 오랫동안 모아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로 홍보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코리안-아메리칸

회장 재임 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윤 회장은 상공인에 의한 상의 중흥의 목표를 가지고 개혁에 나섰다. 그의 개혁은 상의가 상공인들의 친목 단체에 머물지 않고 교민들의 경제 활동을 선도하기를 원했다.

또한 한인사회의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 역할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교포들의 경제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먼저 총회를 개최하고 상의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편성하여 확정하였다. 또한 조직을 확대하여 18명의 이사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사를 35명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사업의 계획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홍보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농어촌지원분과위원회, 장학사업분과위원회, 세미나분과위원회, 기업융자알선분과위원회, 친목분과위원회).

윤 회장의 임기 동안에 추진된 사업을 살펴보면 그 다양함과 방대함에 놀라게 된다. 중요한 사업을 간추려 소개하면 첫째는 이민자들을 위한 경제 세미나, 둘째는 거시적 경제 활동을 위한 대외협력 사업, 셋째는 사업정보 전달을 위한 출판사업, 넷째는 회원과 교포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상의가 50년을 이어오며 계승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돕는 세미나

개혁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세미나를 통한 상공인의 전문화 작업이었다. 서독에 광부로 갔던 사람들 중에는 광부 경력이 전혀 없는 고학력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미국 교포들도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고학력자들이 많았지만, 상공업 분야에 문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 미국에서 상공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세미나를 전담할 특화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각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여 강의하였다. 첫 세미나를 1976년 3월 “중소기업자금 융자와 기업확장” 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13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세미나실은 한인회관 4층 강당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사업자금 은행융자에 관한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교포들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아메리칸 드림 성취의 일반적 기준은 당시로 매월 $5,000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영업체를 소유하는 것이었다. 무일푼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다음 날부터 일터에 나가서 남의 일을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교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1976. 3. 분과위원회 설치
1. 홍보분과위원회
2. 사업분과위원회
3. 재정분과위원회
4. 농어촌지원분과위원회
5. 장학사업분과위원회
6. 세미나분과위원회
7. 기업융자알선분과위원회
8. 친목분과위원회

1976. 3. 기업자금융자 및 기업확장 세미나 개최

1976. 3.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의 의정서 교환

1976. 3. 재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 체결

1976. 4. 무역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6. 5. 소기업경영 안내세미나 개최

1976. 6. 세무감사와 관련법률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6. 6. 남가주상공회보 제3호 발간 (3,000부)

1976. 6. 신임 총영사 및 무역관장 환영만찬회 개최

1976. 6. 교포사회 경제실태 조사착수 (46개 설문, 60개 항목)

1976. 6. 재미실업인친선골프대회개최
(81명 참가)

1976. 7. 자동차 써비스 사업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6. 7. 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모금만찬회 개최
($2,180.00 모금)

1976. 7. 일본 오사카 한인상공회
회장단과 업무협의회 개최

1976. 7. 상의 전임변호사 위촉
Morris Kastel
Eugene Samson

1976. 7. 상의 장학재단 설립

1976. 8. 부동산투자안내 세미나 개최

1976. 8. 이사장 배효식 사임
이사장 이정수 선출

1976. 9. 은행융자와 신용조회 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6. 9. 상의 기업상담실 개설

세미나		
회차	일시	주제
제1차	1976. 3.	중소기업자금 융자안내와 기업확장
제2차	1976. 4.	무역에 관한 안내
제3차	1976. 5.	소기업 경영 안내
제4차	1976. 7.	자동차 써비스 사업안내
제5차	1976. 8.	부동산 투자 안내
제6차	1976. 11. 11.	무역에 관한 세미나
제7차	1976. 12. 16.	소자본 투자기업안내 세미나
제8차	1977. 4. 20.	중소기업자금과 사업자금 융자안내 세미나
제9차	1977. 5. 19.	소자본 투자 사업세미나
제10차	1977. 7.	부동산 투자 안내
제11차	1977. 7. 27.	교포지원을 위한 특별강연회
제12차	1977. 9.	사업관계 법률 세미나
제13차	1977. 10.	교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현황과 그 전망

상공회의소 활동의 저변 확대

상의는 한인상공회의소가 자칫 한인들끼리만 협력하는 타운번영회 성격에 머무를 수 있는 초기 단계를 뛰어난 추진력으로 단기간에 뛰어넘었다. 한국경제사절단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경제계와 교류를 시작한 상의는 한국무역협회 초청 제1회 재미실업인 모국방문단 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계와 교류를 시작한 바 있다. 상의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60명으로 구성된 제3차 모국방문사업을 통해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76년 3월 26일 업무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교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협력 의정서의 내용은 재외동포 상공인의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쌍방 간의 사업발전 및 이해증진과 협력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8개 조항의 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서 싸인은 남가주상의 윤병욱 회장과 대한상의 태완선 회장이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인사들이 주로 회장을 맡았다. 태완선 회장은 2선 국회의원, 부흥부 장관,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대한중석광업 회장으로 재임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제9대 회장을 맡고 있었다.

1976. 9. 교포사회 경제실태조사 설문수집 완료 (총2,860매)

1976. 10. 대한상공회의소 태완선 회장 초청 조찬회 개최

1976. 10. 아세안서비스센터 사업관계 법률문제 담당자가 상의에 파견 근무 시작

1976. 11. 남가주상공회보 제4호 발간 (3,000부)

1976. 11. 일본 오사카 한인상공회와 업무협의 의정서 교환 및 자매결연 체결

1976. 11. 무역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6. 12. 상의 달력 500부 제작 배포

1976. 12. 소자본투자 기업안내 세미나 개최

1976. 12. 한국노인회 버스 구입 자금 지원

1977. 1. 77년도 정기총회 개최
이사 11명 보선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1977. 2. 남가주상공회보 제5호 발간 (3,000부)

방문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하였다. 국립묘지를 참배하였으며,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남가주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TV를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근교 백암단위조합을 방문하고 경운기 3대를 기증했으며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원자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재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다. 한국에 진출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미국상의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업가들과의 교류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통하는 소중한 체결이었다.

상공회의소의 대외협력 활동에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일본 오사카 한인상공회의소와의 자매결연이다. 모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를 방문한 임원진은 오사카 상의와 엄무협의회를 가졌다. 그것을 기화로 교류가 확대되어 1976년 11월에 남가주상의와 오사카 상의는 상호 업무협의 의정서를 교환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상공회보와 뉴스레터 발행

윤 회장은 언론인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판사업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 상의와 교포들이 함께 호흡하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꿈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갔다.

남가주상공회보는 년 2회 발행으로 회당 3,000부를 발간하였다. 또한 영문 뉴스레터를 창간하여 월간으로 200부를 발행하고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상의의 대외 관계가 확대되고 각종 사업 활동에 탄력이 붙으면서 교포사회와 소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상의가 주관하는 세미나 교포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이어서 이들에게 정기적인 정보전달 매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회보의 내용은 상의 활동 사항과 미국과 한국의 경제 동향, 금융과 보험에 관한 정보, 교포 사업 실태와 거래에 관한 정보, 주택 및 부동산 정보, 각종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교포들이 실물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1977. 2. 감사 배수열 선임
감사 필립 조 선임

1977. 2. 한국 민간경제사절단 내방 환영간담회 개최 (보나벤처호텔)

1977. 3. 제3회 재미실업인 모국방문 및 오사카상공회 예방

1977. 4. 중소기업 자금과 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7. 5. 소자본투자 사업안내 세미나 개최

1977. 5. 수도여자사범대학 초청 회장 내외 서울 방문

1977. 6. 남가주상공회보 제6호 발간 (3,000부)

1977. 6. 뉴스레터 영문월간지 창간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 (200부)

1977. 7. 부동산투자안내 세미나 개최

교포사회 경제실태조사

상의가 창립된 1971년 남가주 한인 인구는 경우 1만 명을 조금 상회하였고 올림픽가에 60여개의 한인업소들이 군집하는 정도였다. 1973년 2월 31일 코리아타운 번영회가 발족하면서 북쪽으로는 8가 남쪽으로는 올림픽가를 경계하고, 동쪽으로는 버몬트가 서쪽으로는 웨스턴가를 경계로 하는 코리아타운 구상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코리아타운 건설은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LA타임즈가 '20세기 문명에 물들지 않은 민속지대'라고 표현으로 소개할 만큼 미 주류사회가 주시하는 커뮤니티를 이룬 것이다.

상의는 한인 경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포사회 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76년 6월에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1777년 9월에 자료수집을 완료했다. 자료는 46개 설문과 60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진형기 박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의하면 코리아타운의 한인업소는 290개이며 그중에 80여 개가 올림픽 가에 위치하였다. 한인들은 3분의 1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운영경력은 2년 9개월이었다. 평균 자본금은 1만 1,900 달러로 업소의 73.4%가 5명 이내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한인 가정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로 월 1,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의 월평균 주거비와 식품비는 각각 200달러 선이었다. 주택 소유율은 27.9%로 나타났다.

미주생활정보 발간

제5대 윤병욱 회장은 임기 마지막 사업으로 '미주생활정보'라는 역작을 출판하였다. 미주 최초로 초기 이민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편찬한 것이다. 임기 초부터 원고수집에 착수하여 1977년 9월에 원고수집을 완료하고 편집에 착수하였다. 12월 20일 자로 발행된 이 책은 총 374쪽에 달한다. 레터 싸이즈에 2단 편집을 하였으며, 글자는 9포인트 작은 크기로서, 요즘 책으로 보면 700쪽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다.

총 10편으로 편성된 내용은 제1편 미국과 이민사회, 제2편 교포사회의 현황과 미래상, 제3편 미주생활정보, 제4편 미주생활경제, 제5편 미주기업정보, 제6편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제7편 미주생활수기, 제8편 미주교포의 사회경제실태, 제9편 이민을 위한 안내, 제10편 미주유학안내, 그리고 12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주 한인 사회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0만 명을 헤아리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다른 민족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미국 속에 자리 잡아갔다. 그러나 이민 초년생인 대부분의 교포들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미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민 정착을 위해 애쓰는 미주 동포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미국 이민을 꿈꾸는 본국 동포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책이 출판된 것이다.

미주동포와 회원들을 위한 복지

상의는 회원들의 친목과 대외 연대 및 커뮤니티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재미실업인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이후 지속적인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때로는 태완선 회장배로 치루어 한국과 교류하였으며, 교포사회단체 및 기관장초청 친선골프대회로 치루기도 하였다. 또한 한인 단체 및 기관장 초청 신년회를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리더로서 협력관계를 이끌어나갔다.

기업상담실 개설은 각종 경제 활동 세미나와 함께 교포들의 경제 활동과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매우 유익한 도움을 주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복지에도 힘을 기울여 한국노인회 버스 구입 자금 지원하고 코리안 페스티벌에도 예산을 지원하였다. 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모금만찬회를 상의가 직접 개최하여 총 $2,180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을 상의 장학재단 설립이다. 1976년 7월 상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2세들의 미래 지도자 양성과 모국 우수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상의가 50년을 지내오면서 꾸준하게 이어오는 장학사업은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1977. 7. 교포지원을 위한 특별강연회 개최

1977. 8. 제3회 재미실업인 골프대회 "대한상공회의소 태완선 회장배" 개최 (111명 참가)

1977. 9. 남가주한인상공인연감 (미주생활정보) 편집 착수

1977. 9. 제2차 장학금 전달식 거행 (토마스 김)

1977. 11. 대한상공회의소 태완선 회장 환영만찬회 개최

1977. 9. 총영사관이 주재한 상의임원 특별간담회 참가

1977. 9. 대미투자유치조사단 내방 환영만찬 간담회 개최

1977. 9. 사업관계 법률세미나 개최

1977. 9. 코리언페스티벌 행사 예산 지원

1977. 10. "교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현황과 전망" 발행 (김춘근, 진형기 박사 위촉)

1977. 11. 교포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초청 친선골프대회 개최

1977. 11. 대한상공회의소 태완선 회장 환영만찬회 개최

6

상의, 한인 사회를 리드

제6대 회장 이정수

1977. 12. 제6대 회장 이정수 선출
부회장 남기택 선임
부회장 정진선 선임
부회장 양효길 선임

1977. 12. 뉴스레터 영문월간지 발행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
(300부)

1978. 1. 한인단체 및 기관장 초청
신년회 개최 (42명 참석)

1978. 1. 78년도 정기총회 개최
회장단 취임
(엠버서더호텔)

1978. 2. 세무보고요령 세미나 개최

기업인 이정수 제6대 회장 당선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취임하는 형식을 취하였기에 전년 12월에 선출된 제6대 이정수 회장은 1978년 1월 정기 총회에서 취임하였다.

제6대에 이르러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단합된 활동을 주목하게 된다. 부회장으로 선임된 남기택, 정진선, 양효길 3인은 회장을 보좌하여 일사분란하게 각종 사업을 집행하였다. 이미 전 회기를 통해 학습되고 경험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매우 능숙하게 대처하였고 성과를 이루어 나갔다.

내부적으로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뉴스레터 영문 월간지를 발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재미실업인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에 치중하였다. 한국과의 교류에도 힘써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정수 회장은 그 공로가 인정되어 1979년 3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레일 위를 달리다

재건총회를 통해 이학조 회장의 개혁으로 젊은 피가 수혈되고, 신진 세력이 상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운영체계가 조직화 되었다. 이어서 윤병욱 회장은 조직을 확충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에 따라 상의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후대에 전승하였다. 마치 미국이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고,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개통한 것처럼 피나는 노력과 인내의 결과물은 후대가 누리는 축복이었다.

재건총회를 통해 이학조 회장의 개혁으로 젊은 피가 수혈되고, 신진 세력이 상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운영체계가 조직화 되었다. 이어서 윤병욱 회장은 조직을 확충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에 따라 상의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후대에 전승하였다.

마치 미국이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고,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개통한 것처럼 피나는 노력과 인내의 결과물은 후대가 누리는 축복이었다.

한인 단체 리더 역할

상의는 남가주 한인 사회의 중요한 현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과 꾸준히 교류를 증진하고, 미주한인 단체들과도 상호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였다. '재미실업인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은 상의는 '한인단체 및 기관장 초청 신년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한인타운을 이끄는 단체로 리더쉽을 발휘했다.

1978년 1월 초 다운타운 엠버서더호텔레서 열린 신년회에는 42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총영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장들과 한인회장 위시하여 많은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5월에는 '김용식 주미대사초청 교포지도자간담회'에도 상의 이사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의 책임있는 단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 의정서를 교환한 이후 양측간 교류가 활발하여 76년 대한상공회의소 태완선 회장은 LA를 방문하였다. 77년에는 제3회 재미실업인 친선골프대회는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배로 열릴 정도로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대회는 무려 111명이라는 숫자가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태완선 회장은 77년 2차로 LA를 방문하여 상의는 환영만찬회를 개최했다. 78년 3월 제5차 재미상공인 모국방문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본회 이사진 모두에게 감사패를 전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정할 만한 모범적인 상의로 부각되는 성과이었다. 78년 6월에 태완선 회장은 3차로 LA를 예방하였고, 상의는 하이야트호텔에서 환영회를 가졌다.

1978. 2. 남가주총학생회 후원
무료 세무보고서 작성 봉사
(478명)

1978. 2. 교포기업경영상담실 개설
매주 금요일 실시
(실장 진형기 박사)

1978. 3. 제5회 재미상공인 모국
방문단 방한

1978. 3. 인컴텍스 보고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8. 3. 남가주상공회보 제7호 발간
(3,000부)

1978. 3. 대한상공회의소가 본회 이사
모두에게 감사패 전달

1978. 5. 김용식 주미대사 초청
교포 지도자 간담회 참석

1978. 6. 수도여자사범대학 개최,
재미상공인자녀모국여름학교
(44명 보냄)

1978. 3. 대한상공회의소 태완선 회장
환영회 개최
(하이야트호텔)

1978. 6. 한미친선협회 후원,
교포위안의 밤(공연) 개최

1978. 7. 가주주립대학교 후원, 교포상공인 경영기술강습회 개설 (샌디에고, 3일간, 11명)

1978. 8. 대한상의 강승일 진흥부차장 초청, 상호협력 방안과 미주 통합 상공인 연합회에 관해 협의.

1978. 8. 대한상공회의소장배 상공인 골프대회 개최 (117명 참가)

1978. 8. 총영사관 추최, 무역진흥회의 본회 대표 참석

1978. 9. 대미투자유치단 본회 내방 간담회 및 알선 (13명 내방)

1978. 10. 교포사회 경영실태조사 발행 (2,000부 발행 배포)

1978. 12. 교포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초청 친선골프대회 개최

1979. 1. 79년도 정기총회 개최 김봉태 외 7인 이사 만료 마귀준 외 7인 이사 선임

1979. 2. 상공부장관 인솔 구매사절단 내방 교포지도자들과 간담회

1979. 3. 박진영 외 2인 이사 선임

대미 무역과 교포들의 한국 투자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했다. 이 기간 정부는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고,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 시켰다. 제2차 계획(1967~19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산업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 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3차 계획(1972~1976)은 성장 측면에서 중화학공업 건설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제시하였다.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민관이 협동하여 국제무대를 향한 대외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는 체제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었다.

정부차원에서는 상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미주지역에 파견하여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경제 사절단을 수시로 파견하였으며, 때로는 기업체 사장들이 참여하는 대미한국투자유치조사단을 파송하기도 하였다. 상의는 이들을 맞아 환영만찬회와 특별간담회를 통해 재미경제인 및 상공업체 대표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한국의 수출은 1970년 8억 8천만 달러에서 1973년 32억 5천만 달러, 1976년에는 57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76년 19억 4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수출증가와 자원의 자립도 제고 등으로 놀라운 고도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산업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교포들의 투자를 환영하였다. 이 정책은 비단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아니라 모국과의 유대강화라는 차원에서 장려되었다. 해외 투자의 최저한도는 20만 달러이나 교포들에게는 5만 달러로 인하하였다. 또 투자비율에 있어서는 50대 50의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교포들에게는 100%까지 특혜를 주었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교포들에게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었다.

상공의 날 국가 포상

철탑산업훈장 이정수 회장
대통령표창 이제호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김재경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김지수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김민호 이사

1979. 3. 제6차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10개 지역, 117명 참가)

1979. 4. 한미친선협회 태완선 회장
내방 업무협의 방안 논의

1979. 6. 가주주립대학교 후원,
상공인경영강습회 개설
(한인회관, 26명 참가)

1979. 8. 우정의 사절단교포위안공연
본회 주관
(쉬라인공회당)

1979. 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 주최
(134명 참가)

1979. 9. 중남미경제사절단 내방
교포경영인들과 간담회 개최
(베벌리힐튼호텔)

1979. 9. 법죄예방캠페인을 위한 범죄
실태조사 및 정부에 건의

미중수교와 오일쇼크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2년 2월 21일 국교 수립이 없는 중국을 방문하였다. 강경한 반공주의자 닉슨은 냉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었다. 중국의 마오쩌둥 또한 미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하였기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핑퐁외교의 결과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1979년 1월 1일 역사적인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미·중 수교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중국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즉각 경제특구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를 부여하였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초반부터 급증하였다.

세계는 1970년대에 2번의 오일쇼크를 경험한다. 제1차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시기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하였다. 제2차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던 팔레비왕조가 무너지고 최고정치지도자에 오른 호메이니가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원유 수출을 중단하여 일어났다.

석유 공급의 부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오일쇼크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어두운 장기 침체로 이어졌다.

미국은 소비경제 체제가 자리 잡아 생필품의 대량 수급이 필요한 구조이다.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렴한 생필품의 수급을 요구하게 되었고,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미중수교에 이어 발생한 오일쇼크는 악재인 것만은 사실이었으나 교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한중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으므로 13년 일찍 중국과 국제통상이 가능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초기에는 중국의 사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중국과의 무역은 교포 경제인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7

모범적인 리더

제7대 회장 장기열

1980. 1. 80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7대 회장 장기열 선출
부회장 마유진, 이원준,
한군석 선출
문창배 외 13명 이사 선출

1980. 2. 조찬회 개최
주제: 금시세 변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올림피안호텔, 42명 참석)

1980. 2. 세금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0. 2. 이사장 양효길 선출
부이사장 안종식 선출
감사 조용직 선출

1980. 3. 뉴스레터 영문월간지 발행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
(500부)

치과의사 장기열 회장 당선

제7대 상의 회장으로 치과의사 장기열 박사가 당선되었다. 한인으로서 미국 치과 면허를 취득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개업한 의사이다. 그가 의사로서 상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학조 회장 체제가 출범하며, 비즈니스맨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제도를 수정하여 전문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입한 신진 세력들이 6년여에 걸쳐 경험을 쌓아 이후 상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 것이다.

장 회장은 평북 용천에서 만석꾼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공산 치하를 벗어나기 위해 3.8선을 넘어 남하해야만 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4년간 근무하였으며 예편 후 1963년 도미하였다. 치과기공소에서 일했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빵 공장, UPS등에서 투 잡을 뛰었다고 한다. 외국인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대 편입 규정이 완화되자 로마린다대학교 치대에 편입해서 공부를 계속하여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는 1971년 3월 윌셔와 샌앤드류스 인근에 장기열 치과 간판을 걸었다. 치과는 개업 초기부터 환자들이 하루에만 50~60명이 몰려와서 활황을 이루었다. 대부분이 외국인 손님이었으나 소수의 한인 손님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난한 유학생이나 어려운 형편의 교포들에게 2달러, 3달러를 받고 치료해 주었다고 한다.

은퇴할 때까지 출장을 재외하고 여행 한 번 못가 볼 정도로 진료에 바쁜 생활을 하였지만, 어머니 소니아 석 여사의 봉사 정신을 보아온 그였기에 커뮤니티 봉사에는 누구 보다 앞장섰다. 1972년 한인회 이사를 시작으로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회장, 코리아타운번영회 이사장, 나우경제인협회 회장, 신우회 회장, 88서울올림픽후원회 부회장 등 오랫동안 수 많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였다.

상공의 날 국가 포상

석탑산업훈장 조영근 이 사
국무총리표창 양효길 이사장
상공부장관표창 남기택 이 사
상공부장관표창 배문빈 이 사
상공부장관표창 배수열 이 사

1980. 3. 제7차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1980. 4. 부동산투자요령 세미나 개최

1980. 6. 오사카한인상공회장 내방
상호업무협력방안 협의

1980. 7. 남가주상공회보 제8호 발간

1980.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 주최 (76명 참가)

1980. 9. 오사카한인상공회 임원 및
이사 22명 내방 간담회,
만찬회, 산업시찰 실시

1981. 1. 81년도 정기총회 개최
김호민 외 6인 이사임기만료
김호민 외 10인 이사선출

김종필 총재, 모국 방문단 환영 만찬

미 주류사회와 협력

상의 초창기 회장들은 유학생 출신들로 이중 언어권에 속한 분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주류사회로 교류를 확대한 것은 상의가 창립되고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윤병욱 회장이 교포들의 이민 생활 안내와 상공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나갔다면, 장기열 회장은 미국 속의 한인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시작된 한인들의 이민 러쉬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한인타운의 형태를 갖추어 주류사회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1974년 시작된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인들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미국 속에 코리안-아메리칸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첫해 몇 정치인들이 참석하더니, 제3회 퍼레이드에는 탐 브레들리 시장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드디어 1981년 로스앤젤레스에 코리아타운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8가에 코리아타운 파출소가 설치되어 한인 경관이 배치되고 한국어 안내가 실시되었다. 한국에서는 대민업무를 주로 파출소에서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어 준 것이다.

백인들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 이제는 한인 중심 커뮤니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인회와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상의는 우선 LA상공회의소와 연계를 맺고 그들과 자주 회의도 하며 정보를 교환하였다. LA시 정부와도 한인타운 개발과 경제 활동을 위해 조율을 쉬지 않았으며,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시의원부터 연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을 접촉하고 후원하였다. 장기열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아끼지 않았고 평가받고 있다.

대외협력 강화

일본의 오사카한인상공회와는 일찍이 자매결연을 맺고 1976년부터 교류가 시작되어 왕래가 빈번하였다. 1980년 9월에는 오사카한인상공회 이사들을 초청하였다. 임원 및 이사 2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맞아 간담회와 만찬회를 베풀고,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상공의 날 국가 포상

철탑산업훈장 장기열 회 장
국무총리표창 한군석 부회장
상공부장관표창 마유진 이 사
상공부장관표창 방미철 이 사
상공부장관표창 안이준 이 사

1981. 3. 제8차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64명 참가)

1981. 6. 상공인자녀 모국여름학교 (15일간, 24명 보냄)

1981. 6. 제1회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76명 참가)

1981. 10. 유병현 주미대사 주최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대표단 참석

1981. 11. 교포단체장 및 기관장 초청 골프대회 개최 (48명 참가)

1981. 6.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패한 한국대표팀 환영만찬회 개최

1981. 7. 제1회 전미교포체육대회 본회 배구팀 참가 3위 입상

1981년 8월에는 일본 동경한인상공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25명이 내방하였으며, 양측 회원들이 함께 산업시찰에 동참하였다. 일본은 4개의 큰 섬과 8개의 지방으로 구분한다. 1980년 당시 재일거류민은 약 65만 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약30만 명은 오사카가 위치한 간사이 지방에, 그리고 동경이 위치한 관동지방에는 약13만 명 정도가 살았다. LA가 미주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듯이, 오사카가 수도인 동경보다 한인들의 중심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타지방 상공회의소와 처음으로 알래스카한인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한인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이며, 1980년에 주 앵커러지 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한인들은 마켓, 식당, 세탁소 등 소규모 자영업뿐만 아니라 호텔 및 관광업, 그리고 무역업을 하고 있다.

또한 자매기관인 세종대학의 '미국 연수 학생 파견단'을 맞아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상공회의소와 세종대학은 MOU를 맺고 매년 세종대학 학생들이 미국 연수를 오는데 상의가 협력하고, 교포 상공인 자녀들을 모국 여름학교에 보내면 세종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대외협력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대내 사업 추진

상의는 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회원들과 한인 상공인들이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세미나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다. '세금에 관한 세미나'는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가 정확히 습득해야 하는 당년의 주요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부동산 투자 요령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인들의 재테크에 도움을 주었다.

회원들의 친목을 위하여 체육활동에도 적극성을 띠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제1회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제1회 전미교포체육대회' 에는 배구팀을 출전시켜 3위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자매기관인 세종대학과 MOU를 맺고 '교포 상공인 자녀 모국 여름학교' 학생들을 보냈다. 1981년 6월에 열린 프로그램에는 24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15일간 교육받고 돌아왔다.

1981. 8. 자매기관 세종대학 미국연수 학생파견단 환영만찬 개최

1981. 8. 동경한인상공회와 자매결연 체결

1981. 8. 알라스카한인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 체결

1981. 9. 오렌지카운티 주최 코리언 페스티벌 후원

1981. 9. 82~83 회장단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오승영, 장경, 한대식 이사)

1981. 10. 유병현 주미대사 주최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대표단 참석

1981. 11. 교포단체장 및 기관장 초청 골프대회 개최 (48명 참가)

모국방문과 정부포상

이학조 회장 임기에 시작된 재미 실업인 모국방문은 이후 계속 이어져, 미주 상공인들의 본국과 경제교류와 무역 증대가 매우 활발해졌다. 모국방문은 매년 '무역의 날' 행사에 맞추어 진행 되었으며, 우수 상공인들에게 주는 정부포상에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멤버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모국 방문에는 국립 현충원을 공식방문하여 참배하였다.

1980년 제7차 재미 실업인 모국방문 중 제17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에는, 석탑산업훈장 조영근 이사, 국무총리표창 양효길 이사장, 상공부장관표창 남기택 이사, 배문빈 이사, 배수열 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1981년 제8차 재미 실업인 모국방문 중 제18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에는, 철탑산업훈장 장기열 회장, 국무총리표창 한군석 부회장, 상공부장관표창 마유진 이사, 방미철 이사, 안이준 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국립 현충원 방문

남가주한인상공인명록

'남가주한인상공인명록 / 미주생활정보'는 한인 상공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상의가 발행한 두 번째 생활정보지이다. 1977년 처음 발행된 '미주생활정보'는 37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각종 이민 생활 정보를 수록하였다. 반면 1981년에 발행된 이 책은 상공인들이 관련 업체를찾거나, 일반인들이 필요한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성장기 활동

제8대 (1982–1983)

제9대 (1984–1985)

제10대 (1986–1987)

제11대 (1987–1988)

제12대 (1988–1989)

제13대 (1989–1990)

제14대 (1990–1991)

제15대 (1991–1992)

제16대 (1992–1993)

제17대 (1993–1994)

8

성장을 위한 준비

8대 회장 문창배

1981. 11. 정기이사회 개최
문창배 회장 선출

1982. 1.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제8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문창배**
부회장	**배석주, 오승영, 이의덕**
경영관리실장	**이청광**
타운문제연구분과위원장	**김옥규**
홍보분과위원장	**김광제**
정광개정분과위원장	**윤병욱**
포상분과위원장	**이영송**
회원복지분과위원장	**한대식**
상공인친목분과위원장	**양효길**
회원모집분과위원장	**장 경**

올림픽라이온스클럽 문창배 회장 당선

상의는 1981년 11월 20일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등록 1호는 회장 양효길, 부회장 마유진, 양원호, 윤창기 후보, 등록 2호는 회장 문창배, 부회장 배석주, 오승영, 이의덕 후보가 선거 등록을 하였다. 선거 결과 문창배 후보는 양효길 후보와 접전 끝에 4표 차로 승리하였다.

경선에 실패한 양효길 후보는 차기 9대 회장에 재출마하여 당선되 었다. 문 회장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라이온스 클럽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상의에 들어와 리더쉽을 발휘하는 공생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이민 역사가 그러했듯이 모든 것이 초기 단계였고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이민의 물결 속에 급속도로 팽창하는 한인사회는 새로운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때로, 단체의 운영에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러나 상의가 대체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라이온스 클럽 관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를 통한 인제 영입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더 높다.

문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미국에 유학하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에서 수학하였다. 학생시절 유엔학 생회 한국회장, 제13차 유엔학생회 세계총회 한국대표단 수석대표, 유엔 사무처 제1기 인턴십 수료하기도 하였다. 올림픽라이온스클럽 회장, 미주 상공인총연합회 회장, 민주평통 서부지역 초대회장, 로스앤젤레스시 Zoning Commissioner를 역임하였다.

문창배 회장은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다.

조직 구성

제8회 총회

상의는 1982년 1월 22일 올림피안호텔 챠리옷트룸에서 제8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마치 퐁 주총무처장관, 박민수 총영사, 양회직 한인회 재건위원장, 김동욱 상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97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전년 사업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서 16개 사업 분야의 1982년도 사업계획과 총 145,000달러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사장 선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1982년 2월 8일 올림피안호텔 올림픽홀에서 열려 36명의 이사 중 27명이 참석하였다. 이사장 선출 방식은 참석한 각 이사가 백지에 추천인을 기재하여 최다 3인을 후보로 세우고 다시 투표하여 1인을 선출하였다. 투표 결과 이정수 15표, 김호민 7표, 한군석 4표를 얻어, 이사장 이정수, 부이사장 김호민을 선출하였다.

모국 방문

제9회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제9회 재미상공인 모국 방문단은 문창배 회장을 단장으로 부단장 배석주, 오승영, 간사장 이청광, 고문 이정수 등 총 49명(달라스 6명, 아틀란타 2명 모함)이 1982년 3월 16일 대한항공 015편기로 출발하였다.

공식 일정으로 18일 태완선 전 대한상의 회장 초청 만찬, 19일 국립묘지 참배, 20일 상공인의날 기념식 참석, 22일부터 24일까지 영남지역 산업시찰(구미공업단지, 창녕공업기지, 포항제철, 울산 조선소)을 하였다. 25일에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외무부 및 경제 단체 방문, 26일 판문점 방문, 27일 국회 방문 만찬 참석하고 30일 뉴욕과 LA 대표단 회식을 가졌다.

상공인의 날 국가시상에는 국무총리표창 안종식, 강문웅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김정표, 김토마스, 김희영, 한대식 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제8대 이사회 조직

이 사 장 **이정수**
부이사장 **김호민**
이 사
김광제. 김옥규, 김토마스,
김호민, 명기태, 문창배, 박상규
박상협, 박시언, 박하명, 방미철
배석주, 신철순, 안종식, 양효길
오승영, 윤병욱, 윤원로, 윤창기
이영송, 이원준, 이웅목, 이의덕
이정수, 이청광, 장 경, 장기열
장길용, 장무웅, 조영근, 조의성
채희원, 한군석, 한대식, 허 경
황규태

1982년도 상공의날 국가포상

국무총리표창	**안 종 식**	이사
	강 문 웅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김 정 표**	이사
	김토마스	이사
	김 희 영	이사
	한 대 식	이사

1983년도 상공의날 국가포상

대 통 령 표창	**김 호 민**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오 승 영**	이사
	이 영 송	이사

1982. 1. 부인회 부설 직원훈련원 개소식 참석

1982. 1. 통일방안지지대회 참석

1982. 1. 재미무역협회 정기총회 참석

1982. 1. 상임고문단구성을 위한 회의

1982. 2. 정기이사회 개최 이정수 이사장 선출

1982. 2. 세금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2. 3. 제9회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1982. 3. 나성상사지사협의회 총회참석

1982. 3. 나성한국무역관 한국 기계 전시회 개관식 참석

1982. 3. 윌셔스테이트뱅크 이전 참석

1982. 4. 한미치과학술대회 참석

1982. 4. 한국학교 개교10주년 참석

1982. 4. 월간 뉴스레터 1,000부 배포

1982. 5. UA-Asia Institute Western Conference 참석

제10회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제10회 재미상공인 모국 방문단은 문창배 회장을 단장으로 부단장 오승영, 이청광, 지역단장 김호민, 간사장 장경, 고문 윤병욱, 이정수 등 총 69명이 참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남가주 24명, 시카고 13명, 뉴욕 11명, 워싱턴 6명, 애틀란타 6명, 하와이 4명, OC 3명, 콜로라도 2명, 달라스, 휴스턴, 시애틀 각 1명 이었다.

방문단은 1983년 3월 17일 출발하여 신라호텔에 투숙한 후 국립묘지를 참배하였다. 21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부포상으로 대통령표창 김호민 이사, 상공부장관표창 오승영 이사, 이영송 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영남지역 산업시찰을 하였으며, 25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를 방문하였다. 26일에는 새마을 운동본부를 방문하고 농촌 지원용 소 1마리를 기증하였다.

여름 학교

제4회 상공인 자녀 모국 여름학교

세종대학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교포를 위한 여름학교에 회원 자녀 41명(LA 31명, NY 10명)을 파견하였다. 세종여행사가 주관하고 사무총장의 인솔로 6월 26일 대한항공 001편기를 이용하여 출발하였다. 학생들은 세종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며, 체험 학습으로 전방 국군 위문, 산업단지 탐방 등을 하였다.창녕공업기지, 포항제철, 울산 조선소)을 하였다. 25일에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외무부 및 경제 단체 방문, 26일 판문점 방문, 27일 국회 방문 만찬 참석하고 30일 뉴욕과 LA 대표단 회식을 가졌다.

제5회 상공인 자녀 모국 여름학교

상의는 세종대학에서 매년 여름 실시하는 해외 '상공인 자녀 모국 여름학교' 에 회원 자녀 43명을 파견하였다. 학생들은 1983년 7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세종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1.5세와 2세들이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모국의 역사와 문화, 각종 체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의 꿈을 끼우는 계기를 삼고 돌아왔다.

1982. 5.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주최
향군창립기념일 참석

1982. 5. 이장우 외환은행 지점장 미팅

1982. 5. 서석준 전 상공부장관 초청
만찬 참석

1982. 5. 이태석 국회상공분과위원장
만찬회 참석

1982. 6. 상공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1982. 6. 교포지도자 간담회 개최

1982. 6. 상공인자녀 모국 여름학교

1982. 6. 월간 뉴스레터 발행 배포
(1,000부)

1982. 7. 죠지워싱턴대학교 주최
안보관계세미나 참석

1982. 7. 문공부장관 초청오찬회 참석

1982. 8. 기독교총연합회 주최
광복절조찬기도회 참석

1982. 8. 재미무역협회 주최
골프대회 참석

1982. 8. 올림픽라이온스클럽 주최
한인타운파출소 기금마련
골프대회 참석

세미나

융자 안내 세미나

'연방정부 중소기업자금 융자 안내 세미나'가 1982년 11월 18일 윌셔 하이야트호텔에서 개최되어 1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청 서부본부장 및 심판관이 연사로 나와 중소기업자금 출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품목별 세미나

상의는 품목별 세미나를 1983년 10월 20일 윌셔하이야트호텔 프라자룸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강의는 5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강은 사업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융자에 대해 올림픽은행 김영덕 부행장, 2강은 동업에 따르는 계약 체결 요령에 대하여 곽철 변호사, 3강은 동업에 따르는 자금 관리 및 세무 요령에 관하여 김강윤 공인계리사, 4강은 리이즈 계약에 따른 법률 해석에 대해 서동성 변호사, 법정에 비친 각종 계약 분쟁 실태에 관하여 박학도 법정 통역사가 강의하였다.

골프 대회

제2회 상공회장배 골프대회

제2회 상공회장배 골프대회가 1982년 6월 20일 그린리버 골프클럽에서 총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 목적을 한인타운파출소 후원기금 마련으로 정하고, 모금액 1,917.06달러를 6월 22일 윌셔경찰서장에게 전달하였다.

제3회 상공회장배 골프대회

제3회 상공회장배 골프대회가 1983년 7월 31일 발렌시아 골프클럽에서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 목적을 '한국학교 건축 후원 기금' 마련으로 정하여, 모금액 1,000달러를 한국학교에 전달하였다.

기타 사업

교포지도자 간담회

상의는 1982년 6월 17일 윌셔하이야트호텔에서 교민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전반적인 불경기가 교포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업계와 봉제업계가 과당경쟁하고 있다. 과당경쟁 지양 캠페인과 본국 진출 상사들의 교민 시장 진출과 교포업계의 문제점들을 논의 하였다.

OC타운번영회와 업무협약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와 오랜지카운티 타운번영회는 업무협력에 관한 의정서를체결하였다. 1982년 7월 14일 올림피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는 OC타운번영회에서 7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일규 경제담당영사, 장우상 무역인협회 회장, 신이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달윤, 언론인협회 회장 등도 초청되었다.

타임지 왜곡 보도 항의

주간 시사지 타지의 한인사회에 대한 왜곡 보도에 상의가 항의에 나섰다. 상의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진지한 논의 끝에 각자가 항의 서한을 보내는 방안, 단체 명의로 강력한 서신을 보내는 방안, 항의 대모 실시 등의 대안이 나왔다. 이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하고 박시언, 전주룡, 김용 3명의 이사를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항의 서한을 만들어 1983년 6월 24일 가주 지사와 LA 시장 등 총 11곳의 기관에 발송하였다.

1982. 11. 연방정부 중소기업은행 융자 안내 세미나 개최

1983. 3. 제10회 재미상공인 모국방문

1983. 6. 타임지 왜곡 보도 항의

1983. 6. 총영사관, 경제협의회 참석 모국상품 애용운동 건의

1983. 7. 제5회 상공인 자녀 모국 여름학교 파견

1983. 7. 마이크 루스 주하원의원 간담회 참석

1983. 7. 한인청소년회관 건립기금마련 쟈니 윤 쇼 참석

1983. 7. 제3회 상의회장배 골프대회

1983. 8. 한인단체 체육대회 참석

1983. 9. 대한항공 여객기 소련 만행 규탄시위 참여

1983. 10. 북한 만행, 랑군 외교사절 순국 추도식 참석

1983. 10. 품목별 세미나 개최

9

중국이 다가오다

9대 회장 양효길

1983. 12. 제9대 회장 양효길 선출

1983. 12. 한인비즈니스신문 좌담회 참석

1984. 1. 주간한국 이주간 새인물 인터뷰

1984. 1. 78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엠버서더호텔)

1984. 1. 한인 단체장 초청 신년회

1984. 2. 중소기업경영세미나 개최 (올림피안호텔)

치열한 회장 선거 양효길 회장 당선

상의가 한인 사회에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9대 회장 경선이 치열해졌다. 자천 타천으로 양효길, 이청광, 한군석, 이의덕, 배석주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 과열 기미까지 보였다. 상의는 이미 분쟁을 경험했고, LA한인회 회장 선거가 여러 해 동안 공전을 거듭하며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사태를 목격해온 터라 모두가 긴장하였다. 결국 전직 회장들이 막후교섭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양효길 후보와 이청광 후보로 압축되었다.

양효길 후보는 제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경험이 있으며, 오랜 기간 상의 활동을 한 것을 내세웠으며, 이청광 후보는 젊음과 참신성을 내걸고 도전하였다. 양 진영은 후보 등록 마감 전날 극적인 타결을 보고 양 후보를 단독 출마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중재의 내용은 "양효길 후보가 먼저 회장을 하고 이청광 후보가 이번에 이사장을 맡은 후 차기 회장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재 이후부터 상의는 이사장을 하고 다음에 회장을 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상의는 1월 11일 엠버서더호텔에서 84년도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황광한 LA총영사, 듀크 메지언 캘리포니아 주지사 특사, 엘레나 차오 교육감 등을 비롯하여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였다.

언론을 통한 교포들과의 소통

양 회장은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교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갔다. 당선자 시절인 12월 23일부터 한인타운경제신문과 신년 좌담회를 가졌다. 대담에 나선 양회장은 신년 경기 전망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교포들은 같은 직종이 많아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시장 영역을 외국인들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글간판 일색에서 벗어나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간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9대 이사회 조직

회 장	양효길	무역업
부회장	김 용	무역 및 건설
부회장	윤창기	약국, 스포츠용품
이사장	이청광	무역업
이 사	감 폴	봉제업
	권주혁	무역업
	김광제	인쇄, 출판
	김성철	각종 기기 제조
	김호민	식품업
	마유진	안경 및 화장품
	문창배	금융업
	박근창	요식업
	박상협	보석상
	박수영	컴퓨터, 요식업
	방미철	가구
	오승영	건물관리업
	윤병욱	무역 및 도매업
	이기명	무역 및 봉제업
	이병문	보석상
	이병일	악기점
	이영송	치과의사
	이용기	냉동기
	이육남	여행사
	이정수	금융업
	임 영	양복점
	장 경	여행사
	장기열	치과의사, 임대업
	전주룡	보험업
	조영근	차량정비
	최명광	무역 및 창고업
	한군석	부동산
	한대식	무역 및 보험업
	한현호	차량정비
	황규태	촬영 및 현상

이후 한국일보 목요특집판에는 '타운 상가의 간판 논쟁' 이라는 제목으로 지상 공청회가 있었다. 양 회장은 사업발전과 민족의식은 다른 차원이며, 상의회장 입장에서 볼 때 상품시장이 교민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않되고 주류사회에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4년 새해를 맞아 주간한국 이 주간 새 인물 인터뷰에서는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정보교환, 세미나 개최, 상공회보 발간 사업을 진행하겠다. 또한 화합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 단체 지원과 교류 등 융화에 역점을 두겠다" 고 밝혔다.

양 회장은 한인비즈니스신문 창간 1주년기념 특별좌담에 출연하여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은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유행을 따라 남들이 하는 사업을 따라 하다 보니 과당경쟁을 하게 된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3 세계권을 향해 시장을 확대해야 할 때가 왔다" 고 역설했다.

나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상공회의소 문호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며 상공회원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을 4가지로 소개했다. 회원 사업에 대한 법률문제 등 본회의 지원, 본국의 상공업계와 유대를 통한 정보제공, 우수업체에 대한 본국 정부의 표창 등을 말했다. 그리고 모든 단체 들과 연대 의식을 갖고 화합을 이루는 단체가 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95년에는 코리아타운 불황 타개를 위한 경제 단체장 좌담회에서는 장기적인 불황 탈피는 세계 정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0년대 호경기에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투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포들이 많은 것 같다. 타운에 쇼팅몰이 많이 늘었는데 한인들만 상대하지 말고 외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중공 시장을 잡아라

미중 수교가 1979년 이루어지고 중국은 꾸준한 개혁개방정책을 펼치며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것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경제 체제로 대변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다.

뉴욕타임지는 북경발 기사로 "중공은 북한과의 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같이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한국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 두 나라는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화평관계를 이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한중수교가 턱 앞에 다가온 느낌을 받게 하였다.

1984. 2.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지역계를 위한 브리핑 참석 (양효길, 조용직, 문창배)

1984. 2. 정기이사회 개최 (윌셔하이야트호텔)
부회장 윤창기 사임
부회장 양미철 선임
부회장 마유진 선임
이사장 이청광 선출
부이사장 오승영 선출

1984. 3. 양효길 회장 한국일보 지상공청회 참가

1984. 3. 제8대 문창배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1984. 4. 중국 춘계광동교역전 참관 (대표 10인 중국정부초청)

1984. 5. 양효길 회장 한인비즈니스 신문 특별좌담 참석

1984. 6. 교포자녀초청 여름학교 참가 (세종대학)

1984. 7. 상근부회장 김용 선임 (사무 관장 및 감독직)

1984. 7. 한,중,일 상공회의소 대표 협력 회의 개최

1984. 10. 대한상공회의소 100주년 기념식 참석

한편 상의는 한국인들이 한국을 통해서 중공과 교류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함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이 먼저 죽의 장막을 열고자 했다. 상의는 4월에 중국 광동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 의사를 타진 위해 김용 부회장을 중공에 파송하여 관련 고위 인사를 만나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이육남 이사가 주 중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별도의 접촉을 통해 참가 의사를 전달하여 일이 성사되었다.

박람회는 춘추로 4월과 9월에 열리며 중공의 상품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외국 상품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역사적인 첫 방문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추계박람회에 양 회장을 비롯한 8명이 참가하였다. 춘계대회에 이미 초청받았으나 중장비 전시회인 관계로 생필품 전시회가 열리는 추계로 연기했던 것이다.

중공 방문 보고회에서 중공이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 달간 박람회 참관과 중국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합작투자 및 교역 분야에 가능성을 타진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도 방문하여 조선족들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들로부터 투자 제안도 받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의에 중공에 대한 정보안내센터를 상설하고 대 중공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초청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진발 경제개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무역개발단이 방미하였다. 의학, 전자산업, 농수산계 대표들로 구성된 이들은 관계 산업체와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또한 연변대학교 부총장 김중천 교수와 허용율 교수 일행을 맞아 환영회를 베풀고 두 해외 동포 사회가 교류를 넓혀가기로 하였다.

교포 상공인 실태조사

남가주 한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편람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뒷받침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에 통계자료로 제시하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혜택을 받게 하고, 언론과 학계의 연구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1985. 1. 85년도 정기총회 개최
(영빈관)
문황산 이사 선출
최진길 이사 선출
로버트리 이사 선출

1985. 3. 노인회관건립후원회 창립
(모금담당 부회장 양효길)

1985. 3. 이사회 개최
박찬호 감사 선임
안소니김 감사 선임

1985. 5. 남가주상공회보 제12호 발행

1985. 6. KTE 사태 대책위원회
한인단체장 회의 참석

1985. 7. 교포상공인 실태조사 착수
(총책 오문성 박사)

1995. 7. 불황 타개를 위한 좌담회
양효길 회장 참석

1985. 7. 연변대 부총장 일행 내방
환영만찬회 개최

1985. 8. 교포상공인 실태조사 발표

1985. 9. 중국 한인교포무역개발단
(단장 장진발) 미국초청
환영만찬회 개최

마유진 부이사장과 김광재 이사가 기획하고 칼스테이트 LA대학 오문성 박사를 총책으로 세워 착수에 들어갔다. 총 30문항의 설문지 3,000장 인쇄하여 10명의 한인 대학생들을 조사요원으로 체용하고 방문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1,593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는데, 자가 경영 55%, 소매업 48.5%, 서비스업 34.1%, 업체별 매상 연 20만 불 이상이 42%, 가구당 수입 2만 4천 불 이상이 54%, 자택 소유 39%로 나타났다.

조사분석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교포들의 사업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장분석 능력 부족, 언어장애, 과당경쟁, 운영자금 조달난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LA 카운티 사업체 25.3%가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인업체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4회 상공회장배 골프대회

'제4회 상공회장배 골프대회'가 1984년 9월 30일 불룩사이드 골프클럽에서 총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 시상으로 '참피온' 배석주, '매달리스트' 전주택, 'A조 1등' 박양종, 'A조2등' 홍기창, 'A조3등' 유의상, 'B조1등' 김영중, 'B조2등' 이병문, 'B조3등' 임운영, '장타상' 김윤성, '근접상' 이일훈, '부비상' 김인홍 이상 11명이 수상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100주년 기념식

상의는 매년 3월 실시하는 재미상공인 모국방문을 포기하고 1984년 10월 31일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참가자는 양효길 회장과 방미철, 마유진, 오승영, 이육남, 소냐석, 백금제, 황기선 총 8명이다. 이들은 이에 앞서 중국 추계박람회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10

미국에 한국 심은 상의

이청광 이사장에서 회장으로

상의는 이사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이청광 이사장을 선출했다. 단독 출마한 이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박근창, 이용기, 이영송 3인의 부회장도 인준하였다. 이청광 회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1969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칼스테이트 LA에서 강사를 하였다. 홍콩 상하이은행 국제부에 근무하던 그는 무역회사 아메리코 인더스트리를 설립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 과일 미국 수출 1호로 한국산 배를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LA한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제10대 상의는 1985년 12월 17일 오후 6시 30분 앰버서더호텔 베네시안 룸에서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 회장은 넓고 깊은 불황의 늪을 화합으로 극복하자며, 탈교포사회 미국사회 진출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상의를 한인비즈니스 실질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본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증가 및 재정확보, 단체건강보험 및 수익사업추진,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타 소수민족과의 협력, 상의 15주년 편람 발간, 한인타운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회장 이청광

제10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이청광**
부회장 **박창근, 이영송, 이용기**
운영위원회 **김성주**
타운활성화 안전위원회 **임문환**
홍보세미나위원회 **브라이언 정**
타커뮤니티관계위 **에리카 김**
문화체육위원회 **임길배**
국제교류사업위원회 **정주현**
정관 및 상벌위원회 **스티브 김**
사업개발위원회 **한동호**
회원영입 복지위원회 **박종만**
회원친목위원회 **앤소니 김**

제10대 운영위원회 조직

이사장 **한군석**

이 사

강덕휘, 강태흥, 김성철, 김광재
김호민, 마유진, 문병길, 문왕상
문창배, 박근창, 박상협, 박수영
박용선, 박찬호, 방미철, 서영석
심재강, 안병구, 오승남, 윤창기
이병일, 이영송, 이용기, 이육남
이응목, 이정현, 임 영, 장 경
최진길, 한군석, 한대식. 한형호

오사카 한인상의 투자협의

오사카한인상공회의소와의 교류는 1976년 업무협의 의정서를 교환하면서 일찍이 시작되었다. 오사카상공회는 당시로 창립된지 33년째이고 회원만도 1,500명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이다. 그동안 상호 방문 교류와 무역 정보 공유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사카상공회 산업시찰단은 장두희 회장을 단장으로 22명으로 편성되어 뉴욕과 워싱턴을 거쳐 LA에 들렀다. 환영만찬에는 20여 명의 이사들과 김기수 LA총영사, 이준식 LA무역관장도 참석하였다.

장두희 회장은 해외 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서로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재일교포들은 대미투자에 관심이 크다. 오사카 지역에는 약 30만 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또한 많은 교포 사업가들이 있는데, 보다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교포들에게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0년 전부터 해외투자를 시도해온 재일교포 실업인들은 재일투자협회를 설립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재일투자금융과 신안은행을 설립하여 해외투자를 원하는 교포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이날 양 상의는 앞으로 합작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사카상공회의소 장두희 회장 일행과 함께

컬버시티 '손기정의 날' 선포

1986. 1. 대한민국 국회 상공위원회 양경자 의원 간담회

1986. 3. 제13회 상공의날 참가

1986. 3. 탐 브레들리 LA시장 주지사출마 기금만찬 참석

1986. 3. 제1회 LA마라톤 참가

1986. 6. 부동산투자 세미나 개최 (150 여명 참석)

1986. 6. 코리언피플 표지 모델 이청광 회장 인터뷰

1996. 7. 아시안 엑스포 '86 후원 (LA컨벤션 센터)

LA 마라톤 대회와 송기정 옹

로스앤젤레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제1회 LA 마라톤대회에 한인 커뮤니티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1986년 3월 9일 열리는 대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상의는 이용기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LA 마라톤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준비에 나섰다. LA 마라톤 조직위원장 윌리엄 버그는 상의를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윌리엄 버크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5천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회를 보다 다체롭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라톤 선수들이 통과하는 소수민족 커뮤니티마다 민속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1등에게는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 왕복 항공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상의 LA 마라톤 준비위원회는 코리아타운 통과지점인 올림픽과 크렌셔 교차점에 준비되는 공연장에서 한국민속예술단을 출연시키기로 하였다. 윤창기 이사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한인들의 유니폼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메이저 언론의 올림픽 중계를 통해 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8월에는 컬버시가 '손기정의 날'을 선포하고 50년 만에 드디어 한국 육상의 아버지 손기정 선수의 이름과 국적을 되찾았다. '올림픽마라톤기념비'가 서있는 컬버시티 재향군인회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손기정 옹은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여 일제하에서 민족혼을 일깨운 영웅이다.

1996. 7. 총영사관 외환은행 한인타운 이전 촉구 이사회 결의

1986. 8. 총영사관 외환은행 한인타운 이전 촉구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 참석 (우래옥)

1986. 8. 한인타운 단일선거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회관)

1986. 8. 브라질한인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 체결 (우래옥)

1998. 8. 컬버시티 올림픽 기념비 손기정 선수 국적 정정식

1986. 8. 한인단체장 8.15 경축 모국방문 참가 (26명)

부동산투자 세미나

상의는 1986년 6월 6일 KTE 3층 강당에서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택이나 사업체 매매에 관심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미나에는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럭키부동산 한군석 대표의 사회와 서부부동산 강중환 대표, 국제부동산 로버트 리 대표, 아주부동산 샘 정 대표, 스탠리언 모기지 신유진 부사장 등이 강의에 나섰다. 집 장만 요령, 한인타운 발전 전망, 수익성 부동산 평가요령, 부동산 융자 방법 등에 관해 강의 하였다.

브라질한인상의와 자매결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와 브라질한인상공회의소의 자매결연식이 1986년 8월 11일 우래옥에서 개최되었다. 양측 상의 회원 40여 명이 함께 모여 상호간의 상공업 발전과 지역경제 개발을 도모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져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브라질 이민은 지난 1962년 농업이민으로 시작하여 4만여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다. 매우 큰 특징으로 교포들의 85%가 의류 제조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LA 자바시장에 브라질의 의류 제조 기술과 자본이 많이 투자되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브라질 상의 박자홍 회장은 남미와 북미를 대표하는 한인 경제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제교역과 우호증진에 박차를 가하자고 하였다. 이날 김기수 총영사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미국과 브라질의 상공인들이 국위선양에 앞서달라고 당부하였다.

1986. 8. 한인단체장 8.15 경축 모국방문 참가 (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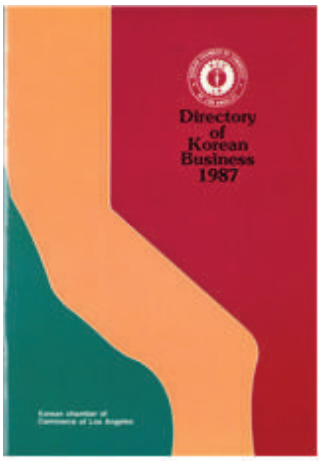
1986. 8. 코리아타운 단일선거구 위한 한인단체 기자회견 참석

1986. 9. LA국제마라톤 코리아타운 통과 결정

1986. 9. 이청광 회장 칼스테이트LA 대학총장 자문위원 위촉

1986. 9. 코리아타운 종합개발위원회 결성

1986. 10. 상의 제15주년 기념식 개최 시연회관)



코리아타운 조성에 앞장서다

날로 성장하는 한인 사회를 계획적으로 다듬어 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한인 사회 단체들은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의 구획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다. 먼저 상의는 '코리아타운 재개발계획'에 대한 한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인단체들은 9월 11일 우래옥에 모여 '한인타운종합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상공회의소와 한인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함께한 위원회는 장기적 안목에서 코리아타운 조성과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리아타운 구역은 일단 8가와 올림픽가, 버몬트가와 웨스턴가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그런데 코리아타운 조성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였다. LA 총영사관과 가주외환은행 본점 건물을 이 구역 안에 유치하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이들 기관과의 갈등이 커졌다. 상의를 비롯한 종합개발위원회는 모든 언론을 동원하고 한국 정부에 탄원하여 이를 관철시키려 노력하였다.

또 하나의 이슈는 한인타운 단일선거구이다. 일명 알라토레 수정안은 한인타운을 3개의 선거구로 갈라놓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코리안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었다. 상의와 한인회, 한미연합회는 8월 4일 세종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시의회가 열리는 30일에는 LA 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알라토시안이 불합리함을 알리는 대규모 시위도 하였다. 그럼에도 시의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탐 브레들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시의회는 3차 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말았다. 커뮤니티의 결속과 정치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였다.

Directory of Korean Business 1987

상의는 영문 사업체 주소록을 만들어 한인들과 타 커뮤니티에 배포하였다. 이전에 두 차례 발행한 안내서는 한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발행된 영문 사업체 주소록은 타 커뮤니티 한국 사업체를 알리는 홍보용이다. 총 246쪽이며, 1,300여 개 한인업소와 300여 개의 한국 지상사 주소가 실려있다.

11

꽃마차로 한국을 알리다

제11대 회장 한군석

1986. 12. 제11대 회장 한군석 선출

1987. 1. 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개최

제11대 한군석 회장 취임

신임 한군석 회장은 제10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사에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미국 특파원으로 도미하였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특파원을 그만두고 칼스테이트 훌러턴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는 졸업 후 부동산을 시작하고, 올림픽라이온스클럽 활동 중에 상의에 가입하게 되었다. 상공회의소 초기 34살 나이에 가입하여 30년 가까이 활발하게 상의 활동을 하였다. 자신을 상공회의소 1세대의 막내라고 소개한다. 상공회의소 초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군처럼 봉사해 온 시절을 보람으로 느끼는 상의 맨이다.

상의 회장에 이어 럭키부동산 사장,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 LA 올림픽라이온스클럽 회장,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 남가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남가주 인천고등학교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11대 회장 이취임식은 1997년 1월에 거행되었다. 한 회장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상공회의소가 있다. LA한인상의는 하나의 브랜드인 셈이다. 공공단체를 이끌어 가려면 공익에 관심을 두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사심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상공회의소 사무실 이전

회장을 맡기 전이나 이후에도 상의 행정에 깊게 관여하였던 한 회장은 장래 상공회의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 주소는 2986 W. Olympic Blvd. 올림픽과 놀만디 코너의 은행 건물 2층이다.

한인회관 건물의 아주 작은 사무실로는 증가하는 업무를 소화해 내기 힘들고, 회의나 방문객의 접대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당시 재정 상태로는 무리한 결정이었으나, 행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상공회의소 운영 체계를 바로 세우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추구하였기에 결행하였다.

현재 사무실 운영과 사무국장에 의한 행정업무는 이때 마련하여 정착되었다.

지진 엑스포

캘리포니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다. 역대 최악의 지진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약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은 연속되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그동안 휴지기가 긴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였다. 결국 1994년 1월 17일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나 60명이 사망하고 5,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 주 정부와 LA시에서는 관공서와 학교 그리고 일반에 이르기까지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상공회의소도 서울국제공원에 있는 아드모어 레크레이션센터에서 지진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지진, 화재 등을 비롯해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였다. 경찰국 커뮤니티 응급 대응반이 후원하고, 기업체들은 부스를 오픈하여 각종 장비들을 소개하고, 비영리 단체들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로즈 퍼레이드

1988년은 88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였다. 상공회의소는 서울올림픽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한인사회 처음으로 '로즈 퍼레이드'에 한인 꽃차를 등장시켰다. 이 사업은 전임자인 이청광 회장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군석 회장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9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즈 퍼레이드를 소개하고, 88서울올림픽은 물론 한인사회를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참가를 설득하였다. 또한 꽃차 경기 충당을 위해 '한인들 한 사람마다 한 송이 장미꽃 심기 '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은 총 26만 달러가 들었는데, 당시 한인 경제 규모나 물가로 봤을 때 정말 큰 사업이었다. 한국에서 6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20만 달러는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이날 한복과 국악을 포함한 퍼레이드를 통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전통문화를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로즈 퍼레이드는 2003년 이민 100주년을 맞아 한인 꽃차가 다시 등장하였다.

88년 로즈 퍼레이드는 1890년 패서디나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1회 대회 이후 99회째 열리는 전통 있는 행사이다. 로즈 퍼레이드는 매년 100만 명이 운집하고, 세계인들이 즐기는 축제이다.

12

대동강 물줄기

제12대 이영송 회장 취임

신임 이영송 회장은 제7대 장기열 회장에 이어 치과의로서 두 번째 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평안북도 태천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피난 나와 내과 의사였던 부친께서 서울 후암동에 병원을 개원하여 서울 사람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1975년 도미하였다. USC에 입학하여 보철전문의가 된 그는 이스트 LA에 병원을 개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LA라이온스클럽 회장, 범민주화미주지역 대행진 대회장, 상의 회장을 마친 후에는 재미한인치과협회 회장, 2000년 한국중소기업 LA추진위원회 위원장, 민주산악회 남가주지부 회장, 민주평통 자문회의 LA회장,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시니어센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영송 회장은 1988년 6월 회장에 취임하며 몇 가지 역점 사업을 발표하였다. 첫째, 상공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인 경제 신문을 발간하겠다. 둘째, 영문 업소록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타 커뮤니티에 코리아타운을 알리며 이익을 증대하겠다. 셋째, 단체 간 유대 강화와 상공인 회원 증대를 통해 내실을 기하겠다. 시간과 정력을 바쳐 희생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후회와 허탈감을 갖지 않토록, 한 송이 장미꽃을 달아주는 아량 있는 교포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제12대 회장 이영송

1988. 5. 제12대 회장 이영송 선출

1988. 6. 제12대 신구회장 이취임식 및 총회 개최

1988. 9. LA지역 중소기업청(SBA) 이청광 전임회장 올해의 스몰비즈니스 인물 선정

1988. 10. 비즈니스세미나 퍼시픽 벨과 공동 개최 (KTE 강당)

1988. 10. 한인경제신문 창간 (16면)

1988. 10. 찰스 김, 전수연 프로그램 디렉터 임명

1988. 11. 미주상공인총연합회 이사회 참석

1988. 12. 정기이사회 개최
신입이사 사라 김
신입이사 이해명
신입이사 이길훈

1989. 1. 이영송 회장 새해 인터뷰

1989. 1. 한인경제단체 대표자 모임 주관

1989. 2. 입찰공고에 대한 기자회견 (로실 루이볼 의원실)

한인경제회보
THE KOREAN AMERICAN ECONOMIC JOURNAL
교포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경제단체의 단합만이…
창간사

능력 있는 이사 영입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능력과 영향력을 겸비한 인사들로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해 세 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명단을 올렸다. 두 명은 통과가 되었는데 한 명은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아 탈락하였다. 상공회의소 내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 세력의 견제로 3수 끝에 영입이 겨우 통과되었다. 본인은 무척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참아가며 이겨낸 그 이사 후보가 상공회의소에서 4선 회장을 역임한 하기환 박사이다. 그는 상공회의소 역사에 전무후무한 당선을 기록하며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민사에 큰 족적을 남긴 상공인이다.

한인경제신문 창간

한인경제신문은 남가주지역 경제단체가 연합하여 신문을 발행하였다. 지금은 상공회의소와 17개 직능 단체가 경제단체 협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특별히 협조를 구하여 동참하게 하였다.

신문 발행에 동참한 경제단체는 한인세탁협회(조청년), 한인식품주류업협회 (김양일), 여성경제인협회(사라김), 무역협회(이인원), 봉제협회(안병태), 요식업자협회(정영삼), 가주한인건설협회(한성주), 한인모발업자 협회(박진혁), 한인회계사 협회(김기옥), 보험협회(오숙남), 그리고 한인상공회의소(이영송) 등 11개 단체이다.

한인경제신문은 월간지로 각 단체가 1년씩 맡아 돌아가며 발간하기로 하였다. 창간이 가장 어려운 관계로 상공회의소가 첫 번째로 책임을 맡았다. 창간호는 1988년 10월 12일에 일반신문 크기 16면을 발행하였다.

내용은 각 단체에서 한 명씩 책임자를 두고 해당 단체의 전문적인 내용을 기고하고 공지 사항이나 광고를 게재하였다. 신문 발행은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제 단체간 유대 강화와 협조를 통해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북한을 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합영에 관한 법과 세칙' 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경제의 한계에 직면한 북한은 1984년 9월 합병법을 제정하였다. 외국 자본과 합작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것은 합영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폐쇄되었던 북한을 개방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 방문 일정

1988

12. 22. 북한 연현묵 총리에게 서신 발송

1989

1. 북한 연현묵 총리에게 서신 수취
3.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 받음
3. 13. 북한 방문단 LA 출발 (14명)
3. 16. 북경도착, 자금성 관광
3. 17. 평양 순안비행장 도착
고려호텔 투숙, 영빈관 만찬
3. 18. 만경대, 김일성 생가, 부벽루,
주체탑, 능라도체육관 관광
조선적십자사병원 방문
옥류관 식사
3. 19. 상원시멘트공장, 문천제련소,
대안중기계공장, 남포갑문 관광
사업투자 개인 면담
3. 20. 금강산 관광
3. 21. 온정리 온천
3. 22.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관광
3. 23. 옥류관 송별회
3. 25. 홍콩 도착
3. 27. 북한방문단 서울도착 기자회견
4. 3. 북한방문단 LA 도착 기자회견
4. 14. 북한방문단 이사회 보고
4. 19. 북한방문 실태보고와 전시회
(KTE 강당)

연형묵 총리의 편지

이 회장은 취임식 직후 북한 정부의 연형묵 총리에게 자필 서한을 보냈다. 당신들이 문호를 개방했으니 우리 미주한인 상공인단이 북조선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작성한 서신을 김 사무국장에게 건네며 타이핑 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무국장은 편지를 들고 총영 사관에 가서 정보 담당 영사에게 편지를 주며 고발한 것이다.

어렵사리 보낸 편지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 북한 연형묵 총리에게서 답신이 왔다. "우리는 선생이 우리와 무역 교통을 가지며 조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읽어 내려간 내용은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바로 매우 당황스럽게 하였다. 편지 하단의 내용은 친북 인사 양은식 선생을 통해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친북 인사와 악수만 해도 빨갱이로 몰리는 분위기에서 난감할 뿐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

이 회장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왔다. 제일교포 사업가 박노정 회장의 부인인 박경윤 여사가 소식을 알고 도움을 주었다. 박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여 3일 만에 방북을 허락받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상공회의소의 방북이 언론에 노출되면 초청 자체를 전면 취소하겠다는 단서가 있었다.

김일성 생가

만경대

남포 갑문

능라도 체육관

상공회의소 이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함구령을 내렸으나 소문은 금세 퍼지고 말았다. 급기야 언론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방북단이 북경에서 조선민항을 탈 때까지 엠바고를 요청하여 이행되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방북을 희망했으나 혹시 북에 갔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하는 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많이 포기하고, 14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였다.

드디어 1989년 3월 18일 방북단은 LA를 출발하여 경유지 홍콩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였다. 두 명의 북한 대사관 직원이 깡유호텔로 안내하고 여권을 모두 회수해 갔다. 내일 북조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불안감이 찾아왔다.

이 회장은 여권을 회수당하자 긴장해 있는 이사들에게 비장한 태도로 말을 했다. 첫째, 만일 북한에서 한 명이라도 병이 나거나 실종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 돌아올 형편이 못된다면 우리 모두가 평양에 함께 머물며 단체 행동을 한다. 둘째, 북한 측에서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상한 질문이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함께 대응한다. 셋째, 상공회의소 회장인 나를 따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개인행동을 삼간다.

평양 순안비행장

평양 방문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방문단은 고려호텔에 짐을 풀었다. 영빈관에서 베풀어진 환영 행사 겸 만찬은 가무를 곁들인 성대한 대접이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과 일정을 조율하는데 북한 당국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다. 북한 측은 김일성 생가, 주체탑, 천리마 동상, 조선혁명 박물관, 개선문 등 그들이 선전을 위한 관광을 제안하였다.

금강산행 직승기(헬리콥터)

금강산 해금강

보현사

묘향산 향산호텔

방문단은 공장, 산업시설, 백화점 등 북한 실정과 투자 환경을 답사하는 일이 목적이었다. 우리는 사업가이고 북한과 사업의 물꼬를 들어온 것이지, 관광이나 하려고 바쁜 시간을 내 온 것이 아니었다. 만일 산업시찰이 불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철수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저들의 입장은 완고하였다. 긴 시간의 논의 끝에 결국 타협안을 내놓아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튿날부터 평양에 있는 만경대, 북벽루, 추체탑, 능라도 체육관, 조선적십자병원 등을 둘러보았으며,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을 수 있었다. 산업시설로는 대안중기계공장, 상원시멘트공장, 문천제련소, 남포중기계공장, 남포서해갑문을 시찰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만 2천봉이 빚어내는 민족의 영산 금강산과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도 관광하였다.

북한 관계 당국자와 사업투자 면담은 한 명씩 개별적으로 진행 되었다. 봉제 공장 건립, 의류 가공, 신발 가공, 농산물 수입, 광물 수입, 금강산 샘물 수입, 등 이사들은 각자 경영하는 직종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을 둘러보면서 합영법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다. 노사간 혹은 정부와의 마찰시 해결 방법은 있을까? 투자 후 자금회수의 문제는 없을까? 역시나 그들은 계약서를 요구하자 돌아온 답은 "걱정하지 마시라요, 수령님이 다 해결해 주십네다." 말이 법이니 믿고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북한의 실상이요 이번 방문의 결론이기도 하였다.

다저스 한인의 날 (Korean Heritage Night)

13

한인 정치력 신장

제13대 회장 방미철

1989. 5. 정기이사회 개최
제13대 회장 방미철 선출
부회장 안창길 선출
부회장 이은용 선출
부회장 강득휘 선출

1989. 6. 제13대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1989. 8. 정기이사회 개최
홍보비디오 제작 홍보

1998. 9. 피트 윌슨 주지사 후보
한인지도자 간담회 참석

1998. 9. 알라트 주의원 후원 기금
모금 만찬 개최
(한국회관)

1998. 9. 리 에트워터 전국공화당의장
한인 리더 초청 간담회 참석
(포시즌호텔)

제13대 방미철 회장 취임

신임 방미철 회장은 유로산업을 설립하여 웨스턴가에 센추리가구점과 스칸디나비아가구점 그리고 창고가구점을 운영하며 한인가구 산업을 선도하였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예술가답게 한인교향악단 이사장, KBLA 한국어 FM 방송국 이사장, 남가주 동서교류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몇명 안되는 한인으로도 유명하다.

제13대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은 1989년 6월 14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윌셔하이야트호텔에서 거행되었다. 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사회에 유익을 주는 상의, 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상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소수계에 배당되는 각종 공사 유치, 한인업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서비스 제공, 한국의 중소기업과 지상사와 상호교류 증대와 미주시장 공략협조, 한인 커뮤니티 홍보물 제작 등을 발표하였다.

Welcome to Koreatown, Los Angeles

코리아타운은 한인들의 근면성으로 급팽창되어가는 반면 대부분이 언어 장벽에 부딪히어 비즈니스 확장에 애로는 물론 불화가 우려되었다. 미국 사회에 한국인의 문화와 코리아타운을 알림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코리아타운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한인타운 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착수하였다.

총 예산 6만 달러를 책정하고 모금에 나서 퍼시픽 벨이 1만 5천 달러, 대한항공이 2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LA Times가 다루게 됨으로써 기금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가 동참하게 되었다. 문화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되어왔던 한인타운이 타지역 커뮤니티와 융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인타운 홍보용 비디오 제목은 "Welcome to Koreatown, Los Angeles"이다. 비디오는 코리아타운의 이모저모 한인문화, 한인축제, 한인비즈니스 등 한인타운의 발전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45분짜리 비디오로 제작되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에는 비디오가 널리 보급되어있었다.

한인타운 홍보용 비디오 제목은 "Welcome to Koreatown, Los Angeles" 이다. 비디오는 코리아타운의 이모저모 한인문화, 한인축제, 한인비즈니스 등 한인타운의 발전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45분짜리 비디오로 제작되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에는 비디오가 널리 보급되어있었다.

한인 정치력 신장

방 회장은 미국 공화당 내 VIP 클럽인 Repulican Eagles 회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미 정가에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을 위해서 한인미래협회를 조직하고 선거 참여를 권장하였다. 먼저 봉사 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유권자 등록을 받게 하였다. 상공회의소의 한인 계몽사업으로 인구센서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한인타운 단일선거구 조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선거 운동 후원도 직접 관여하여 유력 주지사 후보 피트 윌슨 한인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 56지구 로이발 알라드 주하원의원은 한인타운 포함된 지역구로 상공회의소는 2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하였다. 제21지구 연방하원에 재도전하는 서상록 후보와 세리토스 시의원 선거에 나온 찰스 김 후보를 정계에 보내기 위해서 한인 단체들과 더불어 적극적인 캠페인과 후원을 하였다.

정부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탐 브레들리 LA시장이 타운을 찾아 상공회의소를 내방하고 현안을 숙의하였다. 신년하례식에는 마이크 안토니노비치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였다. 주검찰청 밴디 캠프 총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총장은 교포사회 발전 저해 요소들을 지적하고 각종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98. 9. 한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참석

1998. 9. 탐 브레들리 LA시장 상의내방

1998. 9. 밴디캠프 주검찰총장 초청 간담회 개최

1998. 10. 한인타운 선거구조정 주민 발의 캠페인 서명운동 실시

1998. 11. 마치 퐁 유 가주총무처장관 간담회 참석

1998. 11. 자동차업체 대표초청 간담회

1998. 11. 모범기업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회관)

1998. 11. 세무행정세미나 개최 (한국일보 소강당)

1998. 11. 재일교포 실업인단 간담회

1989. 11. 한인정치활동위원회 창립 방미철 회장 상임고문 추대

1989. 12. 서상록 연방하원 후보 후원 모금행사 참석

1989. 12. 퍼시픽 벨, 타운홍보비디오 제작 1만 5천불 지원

1990. 1. 코리아타운 비디오 제작 90 인구센서스 참여 캠페인

1990. 1. 미공화당 리퍼블리컨 이글스 참석

1990. 1. 챨스김 세리토스시의원 후보 후원의 밤 후원

1990. 1. 한흑 비즈니스 포럼 개최 (우래옥)

1990. 1. 탐 브레들리 LA 시장 방미철 회장 공로패 수상

1990. 3. LA마라톤 선수 음료수 제공

1990. 3. 사랑의 쌀 나누기 참가 결의

1990. 3. LA타임스 비즈니스 면에 방미철 회장 보도

1990. 3. 제1회 세계한인상공인총회 개최 (서울, 30명 참가)

1990. 3. 제17회 상공의날 참가 산업포장 방미철 회장

1990. 4. 피트 윌슨 주지사 선거기금 모금 파티 (로텍스호텔)

1990. 4.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미철 회장 공로패 수상

1990. 5. 중앙일보의 한남체인 식중독 보도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한인 경제력 신장

상공회의소 운영과 타운 경제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주유소, 식품점, 봉제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한인업소 대상 IRS의 세무감사가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IRS)과 주고용개발국(EDD)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양 커뮤니티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흑인 커뮤니티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풍 유 가주 총무처 장관도 참석하여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자원은 천연자원도 있지만 다양한 소수민족이다"라고 말하며, 커뮤니티간의 친선과 경제교류를 칭송하였다. 한흑 커뮤니티에서 12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인들이 한흑 갈등 해소에 앞장서는 모습을 LA Times가 보도하였다.

방미 중인 재일교포 실업인단체 이찌니 구락부 USA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투자단은 일본에서 유락산업, 호텔경영, 여행사 등 소규모 실업인들로 구성된 대미투자단이다. 이번 시찰을 기점으로 상공회의소가 이들 대미투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타운 경제에 기여한 우수기업, 경영인 표창을 하였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양중남 대표, 이태리안경 김종영 대표, 중앙은행 챨스 김 행장이 수상하였다. 시상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명랑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내년부터는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회원 보호

중앙일보는 상공회의소 하기환 이사가 경영하는 한남체인 돼지족발 사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회원 보호 차원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책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과대과장 보도를 통해 교포 업소에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폐업까지 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5가지 결의사항을 실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영섭 발행인의 이름으로 반박 사설을 게재하였다.

14

한 · 흑 공동선 추구

제14대 회장 이용기

1990. 5. 정기이사회 개최
제14대 회장 이용기 선출
부회장 강득휘 선출
부회장 사라김 선출
부회장 한대식 선출

1990. 5. 14대 회장 시사저널 인터뷰

1990. 6. 제14대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제14대 이용기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0년 5월 2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용기 회장과 강득휘, 사라김, 한대식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이용기 회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인하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냉동 기술을 익혀 파월기술자로 월남에 갔다. 1971년 미국에 입국하였고 페퍼다인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쿨러 엔지니어사를 설립하였으며, 부동산에도 진출하여 16개의 크고 작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29 폭동으로 시작된 최악의 경기침체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다시 1983년 에어컨 부품업체 '트루에어'를 창업하여 연 매출 1억 달러 기업으로 성장시켜 재기에 성공하였다. 미국 내 동종업계 매출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회사를 상장기업 CSWI에 3억 6천만 달러에 매각하여 한인기업 M&A 사상 최고 기록을 남겼다.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역임하였고 상공회의소 회장 이임 후 인하대동문장학회 이사장, 인하대총동창회 회장, 앤드류&엘리자베스 기독교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온 그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였으며,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책으로 엮은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Beyond the American Dream)'를 발간하였다.

제14대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는 1990년 6월 28일 다운타운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 회장은 임기 동안 미 주류사회와 접촉을 넓힐 것이며 무엇보다 한 · 흑 관계에 실체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성장한 한인사회를 외부에 알려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한인 비즈니스가 밖으로 확장되도록 홍보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4대 이사회 조직

회 장 **이용기**
부회장 **강득휘, 한대식, 사라김**
이사장 **로버트 리**
부이사장 **유동열**
이 사
강수복, 강용구, 강태흥, 데이빗강
김도림, 김영일, 김영민, 김영호
김보환, 김문수, 김재휘, 문창배
박근창, 박정우, 박찬호, 방미철
서영석, 심재강, 신구현, 신준철
안성주, 안창길, 양대철, 유석홍
육정박, 이길훈, 이영송, 이육남
이은용, 이응목, 이정현, 이정현B
이종길, 이정수, 이청광, 이학진
임 영, 장경환, 지두환, 차우석
최진길, 채희원, 하기환, 한군석
한종선, 한태식, 현정일, 황원식
사무국장 **허 철**

이사장 후보 경합

상공회의소는 제9대 양효길 회장 이후부터 이사장을 하고 다음에 회장을 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차기 회장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이사장 후보 경합이 치열하게 발생하였다. 그동안 이사장 후보는 부회장 등으로 봉사해온 이사 중에 신임 회장과 호흡이 맞는 사람으로 추천되었었다.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로버트 리 후보는 이용기 회장단이 입후보하면서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이에 강력한 도전자로 유동열 후보가 나서며 열기가 뜨거웠다. 표결에는 재적 50명 중 39명이 참석하여 이 후보가 22표, 유 후보가 17표를 얻어 로버트 리 후보가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로버트 리 후보는 이사장에 선출된 후 유동열 후보를 부이사장으로 지명하였다. 단합된 모습은 성숙한 상공회의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차기 회장에 나서지 못하였다.

한인 유권자 실태조사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11월에 대비하여 상공회의소는 전임 방미철 회장이 이끄는 한인미래협회와 함께 유권자 등록, 인구센서스 참여, 한인타운 단일선거구 조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인 미국 시민권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표권 행사를 권유하고, 정치권에 한인 파워를 알릴 수 있도록 '한인유권자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실태조사 지역은 LA카운티를 비롯하여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등 5개 카운티로 하였다. 총 예산은 2만 달러로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1개월간 진행하게 하였다. 이 보고서는 40페이지 책자로 출판되었다.

조사결과 남가주 5개 카운티 한인 등록 유권자는 38,39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72%가 LA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었다. 카운티별로는 LA 카운티 27,059명, 오렌지카운티 7,016명, 리버사이드카운티 1,308명, 샌버나디노카운티 1,386명, 벤추라카운티 929명으로 드러났다. 도시별로는 LA시 6,995명, 세리토스 1,694명, 토랜스 1,105명, 어바인 849명, 애나하임 726명, 풀러튼 602명 순이다.

1990. 6. 이용기 회장 선데이포스트 인터뷰

1990. 7.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장 로버트 리 선출
부이사장 유동열 선임
지·상사 자성 촉구 결의

1990. 8. 한인유권자실태조사 착수

1990. 8. 업소간판 영문표기 캠페인

1991. 2. 정기이사회 개최
조 페라로 LA시의원 강연
이채진 클레어몬트 교수강연

1991. 3. 정기이사회 개최
한인상공인 소련방문 발표

1991. 6. 정기이사회 개최
소련, 북한방문 일정 발표

1991. 6.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시해 부위원장 환영회

1990. 8. 미주상공인단체총연합회
한흑갈등 해소방안 논의

1990. 8. 태평양화학 LA지사 신축사옥
준공식 참석

1990. 9. 정기이사회 개최
사우스센트랄 저소득층
아파트 신축 논의

영문간판 달기 캠페인

한인타운 내 업소 중에는 업소명과 주소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상의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한글 간판 일색의 한인타운은 타 커뮤니티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타 인종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의는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한 병기 간판 달기 캠페인' 사업으로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서신을 발송하는 등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락가락 LA 마라톤

LA 마라톤은 1986년 제1회 대회가 시작되어 매년 봄에 열리는 국제대회로 성장하였다. LA 마라톤은 한인타운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인데, 마라톤 코스를 두고 마라톤조직위원회는 해마다 오락가락하였다. 각 커뮤니티는 다투어 코스를 유치하려 하고 조직위는 기록이 잘 나오는 코스를 선택하려는 밀고 당김이 계속되었다.

상공회의소는 마라톤 코스 한인타운 통과를 위해서 마라톤조직 위원회와 교섭에 나섰다. 한편 공연 준비와 음료 서비스, 관람 인원 동원등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또한 한인타운 업소 한글 간판에 영어 표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인타운을 찾는 관광객과 선수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었다.

소련과 북한에 투자의 길이 열리다

1990년 11월 8일 서라벌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 방미 중인 재소경제인연합회 허진 수석부회장과 모스크바대학 한 마르크스 교수가 참석하였다. 허진 부회장은 소련에는 50만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노동력과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여 합작투자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한 교수는 고르바죠프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여 서방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투자 및 영업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1990. 9. 한미경제협의회 경제사절단 간담회 개최

1990. 9. 중앙은행 다운타운지점 개점기념식 참석

1990. 9. 한인유권자실태조사 발행

1990. 10. 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1990. 10. 정기이사회 개최 단체장 이사 영입 논의

1990. 11. 정기이사회 개최 소련 투자 설명회 (서라벌)

1991. 1. 신년하례식 개최 기업인상 임철호(헐리트론) 경영인상 한두봉(태평양화학) 봉 사 상 김양일(한미식품연)

1991. 1. 부산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 환영간담회 개최

신년회 기업인 포상

기업인상 임철호 (헐리트론 대표)
경영인상 한두봉 (태평양화학 LA지사장)
봉사상 김양일 (한미식품상 현합 회장)

영문간판 달기 캠페인

1991년 3월 12일 정기이사회에서는 9월경에 소련방문을 계획하고, 방소투자방문단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투자단에는 상공회의 회원은 물론 참가 희망 단체와도 협의를 거쳐 방문단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북한 전 유엔대사 한시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1991년 6월 20일 LA를 방문하였다. 상공회의는 유니버설 쉐라톤호텔에서 환영리셉션을 열고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자립경제를 목표로 해외경제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며 재미동포들이 이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외국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과의 합작을 경계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과 합작, 합영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인 갈등 해소책

1991년은 한 · 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한해였다. 3월 3일, 백인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흑인 로드니킹 사건이 있었다. 3월 16일에는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가 한인 구순자 씨에게 사살당하는 엠파이어마켓 사건이 터졌다. 6월 4일에는 존스마켓을 운영하는 박태삼 씨가 흑인 강도를 사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 · 흑 갈등과 분규는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이문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로의 불만은 접어두고 한인들이 흑인사회를 이해하는 자세의 전환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흑인 관련 사건 일지

1991. 3. 로드니 킹 경찰 집단 구타 사건 발생

1991. 3. 두순자씨 흑인소녀와 몸싸움 총격 사살

1991. 3. 흑인 시의원 입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 개최

1991. 3. 로드니 킹 사건 조작된 경찰 리포트 LA 타임스가 폭로

1991. 4. 한흑경제사절단 방한 (탐 브레들리 LA시장 동참)

1991. 4. 한흑 합작사업계획 발표

1991. 6. 박태삼씨 흑인 피살 사건 발생(정당방위 석방)

부산상의 최정환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상공회의소는 각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타운번영과 불황타개, 한·흑 갈등의 현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흑인 시의원 입후보자들을 한인타운에 초청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로드라이트 후보는 흑인, 한인, 라틴계 소수민족들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지 말고 힘을 합쳐 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흑 경제사절단 방한

한·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4월 14일부터 1주일간 한·흑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탐 브레들리 LA시장과 시 관계자 그리고 7명의 흑인 실업인들이 동참하여 총 14명으로 한·흑경제사절단을 편성하였다. 인솔단으로는 이용기 회장, 사라김 부회장, 데이빗 김 이사가 참가하였다.

한·흑경제사절단은 강영훈 전 총리, 서울시 부시장, 부산시장 등과 만찬과 회담을 하였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체를 둘러보고 경제협력 및 수출방안을 논의하였다. 일행은 시찰을 통해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한국의 근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한·흑 합작투자 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던 사우스 센트럴지역 저소득층 아파트와 청과물시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흑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한인사회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지며, 미온적이던 흑인 커뮤니티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5

폭풍의 중심 한인타운

제15대 회장 강득휘

1991. 5. 정기이사회 개최
제15대 회장 강득휘 선출
부회장 하기환 선출
부회장 김문수 선출
부회장 사라김 선출

1991. 6. 제15대 신구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개최

1991. 7. 정기이사회 개최
이은용 이사장 선출

1991. 8. 한인경제단체장회의 개최
타운 현안 논의

1991. 8. 정기이사회 개최
소련 신사고연구소장 참석

제15대 강득휘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1년 5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강득휘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함께 출사한 하기환, 김문수, 사라김 후보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강 회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미국에 들어와 하와이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일찍부터 건축회사를 차려 미국 시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상의에 들어와 총무 역할만 4년, 부회장을 2회에 걸쳐 역임한 실무형 회장이다.

회장 재임 중에 4.29 폭동을 맞아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폭동 이후 불경기의 여파가 몰려오자 운영하던 청소회사와 부동산을 처분하여 1993년 한국으로 역이민하였다. 역이민 후 대원문화사와 대원수산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변신하였다. LA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건 변호사, 양호 은행장 등과 '엘사모'를 조직하였다. 그는 대통령 표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제15대 신구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가 1991년 6월 27일, 윌셔하이야트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강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한·흑 갈등 해소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상공회의소 내에 비즈니스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소련 진출을 위한 방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 1. 부산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 환영간담회 개최

1991. 9. 비즈니스상담센터 개설 발표

1991. 9. 남가주경제단체장 회의 개최 봉사센터설립 논의

1991. 9. 정기이사회 개최 부이사장 조익현 선출 부회장 데이빗 김 보선

1991. 9. 비즈니스상담센터 개설

1991. 9. 한인경제단체장 회의 개최 교민봉사센터 개설 논의

1991. 10. 잡 뱅크(Jab Bank) 개설

1991. 10. 한흑 문제 공청회 개최

1991. 11. 두순자씨 집행유예 5년 석방 10년 보호 관찰

1992. 2. 한인경제단체연합회 설날 양로병원방문 떡국잔치

1992. 2. 한인커뮤니티자문위원회 흑인전과자 선도프로그램 후원

1992. 3. 정기이사회 개최 소수민족할당제 폐지 논의

1992. 4. 한흑아파트 건립부지 결정

비즈니스 상담센터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발전에 따른 각종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교포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1년 9월 16일부터 비즈니스 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교포들의 권익 신장과 비즈니스 정보 전달, 그리고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이 무료로 실시되었다.

상담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증권거래사 등 전문인과 한국무역관장, 세무담당,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자들을 초빙하여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상담 내용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였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필요로 했으며,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즈니스 상담센터 스케줄

	월요일 (오후 3~5시)	수요일 (오후 3~5시)	금요일 (오후 3~4시)
첫째주	**미국세법** 강동순 공인회계사	**비즈니스법 상담** 서동성 변호사	**웰페어및사회복지 상담** 송덕현 사회복지사 (카운티사회복지국)
둘째주	**미국무역 상담** 이청광 박사 (전상의 회장)	**이민법 상담** 김인자 변호사 **입찰및용역계약 상담** 김인성 용역사	**웰페어및사회복지 상담** 송덕현 사회복지사 (카운티사회복지국)
셋째주	**증권 상담** 최을형 대표 (한미증권)	**형사법 상담** 민병수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상담** 존솔리쉬 변호사	**웰페어및사회복지 상담** 송덕현 사회복지사 (카운티사회복지국)
넷째주	**한국무역 상담** 임광식 부관장 (한국무역관) **부동산 상담** (부동산협회)	**교육 상담** 차종환 박사 (한미교육위원장) **보험 상담** (보험협회)	**웰페어및사회복지 상담** 송덕현 사회복지사 (카운티사회복지국) **한국세무 상담** 김용표 영사

소련 방문 시도

소련 과학아카데미는 민간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상의를 초청하였다. 이에 상의는 1991년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을 잡고 방문단을 모집하였다. LA를 출발하여 모스크바, 케이프, 레닌그라드, 핀란드 헬싱키를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소련에 구데타가 발생하여 미하일 고르바조프 대통령이 실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상의는 즉각 이사회를 소집하고, 모스크바 신사고연구소(New Thinking Institute) 브라디미르 미로노프 소장이 상의를 초청하였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으며, 소련이 세계 경제의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 소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제교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의는 소련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4. 29 LA 폭동 일지

1992. 4. 29.
3:15pm 시미밸리 법원, 로드니킹 구타 백인 경관 3인 무죄 판결

3:30pm 백인 경관 석방 후 항의 전화 AME 교회에서 항의시위 시작

3:43pm 하이드 팍에서 백인 트럭 운전사 구타 당함

5:00pm 버몬트와 맨체스터 소재 수퍼 스왑밋 및 사우스센트럴 한인업소 약탈 시작

6:30pm 흑인시위대 LAPD 앞에서 항의

8:45pm 탐 브레들리 LA 시장 비상사태 선포
피트 윌슨 주지사 주방위군 2,000명 동원 명령

9:30pm 한인청년단을 중심으로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체방어 나섬

9:30pm 코스모스전자, 올림픽 알람 등 한인타운 업소 공격 당함

1992. 4. 30.
0:00am 피트 윌슨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전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

0:00am 폭동지역에 일몰부터 일출까지 통행금지 선포

10:00am 오전 중 잠시 소강 상태

1:00pm 사우스센트랄에서 북상한 폭도들은 한인타운 남쪽의 한인상가들을 공격

한 · 흑 문제 커뮤니티 공청회

흑인 인권과 관련하여 1991년에 일어난 3개의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흑인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6월 4일에 일어난 존스 마켓을 운영하는 박태삼 씨가 흑인 강도를 사살한 사건은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나타샤 할린스를 살해한 두순자 씨에게 1991년 11월 15일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과 벌금 500달러, 5년간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흑인 커뮤니티의 격한 반응에 긴장감을 느낀 한인 단체장들은 한 · 흑 갈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흑인사회 이해를 위한 세미나, 흑인 지도자 초청 간담회, 한 · 흑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흑인 갱이나 전과자 선도갱생 프로그램 후원 등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한 분위기는 갈수록 높아만 갔다.

상공회의소는 확산일로에 있는 한 · 흑 갈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 공청회에는 언론기관,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법조계, 금융계, 경제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등 각계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대응책을 발언하였다.

한흑연맹 조 힉스 공동회장이 두순자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2:00pm 히스페닉들이 흑인 폭도들과 합세하여 한인타운 전역에 약탈 확산

3:00pm LA총영사관 잠정 폐쇄 폭도들의 공격을 퇴치

4:00pm 한인타운 대부분이 폭도들의 공격를 받음(200여개 업소)

5:00pm 사우스 LA 지역에 주 방위군 투입

6:00pm 코리아타운 외곽에 주방위군 배치(폭동 제압 유보)

6:30pm 사우스베이 전 지역에 통행 금지 확대

7:00pm 해병전우회, 자경단, 업주들이 무장하고 방어체제 구축

11:15pm 이재성 군 폭도 지원을 나가 자경단 오인 사격으로 사망

1992. 5. 1.

7:15am 백악관이 연방군(해병대) 투입 명령

9:30am 총영사관에서 한인단체장 회의
범동포 4.29 폭동 비상대책 위원회 결성
위원장에 강득휘 회장 피선
평화대행진추진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 하기환, 구한모
방범특별위원회(7단체) 구성
위원장 박창선

1:00pm 윌턴극장 주차장에서 평화시위

2:45pm 로드니 킹 폭동 부당성 주장 기자회견

6:00pm 부시 대통령 한인 피해 유감 표명

LA 폭동 발생

4.29 LA 폭동은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1992년 4월 29일 재판에서 무죄 판결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 폭동이다. 불행한 것은 로드니킹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한인타운이 흑인시위대의 약탈 대상이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잠복 되었던 인종 편견과 흑백 갈등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으나, 미국 언론은 같은 시기 일어난 두순자 사건을 거듭 보도함으로써 한흑갈등으로 비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찰은 백인 거주지역에는 일찍 대응하였으나, 한인타운에는 배치하지 않아 폭동피해를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로 이용되었다.

폭동은 5일간 지속되었다. 4월 29일 첫째날, 사우스센트럴에서 일어난 시위가 삽시간에 폭도로 변했다. 둘째날, 폭도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오자 한인들은 무장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 했다. 급기야 L.A. 톰 브레들리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피트 윌슨 주지사가 2천 명의 주방위군 투입을 즉각 명령하였으나 지연되었다. 셋째날, 주방위군이 4천 명으로 증원되었다. 넷째날, 3만 명의 한인들이 폭동 종식을 호소하는 평화 대행진을 하였다. 다섯째날, 폭동이 점차 진압되고, 여섯째날, 5월 4일 브래들리 시장은 폭동 종식을 선언하였다.

LA 폭동의 결과는 사망 58명, 부상 2,383명, 체포 13,779명, 재산피해 약 10억 달러이다. 그중에 한인 피해는 엄청나서 약 2,300개의 업소가 약탈 또는 전소되었으며,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인들 대부분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한인 이민사에 가장 뼈아픈 비극으로서 미국 역사상 12번째의 큰 폭동으로 기록되었다.

범동포 4.29폭동 한인비상대책위원회

폭동이 일어난 첫날 오후 강득휘 회장은 제퍼슨과 알링톤가의 흑인 교회에서 흑인 지도자들과 해소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다음날 총영사관에 40여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4.29폭동 한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LA한인회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었고 강득휘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타운방어 계획으로 방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참여한 7개 단체는 해병동지회, 한인경비협회, 한인청년단, 한국타운 방범특위, 아마추어무선협회, 한인의류도매인협회, 한미경찰위원회이다.

1992. 5. 2.
8:00am 폭동 관련 체포자 6,000여 명 사법처리 시작

1100am 평화대집회와 행진 (3만여 명 참가)

4:00pm 4.29 폭동대책위원회 대표단 LA 시청, LAPD 방문

5:00pm 탐 브레들리 LA 시장 LA재건위원회 피터 위베로스 위원장 선임

5:15pm 부시 대통령 LA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선포

1992. 5. 3.
10:30am 제시 잭슨 목사 한흑 갈등 종식 촉구

11:30am 탐 프레들리 LA 시장 통행금지 해제

12:00pm 부케넌 대통령후보 한인타운 방문 폭동피해주민 격려

1992. 5. 4.
7:00am 탐 브레들리 LA 시장 폭동 종식 선언 통행금지와 휴교령 해제

1992. 5. 6.
11:00am 이재성 군의 장례식 거행 (아드모어공원, 5,000여 명)

또한 방어 대책과 함께 폭도들에게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평화대집회를 계획하였다. 하기완, 구한모 씨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진된 집회에는 성서와 빗자루를 가지고 참가하여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평화적인 집회로 승화시켰다.

강 회장은 폭동 기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2명의 부총영사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갔다. 총영사관이 폭도들의 습격을 받았으나 격퇴하기도 하였다. 특별방범위원회 말고도 일부 건물은 자경단을 구성하여 폭도들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단체장은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성금 중 10만 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폭동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였다. 한 회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오셨습니까? 위로는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Wrong time wrong place". 한국 정부에서 외환은행을 통해 긴급히 1억 달러를 보내주시면, 재해를 입은 교포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였다. 여당 의원들과 6시간을 논의 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고 이어서 김대중 양당 총재와의 대담에서 같은 요청을 하여 확답을 얻었다.

폭동 진압 후 수습에 나서고 주로 비상대책위원회 성금관리위원회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성금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복구성금관리위원회는 하기환 부회장이 맡아서 수고하고 있었다.

또한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당선자 신분이었기에 강 회장은 하 회장에게 상공회의소와 4.29폭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인계하고 사업차 이북으로 떠났다.

16
17

한인타운 재건을 위한 노력

제16, 17대 회장 하기환

제16대 이사회 조직

회 장 **하기환**
부회장 **정인철, 스튜어트 안**
데이빗 안
총 무 **허 철**
이사장 **문창배**
부이사장 **크리스틴 정**
이 사
강덕희, 강상호, 강영구, 김데이빗
김도림, 김론, 김보환, 김브라이언
사라, 김성욱, 김스티브, 김영민
김안토니, 김영일, 김재휘, 김폴
노말선, 노조셉, 문창배, 박찬호
방미철, 신구현, 안성주, 양대칠
윤마이클, 이로버트, 이루카스
이영송, 이용기, 이용태, 이은영
이응묵, 이정수, 이정현, 이정현B
이청광, 임로버트, 임종칠, 정샘
장경환, 장성균, 전도열, 정인철
정크리스틴, 조익현, 최리차드
최을형, 하기환, 하영수, 한군석
한종선, 황운석

제16대 하기환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년 5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하기환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동시에 공동 출마한 정인철, 스튜어트 안, 데이빗 김을 부회장에 선출하였다.

신임 하 회장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에 미국에 유학하여,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UCLA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교수 제안이 들어왔으나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휴스에어크래프트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1988년 유통회사 한남체인을 설립하고 LA에 6개, 뉴욕에 1개 점포가 있는 회사로서, 연 매출 2억 5000만달러가 넘는 유통회사로 키웠다. 한남체인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유통 채널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쇼핑몰을 4000만 달러에 인수하여 부동산 사업도 키우고 있어 아메리칸드림을 일구어낸 기업인으로 통한다.

하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과 아울러 LA폭동 비상대책위원장, 한미구호기금재단 회장, 남가주한인경제단체장협의회 회장, 제 25. 26회 LA 한국의날 축제위원회 준비위원장, Los Angeles County Consumer Affair Commissioner, 한국의날 축제재단 이사장, 코리아타운 경찰위원회 이사장, 로스앤젤레스한인회 회장, 월셔주민의회 의장, 민족화해협력 LA 협의회 대표상임의장, Mookhyang Calligraphy Society Chairman 등을 역임하였다.

LA 폭동 피해 지원을 위한 한미구호기금재단 회장과 LA 한국의날 축제위원회 준비위원장 등 공로를 인정하여, LA 시정부는 코리아타운 중심에 'Dr. Kee Hwan Ha Square(하기환 광장)'를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였다.

4.29 폭동과 함께 시작한 임기

4.29 폭동은 한인 이민 100년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한인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은 제16대 LA한인상공회의소가 떠맡은 시대적 사명이었다. 상공회의소가 전력을 쏟아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앞장 섬으로서 LA 한인타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28 LA 폭동 피해수습 일지

1992.

5. 6.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 피해 지역 방문 위로

5. 6. 한국 여당 국회의원 8인 방문 대책회의에서 지원요청

5. 6 김대중 야당 총재 방문 대담 강득휘 위원장 1억불 긴급 요청

5. 7. 부시 대통령 LA 방문 한인단체, 피해자들과 간담회

5. 8. 긴급구호센터 설치 구호 활동 (아드모어공원)
연방긴급재해구호청(FEMA)
중소기업청(SBA)
카운티공공사회복지국(DPSS)
적십자사(Red Cross)
시재개발기구(CRA)
연방농업국(USDA)

5. 9. 연방군 철수

5. 11. 중앙일보, 피해자업소 명단발표

5. 12. 한국일보, 피해자에게 성금 지급 (2,101명에게 $500씩)

부시 대통령 피해지역 순시

한인타운을 무력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

하기환 회장은 LA 폭동 당시에 총을 들고 한인타운을 지켰다. 4월 29일 갑작스런 감정 폭발로 일어난 폭동은 이튿날에는 본격적인 약탈로 이어졌다. 전날 밤 통행금지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폭동은 오후가 되자 흑인들과 동조한 히스페닉들이 합세하여 규모가 커져갔다.

위기를 느낀 하 회장은 마침 회사에 있던 권총을 가지고 라디오코리아를 찾아갔다. 이대로 두면 한인타운이 잿더미가 될 것인데 한인타운을 지키자고 이장희 사장과 최영호 전무를 설득하였다. 그는 방송을 통해 사업체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니,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총을 준비하고 방어벽을 구축할 것을 호소하였다.

본인이 운영하는 한남체인으로 달려간 그는 권총, 장총, 사냥총 등 화기를 모았다. 상당량의 화기를 확보하고 폭도들의 진입에 대비하여 쌀포대를 이용해 방어벽을 구축하였다. 오후 2시쯤 되자 폭도들이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다행히 대다수의 폭도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무장 폭도들과 교전이 이루어졌고 불행하게도 바로 옆에서서 방어하던 경비원이 샷건에 맞아 머리가 날아가고 목이 없는 시체로 나뒹굴어졌다.

철저한 대비와 강력한 대치로 한남체인이 약탈을 면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가주마켓이나 동대문시장 등 여러 업체들도 무장하고 대처함으로서 약탈과 방화를 면하였다. 밤이 되며 해병대, 청년단, 경비단 등이 한인타운에 자체 방어진을 구축하고 야간 습격에 대비하였다. 경찰은 내부 근무에만 주력하였고, 주방위군은 총기 부족 문제로 오후 늦게 한인타운 외곽에 배치되었으나 한인타운 방어에 투입되지 않았다. 결국 하 회장의 결기가 LA한인타운을 지키는 영웅들을 이끌어 내었다.

5. 12. 폭동피해자협회, 제1차 공청회
5. 13. 성금지급에 관한 LA 시의회 조례통과
5. 14. 중앙일보, 피해자명단 발표
5. 14. 성금위원회, 성금지급 (2,197명에게 $500씩)
5. 16. 피해자협의회, 시조례 시행중단 요구 성명 발표
5. 19. 긴급식료품지급센터와 사랑의 장터 단일화 한미구호봉사기구로 개편
5. 28. 한국일보, 성금 추가 지급 (96명에게 $500씩)
6. 4. 피해자협의회, 제2차 공청회
6. 13. 제1차 업종별 피해자 대표회의
6. 15. LA 시정부 피해보상요구 시위 (17일간 500여명 동원)
6. 16. CPA협회, 폭동 성금 1차 감사
6. 18. 제임스 한 검사장, 피해자 지원 협조 다짐
6. 19. 성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총영사관)
6. 20. 제2차 업종별 피해자 대표자회의
6. 25. 긴급대책본부, 성금관리위원회 조직 결성

한인타운을 평화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

폭동 셋째 날인 금요일에 폭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기환 회장은 토요일에 평화대행진을 하자고 제안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을 맡았다. 일부 인사들은 폭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위험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으나 강행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무력으로만 대처하는 것보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폭동을 진화하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아드모어 공원으로 결정하고 라디오코리아를 찾았다. 처음에는 미온적이던 라디오코리아 경영진을 설득하여 대행진에 참여할 것을 방송하였다. 폭동으로 인해 24시간 체제로 방송하던 라디오코리아는 한인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였다.

행진에 앞선 집회가 아드모어 공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집회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 방위군 책임자는 집회 불허를 주장하였다. 전날 급조하여 다음 날 오전에 하는 행사에 허가서가 있을리 만무하지만 수만 명이 몰려드는 인파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집회는 시작되었고 대행진에는 무장한 주 방위군 짚차가 앞뒤를 보위해 주었다.

아드모어 공원을 출발해 올리픽 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웨스턴 길로 북상하고 3가, 그리고 버몬트와 올림픽 길로 한인타운을 일주하였다. 3시간에 걸친 평화적인 행진에 10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LA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폭동의 와중에 어떤 불상사도 없이 이루어진 평화행진으로 폭도들은 명분을 잃게 되었고, 이후 LA는 질서를 찾게 되었다.

6. 26. 시정부 상대 피해보상 시위 평가회 개최
6. 26. SBA, FEMA 협조 응답 받음
7. 본국 성금 450만불 영사관 도착
7. 5. 가주보험국 세미나 개최
7. 9. 성금관리위원회가 피해자협의회에 시청 시위자금 10만불 지원
7. 11. 한인피해자협의회, 성금사용에 대한 제3차 공청회 개최

이후 성금 사용 및 분배 방식에 대한 이견이 많아 갈등이 시작되었고, 한인 각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다.

평화대행진

폭동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

부시 대통령은 5월 2일 LA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폭동이 종결된 직후인 5월 7일 코리아타운을 방문하였다. 하기환 회장은 백악관 사전답사팀과 대통령 방문을 준비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라디오코리아를 방문하여 여러 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폭동 피해자들을 위로하였다.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책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다녀간 후 폭동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FEMA Grant와 SBA Loan을 신청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마켓, 백화점, 전자상 등 대형 업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스왑밋,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FEMA Grant는 천연재해에 해당되었고, SBA Loan을 신청하려 해도 서류 미필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을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연방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피트 윌슨 주지사는 재해대책 본부를 방문하여 주정부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고, LA 시에서는 불타버린 리커스토어를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례를 만들어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한인 정치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던 뼈아픈 선례이다.

연방의회는 6월 18일 폭동피해 복구기금 4억9천 5백만 달러를 포함한 긴급 도시 빈민 지원 자금 10억 달러를 통과시켰다.

폭동 피해 성금관리위원회 활동

폭동 피해 성금은 미국 내 성금 $5,505,553와 한국 성금 $4,450,000을 합하여 약 1천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라디오코리아, 미주한인방송, KTE, 복음방송 등 6개 언론기관을 통해서 접수하였다. 한국에서 모은 성금은 총영사관을 통해서 보내와 성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관리되었다.

성금은 범동포 4.29 폭동 비상대책위원회 하기환 성금관리위원장이 단일화를 주장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성금 분배는 성금 모금과 관리를 하는 측(성금관리위원회, 언론사)과 피해자 단체(피해자협의회, 피해식품상인협회, 스왓밋피해자협의회)들 간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가처분신청과 고소에 이르는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폭동에 대응하고 복구를 위해 봉사한 개인과 단체들의 노력이 희석되어서는 않되며, 상공회의소가 폭동의 소용돌이에서 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공인 친선의 밤

뜻하지 않게 일어난 4.20 폭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의 재산과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참담한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에 불어닥친 최악의 불경기는 한인사회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일어서고야 말겠기에, 힘들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어루만져주어 재기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의미로 '상공인 친선의 밤' 을 마련하였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모법우수기업인상' 과 '모범우수경영인상' 을 수여하는 일을 상공인 친선의 밤에 하게 되었다.

제1회 상공인 친선의 밤

제1회 상공인 친선의 밤은 1992년 12월 2일 Oxford Palace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LA-서울 왕복 티켓을 제공하고 선셋셀루라에서 핸드폰을 기증하는 등 18개 후원사에 풍성한 경품을 제공하였다. 한미증권, 퍼시픽벨, 한미은행 등 21개 회사의 협찬도 있었다.

문창배 이사장의 사회로 방미철 전 회장의 개회사 하기환 회장의 인사로 진행되었다. 제16회 모범우수기업인상에는 라디오코리아 이장희 대표가 수상하였고, 모범우수경영인상에는 한미은행 벤자민 홍 행장이 수상하였다. 하기환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박종상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제2회 상공인 친선의 밤

제2회 상공인 친선의 밤은 1993년 12월 2일 Oxford Palace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임종칠 이사장의 사회와 하기환 회장의 인사 그리고 김하경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특별 강연으로 한국의 최고경인으로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명박 의원을 강사로 모시고 "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기업과 교포 상공인의 협조방안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었다.

제17회 모범우수기업인상에는 한국마켓 오익환 대표가 수상하였고, 모범우수경영인상에는 아시아나항공 이창수 지점장이 수상하였다.

제17대 이사회 조직

회 장 **하기환**
부회장 **정인철, 조익현, 신구현**
총 무 **해리슨 김**
이사장 **임종칠**
부이사장 **크리스틴 정**
감 사 **이용태, 윤규성**
이 사
강덕희, 강상호, 강상윤, 강수복
강영구, 길옥빈, 김대식, 김문수
김보환, 김사라, 김상호, 김재익
김철원, 김혜령, 문창배, 박수영
박요한, 박찬호, 박평식, 방미철
백병국, 송용호, 서영석, 신구현
심상은, 안성주, 윤규성, 이로버트
이덕치, 이영송, 이용기, 이용태
이은영, 이응묵, 이정현, 이정현B
이재림, 이제임스, 임로버트
이청광, 임종칠, 장경환, 전도열
정영삼, 정인철, 조칠현, 하기환
정크리스틴, 하스테판, 하제시
한군석, 한재훈, 한종선

제4장 안정기 활동

제18대 (1994–1995)

제19대 (1995–1996)

제20대 (1996–1997)

제21대 (1997–1998)

제22대 (1998–1999)

제23대 (1999–2000)

제24대 (2000–2001)

제25대 (2001–2002)

제26대 (2002–2003)

제27대 (2003–2004)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LOS ANGELES

18

한인 정치력 신장

제18대 회장 정인철

제18대 이사회 조직

회 장 **정인철**
부회장 **김상호, 이용태, 조칠현, (로널드 윤)**
이사장 **조익현**
부이사장 한문식
감 사 **크리스틴 정, 스티브 김**
이 사
강덕휘, 강상호, 강상윤, 강용구 고스티븐, 길옥빈, 김론, 김보환 김상호, 김에리카, 김재익, 김철원 문창배, 박수영, 박요한, 박찬호 방미철, 백병국, 송용호, 서영석 신구현, 안성주, 안영복, 이영송 윤로널드, 이로버트, 이빅토르 이용기, 이용태, 이은영, 이정현A 이정현B, 이재림, 이희옥, 이청광 이제임스A, 이제임스B, 임로버트 임종칠, 정영삼, 정인철, 조익현, 정크리스틴, 조칠현, 최리차드 하기환, 하스테판, 하제시, 하진도 한군석, 한문식, 한창련

제18대 정인철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4년 5월 16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18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회장에 정인철, 부회장에 김상호, 이용태, 조칠현을 선출하였다.

정인철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1970년 도미하였다. Expert Development & Seavice, Inc. 을 운영하였다. LA한인시민권자협회 회장으로써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는 이민국과 6개월마다 정기적인 면담을 갖고 한인들의 시민권 적체 해소와 비자 심사 완화 그리고 이민서비스 한국어 개설 등의 개선을 이루어 냈다. 또한 이민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체류자들의 신분과 복지에도 도움을 주었다. 투표 참여 운동으로 한인 선출직 공직 출마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상공회의소는 6월 22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제18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인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동포들이 LA 폭동의 아픔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타운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상공인들의 권익옹호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인타운 안전

LA 폭동이 흑백 인종 갈등에 따른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은 마치 한흑갈등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다. 경찰이 폭동 진압을 포기하자 자구책으로 자경단을 만들어 무장 폭도들에게 대응하는 것조차도 과잉대응으로 보도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한인들이 흑인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흑인 강도의 총에 맞아 죽어간 사실은 가려졌다.

이처럼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LA 4.29 폭동의 경험한 한인사회는 우리 삶의 터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LA카운티 정부와 시청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LAPD를 후원하여 한인타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범 교포 차원에서 추진해 갔다.

1994. 5. 정기이사회 개최
제18대 정인철 회장 당선

1994. 5.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미나
ASB 주관, 상의 후원

1994. 6. 한인타운 방범기금 모금
MCI 단체가입 캠페인 참여

1994. 6. 한인건강정보센터 주관
양노보건센터 기금모금 참여

1994.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1994. 7. 남가주한인경제단체장협의회
정인철 협의회 의장 선출

1994. 7. 재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길림성여성경제인초청세미나
참석

1994. 8. Yvonne Burke 후원모금 참여

한인타운 방범기금 마련을 위해 장거리 전화회사 MCI와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인단체가 회원들을 페키지로 묶어서 MCI에 가입하면 수입의 일정분을 한인타운 방범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의는 대시민 캠페인에 앞장서서 기금 마련에 일조하였다.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정치권에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의 노력으로 탐 브레들리 LA시장은 한인커뮤니티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LA 시장은 한인 보좌관 죤 리와 도시계획 관계자를 상의 사무실에 보내어 한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렵하였다. 폭동 이후 LA 시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문제점 등 한인타운 재건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한인경제 체질강화 세미나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미나

상의는 먼저 주택문제에 관심을 두어 5월 25일 아메리칸 세이빙 은행과 공동으로 내 집 장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중은행의 다양한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초기 이민자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 활성화 세미나

정보화시대를 맞아 한인타운 경제의 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세미나는 9월 15일 퍼시픽 벨 한인고객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칼폴리 포모나 대학 진형기 박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한인타운 기업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세무 관계 세미나

한인 비즈니스의 약점이 있다면 세무관계법에 어두워 불유익을 당하는 경우이다. 상의는 10월 12일 세무관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웨인 그루츠메처 가주 고용개발국(EDD) 세무감사관은 강의를 통해 봉제, 자동차 정비, 건설업 등의 급여세 탈세, 종업원 상해 등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많은 업소가 정식 종업원을 위장하여 임시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또 다른 강사로 초빙된 게리 구와다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IRS의 절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요령을 강의하여 도움을 주었다.

1994. 9. 세계한인상공인대회 참가
(서울 롯데호텔)

1994. 9. 한인타운 기업활성화 세미나
퍼시픽벨과 공동주최
(강사 진형기 교수)

1994. 10. 연길시 방미친선사절단
환영회 개최

1994. 10. 세무관계 세미나 개최

1994. 12. 상공인 친선의 밤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남가주 상공인 친선골프대회

연변시와 교류협력 강화

중국 길림성 조선족자치구의 연길시 방미 친선 사절단을 맞이하여 10월 5일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환영회에는 LA 총영사관의 이영헌 부총영사와 경제단체장, 금융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절단은 박동규 연길시장을 비롯하여 10명의 고위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교포와 미국 교포라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우의를 다짐으로써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중국의 개방과 함께 이미 다수의 한인들이 연길을 비롯한 조선족 자치구의 도시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게 된 방문단은 적극적인 교류를 주문하여 LA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끌어내었다.

제3회 상공인 친선의 밤

제3회 상공인 친선의 밤은 1994년 12월 7일 Oxford Palace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나항공, MCI, UPS, 버드와이저가 특별 후원하고 60여 업체가 후원하여 발전되고 풍성하고 행사를 만들었다. 제3회 행사는 우리 한인타운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로 한인타운에 세워질 경찰서 설립 기금모금을 위한 디너쇼도 겸하였다. 코미디언 이근찬의 사회로 판소리 인간문화제 명창 남궁 정애, 가수 유지훈이 출연하였다.

제18회 모범우수기업인상에는 Big 6 Market 이건세 대표가 수상하였고, 모범우수경영인상에는 글로발은행 하동룡 행장이 수상하였다.

19
20

공산권 경제 교류

제19, 20대 회장 김상호

제19대 이사회 조직

회 장 김상호
부회장 이정현, 크리스틴 정
길옥빈
이사장 하기환
부이사장 로널드 윤
감 사 사라 김, 스티브 김
이 사
강덕휘, 강상호, 강상윤, 고석화
고완택, 길옥빈, 김보환, 김사라
김상호, 김에리카, 김재익, 김철원
문창배, 박병철, 박상원, 박수영
박전창, 박찬호, 박평인, 박현민
방미철, 백병국, 변유리, 서영석
송용호, 신구현, 여남구, 윤규성
이광수, 이덕치, 이동연, 이로버트
이브루스, 이영송, 이용기, 이용태
이은영, 이응용, 이정우, 이정현
이재림, 이청광, 이희옥, 임종칠
정영삼, 정인철, 정크리스틴
조익현, 조칠현, 최명진, 최병선
최익범, 하기환, 하스테판, 하진도
한군석, 한문식, 황선호

제19대 김상호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5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19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회장에 김상호, 공동 출마한 부회장에 이정현 크리스틴정, 길옥빈을 선출하였다.

김상호 회장은 경주에서 출생하여 경남고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경주여고와 균명고교 교사로 봉직하였다. 학원 사업에 뛰어들어 대입학원에 이어 중동파견 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학원을 운영하였다. 파고다 라이온스 클럽 총무로서 라이온스 세계대회에 참석차 하와이 방문 중 미국 이민을 결심한다.

1978년 투자이민을 통해 도미하여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마켓 물품 홀세일 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다. 창고 건물을 구입하여 캠튼과 롱비치에 수왓밋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LA 폭동으로 불타서 폐업하였다. 이후 재기에 나서 10대의 방직기로 천 생산을 시작하여 5년 만에 150대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김상호 회장은 미주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공회의소는 6월 26일 Hollywood Roosevelt Hotel에서 제19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취임사에서 김상호 회장은 상공인들의 권익옹호와 회원들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인격위주의 상공인 풍토확산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살기 좋은 경제환경이 되도록 상공인의 책무를 하자고 당부하였다.

상공회의소 체제 정비

상공회의소는 7월 18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새 이사장에 하기환, 부이사장에 연규성을 선출하였다. 집행부는 상공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의 수 6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할 것을 발의하였고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상의는 폭동 이후 이사회비 납부 실적이 미흡하고 업체들의 후원금도 줄어들어 상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사 증원은 운영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의 영입으로 상의 분위기 진작에 효과를 보았다.

1995. 5. 정기이사회 개최
제19대 김상호 회장 선출

1995. 6. USC 한국문화전통도서관
기금만찬회 후원 및 도서전달

1995.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1995. 7. 제5대 윤병욱 회장,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취임

1995. 8. LA 이민국장 초청 세미나
협찬 참여

1995. 8. 국제경제포럼 개최
(하바드 그랜드 호텔)

1995. 8. 제10대 이청광 회장, 민주
평통 제7기 LA협의회장 유임

1995. 8. MCI와 Affinity Program
Agreement 체결

1995. 8. 북한 투자 세미나 개최
(윌셔래디슨호텔)

1995. 8. 호치민한인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 체결

1995. 9. 세계한인상공인대회 참가

1995. 9. 무역협회 예방, 교포 1.5세를
위한 취업박람회 논의

1995. 9. MTA 비즈니스 세미나 후원

1995. 9. 한인의 날 축제 장수왕
시상식 참석

1995. 9. 길 가세티 LA카운티 검사장
예방

1995. 10. LA시 도시계획위원장 동행
한국 방문

1995. 10. Wilshire Centennial
Celebration 참가

비영리단체 등록

김상호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남가주 한인사회와 코리아타운에서 가지는 역할과 위상으로 인해 단체의 비영리단체 등록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공공 단체로서 정부 기관 및 미주류 단체와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다.

상공회의소는 초기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당시인 1985년 양효길 회장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였었다. 이후 상의 명칭이 바뀌고 회기가 바뀌면서 행정 관리가 되지 않아 말소되었고, 김 회장은 사비를 들여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로 재등록을 하였다.

북한과 경제 교류 협력

상공회의소는 8월 18일 윌셔 래디슨 호텔에서 "북한 투자에 관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북한으로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의 길을 열었다. 상공회의소 제12대 이영송 회장은 1989년 북한방문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면서 경협의 물꼬를 텄다. 1991년에는 북한 최초로 나진·선봉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에 한시해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방미사절단이 LA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는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이어주는 경제 삼각 벨트 지역이다. 미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면 저렴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상품으로 근거리에 있는 중국과 시베리아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강득휘 회장을 비롯한 일부 상의 멤버들은 북한 투자와 무역을 추진하고 있었다.

1995. 10. Asian Community Forum
1995. 10. 산호세실리콘벨리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1995. 10. LA공항 관계자들과 미팅 공항확장 상의측 협조 요청
1996. 12. 제4회 상공인 친선의 밤 개최
1996. 5. 정기이사회 개최 제19대 김상호 회장 당선
1996. 6. 정기총회 및 회장단 취임식

제20대 이사회 조직

회 장 **김상호**
부회장 **이현욱, 에드워드 한 마이크 조**
이사장 **강상윤**
부이사장 **신구현, 에리카 김**
감 사 **박찬호, 길옥빈**
이 사
강상윤, 강상호, 고석화, 권석대 길옥빈, 김경남, 김보환, 김사라 김상호, 김에리카, 김영민, 김완택 김재익, 김천호, 김철원, 남상훈 박달웅, 박병철, 박상원, 박전창 박찬호, 박태현, 박현민, 방미철 배무한, 변유리, 서영석, 송용호 신구현, 안영복, 원동석, 여남구 윤규성, 이광수, 이덕치, 이동연 이로버트, 이브루스, 이성훈 이용태, 이은영, 이정현, 이영송 이응용, 이정우, 이청광, 이혁 이주송, 임종칠, 정영삼, 정인철 정크리스틴, 조성상, 조익현 지제이슨, 차명훈, 차민영, 최명진 최병선, 최익범, 케이 사브리나 하기환, 하스테판, 하진도, 한군석 한문식, 황선호

베트남과 경제 교류 협력

상공회의소는 김상호 회장을 중심으로 이사 33인이 베트남의 호치민시를 방문하였다. 양측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고 호치민 한인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상공인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베트남은 기나긴 전쟁에서 벗어나 1986년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도이머이' 를 표방하며 국가를 쇄신하였다. 1980년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협력하면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 1995년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두 나라가 상호 적대감을 버리고 미래를 위해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호치민시는 베트남 분단 시기에 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바뀐 곳이다. 호치민시는 아직도 베트남 최대의 도시이며 경제 수도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계 월남인 라이따이한을 비롯한 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후 상공회의소는 호치민한인상공회의소 이사 3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교류를 증진시켰다. 상호 교차 방문과 자매결연을 계기로 차종환 박사는 "베트남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였고, 미주 한인들의 베트남 진출이 러쉬를 이루게 되었다.

상공인 친선의 밤

제4회 상공인 친선의 밤

제4회 상공인 친선의 밤은 1995년 12월 5일 Wilshire Radisson Plaza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상의는 재난과 불경기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칭송함으로써 기업 정신을 진작시키고자 하여 화합의 잔치로 대회를 준비하였다. 1부는 조칠현 이사와 에리카 김 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연규성 부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제19회 모범우수기업인상에는 Fashion 21, Inc. 장도운 대표가 수상하였고, 모범우수경영인상에는 월셔은행 임봉기 행장이 수상하였다.

제5회 상공인 친선의 밤

상의는 제5회 상공인 친선의 밤을 1996년 12월 10일 Westin Bonaventure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상의는 한인타운 번영을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성장하여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며 단합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대회를 준비하였다. 원동석 이사와 사브리나 케이 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인하 한인회장과 박태희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제20회 모범우수기업인상에는 Xylan Corporation 스티브 김 대표가 수상하였고, 모범우수경영인상에는 한미은행 민수봉 행장이 수상하였고, 이들은 2부 순서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하였다.

1996. 7. 서울정 개막식 참석
1996. 7. MTA 지하철 개통식 축사
1996. 7. 램파트 경찰위원회 참석
1996. 8. LAPD Neighborhood Night Out 보도 행진 참가
1996. 8 라디오코리아, 한흑갈등 특집 에리카김 부회장 참석
1996. 8. 김창준 의원 리셉션 참석
1996. 8. 조선족 상공인 대표 환영 만찬 개최
1996. 9. 미주총련 LA 유치 리셉션 및 출판기념회 개최
1996. 9. 한국의 날 축제 개막식 참석
1996. 9. 한국 리쿠르트사 Job Fair 개막식 참석
1996. 9. 민족교육관 기금모금 참석
1996. 9. Dodgers Stadium, Korean Family Night 내빈 참석
1996. 10. 개천절기념 골프대회 개최
1996. 10. Pacific Bell과 파트너쉽 협의
1996. 10. 램파트경찰서 오픈하우스
1996. 10. 길 가세티 후원의 밤 참석
1996. 10. 상사지사협의회 골프대회참석
1996. 11. 코리아타운 버스노선에 관한 LA 시관계자와 미팅
1996. 11. KAC Young Leadership 참석
1996. 11. 하와이 부지사 미팅

중국과 경제 교류협력

중국의 조선족과는 중국이 개방정책을 시작하고 1979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후인 1984년 상공회의소에서 광동박람회에 참석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연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족 자치주 정부는 경제사절단을 파송하여 LA상공회의소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 1996년 8월에는 조선족 상공인 대표가 상공회의소를 내방하여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을 요청하였다.

훈춘시 김석인 시장은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들을 초청하였다. 훈춘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8개 시·현 중에 한국과 러시아에 면해있는 요충지이다. 상의는 김상호 회장을 단장으로 10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북경과 연길을 거쳐 훈춘시를 방문하였다. 훈춘시는 김상호 회장을 시 경제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김석인 훈춘시장은 훈춘 공산당대학에 영어클래스를 개설을 목적으로 컴퓨터 지원을 요청하였다. 상의는 10대의 컴퓨터를 훈춘으로 보냈으나 김석인 시장의 전근으로 이루지 못하고 컴퓨터를 장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중국 학자 초청 세미나

상공회의소는 국제문제에 정통한 중국 학자 3인을 초청하고 강연을 들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선전, 주하이, 산터우, 하문, 하이난 등 5개 지역에 경제특구(SEZ)를 설치하여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계획을 세웠다.

1996. 12. 제5회 상공인 친선의 밤 개최
1996. 12. 평통 제야의 밤 참석
1997. 1. 무비자 캠페인 참석
1997. 1. 김덕룡 장관 초청강연회 (Omni Hotel)
1997. 2. 전직 회장단 모임
1997. 2. 한인회 단체장회의 참석
1997. 2. 임용근 오래곤 상원의원 상견례
1997. 2. 리오단 LA시장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점심식사
1997. 3. 3.1절 행사 참석 (KTE 강당)
1997. 3. 윌셔상공회의소와 교류를 위한 점심식사
1997. 3. 충남 지사 간담회 참석
1997. 4. 한흑 관계 개선 세미나 참석
1997. 4. Bell Garden 상공회의소 황선호 회장 취임식 참석
1997. 4. KYCC 22주년 기념식 참석
1997. 5.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창립식 고석화 회장취임 참석
1997. 5. 미주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김상호 회장 취임식 참석
1997. 6. LAPD 후원의 밤 참석

중국은 경제특구 신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관리체제 개혁, 환율제도 개혁, 관세율 인하 등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해나갔다. 1994년에는 GATT에 가입을 마무리하고 이어 WTO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계 경제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상의는 세미나 내용을 책으로 편찬하여 배포하였다.

SAT 후원기금마련 골프토너먼트

상공회의소는 미주 한인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SAT 한국어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계를 돕기 위해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토너먼트를 주최하였다. 파사데나 브룩사이드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대회에 한인사회의 많은 단체와 본 회 이사들이 참가하였다.

수학능력시험(SAT)은 미국 대학 입학 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SAT 2는 수학과 문학, 역사, 생물학, 물리학을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와 같은 교과목을 선다형 문제로 푸는 시험이다. 한국어 시험은 1994년부터 시행하였다.

SAT 한국어 시험 관리하는 한국어 진흥재단 이사장을 본회 이사인 길옥빈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상의는 골프대회에서 모금된 3천 달러를 SAT 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다.

SAT 후원기금마련 골프토너먼트

21
22

경제대란(IMF) 본국 지원

제21, 22대 회장 강상윤

1997.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1대 강상윤 회장 당선

1997.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21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강상윤**
부회장	**안영복, 최명진, 에리카김**
운영위원회	**이 혁**
타운활성화안전대책위	**김성주**
세미나분과위원회	**박준창**
타커뮤니티관계위원회	**길옥빈**
문화체육분과위원회	**김촌호**
국제교류사업위원회	**원동석**
정관및회원친목위원회	**크리스틴정**
홍보및출판위원회	**지정구**
회원복지사업위원회	**김영민**
회원영입및상벌위원회	**강상호**

제21대 강상윤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7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21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회장에 강상윤, 공동 출마한 부회장에 안영복, 최명진, 에리카 김을 선출하였다.

강상윤 회장은 황해도 출신으로 브라질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1년 미국에 들어와 UCLA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한미경찰위원회 초대 이사장, 제79회 전국체전 미주동포 단장, LA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무궁화상과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상공회의소는 6월 26일 윌셔플라자호텔에서 제21대 회장단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상공회의소 이사들과 한인 단체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정관계 인사로는 네이트 홀든 시의원, 길 가세티 카운티 검사장, 닉 살리코스 램파트 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강 회장은 로날드 류 연방판사 앞에서 정관을 준수하고 상공인의 권익옹호에 헌신하겠다고 선서하였다.

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와 타운 번영에 앞장설 것이며, 한국과 가교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 혁**
부이사장 **김보환, 크리스틴 정**
감 사 **박찬호, 한문식**
이 사
강상윤, 강상호, 강호명, 고기영
고석화, 길옥빈, 김보환, 김성주
김영민, 김완택, 김재익, 김촌호
김철원, 남상훈, 노덕야, 두크리
박달웅, 박동우, 박준창, 박찬호
박현만, 방미철, 배무한, 변유리
브루스리, 심상훈, 사브리나케이
스테판하, 에리카김, 안영복
원동석, 윤규성, 이광수, 이덕치
이동연, 이리섭, 이영송, 이용태
이은용, 이정우, 이정현, 이주송
이청광, 이 혁, 임문환, 임종칠
정인철, 조익현, 지영필, 지정구
차명훈, 천서구, 차민영, 최명진
최병선, 크리스틴정, 하기환
한군석, 한동호, 한문식, 황선호

1997. 7. 한미국가대표 야구대회 참석 (USC 야구장)

1997. 7. 제헌절 골프대회 개최

1997. 7. Korean Family Night 참석 (Dodger Stadium)

1997. 8. Business Mixer (Radisson Hotel)

1997. 9. 건강박람회 참석 (아드모어 공원)

1997. 9.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참가 (서울)

세계 경제 대란

한국의 외환 위기

한국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조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저녁 각 당 정치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금융위기 타개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국민 회의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조순 한나라당 총재,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참석하였다.

인창엽 부총리는 밤 10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단기자금 만기 연장 등 외환차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고 발표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22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의 공식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받고 이사회를 열었으며, 24일에는 조사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IMF 조사 협상단은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며, 금융기관 통폐합, 긴축 재정, 환율과 외환 제도, 관세, 그리고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위기

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사실상 세계적으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997 Asia Financial Crisis)로 불린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태의 출발은 태국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자 환율을 이용한 외국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에서 통화위기가 발행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거쳐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까지 파급된 아시아 지역의 외환 유동성 위기이다.

국내적으로는 1996년까지 호황을 이어오던 경제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졌다. 수출액이 감소로 인한 무역적자는 약 230억 달러에 이르고, 한국 기업들의 대외채무는 1,520억 달러에 달했다. 문제는 단기부채 만료와 동남아 경제 불안감을 느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하였으며 겨우 570억 달러를 유지하였다.

대내외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관리의 실패, 환율운용 정책의 실패, 지급준비제도의 부실운용,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 재벌들의 종금사 진출과 부동산 투기 방조 등 결국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1997. 9. 거북이마라톤대회 참가 (Santa Monica Beach)
1997. 9. 추석맞이 경로대잔치 (MTA Bus Station)
1997. 10. 무비자 입국 세미나 개최
1997. 10. 브라질한인상공회의소 방미
1997. 11. 상공회의소 사무실 이전 (3740 Wilshire #1026)
1997. 11. 한국 경제인 돕기 캠페인 (한남체인 앞)
1997. 11. 한국 경제인 돕기 캠페인 (가주마켓 앞)
1997. 11. 카자크스탄 한인엽합회 회장단 상의방문
1997. 12. 제6회 상공인의 밤 개최 (래디슨윌셔플라자호텔)
1997. 12. 한국 경제인 돕기 캠페인 (가주마켓 앞)

리오단 LA시장 초청 강연

경제대란의 고통

당시 재계 14위였던 "한보사태" 를 시작으로 하여, 삼미, 진로, 삼립, 대농, 한신, 기아, 쌍방울, 해태, 쌍용, 대우그룹 등 대기업부도가 심각하였다. 결과는 재계 30위권의 기업 중 11개가 사라졌다. 중소기업들은 마치 둑이 무너지듯 하루평균 100개의 기업이 연쇄 도산하여 1년 만에 3,000개가 넘는 업체가 파산하였다.

금융시장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부실화됐고,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이 합병되거나 사라졌다. 종금사들은 동남아에서 단기자금을 들여왔기에 태국 외환위기로 해외투자자들이 회수하여 파산하였다. 보험업계와 증권업계도 대부분 합병 또는 퇴출되었다.

취업시장은 생지옥에 가까워 실업율은 사태 전 2%에서 8.8%로 올랐고 실업자가 최대 178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생산직에는 중졸자가 많았으나 고졸자와 대학 졸업자들까지도 몰려들었다. 인기 없던 공무원, 경찰, 직업군인 지원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기업의 줄도산과 금융기관 폐쇄, 주식 폭락, 대량 실업으로 환율은 최고 1,962원까지 치솟았다.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수입원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는 급격히 오르고 소비는 냉각되었다. 수출은 더욱 감소하고 실업율은 높아지자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으며, 자살률이 하루 25.6명으로 급증하고 가정들이 파괴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

IMF 사태 가운데 새로 출법한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IMF를 극복을 위한 일련의 초치들을 과감히 시행하였다. 외국인 투자 자율화 정책,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IT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전화위복이 되어 대한민국이 IT 산업에 강자가 되는 출발이 되었다. 한국은 2001년 8월 23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나라답게 3년 8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22대 이사회 조직

회 장 **강상윤**
부회장 **박현민, 최명진, 김성주**
이사장 **한문식**
부이사장 **이동연, 김상인**
감 사 **박준창, 이용태**
이 사
강상윤, 강상호, 고석화, 권영민
김남권, 김보환, 김상인, 김성주
김영민, 김익수, 김재익, 김철원
박달웅, 박동우, 박준창, 박현민
방미철, 배무한, 사브리나케이
서스코트, 에리카김, 안영복
이광수, 이덕치, 이동연, 이리섭
이영송, 이용태, 이은용, 이정우
이정현, 이주송, 이청광, 이 혁
임문환, 정인철, 조익현, 지영필
지정구, 최명진, 최병선, 하기환
크리스틴정, 하스테판, 한군석
한동호, 한문식

1998. 1. 신년하례식 (Oxford Palace Hotel)
1998. 1. LA 시장실과 간담회 (Oxford Palace Hotel)
1998. 1. 상공회의소 교민회 흡수 통합선언 기자회견
1998. 1. 상공회의소 – 교민회 통합 반대 무효 선언 기자회견
1998. 2. 쿠다히시상의 IMF 지원 서명 운동 협조 회의

금 모으기 운동

건국이래 최대 난국에 봉착한 한국인은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였다. 외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기부하여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금모으기 운동은 전국 누계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였다.

모국 경제 지원 캠페인

21대 상의가 출범하고 불과 4개월 만에 IMF 사태가 발생하였다. 강상윤 회장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17개 한인 경제단체와 공조하여 본국 돕기에 나섰다.

모국상품 애용 운동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경제단체 회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한인타운 곳곳에 나가 모국 상품 애용 캠페인을 벌였다. 한남체인, 가주마켓 등 쇼핑센터를 선정하고 한인 동포들에게 심각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길 호소하였다. 마침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한인 동포들이 선물구매 시 모국 상품을 애용에 참여하였다.

달러 보내기 운동

외환위기에 있는 한국을 돕기 위해 미주한인들의 달러 보내기 운동은 효과를 보았다. 평시에도 연말이면 본국 송금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캠페인 효과로 미국에서 보낸 송금액이 두 달 사이에 7억 달러가 넘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배가 많은 숫자이다.

자료 미비로 집계에서 빠진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외환, 한미, 나라, 조흥, 새한 은행 등을 통해서 송금된 금액이 남가주에서만 2만4,242건에 3억 3,658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자 이러다가 예금고가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물론 환차가 커지며 새로운 투자처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던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은 동포들의 조국 사랑은 IMF로 신음하는 본국에 힘이 되었으며 흑자로 선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8. 2.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8. 2. IMF 한국 돕기 결의문 채택
Maywood City

1998. 2. 한국의 날 행사준비위원회
구성(15인)

1998. 3. 한국의 날 명칭 '한가위' 확정

1998. 5. 한국의 날 행사 LA한인회와
공동주최 발표

1998. 5. LA City New Budget 보고회
LA 시와 상의 공동 주최

1998. 5. 리오단 LA시장 초청 간담회
(래디슨윌셔플라자 호텔)

1998. 5. 한국의 날 행사 장터에
한국우수기업박람회 개최발표

1998. 6. 정기총회 및 회장취임식

1998. 7. 정기이사회 개최
한문식 이사장 선출

IMF 한국지원 서명운동

상공회의소는 한미연합회(KAC), 한인총대학생회와 더불어 IMF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한인타운과 남가주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며, 미주류 사회에 까지 확산되었다.

Cudahy, Maywood, Bell Gardes 상공회의소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3개 한인단체와 3개 미주류 상공회의소는 2월 18일 쿠다이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참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인커뮤니티의 이슈는 곧 우리의 이슈이다"라며 향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미주류 사회단체로 확산되었으며, 타지역 한인사회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모국 돕기 만큼이나 타운 경제 살리기도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인타운의 한국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관광산업과 선물센터 식당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 관광객들이 줄고 유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였으며, 지상사 직원들이 본사의 인원 감축으로 속속 되돌아 갔다.

한국 음식 박람회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민족들의 한인 상가 이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상의는 요식업협회와 공동으로 지하철 웨스턴역 광장에서 한국음식 박람회를 개최하고, 한국 음식 주류사회 소개와 한인업소 판촉을 실시하였다.

한국 음식은 한국인만 먹는 음식에서 세계인들이 찾는 음식으로 발전된 계기가 아마 이때부터일 것이다. 스테이크만 먹던 미국인들이 코리안바베큐, 순두부와 갈비탕을 즐기고, 김밥과 김치를 찾는 놀라운 일은 타운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여망의 결과일 것이다.

통상 투자 진흥회의

제1차 통상 · 투자 진흥회의가 1998년 7월 8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장, 기업인, 영사관, 무역관, 관광공사, 수출보험공사에서 26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1998. 8. Korean Family Night 참석 (Dodger Stadium)

1998. 8. 교민회 및 한국의 날 명의 사용금지 TRO 접수

1998. 8. 한국 부동산투자 및 보유 세미나 개최

1998. 8. 스몰비즈니스 세미나 7단체 공동 개최

1998. 9. 건강박람회 개최

1998. 8. 재외동포특례법 공청회 참석

1999. 9. 한국의 날 행사 기금관리 제2자 감독 법원 판결

1998. 9. 한국의 날(한가위) 축제 개최

1998. 10. Business Mixer

1998. 11. LA 시의원실과 회의

민형기 총영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니 한국 상품 수입을 늘려 달라 주문하고, 한국에 투자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투자 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열린 회의는 본국 살리기와 미주 한인 경제 살리기에도 일조하였다. 본국과 무역이 주류를 이루던 한인들에게 한국이 부동산을 비롯한 투자처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날 축제 – 한가위

코리아타운교민회 흡수 통합

상공회의소(강상윤)와 코리아타운교민회(김남권)는 1998년 1월 15일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을 선언하였다. 교민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 상의에 흡수 통합을 통해 '한국의 날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인회장 당선자 서영석 박사와 평통협의회 이영송 회장도 함께 배석하여 타운 발전을 위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흡수 통합의 걸림돌

코리아타운교민회 전 회장들과 이사들이 통합과 관련하여 1월 21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서에서 교민회 이사들의 의견을 묻거나 한인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김남권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갈등은 고조되어 교민회는 상의를 상대로 행사기금관리에 대한 가처분신청(TRO)을 하고, 상의는 교민회 및 한국의 날 이름 사용금지 TRO를 접수하였다. 법원은 9월 14일 한국의 날 기금관리를 제3자가 감독하도록 판시하였다. 교민회가 행사장에 현수막을 내걸려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였다.

한인의 날 행사는 법정 싸움으로 인해 스폰서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대략 1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마쳤다.

제25회 한국의 날 행사

상의는 교민회 통합에 따라 2월 17일 한국의 날 행사준비위원회(15인)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2일 한국의 날 행사 명칭을 "화합이 만드는 더 발은 사회"라는 의미로 '한가위'로 확정하고, 미국 기업들의 스폰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5월 21일에는 LA 한인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였다.

1999. 1. 제22회 상공인의 밤 개최
1999. 2. 금융정보세미나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1999. 2. 김영진 농수산부장관 간담회
1999. 2. 광주 특산품 행사 참석
1999. 3.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만찬
1999. 3. Tax Reform 회의 참석 (City Hall)
1999. 3. 제10지구 시의원 공개토론
1999. 4. 수출보험 및 외국인투자 설명회 개최
1999. 5. 한국 투자설명회 개최
1999. 5. 박철언 자민련부총재 간담회
1999. 5. 인천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

전야제에는 '명성황후'를 공연하였고, 17일에는 개막식, 축제 기간 장터에는 한국의 50여개 중소기업들이 참가하여 '스몰비즈니스 엑스포'가 열렸다. 19일에는 14대의 꽃차와 20대의 오픈카, 20개의 학교 벤드와 단체가 퍼레이드를 하였다.

상공인의 밤

제21회 상공인의 밤

제21대 상의는 '상공인 친선의 밤'을 '상공인의 밤'으로 개칭하고 1997년 12월 4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행사를 개최 되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UPS 등 30여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 된 행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애쓰는 상공인 들에게 위로와 단합의 자리가 되었다.

원동석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한군석 전 회장의 개회사와 강상윤 회장의 인사, 그리고 박태희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제21회 최우수기업인상에는 1,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제품으로 제공하는 로랜드 노말선 대표가 수상하였다. 최우수경영인상에는 주류사회의 두터운 벽을 깨고 이유식과 영양식 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네슬레 USA 샘 리 대표가 수상하였다.

제22회 상공인의 밤

상의는 '상공인의 밤' 행사를 통해 '최우수기업인 및 경영인상' 시상식을 행하여 왔는데 상공인의 밤과 시상식 회차가 상이하여 초대부터 행하였던 시상식 회기를 따라 회차를 통일하였다. 따라서 '제22회 최우수 기업인상, 경영인상 및 상공인의 밤' 행사를 1999년 1월 28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2회 최우수기업인상에는 520명의 직원과 함께 컴퓨터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데크미디어의 앤드류 박 대표가 수상하였다.

최우수경영인상에는 부임 은행 자산은 5배 이상 늘려 나스탁 상장을 이끌어낸 나라은행 벤자민 홍 행장이 수상하였다.

23
24

상의 세대 교체

제23, 24대 회장 김성주

1999.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3대 김성주 회장 당선
1999. 7.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22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김성주**
부회장	**박현만, 최명진, 길옥빈**
운영위원회	**김성주**
타운활성화안전대책위	**강상윤**
홍보 및 세미나위원회	**한문식**
타커뮤니티관계위원회	**하기환**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임길배**
국제교류사업위원회	**이영송**
정관 및 상벌위원회	**한군석**
사업개발분과위원회	**한동호**
회원영입복지위원회	**이 혁**
회원친목분과위원회	**변유리**

제23대 김성주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1999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23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단독 출마한 회장에 김성주, 공동 출마한 부회장에 박현만, 최명진, 길옥빈을 선출하였다. 김 당선자는 후보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 경선을 피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최근 상의로 외국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재임 중 한인 경제의 미주류 진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신임 김성주 회장은 부산에서 출생하여 1974년 도미하였다. 남가주대학교(USC)를 졸업하였으며 봉제사업을 경영하였다. 가주봉제협회와 미주봉제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공회의소는 7월 8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제23대 회장단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리처드 프랑코 주상원의원, 김명재 총영사, 하기환 한인회장 등 250여 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김 회장은 밀레니엄 시대에 회장을 맡아 책임감을 크게 느끼며,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맡아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동포 상공인들과 한국 기업, 그리고 미주류 사회와도 교류협력체제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회장은 당년 40세로 상공회의소 최연소, 첫 1.5세 회장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제23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청광**
부이사장 **최병선, 이용태**
감 사 **박종만, 이리섭**
이 사
강상윤, 강상호, 고석화, 김동환
김보환, 김성주, 김에리카, 김철원
길옥빈, 김 향, 박달웅, 박종만
박현만, 변유리, 신구현, 안영복
이광수, 이동인, 이듀크, 이리섭
이영송, 이용태, 이청광, 이 혁
임길배, 임문환, 정브라이언트
정인철, 정주현, 정크리스틴
조익현, 최명진, 최병선, 하기환
케이사브리나, 하스테판, 한군석
한동호, 한문식

1999. 7. 이종찬 전 국정원장 오찬 미팅 & 교포간담회 참석
1999. 7. 건강박람회 1차 회의 참석
1999. 7. 대한항공 신임 지점장 상의 내방
1999. 8. 민족상 시상식 참석 (한인회)
1999. 8. 김덕룡 한나라당 부총재 환영간담회 참석
1999. 8. Korean Family Night 참석 (Dodgers 구장)
1999. 8. 광복절기념식 참석 (우정의 종각)
1999. 9. 세법 한국안내책자 기자회견
1999. 9. 이회장 한나라당 총재 환영회 참석

주류 사회와 경협

한인 경제는 한인 커뮤니티나 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김명배 총영사는 주요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주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미 경제단체 및 정부 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한인 업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미나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확대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성주 회장은 한인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려면 정보산업화에 주력할 때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주류사회 및 타 커뮤니티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상의는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비즈니스 핫라인 설치, AT&T 등 대기업들과 후원협약 체결, 회원 특별 할인프로그램 마련,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사무국 전문화로 풀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네잇 홀든 시의원을 상의 정기이사회에 초청하여 LA시정부의 신규 사업체 인허가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탑 비즈니스센터' 추진를 논의하였다.

세미나

금융정보 세미나

상의는 한인 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창업과 운영에 도움이 될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금융정보 세미나(BANK EXPO)를 개최하였다. 한인 경제력이 신장되면서 한인들의 융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사업자,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칼폴리대학교 진형기 박사의 주제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제1강은 'SBA 융자'에 대한 주제로 중앙은행 제이슨 김 SBA 부장이 융자 대상, 융자 한도, 다운페이액과 융자 기간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제2강은 '상업 융자'에 대한 주제로 웰셔은행 조앤 김 부행장이 단기 융자, 장기 융자, 부동산 론 등을 설명하였다. 제3강은 '무역 금융'에 대한 주제로 한미은행 오이용 국제부장이 신용장(L/C) 개설 여건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제4강은 '팩토링'에 대한 주제로 프라임기업금융 앤드류 정 부사장이 지불보증과 융자, 외상매출금 장부 정리 및 수금업무 기능을 설명하였다.

인터넷 비즈니스 세미나

상의는 2000년 5월 2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무료로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사전 예약을 받아 250명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

이날 강연은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휴먼컴퓨터 조지 강 대표,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 휴먼컴퓨터 스티브 강 부사장, '웹사이트 제작의 실제' 휴먼컴퓨터 잔 조 부사장, '웹 마케팅 전략' Ping 2 World 홍원정 대표, '벤처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Click 2 Asia 조셉 천 대표가 각각의 주제로 강연하였다.

1999. 9. 섬유패션대전 미주지역예선
1999. 9. 라디오코리아 비치페스티벌
1999. 9. LA상공회의소와 미팅
1999. 9. 한국의 날 개막식 참석
1999. 9. 중앙일보 25주년기념식 참석
1999. 9. 건강박람회 참석 (동양선교교회)
1999. 9. 회장단, 인천상의 방문
1999. 10. 브라질상의 환영간담회 개최
1999. 10. 동포경제인간담회 참석 (총영사관)
1999. 10. 이사친목 골프대회 개최
1999. 10. 경영학회 세미나 참석 (서울플레이스호텔)
1999. 10. 코리아타운경찰위원회 주최 경찰친선골프대회 참가
1999. 10. 서울국제공원 청소 참가
1999. 10. 한국경영신문 방문인터뷰참석
1999. 11. 금융세미나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1999. 11. 경제단체협의회 미팅
1999. 11. 전 회장단 회의
1999. 12. 미용재료상협회 송년회 참석
1999. 12. 김종필 전 총재 환영회 참석
1999. 12. 부동산협회 송년회 참석
1999. 12. 한인회 커뮤니티나이트 참석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개설

상공회의소는 웹사이트(www.koreanchamberus.com)을 개설하고 3월 24일 사무실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영어와 한글로 제작된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상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위킹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는 상공회의소의 활동과 세금, 보험 및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다룬 핫 링크, 그리고 회원 가입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꾸몄다. 특히 핫 링크 부분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경제 전문가와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상의가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내용을 뽑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노동청 서류 등도 한글과 영어로 제작하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웹사이트에 광고를 원할 경우에는 Banner Hosting을 클릭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웹사이트의 제작과 유지는 'E 컴 소프트'사와 제휴하였으며, 마케팅은 '휴먼컴퓨터'에서 맡게 하였다. 웹사이트 유지를 위해서 사무국 직원 1명과 웹 매스터 2명을 충원하였다.

1999. 12. 우정의 종각 타종식 참석
2000. 1. 신년 인사회 개최
2000. 1. Xavier Bacerra 의원 미팅
2000. 1. 상공인의 밤 개최
2000. 1. 서울국제공원청소
2000. 1. 코리아타운주민의회 참석
2000. 1. 이희호 여사 환영리셉션 참석
2000. 3. 3·1절 기념식 참석(한인회)
2000. 3. 한인타운 학교부지 공청회
2000. 3. 한인회긴급단체장협의회 참석
2000. 3. 한국학교 후원행사 참석
2000. 3.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2000. 3. 한인회장 취임식 참석
2000. 3. 상의 웹사이트 개설 (www.koreanchamberus.com)
2000. 3. 안중근 의사 순국 90주기 기념식 참석
2000. 3. 아리랑노인아파트 준공식참석
2000. 4. 평통기금마련 골프대회 참가
2000. 5. 효도의 날 경로잔치 참석
2000. 5. 건강박람회 참석
2000. 5. 김봉규 동포재단이사장 만찬
2000. 6. 올림픽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참석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건립 추진

상공회의소는 한인타운의 입지를 다지고 타운을 홍보할 목적으로 2000년 3월부터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건립'을 추진하였다. 조형물은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적 특성과 분위기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건립 후보지로는 한인타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과 놀만디 코너 서울국제공원에 근접한 부지이다.

상공회의소는 건립 예산 45만 달러를 책정하고 모금에 나서는 한편 조형물 작품을 공모하였다. 제일 먼저 지역사회재개발국(CRA)가 조형물 건립기금으로 5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다. LA시는 2001년 5월 15일 조형물 건립 예정지 5,000 스퀘어피트에 대해 부지 사용을 승인하고 조형물 건립 후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또한 20만 달러의 시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세계적으로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조형물은 한인타운을 관광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광객의 한인 업체 고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였다.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건립 사업은 23대 상의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로 임기 내 건립을 희망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으로 이어졌다.

제24대 이사회 조직

회 장 **김성주**
부회장 **최명진, 이용태, 에리카 김**
이사장 **강상윤**
부이사장 **최병선, 정주현**
감 사 **브라이언 정, 빅토르 박**
이 사
강상윤, 고석화, 권용호, 김동환 김데이빗, 김보환, 김에리카 김성주, 김천일, 김철원, 길옥빈 박더글라스, 박빅토르, 박현만 신구현, 심상은, 이광수, 이동연 이듀크, 이리섭, 이영송, 이영중 이용태, 이청광, 이혁, 임문환 정브라이언, 정인철, 정주현 정크리스틴, 조익현, 최명진 차민영, 최경란, 최로버트, 최병구 최병선, 최종철, 케이사브리나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2000. 6. 제24대 회장단 취임식
2000. 7. 영어간판 달기 캠페인 시작
2000. 7. 이부영 의원 환영만찬 참석
2000. 8. 한우회 골프대회 참가
2000. 8. 김영진 의원 환영만찬 참석
2000. 8. 평통 8·15 기념행사 참석
2000. 8. 아시아나배 골프대회 참가
2000. 9. Korean Community Night (Dodgers 구장)
2000. 9.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참석
2000. 9. 한국의 날 개막식 참석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한 관계사의 이정표로 남을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정상 회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92년 상공회의소 방문단은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면 미주 한인 상공인들의 대북투자와 경제 교류가 급물살을 탈것에 대비하며, 상공회의소는 대북 사업을 위한 세미나와 상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한 간판 캠페인

주류사회에 한인 상공인들의 존재를 알리고 한인타운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의는 2000년 7월 영어 간판 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10번 프리웨이 놀만디 출구에는 Korea Town이라는 간판이 있지만 한인타운에 들어섰다 하여도 한글 간판 일색이니 타 인종들이 감히 한인업소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00. 9. 경제단체 협의회 미팅

2000. 10. 총영사관 초청 만찬 참석

2000. 10. 김대중 대통령노벨평화상 축하행사 참석

2000. 11. 이산가족 서명 행사 참석

2000. 11. 제4회 무역의 날 행사 참석

2000. 12. 봉제협회 회장이취임식 참석

2000. 12. 의류협회 행사 참석

2000. 12. 통상투자진흥협의회 미팅참석

2000. 12. 여성경제인협회 행사 참석

2000. 12. 건설협회 회장이취임식 참석

2000. 12. 보험전문인협회 취임식 참석

2000. 12. 부동산협회 이취임식 참석

2001. 1. 신년인사회 개최

2001. 1. SPART 제이슨 리 회장에게 사회봉사상 수여

2001. 2. 전략경영세미나 개최

2001. 3. 3·1절 기념식 참석

2001. 3. 상공인의 밤 개최

2001. 3. KAC 기금모금 행사 참석

2001. 4. 상의 친선골프대회 개최

2001. 4. 한인회 기금마련행사 참석

마침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곳에 스테이플스센터가 들어섰다. 각종 행사와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지나가게 된다. 다운타운 경기 부양이 한인타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상공회의소가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상공회의소는 한인업소들의 한영 혼용 간판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간판 제조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한인업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 이후 실제로 주유소와 일부 식당의 매출이 늘었는데 외국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졌다.

상공인의 밤

제23회 상공인의 밤

제23회 상공인의 밤 행사를 2000년 1월 27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미은행, 새한은행, 나라은행, 윌셔은행 등 은행과 18개 기업의 후원이 있었다.

김성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의 한 세기를 이겨내고 새천년의 주인공이 된 주류 경제단체, 관계당국,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한인 이민자의 꿈을 실현하자고 하였다.

제23회 최우수기업인상에는 미국 굴지의 철강회사 패코 스틸의 백영중 회장이 수상하였다. 최우수경영인상에는 새한은행의 지속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한 김주학 행장이 수상하였다.

제24회 상공인의 밤

제24회 상공인의 밤 행사를 2001년 3월 8일, Regal Biltmor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California Bank &Trust, Community Bank E&J Textile Group 등 미주류 회사들이 Silver Sponsor로 후원하여 행사가 확장되었다. 행사는 에리카 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Philip Angelides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제24회 최우수기업인상에는 다국적 섬유 및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E&J Textil Group 김용규 회장이 수상하였다. 최우수경영인상에는 소수계 전문경영인으로 성공한 Community Bank 김화영 부행장이 수상하였다.

25

제25대 회장 최명진

2001.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5대 최명진 회장 당선
2001. 6. 제25대 회장단 이취임식

제25대 임원 조직

회 장 **최명진**
부회장 **크리스틴정, 정주현**
이용태

타운상징조형물건립위	**김성주**
상공인의밤행사위원회	**에리카김**
비즈니스세미나행사위	**이창엽**
인터넷사업위원회	**이용태**
간행물사업위원회	**브라이언트정**
회원친목골프위원회	**정주현**
상공인의날행사위원회	**김천일**
정치활동위원회	**길옥빈**
연구조사위원회	**라나최**
회원복지사업위원회	**로버트최**
타운안전대책위원회	**임문환**
국제교류위원회	**스티브김**
정관위원회	**김보환**
대외관계위원회	**에리카김**

상공회의소 30년

제25대 최명진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회장단에 젊은 기수들을 앞장세웠다. 2001년 5월 16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5대 회장단에 최명진 회장, 함께 출마한 부회장에 이용태, 정주현, 크리스틴 정을 선출하였다.

최명진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적으로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이사진을 강화하고 일반회원을 확대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적으로 타 커뮤니티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인들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며, '타운상징조형물'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한인타운을 효과적으로 타인종에게 소개 할 '한인타운 영문안내서'를 제작 배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최명진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도미하였다. Equitable Adviors의 금융재정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LA Global CEO 총회장, LA 한인회 부회장과 Central Lions Club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공회의소는 6월 29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제25대 회장단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성정경 총영사와 하기환 한인회장, 한인사회 및 주류사회 인사, 한인상공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크 김 판사 앞에서 회장 취임 선서하였다.

제25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정인철**
부이사장 **에리카김, 임문환**
감 사 **한군석, 브라이언트정**
이 사
강상윤, 고석화, 권영호, 김에리카
길옥빈, 김경훈, 김보환, 김성주
김천일, 김철원, 박더글라스,
박종만, 신구현, 심상은, 심현식
옥제인, 이광수, 이동연, 이듀크
이리섭, 이영송, 이영중, 이용태
이창엽, 이청광, 이 혁, 임문환
전범식, 정브라이언트, 정인철
정주현, 정크리스틴, 조익현
차민영, 최라나, 최명진, 최병선
최순욱, 최종철, 하기환, 한문식
한군석

2001. 7. 정기이사회 개최
정인철 이사장 선출
한군석 감사 선임
브라이언 정 감사 선임
사무국장 이가현 영입

2001. 8. 경제단체협의회 조직 인선
(J.J. Grand Hotel)
의장 최명진(상의 회장)
부의장 김춘식(건설협회장)
부의장 강용태(의류협회장)
감사 박평식(관광협회장)

2001. 8. 정기이사회 개최
한인타운 안내서 발행 발표
부이사장 에리카 김 선출
부이사장 임문환 선출

2001. 8. 주간현대 초대석 인터뷰 참석

2001. 8. 연방 노동부장관 환영회 참석

2001. 8. 데이비스 주지사 떡법안 서명

9.11 테러

9.11 테러 발생

9 · 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하이재킹 자살 테러 사건이다. 테러리스트들은 납치한 항공기 AA11편과 UA175기로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두 개의 건물을 공격하였고 결국 붕괴되었다. 이어 AA77편은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충돌하였다. 납치된 항공기 중 UA93편은 워싱턴 D.C.로 향하던 중 승객의 저항으로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광산에 추락하였다. 이 사건으로 3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6천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자 중 412명은 구조에 나섰던 뉴욕시 응급구조원들이었다.

테러의 주범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다. 테러범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 15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이집트 1명, 레바논 1명, 총 19명이다. 행동대장 모하메드 야탸는 33세이고 나머지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다. 알카에다는 탈레반과 교류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들을 훈련하였다. 정권과 20년간 전쟁을 치루었다. 2003년에는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으며,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9.11 테러 기획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도 파키스탄에서 체포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결국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

9.11 테러 이후

9 · 11 테러는 단순 범죄를 넘어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테러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으며,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사건 발생 1개월 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작으로 탈레반 정권과 20년간 전쟁을 치루었다. 2003년에는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으며,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9.11 테러 기획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도 파키스탄에서 체포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

도산 안창호 동상 제막식

2001. 8. 벨리한인단체연합회 발족 행사 참석
2001. 8. KYCC와 업무협조 회의
2001. 8. 총영사 관저 초청 간담회
2001. 9. 9·11 테러 발생
2001. 9. 테러 대책 단체장회의 참석
2001. 9. 테러 참사 헌혈 참가
2001. 9. 정기이사회 개최
9·11 테러 희생자 추모 포스터 제작 발표
2001. 9. 9·11 테러 성조기 포스터 500개 한인업소에 배포
2001. 9. 한국의 날 골프대회 참가
2001. 9. 타운조형물 건립 예정지 정지작업 실시
2001. 10. Koreatown Galleria 개장식 참석
2001. 10. KAGRO 장학금 전달식 참석
2001. 10. 한인회 비상안보대책회의 참석
2001. 10. 한인타운 영문 안내서 발간 기자회견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예전보다 더 높은 541미터 프리즘 타워가 건설되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 테러로 인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던 미국의 절대 패권이 약화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9·11 테러를 21세기 세계 현대사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9.11 테러 여파

테러 발생으로 미국과 세계는 큰 충격과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긴급히 1주일간 주식시장을 폐쇄 조치하였다. 그러나 테러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주식시장은 무너져내렸다. 한국과 일본증시가 폭락하자 인도와 중동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유럽증시까지 도미노 폭락 사태가 일어났다.

미국의 나스탁 주가 또한 폭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1%에 근접하자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말에 6.5%였던 미국 금리가 2001년 말에는 1.75%로 급락하였다. 테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 정부는 추가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전시 경제 체제에 들어갔다.

9.11 성조기 포스터 배포

테러가 발생한 9월, 상공회의소는 이번 테러 사태와 관련하여 '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정주현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미국 국민들과 슬픔을 같이 한다는 취지로 성조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발표하였다.

참사 여파는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메이저 리그 스포츠 대회들도 경기를 취소하거나 경기 중 유니폼에 추모 패치를 달도록 하고 있었다. 추모 포스터 또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졌다.

포스터는 미국 성조기에 "God Bless America"라는 문구를 넣어 1,000장을 제작하였다. 9월 21일 상의 이사들은 4개 조로 나뉘어 한인타운 업소들을 돌며 포스터를 배포하고, 업주들과 직접 업소 입구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상의 이사들은 이날 500여 업소에 포스터 2장씩을 배포하였으며, 업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2001. 10.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 및 회원 배가운동 선언
2001. 10. 테러 추모 행진 참가
2001. 10. 한국의 날 축제 개막식 참석
2001. 10. James Haahn 시장 리셉션 참석
2001. 10. 이북5도민회 골프대회 참가
2001. 10. 선거구재조정회의 참석
2001. 11. 한인경제단체협의회
– 부도수표 예방 프로그램 적극 활용 권고
– 테러 후 경기부양 대책으로 감세 요청 추진
2001. 11. 앰버서더 호텔부지 학교로 전용 반대의견 인터뷰
2001. 11. 윌셔 커뮤니티 어워즈 시상식 공동 개최
LA 한인상공회의소
한미연합회
윌셔센터 비즈니스 개선협회
윌셔센터 상공회의소
2001. 11. 건강정보센터 기금모금 참가
2001. 11. 양성철 주미대사 동포간담회
2001. 11. 새한은행 윌셔지점 개점식
2001. 11. 제6차 세계한민족경제공동체 대회 참석
2001. 11. 국무총리 간담회 참석
2001. 11. KAC 창립7주년 기념식 참석
2001. 11. Ambassador Site 회의 참석
2001. 11. 한인회 총영사배 골프대회

윌셔 커뮤니티 어워즈

상공회의소는 최초로 주류 경제단체와 협력 차원에서 '제1회 커뮤니티 어워드 시상식' (The 1st Annual Wilshire Community Awards Ceremony)을 공동 개최하였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윌셔센터 상공회의소, 윌셔센터 비즈니스 개선협회, 한미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윌셔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 날 시상식에는 네이트 홀튼 시의원, 제인 길먼 라치몬트 크로니클 발행인, 앤디 밀리토스 전 윌셔센터 비즈니스 개선협회장, 민속떡집협회 이동양 회장과 라디오코리아 최영호 사장이 수상하였다.

성정경 총영사도 참석하여 주류사회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울떡집 앞에서 서명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건립 착수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 회기부터 계획해온 한인타운 상징 조형물 건립 사업을 착수하였다. 네이트 홀튼 시의원(10지구)과 에릭 가세티 시의원(13지구)이 공동 발의한 기금 지원이 통과되었다. LA 시의 부지 승인에 이어 5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9월 26일 조형물건립을 위한 정지작업을 착수하였으며, 한국정부로부터 건립 기금 3만 달러를 확보하였다.

상의는 11월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조형물 선정 심의를 위한 7인 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원은 최명진(상의회장), 김성주(조형물건립 위원장), 한군석(상의이사), 하기환(한인회장), 진수영(한미박물관장), 박기서(건축가), 조지 파르도(LA시재개발국 문화기획담당)이다.
조형물 공모에는 28개 팀이 참여하였고, 심사위는 예선 심사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1팀을 1차 선정하였다.

2001. 11. 타운상징 조형물 공모 마감 (28개 팀 참여)

2001. 11. 정기이사회 개최
타운상징 조형물 선정위원 7인 위원회 구성

Wlcome to Korea Town 광고 참여 업체 명단

Aroma Spa & Sport
Asiana Airline
BCD Tofu House
Best Health Management, Inc.
Chosun Galbi
Cosmos Digital
Eden Hill Flower Shop
Evergreen Herbs & Acupunture
Flower Factory
Haneda
Hannam Chain
Hwa Gae Jang Tuh
Korean National Tourism Organi.
Korean Cultural Ceter
Korean Museum & Antique Shop
Korean Rice Cake Association
Koreatown Galleria
Koreatown Plaza
Le Prieve
L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M.A.S.H.
Morangak
Natura Sports Health Club
Oxford Palace Hotel & Galleria
Palm Tree LA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Ramada Inn
Rotex Hotel
Saerona Tour & Travel, Inc.
So Kong Dong Restaurant
Wilshire Grand Hotel/Seoul Jung
Woo Lae Ok
Yongsusan Restaurant

"Welcome to KOREA TOWN"

최명진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한인타운 영문안내서 발행을 구체화한 초안 "Welcome to KOREA TOWN"을 2001년 8월 21일 이사회에서 발표하였다. 코리아타운 영문안내서는 미 주류사회와 타민족 커뮤니티 구매층을 대상으로 코리아타운을 홍보하기 위한 최초의 영문안내서이다.

상공회의소는 7개월간의 준비 끝에 2002년 5월 15일 코리아타운 영문안내서를 발행하였다. 제작에는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항공사, 대형 쇼핑몰, 호텔, 식당 등 33개 단체와 업소가 참여하였다. 안내서는 가로 22인치, 세로 17인치의 아트지를 24개 패널로 나누어 코리아타운 지도와 함께 샤핑센터, 식당,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주요 기관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있다.

코리아타운 영문안내서는 1차로 윌셔그랜드호텔을 시작으로 한인타운 인근 250개 호텔과 은행에 비치하였다. 2차로 총 10만 부를 제작하여 전문 배급업체 Certified Folder Display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전 지역의 호텔과 관광안내소에 비치하였다.

2001. 12. 미주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정기이사회 참석
미주총련 2003총회 유치추진

2001. 12. 제외동포특례법 회의 참석

2001. 12.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
당선 축하행사 참석

2001. 12. 미셸 박 아태자문위원
백악관 방문 보고회 참석

2002. 1. 미주한인 이민100주년 기념
로즈퍼레이드 한국꽃차 출품
총대회장 토마스 정
기금모금위원장 최명진

2002. 1.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의회장 신년사 게재

2002. 1. 신년하례식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남가주사랑의신장협회 김병조
회장에게 사회봉사상 수여

2002. 1.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 참석

2002. 1. 아시아나 신임본부장 상견례

2002. 1. 노동부 전신애 국장 간담회

2002. 1. 호텔부지 공청회 참석

2002. 2. 재외동포재단 송병선 경제
부장 미팅

2002. 2. 경제단체협의회 미팅

2002. 2. 로즈퍼레이드 한인축제위원회
언론 인터뷰

2002, 3. 상공인의 밤 개최
(밀레니엄 볼티모어 호텔)

2002. 5. 코리아타운 영문 안내서
발행 기념회 개최
(윌셔그랜드호텔)

이민 100주년 로즈퍼레이드 꽃차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꽃차를 로즈퍼레이드 출품하였다. 로즈퍼레이드 한인축제위원회 토마스 정 총대회장을 중심으로 LA한인상공회의소 최명진 회장이 기금모금위원장을 맡아 꽃차를 준비하였다. 꽃차는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성금을 보내 주었고, 1.5세와 2세들이 자원봉사로 며칠간 밤을 세워가며 완성하였다. 한국 꽃차는 LA한인상공회의소로 인해서 88올림픽 홍보에 처음 등장하였고, 이번에는 완성도가 높은 꽃차를 선보여 전 세계에 한민족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제25회 상공인의 밤

상의는 '제25회 상공인의 밤' (The 25th KACCLA Annual Gala)을 2002년 3월 7일, The Millennium Biltmor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Gold Sponsor에 His & Her Hair Goods Co., Silver Sponsor에 Banco Popular 등 27개 기업의 후원이 있었다.

제인 옥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최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한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주류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는 전신애 미연방 노동부 여성국장 (Office of Secretary, Women's Bureau U.S. Department of Labor)이 등단하여 '한인 경제 발전과 여성 경제인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제25회 '최우수기업인상'에는 인조모발 산업의 개척자 1962년 설립한 Her Hair Goods Co. 토머스 정 회장이 수상하였다. '최우수경영인상'에는 미국계 은행과 한인사회를 접목시킨 Banco Poprlar 김영덕 부행장이 수상하였다.

26

세계 한인상공인과 함께

제26대 회장 이용태

2002.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6대 이용태 회장 당선
2002.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Radisson Wilshire Plaza)

제26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이용태**
부회장 **에리카 김, 이광수**
라나 최

타운상징조형물건립위	**이용태**
상공인의밤행사위원회	**김성주**
비즈니스세미나행사위	**라나최**
인터넷사업위원회	**이영송**
간행물사업위원회	**강호중**
회원친목골프위원회	**정주현**
상공인의날행사위원회	**김천일**
정치활동위원회	**길옥빈**
연구조사위원회	**제인옥**
회원복지사업위원회	**이광수**
타운안전대책위원회	**신구현**
국제교류위원회	**이창엽**
정관위원회	**김보환**
대외관계위원회	**이동영**

제26대 이용태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2002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26대 회장에 이용태 박사, 부회장에 에리카 김, 이광수, 라나 최를 선출하였다.

신임 이용태 회장은 충남 홍성 출생하여 청소년기인 1970년 미국으로 건너온 1.5세 한인 리더이다. 샌 게브리엘 아카데미와 로마린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인턴, 예일 의대 내과 레지던트, 뉴욕 의대 위장내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한국종합의료원을 1990년 개원하고 원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LA County Health Facility Authority, 한미공화당협회 회장,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로스엔젤리스 한인회 회장, 재미배구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민주평통 LA협의회장을 재임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6월 27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제26대 회장단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건립 사업

상징조형물 위치 선정

상의는 2002년 9월 한인타운상징조형물 건립 위치를 Irolo St.과 Normandie Ave.가 만나 Olympic Blvd.로 이어지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한인타운상징조형물 분과위원회는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위치를 선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역사성이 있는 장소,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곳을 찾았다.

한인타운은 초기에 올림픽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지금도 한인타운의 상징적인 길이다. 그중에도 올림픽과 노르만디 교차점은1975년 Irolo St. 코너에 한국의 기와를 올린 영빈관과 VIP Plaza가 세워지며 한인타운의 중심이 되었다. 주변에는 한인축제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과 코리아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센터, 마리포사-나비초등학교가 위치해

상징조형물 공청회 개최

상의 한인타운상징조형물 분과위원회는 2002년 10월 21일 한인타운상징조형물 건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미 조형물 위치 선정하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 1차 심사를 마친 시점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한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축물은 한인타운을 찾는 관광객의 수효를 증가시켜 한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26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리섭**
부이사장 **신구현, 정주현**
감 사 **조익현, 한군석**
이 사
강상윤, 고석화, 김에리카, 길옥빈
김보환, 김성주, 김장우, 김천일
김철원, 김효중, 박종만, 서병일
신구현, 심상은, 심현식, 옥제인
이광수, 이동양, 이동연, 이리섭
이수형, 이영송, 이용태, 이창엽
이청광, 이 혁, 임문환, 정인철
정브라이언트, 정주현, 조익현
정크리스틴, 차민영, 최라나
최명진, 최병길, 최병선, 최순욱
최종철, 하기환, 한군석

2002. 8. 정기이사회 개최
부이사장 신구현, 정주현 선출
가주조세형평국 존 챙 위원장 초청 강연

2002. 8. 남가주경제인단체협의회 회의
아씨 사태 해결 논의

2002. 9. 한국 수재민 돕기 참여

2002. 9. 419플랜 세미나 후원

2002. 9. 한국어 경영강좌 개설
공동주최: 한인상의 & USC

2002. 9. 타운상징 조형물 위치 확정
(Olympic & Nonmandie)

2002. 9. 일레인 차오 노동부장관
한인타운 방문 단체장 간담회

2002. 9. 무궁화노인복지회관 착공식

USC 사업개발 교육

상의는 USC 소수계 비즈니스 개발센터(MBDC)와 공동으로 'USC 사업개발 교육과정, 한국어 프로그램 '을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17일부터 8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44명의 한인들이 등록하여 수강하였다.

케이송 USC 부총장과 라메시 스와니 MBDC 디렉터의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진행된 첫 수업은 국제증권에 대한 정요진 박사의 강의가 있었다. 11월 5일까지 진행된 강의는 15명의 강사가 비즈니스 향상 방법, 기업가 정신, 자본 조당, 마케팅 전략, 분석 기법, 정보 시스템, 예산 및 가치평가, 운영 및 성장기법 등을 강의 하였다.

2002. 9. 제29회 한국인의 날 축제 (사랑, 희망, 나눔, 축제)

2002. 10. 타운상징 조형물 건립 공청회 개최

2002. 10. 월남 산업시찰 출발

2002. 10. 제1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2002. 10. EDD, DIR 경제단체원탁회의 고용개발국 샘 노드리게스 산업개발부 척 케리

2002. 11. 밸리 분리 반대 기자회견

2002. 11. USC 제1회 MBDC 수료식

2002. 11. 제임스 한 LA시장 한국 및 아시아 4개국 순방

2002. 11. 남가주 대기정화국 공청회 퍼그 금지안 통과 저지

2002. 11. 윌리엄 브래턴 LAPD 국장 아기아계 단체장 상견례 참석

2002. 11. 미주한인 이민100주년 기념식

2002. 11. 가전업체 '리본' 개업식 참석

2002. 12. 주정부기금 서울국제공원 재단장 기금 시공원국에 전달

2002. 12. 아씨마켓 개업식 참석

2003. 1. 신년하례식 개최 사회봉사상 김성우(구두,열쇄)

제1차 세계한상대회

'제1차 세계한상대회' (The 1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가 2002년 10월 0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결집해 한민족 경제 자본을 형성하고자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함께하는 대회는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가 주관하였다.

후원에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 부서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POSCO, KT 등 대기업들의 협찬이 있었다.

컨퍼런스는 Leading-CEO포럼, 차세대 경제리더 포럼, Branch 세션, 미국 IE 국제학술세미나, 단체대표포럼, 단체별 총회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다. 대회에는 27개국에서 총 9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참가하였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김용태 회장을 필두로 20명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10월 3일부터 8일까지 미주한인상공회재단(김상호)가 주최하는 월남산업시찰단에 참가하였다가 서울에서 합류하였다.

2003. 1. 타운경찰서 추진위원회 구성

2003. 1. 제10지구 시의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 개최

2003. 2. 타운경찰서 LAPD 공청회

2003. 2. LA시 CDBG Funds $170,000 제공

2003. 3. 상공인의 밤 개최 (Millennium Biltmore Hotel)

2003. 5. 타운상징 조형물 건립 공모 디자인 심사 (GDS Architect 확정)

2003. 5. 선거관리위원회 제27대 회장단 입후보 등록

2003. 5. 투자전략세미나 개최

2003. 6. 미주한인상공인단체연합회 (New Jersey, Fort Lee) 회장 알렉스 한 선출

2003. 6. 에리카 김 회장 당선자 LA시 인간관계위원회 위원 위촉

2003. 6. 전신애 연방노동부 여성국장 초청 조찬 간담회 개최

2003. 6. 필 앤젤리더스 주 재무관 타운 리더 오찬 참석

2003. 6. 북핵문제 서명운동 참여

2003. 6. 타운상징 조형물 건립

제26회 상공인의 밤

상의는 '제26회 상공인의 밤' (The 25th KACCLA Annual Gala) 을 2002년 3월 11일, The Millennium Biltmor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Platinum Sponsor에 DWP, Gold Sponsor에, Hanmi Bank, US Bank, Hyundai Motor America, United Fabricare Supply, Inc. 등 25개 기업의 후원이 있었다.

에리카 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용태 회장의 인사, 제임스 한 LA 시장, 성정경 총영사, 하기환 한인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용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하시는 두 분은 이민 1세로서 이국땅에서 수많은 장애와 난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오늘의 위치에 오른 것은 상공인들의 표상이며 모범이라고 역설하였다.

제25회 '최우수기업인상' 에는 세탁소와 염색업체가 필요한 화학물질과 소모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미국 내 굴지의 회사로 성장시킨 United Fabricare Supply, Inc. 스티브 홍 대표가 수상하였다. '최우수경영인상' 에는 탁월한 능력으로 한미은행을 성장시킨 육중훈 행장이 수상하였다.

투자전략 세미나

상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투자전략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2003년 5월 15일 로텍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5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세미나는 다양한 투자 종목을 광범위하에 소개하여 재태크 종합 정보를 취득하려는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인 비즈니스의 흐름' 중앙은행 김선홍 행장, '투자전략 수립' AXA 캐피탈메니지먼트 최명진, '주식' UNUS 캐피탈메니지먼트 김강산, '부동산' 벤처커머셜리얼티 한군석, '한국으로의 투자, 세금 및 외환송금' 서진욱 영사, '투자 이민' 김인 변호사 등이 각각 15분씩 강의하였다.

27

최초 여성 회장

제27대 회장 에리카 김

2003.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7대 에리카 김 회장 당선

2003. 7.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27대 임원 조직

회 장	**에리카 김**
부회장	**라나최, 이창엽, 최순욱**
정치활동위원회	**스티브김**
회원복지사업위원회	**정재윤**
경찰행정구역위원회	**최순욱**
국제교류위원회	**이동양**
타운상징조형물건립위	**에리카김**
상공인의밤행사위원회	**이수형**
비즈니스세미나행사위	**라나최**
인터넷사업위원회	**김도욱**
회원친목골프위원회	**임문환**
정관위원회	**길옥빈**
조형물위원회	**이창엽,브라이언트주**

제27대 에리카 김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 32년사에 첫 여성 회장이 탄생하였다. 상공회의소는 2003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27대 회장에 에리카 김, 부회장에 라나 최, 이창엽, 최순욱를 선출하였다.

신임 에리카 김 회장은 중학교 2학년 때에 미국으로 건너온 1.5세 한인 여성 리더이다. 코넬대학교 정치학과와 UCLA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년 변호사가 되어 김에리카 합동 법률 그룹을 이끌고 있다. 주 검찰청 부실기업 합동단속과와 주 고등법원 법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도산 기념사업회 회장, 캘리포니아주 스몰비지니스위원회 위원, L.A. 인간관계 위원회 커미셔너 역임하였다.

제27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이 7월 1일 Aroma Wilshire Center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윤복 총영사, 탐 라본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에리카 김 변호사가 취임하여 많은 조명을 받았다.

에리카 김 회장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봉사하고, 한인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경찰서 설립을 추진하여 한인타운 상권을 안전하게 하며, 한인타운 상징물 건립을 완성하여 2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LA 시청에 태극기

태극기가 51년 만에 LA시청 국기 게양대에서 펄럭였다. 제58회 광복절을 맞아 2003년 8월 15일 한인 35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청 앞에서 태극기 현기식 및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14명이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은 모든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4·29 LA 폭동 때에 시청과 경찰국으로부터 소외당했던 한인들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

제27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용태**
부이사장 **브라이언트정, 정주현**
감 사 **최명진, 이광수**
이 사
강문종, 강상윤, 고석화, 권재일 김도욱, 김데이빗, 김보환, 김성주 김써니, 김세진, 김에리카, 김장우 김철원, 김춘식, 김효중, 길옥빈 박종만, 서병일, 신구현, 심현식 이광수, 이동양, 이리섭, 이수형 이영송, 이용태, 이창엽, 이청광 이혁, 임문환, 정인철, 정재윤 정잔, 정주현, 정크리스틴 정브라이언트, 주브라이언트, 조익현, 차민영, 최라나, 최명진 최병선, 최순욱, 최종철,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한에드워드

2003. 8. 이청광 전 상의 회장 한인동포장학재단 이사장선임

2003. 8.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출범

2003. 8. 한인경제단체협의회 회의 (로텍스호텔)

2003. 8. 상의 이사 길옥빈 변호사 미주총련 법률고문 위촉

2003. 8. 광복절 기념식 참석 (LA시청)

2003. 8. LAPD 폴 김 커멘더 상의 자문위원으로 추대

이 행사는 LA 한인상공회의소와 LA 한인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크리스천헤럴드 등 26개 한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이윤복 총영사, 폴 김 LAPD 커맨더, 안토니오 비아그라고사(제14지구) 시의원, 버나드 팍스(제8지구) 시의원, 에릭 브라운 LA 부시장 등 한인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하였다.

시청에 태극기가 게양되기는 1942, 49, 52년에 이어 네 번째다. LA시는 1942년 8월 29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첫 태극기 현기식을 하였다. 8월 29일은 일본에 나라가 강점된 국치일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그간의 국치일 행사를 폐지하고 독립을 성취해 '승리의 날'로 삼자는 각오를 다지며 현기식을 열었다.

한인타운 관할 경찰서 설립 추진

에리카 김 회장은 8월 정기이사회에서 LAPD 폴 김 커맨더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였다. 한인타운 치안을 통해 한인 상권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첫걸음이다. 코리아타운 경찰행정구역의 단일화가 시급한 상태에서 LAPD 고위직 경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조치였다.

한인경제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한인타운 단일 경찰행정구역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미 경찰서 건립 예산과 부지가 확보된 만큼 관할구역에 한인타운 전체를 포함시켜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마틴 러드로우(제10지구) 시의원은 한인 유권자들에게 문턱을 맞추고 정치를 펼치며, 윌셔 상권 활성화와 한인타운 내 경찰서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였다. 탐 라본지(제4지구) 시의원은 타운 미팅에 참석하여, 올림픽 블루버드는 1932년과 1984년 두 차례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거리이며, 한인타운을 관통하기에 '올림픽경찰서'는 친숙한 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2003. 9. 리커 면허 추첨에 관한 세미나 개최 (로텍스호텔)

2003. 9. 상의, 한인회, 금융계 인사 상견례 참석

2003. 9. 타운상징 조형물 명칭 공모

2003. 9. 상의 이사 길옥빈 변호사 SAT Ⅱ 한국어재단 이사장 위촉

2003. 10. 타운상징 조형물(다울정) 및 공원이름(Koreatown Pavilion Garden) 선정

2003. 10. LA한인회 창립41주년 기금모금만찬 참석 (래디슨윌셔호텔)

2003. 11. 고건 총리 리셉션 참석 (윌셔그랜드호텔)

2003. 11. 타운상징 조형물(다울정) 홍보대사 홍명보 위촉

리커 면허 추첨에 관한 세미나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상공회의소와 한인 커뮤니티는 지난 2년 10개원간 한인타운 상권의 중심인 윌셔를 포함하는 지역주민의회 설치를 준비해왔다. 드디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WCKNC)가 2003년 8월 5일, LA시 76번째로 승인을 받았다.

주민의회는 앞으로 한인타운 구역 내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각종 영업 허가, 주류 판 매 허가 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의사전달 기구이다. 만일 한인 위원이 약세일 경우 한인타운의 의사결정이 타인종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긴장된 가운데 상공회의소가 목소리를 높였다.

에리카 김 회장은 8월 7일 신속히 경제단체장 협의회를 열어, 주민의회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원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WCKNC 선거규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에리카 김 회장은 한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선거를 미루고, 주민의회와 관련된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회의에는 반드시 통역관이 참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상공회의소, 한미연합회, 한인건설인협회, 한인요식업협회 등 7대 단체는 모임을 갖고 주민의회를 위한 7인의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35명을 뽑는 선거에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점을 두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기업 세미나

리커면허 추첨에 관한 세미나

상공회의소는 9월 3일 로택스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주류통제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주류 라이센스의 종류와 접수법, 규정 위반시 처벌, 시정부에서 발급하는 CUP 관계 등을 전달하였다. 세미나에는 250여 명이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ABC 빈센트 크레비븐 행정관은 기존 리커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당첨이 유일한 방법이며, E-2비자 소지자라도 가주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는 리커라이센스를 발급할 뿐, 영업은 희망지역과 건물의 CUP를 받아야 하며, 10월 18일에 추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2003. 11. 타운상징 조형물(다울정) 기금모금 캠페인 실시

2003. 11. 정부 조달사업 세미나 개최 (피오피코도서관)

2003. 12. 중소기업진흥공단 LA 수출 인큐베이터 개소식 참석

2004. 1. 신년하례식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2004. 1. 타운상징 조형물(다울정) 기공식 거행

2004. 2.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선거 실시

2004. 2. CUP 규정 세미나 개최 (피오피코도서관)

2004. 3. 상공인의 밤 개최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

2004. 3. 라운드테이블 포럼 개최 (피오피코도서관)

2004. 6. 프루덴셜보험 취업설명회 개최 (레디슨윌셔호텔)

2004. 6. 다울정 기초공사 공개입찰

정부 조달사업 세미나

상공회의소는 LA시와 공조하여 12월 11일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정부 조달사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A시가 한인만을 대상으로 정부 조달사업 설명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LA 수도전력국, 항만국, 국제공항국, 주택국, 공공사업국 등 19개 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해 사업 정보와 참여 방법을 설명하였다.

정부 발주 조달사업은 10억 달러 규모인데, 소수계 기업들의 참여가 12% 정도에 머물고 한인들의 참여는 극소수라고 하였다. 조달사업 참여는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관련 업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화장지, 유니폼, 청소대행 등 소규모 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민간 기업 조달사업을 발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류판매 CUP 규정 세미나

상공회의소는 LAPD 윌셔경찰서와 함께 2월 11일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CUP(Conditional Use Permit)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관계자는 주류판매를 위해서는 리커 라이센스와 함께 CUP 발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CUP는 특정 지대 지정 구역에서 조건부 용도로 나열된 용도만 가능하다. CUP 신청서에는 용지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계획된 조건부 용도가 전체 공간 제한, 버퍼, 주차와 적재 및 기타 조례법 규정을 준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CUP는 업소마다 적용이 까다로워 한인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비즈니스 포럼 공동 주최

LA상공회의소는 미드시티상공회의소, 크렌셔상공회의소 그리고 가주조세형평국과 더불어 공동으로 포럼을 주관하였다. 3월 27일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라운드테이블 포럼 형태로 진행된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필립 앤젤리더스 주 재무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날 웍샵은 융자지원, 재개발지원, 스몰비즈니스지원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주택개발국 빌 파비오 부디렉터는 주민발의안 46의 통과로 21억 달러의 기금이 다세대, 저소득, 장애인, 비영리단체를 위한 주거 시설에 투입된다며, 4월 16일에 마감되는 7,000만 달러 상당의 다세대 주택 보조기금에 많이 신청할 것을 부탁하였다.

구직 세미나

LA상공회의소는 프루덴셜파이낸스의 후원으로 구직(Jop)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타운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 3일 래디슨윌셔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프루덴셜파이낸스 이관영 매니저가 나와서 재정상담가의 자격요건과 훈련 과정을 설명해주었다.

프루덴셜파이낸스에서는 20명의 재정 플래너를 공개 채용할 예정인데, 지원자는 소양시험과 인터뷰를 거쳐 생명보험사, 증권 브로커, 투자상담가 훈련과 테스트를 받고 일하게 된다. 이들은 12주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울정, 코리아타운 파빌리언 가든

상공회의소 조형물 건립위원회는 9월 10일 찰스 위 건축가의 설명을 듣고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최종결정하였다. 조형물은 정자 모양으로 한국에서 제작하여 분리된 상태로 들여와 다시 조립하는 형식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진 관련 건물 안전 허가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조형물 이름 공모에서 '다울정'이 선정되고, 공원 이름으로는 '코리아타운 파빌리언 가든'이 선정되었다. 공모에는 66개의 이름이 접수 되었고 "다함께 사는 우리" 라는 의미를 지닌 황순자 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원 이름은 제이 노 씨가 제출한 명칭이다.

다울정 모금운동을 위해 에리카 김 회장은 홍명보 선수를 홍보대사 위촉하였다. 또한 100 달러 이상 기부자들은 파빌리언 가든 동판에 6,912명을 기록한다고 발표하였다. 모금운동은 11월과 12월 두 차례 한남체인을 비롯한 한인다운과 플러튼, 토랜스를 포함한 8개 마켓에서 진행하여 하루에 500여명이 참여하였고 개인 기부만 5만 달러가 모였다.

여러 대를 이어오며 준비한 다울정 건립 착공식이 2004년 1월 13일 에리카 김 회장과 이윤복 총영사, 하기환 한인회장, 유재환 한미은행장, 마틴 러드로우 시의원, 탐 라본지 시의원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떴다. '다울정'은 이민 100년을 맞으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한인사회를 잘 나타내 주는 상징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제5장 확장기 활동

제28대 (2004–2005)

제29대 (2005–2006)

제30대 (2006–2007)

제31대 (2007–2008)

제32대 (2008–2009)

제33대 (2009–2010)

제34대 (2010–2011)

제35대 (2011–2012)

제36대 (2012–2013)

제37대 (2013–2014)

28

한인기업 정부공사 참여

제28대 회장 한문식

2004.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8대 한문식 회장 당선

2004. 7.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28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한문식**
부회장	**이창엽, 이수형, 잰 정**
상공인의밤행사위원회	**이수형**
스몰비즈니스엑스포	**브라이언트주**
다울정조형물건립위	**에리카김**
세미나사업위원회	**이청광**
정관위원회	**길옥빈**
인터넷사업위원회	**최명진**
경찰행정구역위원회	**강상윤**
회원복지사업위원회	**정인철**
국제교류위원회	**이동양**
정치활동위원회	**스티브김**
친목골프위원회	**정주현**

제28대 한문식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2004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28대 회장에 한문식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차기 부회장단으로는 이창엽, 잰 정, 이수형 이사를 선출하였다. 한 당선자는 상공인의 권익 신장에 힘쓰고, 다울정 건립 등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신임 한문식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에 도미하여 Woodbury Uviv. 경영대학원을 이수하였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는 한미보험(주) 대표로 있으면서 미주한인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모교인 남가주경복총동창회 회장, 남가주 한국외국어대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28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이 7월 1일 레디슨 윌셔 플라자호텔에서 한인사회 각계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임 회장을 취임사를 통해 한인사회가 주류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커뮤니티로 발전하려면 투명한 윤리경영, 수준 높은 정치력, 질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상공인들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그리고 한인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서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상공회의소는 동서대학교가 실시하는 한인상공인 네트워 지식서비스 경영 국제전문가 양성사업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인재를 발굴해 국제전문가로 양성하고, 미주 한인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는 협력사업이다. 한국 정부가 매년 10억 달러 지원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 동서대학교가 선정되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사업은 교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동서대학교는 10명의 학생들을 LA로 보내어 상의 회원 업체에서 인턴쉽을 하게 된다. 상공회의소는 LA 지역의 한인 1.5세 또는 2세 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동안 동서대학교에서 여름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스몰비즈니스 세미나

스몰비즈니스 재정 세미나

상공회의소는 주 재무부 산하 가주투자자문위원회(CDIAC), 마틴 러드로우(제10지구) 시의원실, 카렌 베스(주하원 제47지구 민주당 후보) 사무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주 경제 진흥을 위한 스몰비즈니스 세미나로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펀드와 재정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날 7월 19일 세미나는 미드시티상공회의소와 크랜셔상공회의소 등 타 커뮤니티 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가주 재무부, LA시, 연방중소기업청(SBA), 컨설팅회사,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을 설명하였다.

교육구 조달사업 세미나

LA통합교육구(LAUSD)는 윌셔가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앰버서더호텔 부지에 대규모 학교 신축을 결정하였다. 윌셔가의 상권 하락과 교통체증을 우려한 상공인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되었다.

상공회의소는 LAUCD와 공동으로 학교 신축 기자재 조달사업에 한인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11월 17일 호바트초등학교 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몰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AUCD의 학교건축 프로그램은 144억 달러에 달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도급업자, 앤지니어, 건축가 및 벤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IT,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업종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28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신구현**
부이사장 **브라이언트정**
브라이언트주
감 사 **이청광, 이동양**
이 사
강문종, 강상윤, 강양인, 고석화
구에드워드, 김도욱, 김보환
김상인, 김성주, 김써니, 김에리카
김장우, 김춘식, 김태미, 김효중
길옥빈, 명원식, 박종만, 박균섭
박철홍, 신구현, 심현식, 이광수
이동양, 이리섭, 이수형, 이숙현
이영송, 이용태, 이창엽, 이청광
이혁, 임문환, 정동완, 정브라이언
정임경, 정젠, 정주현, 정크리스틴
주브라이언, 조익현, 최라나,
최명진, 최병선, 최순욱, 최용자
최종철, 추제나,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하스테판, 한승수

2004. 7. 동서대학교와 MOU 체결
2004. 7. 스몰비즈니스세미나 개최 (SGI프렌드쉽센터)
2004. 7. 하나금융, 수출입 금융상품 'PO 파이낸싱' 서비스 시작
2004. 7. 스탠리 밀러 구타 사건 발생
2004. 7. 스탠리 밀러 구타 사건 LAPD 윌리엄 브래튼 국장 한인미디어 브리핑
2004. 7. 정기이사회 개최 한문식 이사장 선출
2004. 7. '다울정' 시공업체 선정 기자회견

2004. 8.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회의 참석

2004. 8. LA한인회 단체장회의 참석

2004. 8. 광복절 기념식 참석 (샌 페드로 우정의 종각)

2004. 8. 유니티뱅크 LA지점 개점식 참석

2004. 8. LA다저스 한국인의 날 행사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동판

2004. 8. 한인경제단체장 회의 참석

2004. 8. 다울정 기초공사 시작

2004. 9. 다울정 조립 시작

2004. 9. 다울정 상량식 거행

2004. 10. 제3차 한상대회 참가 (제주도)

2004. 11. 스몰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LA통합교육구 건축조달사업)

2004. 12. 다울정 제2차 모금운동 시작

2004. 12. 중앙은행, 다울정 건립기금 1만 달러 기증

2004. 12. 지상사협, 다울정 건립기금 1만 달러 기증

다울정 완공

상공회의소는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다울정' 시공업체로 'C.J. 텍 (대표 최재면)을 선정하였다. 13개 건설 업체가 입찰에 응하였고, 그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11만 달러를 제시한 한인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LA 시에서는 다울정이 세워진 '코리아타운 파빌리온 가든'을 LA의 3대 미니공원(Pocket Park)으로 지정하였다.

기초공사는 11피트 깊이를 파고 지반을 견고히 다지는 1단계 작업으로 2004년 8월 26일에 시작하였다. 한국으로부터 자제들을 이송하여 9월 13일부터 조립을 시작하였고, 19일에는 상량식을 가졌다. 상량식에는 상공회의소 이사들과 한인 단체장, 그리고 연방교통부 시찰단 20여 명이 지켜보았다. 2005년 3월 22일부터는 마무리 작업인 단청작업과 공원에 나무 심는 작업을 하였다.

한인타운 상징조형물인 '다울정' 현판식이 2005년 4월 7일 현장에서 열렸다. '다울정' 현판 글씨체는 미주한인서예협회 전상희 회장의 작품이다. 6월에는 파빌리온 가든 단장에 나서 가든 조경, 조명장치인 불기둥, 기부자 명판, 담장 등 제2차 작업을 하였다.

스탠리 밀러 구타 사건

LAPD 경찰관이 무기도 없는 차량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철제 손전등으로 가격하고 무릎으로도 폭행을 하는 장면이 채널 11 KTTV-TV에 그대로 방영되었다. 7월 23일 차량 절도 용의자 스탠리 밀러를 존 하트필드 경관이 폭행하고, 다른 경관 피터 부에노는 여러 명의 경찰들이 땅에 엎드린 용의자를 내리누르는 사이 밀러의 갈비대 부분을 여러 번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상공회의소는 제2의 폭동을 우려하여 LA시에 대책을 요구하였다. LAPD 윌리엄 브레튼 국장은 7월 20일 한인미디어 브리핑에 직접 나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경찰은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한인들을 안심시켰다. 흑인 용의자 경찰 집단구타 사건은 LA폭동의 직접 원인이 된 로드니 킹 사건의 재판처럼 비춰지면서 LAPD와 연방 수사요원까지 나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

LAPD는 하트필드 경관에게는 휴직 조치하고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7명의 경관들은 행정직으로 전보시켜 마무리하였다.

2004. 12. 한남체인, 다울정 건립기금 5천 달러 기증

2004. 12.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회의 한군석 전 회장 당선

2005. 1 . 로즈힐스, 다울정 건립기금 1만 5천 달러 기증

2005. 1. 하나금융–LA ASP 센터 통관, 운송, 자금,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협약 조인

2005. 1. 남가주충청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05. 1.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다울정 건립기금 1만 달러 기증

2005. 2. LA통합교육구에 한인타운 신설학교에 한국식 명명작업 건의 서한 제출

2005. 2. LA시, 다울정 건립기금 15만 달러 지원

2005. 3. 상공인의 밤 개최

2005. 3. 다울정 단청작업 시작

2005. 5. LA Neighborhood Initiative 커뮤니티 포럼에서 상의에 '다울정' 공로 감사패 증정

2005. 6. 다울정 2차 공사 시작 (조경, 불기둥, 명판, 담장)

한국식 학교 이름

LA통합교육구는 전국최대규모 학교 증설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한인타운에 5개 학교를 신설 예정하고 있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윌셔가의 앰버서더호텔 부지, 올림픽 다울정 옆 부지, 웨스턴과 2가에 신설되는 학교명을 한인타운에 맞게 한국식 이름으로 정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모았다. 한인 이민사의 영웅들로 도산 안창호, 세미리 박사 등을 LA통합교육구에 추천하였다.

현재 한인타운에 한국식 이름의 학교로는 초등학교에 Mariposa –Nabi Primary Center, Charles Kim Elementary School, 중학교에 Young Oak Kim Academy가 있다.

제28회 상공인의 밤

제28회 상공인의 밤(The 28th KACCLA Annual Gala) 행사가 2005년 3월 10일(목) 오후 6시 The Millennium Biltmore Hotel 에서 거행되었다. Platinum Sponsor에 Ace Enginering, Inc. Gold Sponsor에, Asiana Airlines, Center Bank, Korean Air, Hyundai Motor America등 36업체가 후원하였다.

행사준비위원장은 이수형 부회장이 맡았으며, 1부 기념식은 스티브 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한 LA시장이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하였다. 올해의 '최우수 경영인상' 은 중앙은행 김성홍 행장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기업인상' 은 에이스 앤지니어링 이억희 대표가 수상하였다.

29

한국기업 미국진출 가교

제29대 회장 신구현

2005. 5. 정기이사회 개최
제29대 신구현 회장 당선
2005.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29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신구현**
부회장 **브라이언트 정, 잰정, 이수형**
스몰비즈니스엑스포위 **에드워드구**
웹사이트위원회 **브라이언트주**
지역사회관계위원회 **스티브김**
다울정건립위원회 **이창엽**
상공인의밤행사위원회 **김태미**
미래기획위원회 **이창엽**
회원행정위원회 **명원식**

제29대 신구현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2005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29대 회장에 신구현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차기 부회장단으로는 브라이언 정, 정재윤, 이수형 이사를 선출하였다. 한 당선자는 한인타운 홍보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와 한인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공동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신구현 회장은 충청도 대전 출신으로 1975년 도미하였다. KSH Enterprise Inc 대표, Hanmo Intl. Inc 대표를 하였으며, LAPD 경찰위원회 회장, 남가주충청향우회 회장, LA한인회 이사, 올림픽라이온스클럽 이사를 역임하였다.

제29대 회장단 취임식이 6월 28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신 회장은 인사를 통해 한인타운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주류기업들과 가교역할을 상공회의소가 하겠다. 이를 위해 LA와 BID 추진, 비즈니스 웍샵, 아이템별 미니 엑스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피력하였다.

신회장은 세리토스대학과 경희대 사이어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로얄대학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하던 그는 은퇴 후 의료기술을 가지고 세계선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제29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정주현**
부이사장 **길옥빈, 이창엽**
감 사 **박종만, 박균섭**
이 사
강문종, 강상윤, 강양인, 고석화 구에드워드, 김보환, 김에리카 김성주, 김써니, 김장우, 김춘식 김태미, 길옥빈, 노재훈, 명원식 박종만, 박균섭, 박철홍, 배준식 신구현, 신성균, 심현식, 오찬국 유만형, 유욱종, 이광수, 이리섭 이수형, 이숙현, 이영송, 이용태 이창엽, 이청광, 이태상, 임문환 이혁, 임석준, 정동완, 정크리스틴 정임경, 정재훈, 정주현, 정필호 정젠, 정브라이언트, 주브라이언트 조익현, 최라나, 최명진, 최병선 최순욱, 최용자, 최종철, 추제나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한승수 하스테판, 허홍식,

2005. 7. 정기이사회 개최
정주현 이사장 선출
이창엽 부이사장 선출
길옥빈부이사장 선출

2005. 8. 올림픽 경제개발구역(BID) 추진위원회 구성

2005. 8. 올림픽 경제개발구역(BID) 추진계획 발표

2005. 8. 부산시 투자설명회 개최

2005. 9. 제4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고양시)

경제개발구역 추진

다울정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관광객으로 인해 한인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회의소는 다울정 완공과 함께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올림픽가 경제개발구역(BID: Business Improvement Dirict) 지정 추진계획을 세웠다. 또한 6가 호바트와 맨해턴 구간의 재단장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상의는 미래기획위원회(이창엽 분과위원장)를 조직하고 'BID 사업추진 계획' 을 발표하였다. BID 사업은 지정구역 내 마케팅과 자체적인 서비스 확대와 치안 강화를 통해 개발구역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경제개발사업이다. LA시는 1993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32개 구역을 선정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제출, 컨설턴트 고용, 타당성 조사, 해당지역 건물주 50% 이상의 찬성 등 과정을 거쳐 5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이다. 버몬트에서 웨스턴까지의 올림픽가는 중앙에 위치한 다울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가로변 분위기를 살리게 되면 한인타운 전체를 살리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상공회의소 웹사이트가 한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채널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홈페이지 접속도 www.koreanchamberla.com / www. koreanchamberla.org / www.haninla.com / www.hansangla.com / www.sanggomginla.com 등 다양화 하였다.

지난 3개월간 작업을 통해서 10월 5일 개편된 웹사이트는 일반인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공회의소가 한인 커뮤니티와 소통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기관, 긴급안내, 한인단체 등 연락처, 경제단체 소개와 취업 및 창업 정보, 이민, 보험, 부동산, 각종 대출 정보, 은퇴연금, 메디케어와 같은 일반인들은 위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구직란 및 구인란을 마련하여 업주와 구직자를 이어주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센터도 안내하였다.

2005. 10. 상의 웹사이트 새 단장

2005. 10. 창업 스쿨 개강

2005. 11. 한인경제단체장회의 개최

2005. 11. '기업연감' 제작 발표

2005. 12. '로레알' 화정품 업체 상의 법인회원 가입

2005. 12. 상공회의소 송년회 개최

2006. 1. 신년하례식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2006. 1. '다울정' 제막식 거행

2006. 3. 상공인의 밤 개최

2006. 3. 미니 엑스포 개최

2006. 4. 올림픽 BID 보드 맴버 선임

다울정 제막식

한인타운 상징조형물 '다울정' 이 6년간의 준비와 시공을 기간을 거쳐 완공되어 2006년 1월 13일 제막식을 가졌다. '다울정'은 한인사회 각계의 정성스런 성금과 LA시의 지원금 등 총 70만 달러가 투입된 한인사회 최대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또한 제24대 김성주 회장 임기에 조형물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6대 회장을 거쳐 수년간 노력한 결실의 성과물이다.

'코리아타운 파빌리온 가든'에는 '다울정'과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는 장승을 의미하는 2개의 불기둥이 세워졌고, 중앙일보가 기증한 '해태 석상' 한 쌍은 액운을 막아주는 의미로 앞을 지키고 있다. '다울정'은 한국식 단청 문향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 조성된 조경과 나무들이 잘 어울러져 있다. 제주 홍익여행사가 삼호관광과 제휴하여 제주의 수호신 '돌하루방' 2개를 기증하여 이곳에 두었다.

제막 행사는 1부 제막식, 2부 사물놀이 공연, 3부 불기둥 점등식 및 라이트쇼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다울정' 이 세워진 올림픽과 놀만디는 1960년대 한인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곳이며, 매년 한인 퍼레이이드가 열리는 장소이다. 또한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 '미주한인의 날'에 맞추어 거행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창업스쿨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단체 PACE와 공동으로 한인을 대상으로하는 창업스쿨을 개설하였다. 10월 3일 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주간 강좌를 진행하였다. 주제별로 마련된 강좌는 마케팅과 파이낸스, 비즈니스 플랜, 면허 및 세금, 무역기초, 인터넷 마케팅, 비즈니스론과 부도수표 방지법, 종업원 관리 및 비즈니스 운영 등이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게 하였고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교재비가 50 달러이나 참가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그마저 면제되었다.

2005 APEC CHAMBERS CONGRESS

미니 박람회 참가 업체

엔존 (김용진, 부산) 해조류
백산실업 (김재수, 부산) 신발, 인솔
제노(김정상, 부산) 인터넷방송솔루션
미그린식품 (문재영, 부산) 해조류
청산 (강우묵, 부산) 안전화, 특수신발
세라론 (황종율, 부산) 건강 기구
미션창원 (백인숙, 충남) 스쿠터
하나맛김 (이경우, 충남) 재래 김
서정정통식품 (박장순, 충남) 조미김
항채방 (허춘조, 충남) 실크 김치
천혜땅식품 (이원직, 충남) 청국장
남일농장인삼 (신봉교, 충남) 홍삼액
총풍인삼 (김길요, 충남) 홍삼 절편
조은버섯 (조계연, 충남) 버섯 분말
딘바이오텍 (박종배, 충남) 화장품
한산모시 (김석필, 충남) 모시옷
제이에스엠(양경태, 충북) 스파이더락
동양나노테크 (박태준, 충북) 세제류
에이원에이 (이남석, 충북) 정수기
좋은우리 (강정흠, 충북) 뽕입 식품
충북칠보 (박보경, 충북) 악세사리
충주센텔라 (김선범, 충북) 화장품

미니 엑스포

제1회 한국우수상품, 특산품 엑스포가 3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래디슨윌셔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인 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한미 기업 교류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엑스포에는 산업자원부 우수중소기업 선발 업체들로 충북, 충남, 부산지역 22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참가 업종은 소형 전자 제품, 식료품, 토산품, 잡화 등이다.

바이어들과 일반 소비자 500여 명이 엑스포를 찾았다. 참가 업체들은 행사 기간 동안 총 64,569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0,442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30

적극적인 재도약

제30대 정주현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2006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30대 회장에 정주현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부회장으로 그레이스 강, 에드워드 구, 스테판 하 이사도 동반 선출되었다. 정 당선자는 1981년도에 도미하여 85년부터 의류업체 Just Panmaco를 경영하고 있으며, 상의에서 8년간 부회장, 부이사장, 이사장직, 다울정 건립 모금 위원장을 지내며 폭넓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제30대 회장단 취임식이 6월 29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그는 임기 중 30대 회장이라는 역사성에 의미를 두고 제2의 적극적인 재도약을 통해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미주류 및 타 커뮤니티 간의 교류협력 확대, 한인경제를 대표할 경제센서스 구축, 한인타운 비즈니스 환경 개선사업 (올림픽 BIG)의 지속적인 추진,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세미나와 조달사업 소개, 경제단체협의회 활성화, 사무국 강화와 재정 확충, 상의 활동 및 행사의 위상 제고, 무역 엑스포의 적극적인 추진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제30대 회장 정주현

2006.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0대 정주현 회장 당선
2006.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30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정주현**
부회장 **스테판하, 에드워드구**
그레이스강

경제센서스위원회	**이청광**
스몰비즈니스엑스포	**에드워드구**
상공인의밤위원회	**그레이스강**
한인타운발전위원회	**이창엽**
세미나위원회	**김태미**
정치활동및커뮤니티교류	**길옥빈**
다울정관리 및건축위	**김성주**
정관개정위원회	**스테판하**
비즈니스상담센터	**명원식**
회원복지및친선위원회	**이수형**

제30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창엽**
부이사장 **이수형, 명원식**
감 사 **박종만**
이 사
강그레이스, 강문종, 강상윤, 강잔
고석화, 구에드워드, 김에리카
김성주, 김써니, 김세종, 김주연
김춘식, 김태미, 길옥빈, 명원식
박종만, 박철홍, 배무한, 배준식
신구현, 심현식, 안세영, 오찬국
왕동훈, 유만형, 이리섭, 이상엽
이수형, 이숙현, 이용태, 이찰스
이창엽, 이청광, 이태상, 임석준
이혁, 장기철, 장영근, 정크리스틴
정브라이언트, 정동완, 정임경
정주현, 정지나, 주브라이언트
정필호, 정젠, 주재범, 조익현
차현석, 최라나, 최명진, 최병선
최용자, 최종철, 추제나,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하스테판, 한윤찬
허상길

2006. 7. 정기이사회 개최
이창엽 이사장 선출

2006. 7. Xavier Bacerra 연방하원의원
한인단체장 간담회 참석

2006. 7. 매일경제 장태환 회장 미팅

2006. 7. LAPD 서부지역 커미셔너
상견례 참석

2006. 7. 다울정 관리비 책정워샵 참석

분과위 중심 책임제

상공회의소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방향으로 사무국을 강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꾀하고, 분과위원회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상의가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단체로 누가 되지 않토록 구체적이고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과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였다. 계획하는 사업이 과시용이 아닌 커뮤니티에 유익한 사업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제도와 관리를 개선하였다.

먼저 조직에 있어서 경제센서스, 스몰비즈니스 EXPO, 상공인의 밤, K-Town BID, 세미나, 정치활동 및 커뮤니티교류, 다울정관리 및 건축, 정관개정, 비즈니스상담, 회원복지 및 친선 등 실질적인 사업 위주의 분과로 재편하였다. 다음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분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 분과위원의 교체나 사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의 기획에서 시행까지 책임 운영을 하게 하였다.

여성 경영인 강좌

상공회의소는 여성경영인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9월 21일부터 6주간 실시하였다. 여성 사업주와 여성 전문직 및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좌는 60명 정원에 70여 명이 등록하였다. 대학에서도 여성 경영자 교육 과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듯 경제계에 우먼파워를 실감하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 경영자 프로그램은 중간 관리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최고경영자과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첫날 벤자민 홍 새한 은행장이 강사로 나와 경제와 금융관련 경영 특강을 펼쳤다. 계속해서 6주 동안에 여성경영 성공사례, 비즈니스 법률, 파이넌스 기법과 크레딧, 부동산 투자전략, 세금보고 및 절세전략, 증권투자, 은퇴준비와 보험 등 10개 분야에서 실무중심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 7. 월드컴 응원전 단체 감사 사진 증정식 참석

2006. 7. 코리아타운 경찰위원회 골프토너먼트 참가

2006. 7. 최병효 총영사 런치 미팅

2006. 7. 분과위원회 미팅

2006. 7. 총영사 초청 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2006. 7. PAVA 강태흥 회장 런치미팅

2006. 8. 김덕규, 문학진, 정희수 의원 런치 미팅

2006. 8. 이성열 부산무역사무소장 미팅

2006. 8. 중부한인큰잔치 참석

2006. 8. 회장 고문단 회의 개최

2006. 8. EXPO & GALA 장소 답사

2006. 8.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미팅

2006. 8. 광복절 기념식 참석

2006. 8. 왕동훈 재미화교협회장 미팅

아시안 친선 골프대회

아시아계 상공인들의 교류협력을 다지기 위한 제1회 미주 아시안 친선 골프대회가 Hidden Valley Golf Club에서 10월 14일 개최되었다. 한·중·일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베트남, 인도, 태국 경제인들도 참석하여 아시안 커뮤니티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관계가 증진되었다.

참가비는 그린피와 식사비를 포함해서 100달러로 비즈니스 종사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행사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50여 명, 일본 커뮤니티에서 20여 명, 중국 커뮤니티에서 10여 명, 화교연합회에서 10여 명, 베트남에서 4명, 인도에서 4명, 태국에서 4명 등 6개국 경제계 리더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비아라이고사 LA시장 한국방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저우, 홍콩을 방문한 뒤 16일부터 서울과 인천을 방문하였다. 한인 수행단으로 정주현 상의 회장, 장재민 한국일보 회장, 하기환 한국프로퍼티메니저 대표, 장도원 포에버 21 대표, 사브리나 케이 패션엄브렐라 대표, 저스틴 김 TMG 리얼티 대표, 스튜어트 김 PGP 캐피탈 대표, 크리스 박 아키온그룹 대표, 박기서 그루엔어소시에이션 대표가 동행하였다. 정부에서는 케일린 김 항만청 커미셔너, 시의원들과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총 45명의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되었다.

2006. 8. LA 시 Jimmy Blacman 미팅

2006. 8. KTWB 미팅

2006. 8. KITRA 오성근 관장 미팅

2006. 9. 상사지사협의회 골프 토너먼트 참가

2006. 9. 농협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연수생 간담회 개최

2006. 9. 정부조달 세미나 공동주관

2006. 9. 신한은행 다운타운지점 개점기념식 참석

2006. 9. LA부산무역사무소 개소식 참석

2006. 9. 정기이사회 개최 새한은행 벤자민 홍 행장 초청 특강 실시

2006. 9. 여성경영인 강좌 개설

2006. 9. 한국의 날 축제 전야제 참석

2006. 10. 비아라이고사 LA시장 방한 환송 만찬(총영사관)

2006. 10. 비아라이고사 LA시장 방한 정주현 회장 동행

이번 아시아 순방의 초점은 한국 방문이기에 최병호 총영사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을 초청하여 환송 만찬을 베풀고 격려하였다. 사절단은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경제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한국방문에서는 3박 4일 동안 정부 무역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한인 건축가가 설계를 맡은 윌셔-하바드 개발사업에 우리은행이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고, CJ 앤터테인먼트로 부터는 한인 타운에 영화관 설립을 약속받았다. 또한 LA 강 개발에 청개천 복원사업의 성공사례를 전수받기로 하였다. 의류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바이어들의 상담이 많아 수출 활로를 열었다.

코리아-LA 비즈니스 서밋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동북아시아의 관문인 한국과 미국의 관문인 LA가 손을 잡았다. LA한인상의(정주영), LA상의(개리 토비), 한국무역협회(이희범)은 11월 9일 윌셔그랜드호텔에서 '코리아-LA 비즈니스 서밋'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의 한국방문의 결과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총회에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케일 린 김 LA항만청 커미셔너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코리아-LA 비즈니스 서밋' 창립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FTA 체결은 한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촉진, 제도의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창립한 서밋은 양국이 친밀하게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가져왔다.

2006. 10. 아시안친선골프대회 개최

2006. 10.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 방문 보고

2006. 10. 정기이사회 개최
한미FTA조약체결과 한인경제
강의 이청광 교수

2006. 10. 주디 추 주하원 의원
기금모금행사 참석

2006. 10. 세계한상대회 참가

2006. 11. 비즈니스 네트워킹 합동협약
조인식

2006. 11. 부산상공회의소 자매결연식

2006. 11. 한-미 비즈니스 서밋 창립

2006. 11. 상의 이사진 워크샵 개최
(팜스프링스)

2006. 11.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
한미 FTA 지지 성명 발표

2006. 12. 상공인의 날 시상식 선정
간담회 개최

2007. 1. 신년인사회 개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사회봉사상 안나장학회 수여

제5차 세계한상대회

상공회의소는 10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된 제5차 세계한상대회에 24명의 이사가 참가하였다. 남가주 출신의 성공한 기업가 정진철 씨가 대회장을 맡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졌고, LA 한인회와 경제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최대규모 참가단이 꾸려졌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합동협약 조인식이 10월 1일 부산에서 열렸다. LA 상의와 부산 상의, 일본 효고 상의, 중국 청도 상의, 베트남 호치민 상의, 홍콩 상의 등 6개국 한인 상의가 모여 상호 간 교류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그간 상의 간 일대일 협력의정서 교환이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단독 교류를 하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다극화한 것이다.

부산상의와 자매결연

LA 한인상공회소와 부산상공회의소는 10월 3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양 상의 간에는 지난 1991년 협력의정이 체결된 상태지만 관계를 발전시켜 경제 교류 활성화를 대폭 강화하였다. 로스앤젤레스시와 부산시는 1967년 12월 18일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이력이 있다. 정부 차원에 이어 민간 차원의 조인은 경제와 문화교류가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자매결연을 계기로 두 지역 간 물적 자원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국제경쟁력을 증진하게 되었다.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
한미 FTA 지지 성명 단체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가주한인요식업협회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남가주한인건설협회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남가주한인세탁협회
남가주해외한인무역협회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미주한인봉제협회
민속떡협회
재미한인여성경제인협회
한인의류협회

2007. 2. 경북해외시장개척단(이철우) 상의 내방

2007. 2. 한인단체장회의 참석 타운경찰서유치 서명 계획

2007. 2. 남가주호남향우회 설날잔치 참석

2007. 2. 정기이사회 개최 데이브 웨버 글랜데일 시장 참석 투자유치 적극 권유

2007. 3. 상공회의소 사무실 이전 (3435 Wilsjire Blvd. #2450)

2007. 3. 부산상공인 LA 비즈니스센터 개소

한미 FTA 지지 성명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모인 남가주지역 한인 경제계와 상인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였다.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는 11월 19일 옥스포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가 한국은 물론 남가주 한인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 성명서를 체택하였다.

성명서에서 FTA는 한미 양국에 더 많은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한국의 투자유치 및 고용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은 물론 경제 전반에 유익하고, 한미교류의 핵심 거점인 LA 한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촉구하였다.

이자리에 참석한 최병효 총영사는 FTA가 체결되면 한인 경제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용하게 될 것이라며, 한인 경제인들의 FTA 지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창립 30주년 한인 상공인의 날

상공회의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상공인의 밤' 행사를 한인 축제 형태로 경제 포럼과 특산품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는 '창립 30주년 한인 상공인의 날'로 확대하였다.

한국 우수상품/특산품 엑스포

한국 우수상품/특산품 엑스포는 3월 22~24일까지 3일간 윌셔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엑스포에는 경상북도 16개, 전라남도 10개, 대전충남 7개, 부산시 6개, 충청북도 4개, 강원도 1개 등 총 4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업으로 추천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 특산품이 주류를 이루어 지역홍보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행사는 역대 최대규모로 연인원 1,75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400여 건의 바이어 상담 중 120건이 성사되어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성과를 거두었다.

한인 상공인의 날 행사 일정표

3/22(목)
한국-LA비즈니스서밋
라운드테이블
한국 우수상품 엑스포 개막식
상공인의 날 30주년 기념식
3/23(금)
한국 우수상품 엑스포 상담회
대미 수출전략 세미나
3/24(토)
한국 우수상품 엑스포 판매전

2007. 3. 한인 상공인의 날
한국-LA 비즈니스 서밋

2007. 3. 경북 · LA한인상의 · LA상의
업무제휴 협약

2007. 3. 한인 상공인의 날
한국 우수상품 엑스포 개막식

2007. 3. 한인 상공인의 날
상공인의 날 30주년 기념식

2007. 3. 한인 상공인의 날
한국 우수상품 엑스포 상담회

2007. 3. 한인 상공인의 날
대미 수출전략 세미나

2007. 3. 한인 상공인의 날
한국 우수상품 엑스포 판매전

한국-LA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LA 한인상공회의소 창립 30주년 한인상공인의 날 행사가 3월 22일 윌셔그랜드호텔에서 한국-LA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무역협회(이희범), LA 상공회의소(게리 토번), LA 한인상공회의소(정주현)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이다. 행사에는 100여명의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한국 기업에서 2명, LA 기업에서 4명이 패널로 토론에 참가하여 상호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별연사로 참석한 데이브 위버 글랜데일 시장은 글랜데일시의 경제상황과 비즈니스가 편리한 이점들을 설명하고 한인 상공인들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였다.

LA한인 상공인의 날 기념식

제30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The 30th Annual KACCLA Gala and Award Night)이 2007년 3월 22일 오후 6시 윌셔그랜드호텔에서 거행되어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의 '최우수 기업인상'은 상업용 냉장 냉동자비 전문업체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터보 에어' 김윤신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경영인상'은 한미은행 손성원 행장이 수상하였다. 올해 신설된 '최우수 무역인상'에는 코스타의 김주현 대표가 수상하였다. 또한 올해의 모범업체로 US뷰티서플라이(영 최), 루이스 리커(케니 박), 크라운 클리너(마서준), 구스 매뉴펙처링(구우율), 버팔로 전자홀세일(제임스 유), 솔레미오(마이크 이), 강남식당(이상헌)이 수상하였다.

31

제31대 회장 이창엽

2007.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1대 이창엽 회장 당선

2007.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31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이창엽
부회장	스테판하, 에드워드구
	그레이스강
고문단	이청광, 한군석, 이영송
	하기환, 강상윤, 이리섭
	조익현, 이 혁, 김성주
	최명진, 이용태, 에리카김
	한문식, 신구현, 정주현
EXPO 위원회	이수형/에드워드구
Website 위원회	정필호
지역사회관계위원회	길옥빈/정필호
다울정위원회	김성주
축제위원회	그레이스 강
회원관리위원회	춘식
BID 위원회	이창엽
사업관계위원회	스테판 하
한상관계위원회	최라나
KACCLA 건축위원회	정주현

제2세대 리더쉽

제31대 이창엽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2007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1.5세와 2세들이 주축이 된 31대 회장에 이창엽 회장단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부회장으로는 그레이스 강, 에드워드 구, 스테판 하가 선임되었다. 따라서 주류사회와 타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것을 기대하였다.

이창엽 회장은 1971년에 도미하여 USC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로켓다인 연구소에서 원자력발전 및 환경 관련 개발 프로젝트 메니저를 담당하였다. 개인사업에 뛰어들어 식당, 주유소, 건설업, POP 디스플레이 쇼케이스 제조업체 '시타델'을 경영하였다. 글렌데일시 커미셔너, 상공회의소 이사장, LA한인회 이사장, 재미한인자원봉사자 커뮤니티 재난대책 팀장, LA시 스몰비즈니스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찰스 김 교육재단 커뮤니티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제31대 회장단 취임식이 6월 28일,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4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태미 류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한 이창엽 회장은 내실강화에 역점을 두고 한인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상의를 이끌겠다고 다짐하였다.

제31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최라나**
부이사장 **이수형, 명원식**
감 사 **박종만**
이 사
강문종, 강상윤, 강잔, 구에드워드, 강양인, 고석화, 김성주, 김써니, 김세종, 김승욱, 김알렉스, 김주연, 김에리카, 김준식, 김태미, 김오빈, 명원식, 박종만, 박철홍, 배무한, 배준식, 석명주, 신구현, 신현식, 안세영, 오찬국, 왕동훈, 유만형, 이리선, 이상엽, 이상조, 이수형, 이숙현, 이용태, 이상철, 이창엽, 이철광, 이태상, 임석준, 장기철, 이혁, 창영근, 청브라이언트, 정동화, 정인경, 정주현, 정지나, 정필호, 정크리스틴, 주브라이언, 정체, 주재범, 조익현, 차현석, 최라나, 최명진, 최병선, 최용자, 최종철, 추제나, 하기환, 한규석, 한문식, 하스테판, 한윤찬, 허상길

2007. 7. 인천시와 MOU 체결
2007. 7. 인천시 투자설명회 참석
2007. 7. 신임회장단 언론사 방문
2007. 7. 미주상공인총영합회 참석
2007. 7. 정기이사회 개최
에리카 김 이사장 선출
2007. 7. LAPD 골프토너먼트 참가
2007. 7. Good Samaritan Hospital
한인영상진단센터 개관 참석
2007. 7. Olympic BID 미팅 참석
2007. 7. LA Largest Mixer 참가

부회장 분권 관리제

지난 회기에는 분과위원회 중심 책임제이었다면 새로이 출법한 회장단은 3명의 부회장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하는 부회장 분권 관리제 형태를 취하였다. 예전의 상의 활동 축이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계획하는 사업들을 분산 관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한인사회에서 상공회의소 역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의 업무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부회장들을 각기 중요 사업 분야에 투입하였다. EXPO 분과위원회는 에드워드 구 부회장, GALA 위원회는 그레이스 강 부회장, Business Network 분과위원회는 스테판 하 부회장을 배치하였다. 더불어 상의 사무처의 업무도 강화하였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

인천과 다자간 MOU 체결

상공회의소는 LA 상공회의소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2007년 7월 5일 다자간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투자유치단 16명을 이끌고 LA를 방문한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LA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세 단체 간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세 단체는 MOU를 통해서 향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상호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며, 관계자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 LA 상공회의소 게리 토벤 회장은 터어키에서 열리는 세계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엠마누엘 랄라나 최고 재정책임자(CFO)가 체결에 참석하였다.

LA 믹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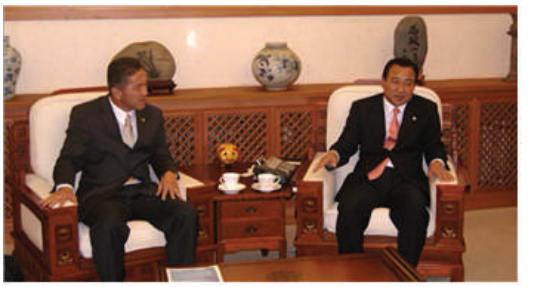
상공회의소는 제9회 'LA 믹서'에 참가하였다. 7월 26일 Shrine Auditorium에서 열린 이 행사는 LA지역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이다. 한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참석하여 상공회의소와 한인사회를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LA, 오랜지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LA 행사에는 200여 곳이 부스를 마련하였다. 한국 업체로는 '여수식당'이 부스를 마련하고 한국 전통음식을 소개하였다.

2007. 8. CRA 미팅
2007. 8. 하이모 확장 기념식 참석
2007. 8. 한미FTA에 관한 이태식 주미 대사 간담회 참석
2007. 8. 여성경영인세미나 기자회견
2007. 9. 충청남도, LACC, LA 상의 MOU 체결
2007. 9. PACC, 에너지 세미나 참석
2007. 9. 충남지사 만찬 참석
2007. 9. 여성경영인세미나 개강
2007. 9. K-Town BID CRA 미팅
2007. 10. Duckworth / CRA 미팅
2007. 10.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세미나 참석
2007. 10. LA 한인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참석
2007. 10. 대구시 정순식 국제통상 자문대사 미팅
2007. 10. 총영사관, 하반기 경제협의회 참석
2007. 10. CAC / CRA 미팅 참석
2007. 10. 여성경제인 세미나 졸업식
2007. 10. Tom Labonge 시의원 미팅
2007. 10. 제6차 한상대회 참가
2007. 11.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참석
2007. 11. K-Town BID CRA 미팅
2007. 11. KAC Legis lative 오찬

충남과 다자간 MOU 체결

상공회의소는 LA 상공회의소와 더불어 충청남도와 2007년 9월 5일 다자간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게리 버벤 LA상의 회장, 그리고 이창엽 회장은 5개 항으로 구성된 협약서에 합의하였다. 이날 체결된 내용은 3개 기관이 무역과 투자 등다양한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 지역의 경제동향 및 경제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방문 사절단 및 경제인에 대해 상호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대표로 하는 시장 개척단은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식품 도매상들과도 MOU를 체결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한미 FTA 지원 결의안

한미 FTA는 미주 한인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로서 미국 의회 비준 통과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한인 경제단체들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활발히 펼쳤다.

주미한국 대사 초청간담회

상공회의소는 LA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미한국 대사 초청 '한국자유무역협정 조찬간담회'를 주관하고, 8월 23일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에드 로니스 하원의원, 다이앤 왓슨 하원의원 등 정계 인사와 50여명의 상공회의소 회원 및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경제와 인적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협정이라며 미국이 요구했던 노동과 환경분야의 추가조항도 수용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캘리포니아 정치권과 경제계가 미 연방의회에서 FTA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도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여권 도입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고 밝혔다.

2007. 11. LA지역 상공회의소 미팅
2007. 11. Eric Garcetti 시의원 미팅
2007. 12. Good Samaritan Hospital 이사장 미팅
2007. 12. 상의 이사 연말 친목회 개최
2008. 1. 총영사관 신년오찬식 참석
2008. 1. 신년하례식 개최
2008. 1. 아시안-아메리칸 상의연합 MOU 체결
2008. 1. FTA Ambassador 초청 오찬
2008. 1.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Good Samaritan Hospital)
2008. 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개강
2008. 1. EXPO 미팅
2008. 1. 장재복 부총영사 미팅
2008. 1. 비아라이고사 LA시장 미팅
2008. 1. 일본 상의 이취임식 참석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초청간담회

상공회의소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사 초청 '한미 FTA 오찬 간담회'를 주관하고, 로텍스호텔에서 1월 10일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최병효 총영사, 미셸 박 조세형평국 위원, 코트라 김상철 무역관장, 그리고 상의 이사 및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슈왑 대사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GDP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켈리포니아 특히 LA 한인 경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장 큰 혜택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남가주 한인 상공인들이 의회의 비준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LA 슈퍼바이저위원회 FTA 결의안 체택

LA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는 한미자유뮤역협정(FTA)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월 29일 열린 슈퍼바이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반 버크 슈퍼바이저가 상정한 한미 FTA 지지 선언안을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선언은 LA한인상공회의소(이창엽)와 LA상공회의소(게리 토번)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슈퍼바이저위원회는 FTA 지지 선언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지지를 촉구하였다.

마이크 안토니오 슈퍼바이저가 FTA 지지 입장 발표

2008. 1. BID / CRA 미팅 참석
2008. 2. 아시안상의연합회(AACA) 미팅 참석
2008. 2. 맹정구 강남구청장 미팅
2008. 2. K-Town BID 미팅
2008. 2. 남가주호남향우회 설날잔치 참석
2008. 2.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졸업식
2008. 2.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참석
2008. 2. Olympic BID 건물주 미팅
2008. 2. 한국상품 EXPO 바이어 미팅
2008. 2. BID / CRA 미팅 참석
2008. 2. 아시안상의연합회(AACA) 믹서
2008. 3. 한국상품 EXPO 바이어 미팅
2008. 3. Multicultural Media EXPO
2008. 3. 일본상의 사케 페스티발 참석
2008. 3. 제31회 상공인의 밤 개최
2008. 3. 제3회 한국우수상품 EXPO
2008. 3. BID / CRA 미팅 참석
2008. 4. 한국상품 EXPO 바이어 미팅
2008. 4. Olympic 가로 경관 디자인 기자간담회
2008. 4. Olympic 거리 풍경 디자인 오리엔테이션
2008. 4. 글렌데일시, 한미 FTA지지

아시안상의연합회 (AACA)

남가주 아시아계 상공회의소들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안 상공인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LA 한인상공회의소, LA 중국상공회의소, 남가주 일본상공회의소, 남가주 태국상공회의소 등 아시안 4개 상공회의소는 2008년 1월 8일 로텍스 호텔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상의연합(AACA)'을 발족하였다. AACA는 국제무역과 투자, 상품 및 인적 교류, 각종 행사 공동 참여 등 각종 사업에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아시안아메리칸상의연합(AACA)은 미국 내 아시아권 13개국을 아우르는 메머드급 경제연합체로 발전하였다. 5월에 열린 골프 토너먼트를 계기로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파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몽고, 인도 등이 참가하여 아시안 커뮤니티 공동의 경제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Executive-MBA LA)'이 개설되었다. 이 강좌는 이창엽 회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정을 맺음에 따라 성사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학사 관리를 담당하고 상공회의소가 수강생을 모집하며, 중앙일보가 미디어 후원을 맡아 2008년 1월 14일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제1기 과정을 개강하였다.

2008. 4. Olympic BID 건물주 미팅
2008. 4. 아시안 친목 골프대회 참가
2008. 5. 아시아태평양 미국문화 유산의 나날 참가
2008. 5. KAMA 골프토너먼트 참가
2008. 5. WTW 82주년 기념조찬 참석
2008. 5. K-Town BID / CRA 미팅
2008. 5. BOA 산호상 수상
2008. 5. 총영사 송별식 참석
2008. 5. 아시안상의연합회(AACA) 실무회의 참석
2008. 5. API 문화유산의 달 리셉션
2008. 5. 한미 FTA 청원운동 (헐리우드볼)
2008. 5. Olympic 가로 경관 디자인 선발위원회 참석
2008. 5. Olympic BID 건물주 미팅
2008. 5. 한미 FTA 청원 운동 (한남체인)
2008. 5. AACA MOU 체결
2008. 5. 한국기업협의회 이사회 참석
2008. 5. 아시안 친목 골프대회 참가
2008. 6. Olympic 가로 경관 디자인 우승자 발표
2008. 6. Olympic BID 건물주 미팅
2008. 6. 상공회의소 32주년 기념연회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강사진은 주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한국외대 대학원 교수들로 꾸렸으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기업조직 및 전략의 변화, IT 비즈니스 및 기업환경변화, 기업재무 및 자산가치, 인사 및 조직 과목을 지도하였다.

각 기수 40명을 정원으로 4주 동안 주 5일 강의에 수강료는 3,000 달러이다. 수료자들에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외대 동문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한국외대 GCEO 프로그램으로 개명하고 16기 졸업생을 배출하여 총 약 6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올림픽 거리 단장

상공회의소는 2005년 8월 미래기획위원회를 조직하고 'BID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이창엽 회장은 본인 의 임기 중 올림픽 거리 선상의 상권을 재단장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올림픽 BID 구성을 마치고 LA 커뮤니티 재개발국(LACRA)와 협조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사업은 Grand View Ave.부터 Crenshaw Blvd.까지 구간을 단장하게 되므로 한인타운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하였다. 또한 올림픽이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올림픽 스타들의 'Walk of Fame'을 만들어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LA 시의회는 올림픽 블루버드 재단장 사업을 위해 400만 달러를 책정하고 2009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제31회 상공인의 밤

제31회 KACCLA Gala Award Night가 3월 20일 윌셔그랜드호텔에서 개 최되었다. '최우수 경영인상'은 Pacific City Bank 장정찬 행장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기업인상'은 Bankcard Services 패트릭 홍 대표가 수상하 였다. '무역인상'은 Unique Spectronix 윤석원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모범업체상'은 Alice Buauty Supply 박애리 대표, Bee 부동산 김연중 대표, E-Mens Club 이승렬 대표, New Creation Builders 브라이언 전 대 표, Smart Ice 강윤주 대표, Riviera Quality Cleaners 경윤선 대표, 조선 갈비 지영필 대표가 각각 수상하였다.

제3회 한국 우수상품 EXPO

제3회 한국 우수상품 특산품 EXPO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Wilshire Grand Hote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다. 상공회의소는 한국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LA 후원으로 주최하였다.

지역별로는 충남(10), 경북(10), 경남(8), 부산(7), 전북(7), 대구(6) 등 6개 지역 총 48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품목별로는 주류(3), 전통스낵(2), 해 산물(3), 인삼재품(5), 자연식품(3), 건강식품(12), 가정용제품(9), 화장품 (1)이 참가하였다.

총 30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약2,95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1,39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제3회 한국우수상품/특산품 EXPO 참가업체 명단

지리산국화주 (과일주)
사또무주 (머루 와인)
㈜농본 (건강솔잎식초)
오성제과 (한과, 전병, 스낵류)
남탑산방 (국화차)
기선권현망수상업협동조합(마른멸치)
㈜청호씨푸드 (기장미역, 다시마)
하나맛김 (조미김)
풍기특산물영농조합 (홍삼가공식품)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 (홍삼농축)
대농고려삼(주) (홍삼뿌리, 홍삼진액)
한국생약영농조합 (홍삼, 인삼 제품)
㈜비엘 (흑삼음료, 흑삼엑기스)
㈜인조이내추럴 (자연초흑마늘)
㈜에그팜 (훈제, 커피, 홍삼, 허브란)
㈜향체방 (실크아미노산김치)
㈜장생도라지 (도라지 가공식품)
인삼죽염촌 (죽염된장, 커피, 치약)
옹고집장집 (호박보리된장)
천지영농조합 (산양삼가공품, 더덕즙)
토리식품 (호박죽)
㈜농수원 (바이오, 녹차, 한방김치)
한국스테비아 (스테비아 분말, 농축액
영풍물산 (냉동부침개류)
청양고추랜드영농조합 (고추장, 된장)
옥밀 (피부미용마사지옥타올)
㈜델코 (초극세사 클리너)
지웰트레이딩 (나노 코팅 조리기구)
천양제지 (한지인쇄지, 한지벽지)
㈜범양산업 (미용샤워타올)
쓰리제이 (샤워타올, 샤워장갑)
통영누비 (이북, 가방 등)
㈜온고을황토 (황토베게, 침구류)
소리소 (한방화장품)
㈜동의화장품 (마스크팩, 마사지팩)
㈜아람인터텍 (의류부자재, 악세사리)
㈜영케미칼 (일회용반창고, 벤드)
㈜만투인토네셔날 (공기메트리스)
㈜핫밀테크 (순간가열제)
㈜신화성물산 (위생자동물수건제조기)
케이제이아이(주) (목초수액패치)
㈜노스모 (금연기능식품 및 의약품)
비엔엑스코리아 (저주파발반사기)
쏠라코리아 (돌찜질기, 단전뜸질기)
니엠아니산업 (오행쑥뜸기, 좌훈기)
창진테이프 (포장용 POO 테이프)

32

화합과 발전

제32대 회장 스테판 하

2008.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2대 스테판 하 회장 당선

2008.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32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스테판 하**
부회장 **이수형, 김춘식, 허상길**

By-Law Revision	정임경
Membership Mixer Luncheon	이영옥
Friendship Golf	한윤찬
Membership Campaign	정필호
Community Outreach	허상길
Community Liaision	길옥빈
Pavilion Garden	김춘식
Olympic BID	스테판하
Executive MBA Program	최명진
Annual GALA Night	김소아
Internship Program	명원식
Small Business Expo	이수형

제32대 스테판 하 회장 취임

상공회의소는 2008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32대 회장에 스테판 하 회장을 선출하였다. 라나 최 후보와 상의 26년 만의 경선에서 31표를 얻어 4표 차로 신승하였다. 하 당선자는 화합으로 열린 상공회의소를 만들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모든 상공인들과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장단에는 김춘식 이사, 이수형 이사, 허상길 이사를 부회장으로 인선하였다.

하 회장은 대구에서 출생하여 1976년 도미하여 UC버클리 건축과와 CIRE Institute of Chicago를 졸업하였다. 그는 마커스 앤드 밀리첼에서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로 시작하여 부동산자산 관리회사 로킹햄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LA시 CRA 자문위원, 한미연합회(KAC) 회장, 한미민주당협회(KADC) 고문, 한미연합회(KAC) 이사장,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 의장을 역임하였다.

제32대 회장단 취임식이 6월 24일, 윌셔그랜드호텔에서 4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스테판 하 회장과 회장단은 마크 김 판사 앞에서 선서하였다. 하회장은 내실강화에 역점을 두어 열린상공회의소 표방하고 신규 회원 및 이사 영입, 시대에 맞는 정관 개정 추진, 숙원사업인 상공회의소 자체 건물 마련, 그리고 한국 상품 엑스포 전문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회원 확충

제32대 회장단은 "스스로 가입하는 상공회의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회원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인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에 가입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우선 신규 회원 1,000명 유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상의 가입에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분야의 직종과 각계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였다. 한인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7월 첫 이사회에서 18명, 8월 이사회에서는 7명의 신임이사를 영입하는 등 이사수를 93명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상의의 역량을 확대하였다.

이사진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어 예전의 상공인 중심에서 전문인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급성장한 한인 경제 규모에 걸맞게 세분화된 전문 분야 종사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까닭이다. 또한 이사 확충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12개 분과로 세분화하고 이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권장하였다.

회원공유 양해각서

상공회의소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한인경제단체들과 회원공유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인 경제계가 미 주류사회에서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명원식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인의류협회를 필두로 미주한인봉제협회, 가주한미식품상협회, 가주한인요식업협회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정관 개정

상공회의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 실제 상의 운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임경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신임이사 선출과 회장 경선 등과 같은 이슈에 잡음이 없도록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관 개정작업에 나섰다.

상의는 긴 연구와 논의를 통해 2009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하고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 사만 존재했던 상의에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골자이다. 회원은 기존의 이사와 유사한 개념의 정회원, 상의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협력 단체의 회원에게는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나누었다.

제32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명원식**
부이사장 **정임경, 정필호, 안세영**
이 사
강그레이스, 강상윤, 강소아, 강쟌 고마이클, 구경완, 구에드워드 김경희, 김금규, 김에리카, 김성주 김써니, 김순철, 김승욱, 김엘렌 김용대, 김주연, 김춘식, 김태미 김필성, 길옥빈, 독고량, 명원식 박미셸, 박성욱, 박윤숙, 박종만 박종태, 박철홍, 박치우, 배그레이스 배무한, 배송암, 배원기, 배준식 서상석, 송종헌, 신구현, 심현식 안세영, 양근수, 엄기륭, 오순환 오찬국, 이리섭, 이상엽, 이수연 이수형, 이승열, 이승호, 이영목 이용범, 이용태, 이창엽, 이청광 이현숙, 이혁, 장기철, 장영근 전석호, 전영훈, 정광진, 정동완 정임경, 정주현, 정지나, 정필호 정브라이언트, 정크리스틴, 조현숙 주재홍, 조석일, 조익현, 차기민 차현석, 최라나, 최명진, 최은종 최종철, 추제나,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한윤찬, 한진수, 허상길 하스테판

2008. 7. Federal Reserve Bank 포럼 참석
2008. 7. 운영위원회 미팅 (Rockingham)
2008. 7. 임원 언론 인터뷰
2008. 7. 전 회장 오찬

2008. 7. LAEDC 경제전망 회의 참석 (Downtown Marriott)

2008. 7. AACA 중식 미팅 (Kyoto Grand Hotel)

2008. 7. E-MBA 언론 인터뷰

2008. 7. Olympic BID 미팅 참석 (KAFLA)

2008. 7. 올림픽 거리 청소

2008. 7. 운영위원회 미팅

2008. 7. 정기이사회 개최 명원식 이사장 선출

2008. 7. 마당몰 프로젝트 미팅 참석 (City Hall)

2008. 8. 운영위원회 미팅

2008. 8. 정기이사회 개최

2008. 8. 한인경제단체협의회 개최

2008. 8. E-MBA 졸업식 (옥포드팔레스호텔)

2008. 9. 운영위원회 미팅

E-MBA 2기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글로벌 최고 경영자 과정 제2기 프로그램이 7월 28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제1기 수료생들이 보여준 수료 후 사업적 성과와 인적 네트워 형성의 효과를 크게 평가하여 높은 관심 가운데 출발하였다.

제2기에는 스테판 하 회장과 명원식 이사장 등 상의 이사들과 지도급 인사들과 전문인 그리고 상공인들이 등록하였다. 4주간 총 20회 진행된 과정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조장연 경영대학원장, 박진우 교수, 권석윤 교수, 김중화 교수가 과목을 맡아 강의 하였다.

대침체-세계금융위기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는 2008년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대규모의 금융위기를 가져온 사건이다. 대침체는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사태는 9.11테러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맞이한 최악 위기로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알리고 신냉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주택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어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자, 은행 간 신용 위기와 유가증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건이다. 위기는 2007년 4월에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하면서 촉발되었다. 결국 미국 재무부는 2008년 9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을 결정하자 사태가 폭발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5개 이상의 서브프라임 대출 기관이 파산 또는 자산을 매각한 것에서 나타났다.

타운 경제 살리기 캠페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충격적이어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며 시중은행의 주가는 하락하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800 포인트가 넘는 진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하락하였다. 금융위기는 즉각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끼쳐 소비심리는 위축되었고, 부동산 시장은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2008. 9.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부 대표 LA항 방문 참석

2008. 9. 로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 미팅

2008. 9. 정기이사회 개최 초청연사 강석희 어바인 시장

2008. 9.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재선 기금모금 행사

2008. 10. 타운경제살리기 캠페인 시작

2008. 10. 제7회 한상대회 참가

2008. 10. 청도한국상공회와 MOU 체결

2008. 10. 제주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2008. 10. 총영사관, 한인회 · 상의 회장 타운경제살리기 캠페인 확대 초청간담회

2008. 11. 제6차 한미태평양연안 6개주 합동회의 (제주 롯대호텔)

2008. 11. 스몰비즈니스 무료 컨설팅 '스코어' 프로그램 시작

2008. 11. 부동산세 감면 세미나 개최

이런 상황에서 LA 한인 경제단체가 타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상공회의소는 한인 경기 활성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유관단체들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스테판 하 회장은 10월 14일 한인 단체장들과 은행장들을 초청하여 옥스퍼드호텔에서 타운 경제 살리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남가주한인단체협의회를 소집하고 한인 은행권과 경제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 회원들은 "한인업체를 애용합시다" 라는 구호와 스티커를 가지고 한인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10월 22일부터 전개하였다. 김재수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올림픽 대로를 따라 캠페인을 펼쳤다. LA 총영사관은 10월 31일 관할 지역 4개 주내 13개 지역한인회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한인 경제 살리기 캠페인 지역을 확대하였다.

제7차 세계한상대회

제7차 한상대회가 35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10월 28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동포 경제인들이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한상운영위원회는 모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해, 대회 기간 중 '달러 모으기 운동' 을 전개하였다.

LA 상공회의소에서는 스테판 하 회장을 비롯하여 65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중 이민사박물관, 갯벌타워, IFEZ 홍보관 관람 일정도 포함되어 제주도의 정취를 즐길 수 있었다.

청도한국상공회와 MOU 체결

상공회의소는 10월 29일 제7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중국 청도한국상공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무역거래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상호 현지법지원, 해외취업알선, 상의 상호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청도는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연해 경제개방 도시 중의 하나이다. 청도에는 약 10만명의 한인과 약 6,000여 개의 한인 사업체가 있으며 약 20개 업체가 상의에 가입되어 있다.

2008. 11. 재산세 감면 세미나 개최

2008. 11. 이명박 대통령 LA 방문 간담회 참석

2008. 12. 제3기 E-MBA 수강생 모집

2008. 12. 남가주한인경제단체장협의회 타운 경제 살리기 방안 논의

2008. 12. 코리아타운 구획지정 대책 회의 참석 (한인회관)

2009. 1. 신년인사회 개최
사회봉사상 수잔 리 수상

2009. 1. 올림픽경찰서 오픈 (초대회장 에드워드 구)

2008. 12. 제3기 E-MBA 개강

2009. 2. 런천 믹스 (하나파이넨셜)

2009. 2. 무역법 세미나 개최

2009. 3. 제32회 상공인의 날 개최

2009. 4. 인턴쉽 프로그램 업체 모집

2009. 5. 인턴쉽 프로그램 업체 확정 (14개 업체)

제주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상공회의소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활동과 상호 경제 교류 확대를 약속하였다. 양 상공회의소는 10월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사절단 파견 거래 알선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스몰비즈니스 무료 컨설팅

'스코어(SCORE: Service Corps of Retried Executives)'는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각종 면허증, 유자, 정부 지원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상공회의소는 불경기로 인해 돌파구를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SCORE LA지부 리차드 하델 회장과 협의 끝에 1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스코어는 1964년 설립된 정부 지원 기구로 미 전역에 성공한 경영자 또는 대기업 간부 출신의 은퇴자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LA 지부에는 70여명이 활동 중이다. 영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SCORE LA 지부 유일한 한국인 캔 박 자문위원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달 동안 총 40여명의 한인 업주들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2회 상공인의 날

제32회 상공인의 날 행사가 3월 20일 윌셔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 기조연설을 맡은 제리 브라운 가주검찰총장, LAPD 윌리엄 브래튼 국장 등 정제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최우수 기업인상'은 구스메뉴펙처링 구우율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경영인상'은 현대모터아메리카가 수상하였다. '블루오션상'은 플레임브로일러 영 이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커뮤니티서비스상'은 LA 커뮤니티 재개발청이 선정 되었다.

33

제33대 회장 명원식

2009.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2대 명원식 회장 당선
2009.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33대 임원 조직

회 장	**명원식**
부회장	**정임경, 이용범, 독고량**
인턴쉽분과위원회	**차기민**
세미나분과위원회	**차비호**
회원관리분과위원회	**이영목**
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구경완**
회원모집분과위원회	**정지나**
비즈니스센터	**이용범, 그레이스배**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서상석**
마당프로젝트분과위원회	**김금규**
올림픽BID분과위원회	**정일경**
최고경영교육분과위원회	**최명진**
상공인의밤	**그레이스김, 박윤숙**
엑스포	**윤천욱, 에드워드구**
웹사이트분과위원회	**독고량**
한인타운홍보분과위원회	**소아**
골프분과위원회	**한윤천, 엄기룡**

비즈니스 도우미

제33대 명원식 회장 취임

상의는 2009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명원식 후보와 정임경, 이용범, 독고량 회장단을 인준함으로써 제33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명 회장 당선자는 겸손한 자세와 섬기는 자세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양보다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발표하였다.

명원식 회장은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의류업체 Dream USA inc.를 운영하고 있다.

상의 제33대 회장단 취임식이 2009년 6월 18일 윌셔플라자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아시아나항공, 스카이페스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68개 업체와 단체의 후원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명원식 회장은 첫째 사업구상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발표하고, 지역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중심이 될 센터의 필요성 강조했다. 둘째는 신규 한인 업체의 행정 및 사무를 지원해주는 '인큐 베이터 프로그램 활성화', 셋째는 '회원 합동연수 프로그램' 시도를 발표하였다.

제33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김춘식**
부이사장 **김주연, 정동완, 이수형**
이 사
강그레이스, 강상윤, 강소아, 강쟌 고마이클, 구경완, 구에드워드 김경희, 김금규, 김성주, 김써니 김승욱, 김에리카, 김엘렌, 김용권 김용대, 김주연, 김춘식, 김충섭 김태영, 김필성, 김현철, 독고량 명원식, 명윤성, 박경식, 박미셸 박성욱, 박윤숙, 박종태, 박철홍 박케니, 배그레이스, 배무한, 배송암 배준식, 서상석, 송종헌, 신구현 심현식, 안세영, 엄기룡, 오세경 오순환, 오영관, 오찬국, 윤천욱 이리섭, 이수연, 이수형, 이승열 이승호, 이에드윈, 이영목, 이은 이용범, 이용태, 이지원, 이창엽 이청광, 이혁(1), 이혁(2), 이현숙 임우성, 장승호, 장기철, 전석호 전영훈, 정광진, 정동완, 정임경 정주현, 정지나, 정크리스티나 정크리스틴, 정필호, 조범열, 조석일, 조익현, 조현숙, 조형기 주재홍, 차기민, 차민석, 차비호 차현석, 최라나, 최명진, 최은종 최종철, 추제나, 하기환, 한군석 한문식, 한윤찬, 한진수, 허상길 하스테판, 한로렌스

2009. 7. 정기이사회 개최
김춘식 이사장 선출

2009. 7. 통상사무소 담당자 미팅

2009. 7. 쥬디 추 후원의 밤참석

2009. 7. 윌셔라이온스클럽 이취임식

인턴쉽 프로그램

상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전공 관련 업체에서 1년간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상의가 업체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참가 학생들의 숙소와 출퇴근을 위한 편의를 제공을 주선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2009 인턴쉽 프로그램'은 7월 24일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참가 학교로는 부산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경희사이버대, 서울대 등이다. 모집 인원 40명에 지원자가 많아 부산대의 경우 6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주로 패션 메카 자바시장의 모던 페브릭, 이스프레스 소스, AKA 클로딩, PG 웨어 등 한인 패션업체들에서 근무하였다.

한서대학교와 인턴 프로그램 MOU 체결

LA한인산공회의소가 한서대학교와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인턴쉽 활성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009년 11월 30일 한서대학교 롱비치 어학원 세바스천 한 디렉터가 상의를 내방하여 명원식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상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나가 한미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유한대학과 인턴 프로그램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와 유한대학이 인턴쉽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정을 맺었다. 2010년 1월 7일 유한대학 관계자들이 상의를 내방하여 체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유한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3명이 상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LA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며, MOU 체결을 통해 그래픽디자인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에게도 인턴쉽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2009. 7. 강석희 시장 출판기념회 참석

2009. 7. EXPO 관련 한국방문

2009. 7. 인턴쉽 학생단 LA 입국 기자회견

2009. 7. 일본상공회의소 주최 AACA Good Will Dinner (일본총영사관저)

2009. 8.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최종태 회장 상의 내방

2009. 8.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상의 내방 오찬간담회

2009. 8.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미국생활법률' 출판기념회

2009. 8. 마당프로젝트 관련미팅 참석

2009. 8. 한국패션사업단과 MOU 체결 (LA문화원)

2009. 8. 부산대학교 학생처장 상의 내방

2009. 8. 소그룹세미나(믹서) 개최 (윌셔은행 소강당)

2009. 9. 한인타운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2009. 9. 정우택 충북지사 LA 방문 환영만찬 참석

2009. 9. LACMA 한국관 개관식 참석

2009. 9. 올림픽경찰서 CUP 세미나

2009. 9. 경기도 북미사무소 개소식

비즈네트워크 창간

상의는 뉴스레터 '비즈네트워크'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한인 경제인들에게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의가 중심이 되어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총 8페이지 컬러판으로 2009년 가을판부터 분기별 발행하였다. 내용은 상의 주요 행사 및 활동 공지, 상의 멤버 할인 혜택 제공 업체 리스트 수록, 경제 관련 법안 소개, 비즈니스 관련 보험, 법률, 부동산, 그리고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하였다.

비즈네트워크는 소책자이지만 짜임새 있는 디자인과 충실한 내용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변화되어가는 비즈니스 형태에 관한 많은 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제8차 세계한상대회

제8차 한상대회가 2009년 10월 27일~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멘토링 세션, 재외동포 민원상담, 기업 IR이 진행되었다. 특징으로는 영비즈니스 리더의 밤과 포럼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세계한상골프대회를 오픈하였다.

상의 회장단은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제4회 EXPO 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 방문과 협의에 힘썼다.

2009. 9. 충남무역관 파견원 미팅
2009. 9. 군산시와 MOU 체결
2009. 9. 미주한인상의총연 참가 (뉴욕)
2009. 10. 개천절 기념식 참석 (한인회관)
2009. 10. 김영옥중학교 개교식 참석
2009. 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단장 접견
2009. 10. 변호사협의회 이취임식 참석
2009. 1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MOU
2009. 10. 올림픽거리디자인공청회 개최
2009. 10. 제2차 회원 믹서 미팅 (미트레야)
2009. 10. 경제인친선골프대회 개최
2009. 10. RNL BIO 사업설명회 참석
2009. 1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오사카 상의와 MOU 체결

EXPO 준비 행보

한상대회에 참석 중인 회장단은 '4회 LA국제무역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10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였다. 김기문 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 국제통상실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와 소비자가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장단은 이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도청, 충북도청, 전남도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업체를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한상대회를 마치고 10월 30일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청도한인상공회를 방문하고 청도에서 10~20개의 업체가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청도한인상공회와 언어연수 등 한인 2세들의 교류사업도 실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사 충족수 달성

상의는 직전 회기에 정관을 개정하고 회원 확충을 위한 제한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상의의 발전과 한인 경제계의 확장에 따라 이사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동안 정관 내용의 불일치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상의 33년 만에 이사의 정관 최대 충족 수를 달성하였다. 스테판 하 회장과 명원식 회장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신임이사 영입이 시작되어, 2009년 11월 17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이가자미용실 이지원 대표의 이사 선임으로 목적을 달성하였다. 상의 이사 100명 시대의 출현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규모와 중요도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단체로 위상을 확보하였다.

비즈니스 센터

상의는 지역상공인들과 한국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를 12월 1일 개소하였다. 가상 오피스 운영방식으로 센터 직원이 전화 업무, 메일 등 오피스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비서가 필요한 단체 또는 업체, LA에 근거를 두고 싶은 타지역 업체, 미국 진출을 원하지만 지사 설립이 불가능한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무료판매증명서(FSC) 발급 등 인증업무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며, 만일 회의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전에 예약하면 상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2009. 10.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2009. 10. 제8차 한상대회 참가

2009. 10. 충남도청 방문 지사 접견

2009. 10. 오사카상공회의소와 MOU

2009. 10. 경북도청 방문 지사 접견

2009. 10. 청도한국상공회 방문

2009. 11. 한서대학교와 MOU 체결

2009. 11. 총영사관 만찬 참석

2009. 11. 전직 회장단 모임

2009. 11. 부산상공회의소 환영만찬
(옥스포드팔레스호텔)

2009. 11. 정기이사회 개최
100번째 이지원 이사 선출

2009. 11. 세도나한인회 회장단 내방

2009. 11. 한덕수 주미대사 조찬 참석
(윌셔그랜드호텔)

2009. 11. 비즈니스센터 개설

2010. 1. 신년하례식 개최

2010. 1. 유한대학 인턴쉽프로그램
업무협정서 체결

생활법률세미나

상의는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생활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0년 1월 21일 LA한국교육원에서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7명의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강의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계약법(구경완 변호사), 민사소송법(데이나 문 변호사), 부동산법(이승호 변호사, 가정법(테리 임 변호사), 상해법(브래드 리 변호사), 국제법(린다 정 변호사)가 각각 15분씩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제33회 한인상공인의 날

제33회 KACCLA Annual Gala & Awards Night가 3월 18일 Wilshire Grand Hotel에서 개최되었다. 4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런 베스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100명에 달하는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명원식 회장은 자평하였다.

'최우수 기업인상'은 생활용품 전문업체 Partners 진 심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경영인상'은 여성의류업체 Pretty Good 계은범 대표가 수상하였고, '사회봉사상'은 CRA/LA가 수상하였다.

'우수모범업소상'은 Lux Buauty Supply 김진문 대표, Habert's Liquor 윤순남 대표, Best Realth 수산 김 대표, 우리자동차바디 고주선 대표, 한미교육개발 김정현 대표, 한혜정산부인과 사만타 한 박사, I.O.U.O.의 코니 손 대표가 각각 수상하였다.

2010. 1. E-MBA 개강

2010. 1. 생활법율세미나 개최

2010. 2. 인천광역시 투자설명회 참석

2010. 2. Korea Japan Festival

2010. 2. E-MBA 수료식

2010. 2. 남가주호남향우회 이취임식

2010. 2. FTA 비준 촉구 준비 미팅

2010. 2. SBA 융자 세미나 참석

2010. 3. 제33회 상공인의 날 개최

2010. 3. 중소기업중앙회 EXPO 미팅

2010. 3. 한국산업단지공단 EXPO 미팅

2010. 4. LA국제무역박람회 개최

2010. 4. 중앙일보, 아나바다 행사 참석

2010. 5. 상의 기자단 만찬

2010. 5. 미주상공인총연 경제포럼

2010. 5. 상의총연 골프대회 참가

제4회 LA 국제무역박람회

제4회 LA 국제무역박람회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Shrine Expo Hall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농수산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고, 정부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합세하여 미국 시장 확대에 나섰다.

품목별로는 공예품(41), 문구(19), 완구(1), 시계(2), 생활자기(1) 화장품(9), 캐릭터용품(7), 생활공구(2), 식품(10), 섬유(7) 등 총 92개 업체가 참여 하였다.

무료입장인 박람회 관람객들을 위해 한남체인 맞은편 LA 한인침례교회에서 행사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였다. 제4회 Expo의 특징은 한국전통공예품의 폭발적인 인기를 꼽는다. 전라남도가 도내 한국관광 명품 인증을 받은 전남공예협동조합 8개 업체를 참가시켜 공예품의 인기와 함께 목표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루어진 행사의 방문자 수는 연인원 1,843명, 바이어 166개 회사, 상담 910만 달러, 현장계약 230만 달러, 향후계약 15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34

제34대 회장 김춘식

2010.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4대 김춘식 회장 선출
2010.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34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김춘식**
부회장 **김주연, 박종태, 전석호**
고문단 **이청광, 한군석, 하기환 강상윤, 이리섭, 조익현 이 혁, 김성주, 최명진 이용태, 에리카김, 한문식 신구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최라나**
세미나분과 **브라이언트정, 차비호**
대외홍보분과 **김금규, 강소아**
타운재개발분과 **정임경, 김현철**
E-MBA **최명진, 크리스티나정**
상공인의밤분과 **김주연, 박종태**
엑스포분과 **허상길, 케니박**
회원모집분과 **정지나, 정필호**

대외 협력 강화

제34대 김춘식 회장 취임

상의는 2010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후보 김춘식 이사장을 과반수 이상의 추인을 받아 제34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김주연, 전석호, 박종태 이사가 부회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김춘식 회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건설관리를 전공하였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던 그는 1983년 도미하여 고암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가주건설협회 회장, 남가주충청향우회 이사장과 회장, 남가주카톨릭평신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의 제34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0년 6월 17일 The Wilshire Hotel에서 거행되었다. 취임식 준비에는 Corporate Sponsor로 CRA/LA, Partners, Asiana Airlines, United Healthcare가 후원하였으며, 총 61개 업체가 후원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게리 토번 LA상공회의소 회장, 강석희 어바인 시장, 마크 김 롱비치 고등법원 판사 등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신임 김춘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체계화하며,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생을 위한 타 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기부문화를 선도하여 한인 정치력 신장에 앞장설 것"을 역설하였다.

협약서 체결

제34대 상의는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여 역대 회기 중 가장 많은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다.

대학교와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학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맺은 업무협약이다.

일반경제단체와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로 광주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주바이오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맺은 협약은 농공단지 클러스터에 관한 MOU 체결이다.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고양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MOU 체결을 바탕으로 박람회 개최와 특산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34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에드워드 구
부이사장 지나 정, 서상석
브래드 리
이 사
강그레이스, 강상윤, 강소
구경완, 구에드워드, 김경희
김금규, 김기형, 김성주, 김성훈
김써니, 김수잔, 김에리카, 김제니
김주연, 김춘식, 김태영, 김현철
독고량, 명원식, 박미셸, 박윤숙
박이화, 박종태, 박준태, 박케니
배그레이스, 배무한, 서상석, 석인환
신구현, 안세영, 여인성, 오세경
오영관, 오찬국, 윤천욱, 이로버트
이브래드, 이상훈, 이수형, 이승열
이승호, 이용범, 이용태, 이 은
이지원, 이창엽, 이청광, 이 혁
이현숙, 임우성, 임춘택, 장성헌
장승호, 전석호, 정동완, 정임경
정브라이언트, 정주현, 정지나
정지니, 정필호, 정크리스티나
정크리스틴, 조범열, 조빅터
조석일, 조신디, 조익현, 조현숙
차기민, 차비호, 차제임스, 최라나
최명진, 추제나,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한브라이언
허상길

이사 종사 직종 분석

직종	퍼센트	인원
의류	22.5%	18명
부동산	13.5%	11명
변호사	10.0%	8명
보험 · 금융	7.5%	6명
의사	5.0%	4명
건설	5.0%	4명
소매	2.5%	2명
무역	2.5%	2명
광고대행	2.5%	2명
보석금	2.5%	2명
기타	20.0%	22명
합계	100.0%	80명

중앙일보 제공

2010. 6.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 접견

2010. 7. 한국외국어대와 MOU 체결

2010. 7. 정기이사회 개최 에드워드 구 이사장 선출

2010. 7. 제5회 AACA골프대회 참가

2010. 8. Sammy Lee Square 명명식 참석

2010. 8. 한인의류협회 사무실 개소식 참석

2010. 8. 민주당 김성곤, 김영진 의원 간담회 개최

2010. 8. 동포재단 '자랑스런한국인' 시상식 참석

2010. 8. 충청향우회 골프대회 참가

2010. 9.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

2010. 9. 세미나분과위원회 기자회견

2010. 9. Ron Klk 미무역대표부 대사 조찬 및 기자간담회 참석

2010.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접견

2010. 9. 광주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회원 써비스

멤버십 캠페인

상의는 이사 100명, 회원 1,000명을 목표로 회원 확장에 나섰다. 회원 가입 시 연간회비 $100을 연말까지 면제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회원에게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무역 및 영업 지원, 창업세미나 참가, 업종별 위크샵 참가, 회원사 사용 할인 혜택 등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제휴사에서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비즈니스 심포지움

상의는 10월 21일 LA카운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심포지움 및 벤더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중소기업청 김기천 커미셔너가 상의를 내방하고 한인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촉구하였다. 관급 공사는 불경기로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다. 상의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한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회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독려하였다.

창업 · 경영 비즈니스 교실

상의는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들과 멤버들을 위해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와 공동으로 창업 및 경영 비즈니스 교실을 오픈하였다. 9월 28일부터 3주간 진행된 비즈니스 교실에 신청한 회원들에게는 참가비 일부를 상의가 제공하였다.

강의는 사업계획서 및 커머셜 리스(이승호 변호사), 마케팅(IW그룹 샐리 최 대표), 사업자금 및 은행융자(윌셔은행 대출 책임자), 보험(캘코보험 진철희 대표), 사업 형태 선정 및 세금 계획(제임스 차 CPA)사업체 매입과 판매(서윤원 변호사, 구경완 변호사)가 각각 담당하였다.

설문조사

상의는 한국의 날 축제 장터에서 LA한인상공회의소에 대한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펼쳤다. 설문을 통하여 한인들의 상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세밀히 파악하여 상의 발전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멤버쉽분과위원회 주도 사업으로서 설문조사 과정에서 회원모집의 계기로 삼기 위한 목적의 행사이기도 하였다.

2010. 9. EMBA 위원회 미팅

2010. 9. 전라남도와 MOU 체결

2010. 9. 비즈니스 창업 및 경영 클래스 시작

2010. 9. 한인축제 개막식 참석 축사

2010. 10. 강석희 시장 후원의 밤 참석

2010. 10. KCLA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0. 10. 비즈니스 창업 및 경영 클래스 종료

2010. 10. 한상대회 참가

2010. 10. 아산시청 방문

2010. 10. 충남도청 방문

2010. 10. 경상북도와 MOU 체결

2010. 10. 대구카톨릭대학교 의료원과 MOU 체결

2010. 10. 전북도청 방문

2010. 10.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2010. 1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제9차 세계한상대회

제9차 세계한상대회가 1010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EXCO에서 3일간 열렸다. 해외 43개 국가에서 1,000여 명 국내 관계자를 합하여 총 3,2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들이 참가하였고, LA에서는 상의 이사 14명과 일반 5명 등 총 19명이 참가하였다.

참가단은 18일 충남도청과 충북도청을 방문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하여 둘째 날에는 부산시청과 경남도청을 방문한 후 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3일째에는 세미나와 비즈니스 미팅 참석 후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방문하였다. 다음날에는 전북도청과 산업단지공단을 방문, 외대 E-MBA 원우회,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2010. 10. 한국외대 E-MBA 원우회참석

2010. 11. 한국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클러스터 업무협약

2010. 11. 고양시와 업무협약식

2010. 11. 이태원뉴스 업무협약식

2010. 11. 찰리 벡 LAPD 경찰국장
커뮤니티 포럼

2010. 11. 조재길 세리토스 시장
출판기념회 참석

2010. 12. Public Health Seminar 개최
(LA교육원)

2010. 12. 재미중소기업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0. 12. LA 지자체 무역소장 오찬

2010. 12. 한인봉제협회 이취임식 참석

2010. 12. 한인건설협회 이취임식 참석

2010. 12. 한인부동산협회 취임식 참석

2010. 12. 제주 바이오협회 MOU 체결

2010. 12. 상의 연말파티 개최

2011. 1. 상의 신년하례식 개최

상의 운영규정 제정

상의는 운영개선 방안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Pala Casino Spa Resort에서 리트릿을 겸한 회의를 갖고 운영관리 규정 개선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회기별 은행 계좌 운영에 대한 회장의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군석 전 회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지난 2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운영규정의 골자는 회장 임기에 따라 행사, 재정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성 유지, 회장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 재정 관련 투명성, 인사 및 재정위원회 개편의 내용을 담았다.

퍼블릭 헬스 세미나

상의는 국제한인주류식품상연합회와 공동으로 퍼블릭 헬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2월 2일 LA교육문화원 강당에서 LA카운티 보건국 에스더 무 담당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개정된 법과 규정에 대해 강의하였다. 주로 마켓과 리커스토어를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바꾸니 위생법을 몰라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하였다. 모든 음식물은 화씨 41도 미만 또는 135도 이상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화장실 온수는 110도면 충분하지만 싱크대의 물은 120도 이상이어야 한다. 등의 각종 규정을 전달하였다. 이날 50여 명의 수강자들에게는 LA카운티 보건국이 발행하는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타운 재개발 사업

상의가 그동안 추진해온 K타운 재개발 사업으로는 올림픽 BID, 올림픽 도로주변 단장 프로젝트(Olympic Blvd. Beautification Project), 마당 프로젝트, 다울정 옆 버스정류장 증축, 한인타운내 공원 건설 프로젝트, 한인타운 경계설정안 등이다.

LA한인상공회의소,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의회(KCCD)는 기자회견을 열고 CRA 한인타운 지국과 미드시티 지국 합병에 반대하였다. 두 프로젝트를 통합할 경우에 코리아타운 WCKT 예산이 MD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1. 1. 올림픽거리단장 기공식 참석

2011. 1. 허브웨슨 조찬 간담회 개최

2011. 1.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

2011. 1. E-MBA 입학식

2011. 1. 아주대 MBA Course 학생 경제간담회

2011. 1. 한덕수 주미대사 경제간담회

2011. 1. 충청향우회 회장취임식 참석

2011. 2. 한인타운재개발 향후방향 기자회견

2011. 2. EMBA 제5기 졸업식

2011. 2. 신임 LA총영사 오찬

2011. 3. 제34회 상공인의밤 개최

2011. 3. Nevada 핸더슨 시 개발국장 상의 내방

2011. 4. 물류협회 이취임식 참석

2011. 4. 경기도 기업인 간담회 참석

2011. 5. 정부조달 세미나 개최

올림픽가 단장 착공식

상의가 추진하여온 한인타운의 상징인 올림픽가를 새롭게 단장하는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2011년 1월 8일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과 김춘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LA커뮤니티재개발국 주도로 착공식을 가졌다.

버몬트와 웨스턴 구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재단장하는 사업의 특징은 한국 전통의 기와지붕 타운안내판, 전통 문향의 횡단보도, 태극무늬가 들어간 돌과 나무로 된 중앙분리대, 한국 고유 문살 모양의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제34회 한인상공인의 날

제34회 KACCLA Annual Gala & Awards Night가 3월 17일 Wilshire Grand Hotel에서 개최되었다. 한인상공인들의 최대 행사인 이날 600여 명의 초청 인사들과 상공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동포 후원재단의 홍명기 이사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최우수 기업인상'은 PMP Bancorp의 윌리엄 박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경영인상'은 천하보험 박기홍 대표가 수상하였다.

'우수모범업소상'은 Hair Plus Buauty Supply 홍기호 대표, Nate's Friendly Liquor 허 종 대표, Re/Max Mega Group 린다 노 대표, JC Kooler, Inc 이준철 대표, MH Dyeing, Inc. 장해규 대표, JJ Grand Hotel 미셸 원 대표, Well Spring 제이 김 대표, EB Home Mart 김홍수 대표가 각각 수상하였다.

35

제35대 회장 에드워드 구

제35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에드워드 구**
부회장	**임우성, 서상석 브레드 리**
회장고문단	**한군석, 로버트리, 이청광, 신구현 조익현, 하기환, 한문식, 강상윤 이용태,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최라나, 김춘식, 명원식**
Gala분과위원회	**그레이스강**
EXPO분과위원회	**케니박**
세미나분과위원회	**구경완**
K-Town개발분과위원회	**이창엽**
경제개발및웹사이트	**김현철**
아시안챔버골프위원회	**이상훈**
대외협력및비즈니스	**크리스틴리**
홍보및멤버쉽위원회	**박종태**
G-CEO분과위원회	**오영관**
쥬니어챔버준비위원회	**조범열**
정관위원회	**최라나**
재정위원회	**최명진**

상의 안정과 차세대 비젼

제35대 에드워드 구 회장 취임

상의는 2011년 5월 17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5대 회장 후보 에드워드 구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김춘식 회장의 연임 시도와 경선 의지가 강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불출 마 선언으로 해소되었다. 부회장에는 임우성, 서상석, 브레드 리 이사가 인준받아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구 당선자는 "상의 40주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안정적 성장의 틀 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미 육군에 복무하였으며, J. Young Invest ment를 설립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 미주이민100주년 기념 행사위원장, LA청년기독실업인회 회장,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 남가주호남향우회 회장, LAPD 올림픽경찰서후원회 초대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 미주한인민주당총연합회 회장, 5·18 기념재단LA 상임대표, 한인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요 국제행사를 도와 제주도 유네스코, 여수 엑스포, 평창 올림픽, 강원도 감자 등 홍보대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상의 제35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1년 6월 23일 Wilshire Grand Hotel에서 5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취임 식에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의 격려사와 커렌 프라이스 가주 상원의원과 웬디 그루엘 LA시 감사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특별시상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한류벤처상을 수상했고, '천무 스테파니'와 '원더걸스'가 한류벤처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제35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브라이언트 정**
부이사장 **김주연, 강소아, 이은**
이 사
강그레이스, 강상윤, 구에드워드
강소아, 구경완, 권수진, 김경희
김구희, 김기형, 김린다, 김성훈
김써니, 김영준, 김주연, 김춘식
김태영, 김필성, 김현철, 노린다
독고량, 류만 데이비드, 명원식
명제이, 박경식, 박미셸, 박종태
박준태, 박철세, 박케니, 배그레이스
배무한, 서상석, 석인환, 송제이슨
신구현, 안세영, 오세경, 오세훈
오영관, 오찬국, 윤재필, 이브레드
이로버트, 이상엽, 이상훈, 이승열
이승우, 이승호, 이영내, 이용범
이용태, 이은, 이지원, 이창엽
이청광, 이혁, 이현숙, 이효수
임우성, 임춘택, 임희원, 장도명
장성헌, 장승호, 전석호, 전홍수
정동완, 정임경, 정주현, 정지니
정필호, 정크리스티나, 조갑제
정크리스틴, 조범열, 조빅터,
조수용, 조신디, 조익현, 조재홍
조현숙, 진철희, 차기민, 차알렉스
차비호, 최라나, 최로이, 차제임스
최명진, 추철호,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황광연
황성덕

2011.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5대 에드워드구 회장당선
2011. 6. 예비임원 워크샵 (윌셔그랜드호텔)
2011. 6. 경북사무소장 상의 내방
2011.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2011. 6. 한국 방송사 특파원 미팅
2011. 6. 부산사무소장 상의 내방

워샵

예비 임원 워샵

상의 최초로 취임식 전에 차기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이 6월 8일 윌셔그랜드호텔에 모여, 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계획과 비젼을 발표하는 워샵을 가졌다.

제35대 회장단은 안정과 성장 그리고 열린 상의를 모토로 상의의 재정적 안정을 다지고 40년 역사의 바탕 위에 미래 비젼을 세워가기로 하였다. 타운센터 추진, 웹사이트 활용방안, 타운경제 동향파악, 리더쉽 세미너, 건강박람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대외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이사 확대, 주니어 챔버(청년회의소) 구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승격시키고, 휘하에 3명의 직원을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무처를 확충하고 안정시켰다.

신임 이사 워샵

상의는 12월 12일 소향 뱅귓룸에서 '전반기 신임이사 워샵'을 진행하였다. 워샵에는 10여 명의 신임 이사들과 전직 회장 및 이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샵 진행에는 '한인 상의 역사 및 목적' (로버트 리 전 이사장), '임원과 이사의 역할 및 활동' (이청광 전 회장), '정관 및 운영세칙, 분과위 활동' (최명진 전 회장), '미 메인스트림 및 한인커뮤니티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역할' (이창엽 전 회장) 등의 각 주제소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FTA 촉구 서한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의가 중심이 된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지지 운동에 나섰다. 경단협은 7월 7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한국 국회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서신을 채택하였다.

서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에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비준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국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이 공개서한은 박희태 국회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졌다.

한편 상의는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해당 지역 미국 연방의원들에게 FTA 비준 촉구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이용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011. 7. 아시아나항공 조규영 본부장 미팅
2011. 7. 한국외대 EMBA 학생단 단장 최승현 교수 미팅
2011. 7.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회의
2011. 7. 엑스포 관련 미팅
2011. 7. 상공인총연합회 상견례
2011. 7. 강남성모병원 장도영 박사 미팅
2011. 7. 7월 정기이사회 개최 브라이언트 정 이사장 선출
2011. 7. 오피스 디포 미팅
2011. 7. 중국 상의 방문
2011. 7. 한국출장 (대한, 제주, 강원 상의 방문)
2011. 8. 운영위원회 (EMBA 미지급금 관련)
2011. 8. 유재환 윌셔은행장 조찬미팅
2011. 8. 엑스포위원회 회의
2011. 8. LA청년회의소 회원모집 기자회견
2011. 8. 부동산협회 장학금 전달식

서울성모병원 MOU 체결

대외 협력 사업

비즈니스 믹서

제35대 첫 번째 비즈니스 믹서는 8월 22일 마당 쇼핑몰에서 열렸다. 한인 경제단체장, 한인 은행장, 한인 커뮤니티 인사, LAPD, CRA/LA, 윌셔 BID 등 시정부 기관과 타민족 관계자들이 대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는 정부 기관과 타민족 간에 긴밀한 협력으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 비즈니스 믹서는 11월 17일 LA다운타운 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카유네즈 연방 상무부 차관, 진 홀 수출협회장, 휴고 메리다 LA메트로 히스페닉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20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미주류와 타민족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아시안 챔버 골프대회

아시안 커뮤니티가 네트워을 구축하고 골프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고자 제6회 아시안 챔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29일 위티어의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 LA 한인상의에서는 40여 명이 참가하고 총 16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상의 독고 량 이사가 10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대회 기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서울성모병원과 MOU 체결

상의는 10월 3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 한인 및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진료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울성모병원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1. 8. 비즈니스 믹서 (반 한식당)
2011. 8. 인천OK센터 분양설명회 참석
2011. 8. LAPD 경찰국장 API
2011. 8. 기자간담회 미팅
2011. 8. 동포저널 창간10주년 참석
2011. 8. 화훼협회 창단식 참석
2011. 8. 아시안 국가 영사관 및 상의 회장단 총영사관 만찬 참석
2011. 9. 윌셔은행 비즈니스믹서 참석
2011. 9. 추석맞이 전직회장단 및 이사장단 오찬 모임
2011. 9. 의료박람회 관련 기자회견 (총영사관)
2011. 9. 카멜라 가주검찰총장 간담회
2011. 9. 강원도 경제통상국장 오찬 미팅
2011. 9. 한인의 날 축제 개막식 참석
2011. 9. 제주도 수출진행본부장 오찬 미팅
2011. 9. 제6회 아시안 챔버 골프대회 주최

메디칼 코리아 의료박람회

자랑스런 스포츠상 시상

상의는 2012년 2월 15일 솔레어 커뮤니티룸에서 행사를 열고 한인사회를 빛낸 한인 PGA, LPGA 스포츠 선수들을 격려하며 '자랑스런 한국 스포츠인 상'을 시상하였다. 한편 이 행사는 유명 선수들에게 한인타운의 호텔과 식당 사용을 장려하여 한인사회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한인타운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후원기업 감사의 밤

상의 최초로 '후원기업 감사의 밤'을 마련하였다. 2012년 5월 18일 윌셔파크플라자호텔에 200여 명을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었다. 지난 1년간 상의를 후원해주신 기업 대표들께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 행사에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임원들과 미주 각 지역 회장들도 초청하여 미주 전체 상공회의소와 교류하는 장을 만들었다.

메디칼 코리아 의료박람회

상의는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의료 장비들을 미국에 소개하는 '메디칼 코리아 2011 의료박람회' 를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서울대 병원,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BK성형외과,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리젠성형외과, 보바스병원, 전남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10개 병원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산하 12개의 의료기기업체가 참가하여 병원 홍보와 특화된 진료서비스, 그리고 최신 의료기기를 소개하였다.

의료박람회는 한국의 의료 브랜드인 '메디칼 코리아' 를 알리고 한국 병원들의 건강검진과 진료 서비스를 마케팅하려는 목적이다. 의료박람회에는 미주류 사회와 아시아 아메리칸 상의연합회와 LA시관계자와 관광국 인사들이 초청되었다.

의료박람회는 수준 높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최신시설의 혜택을 미주 동포들이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의료박람회가 끝난 후 상의 웹사이트에 의료 섹션을 개설하고 한국의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진료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였다.

2011. 10. JC 준비위원회 모임
2011. 10. 대한항공 A380 취항식 참석
2011. 10. EMBA 기자회견
2011. 10. 의료박람회 언론사 기자회견
2011. 10. 동포재단 사업이사 경제 간담회 참석
2011. 10. 제1회 의료박람회 개최
2011. 10. LA상의 경제사절단 한국순방
2011. 10. 서울성모병원과 MOU 체결
2011. 1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2011. 10. 용산구청 & 용산상공회 방문
2011. 10. 한국 JC & 서울 JC 방문
2011. 11. 강원도청 방문
2011. 11. 중구상공회 & 동대문 상조회 방문
2011. 11. 제10차 한상대회 참가
2011. 11. 부산상의 조찬 모임 참석
2011. 11. 상공인총연합회 총회 참석
2011. 11. 제주도청 방문
2011. 11. JC 준비위원회 모임

한미 FTA 실무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LA 글로벌 CEO 프로그램

비즈니스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EMBA 과정 제6기가 개강을 맞이하였다. 기존에 EMBA 과정으로 명명하던 것을 제6기부터는 'LA글로벌 CEO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강의는 예전처럼 한국외국어 대학교 현직 교수들이 맡았다. 이 과정은 해외 기업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권위가 인정되어, 역대 최대인 42명이 수강하였다.

한미 FTA 실무세미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곧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상의가 주최하고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주관하는 '한미 FTA 실무세미나'가 2월 9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검증절차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이나 터치스크린 등 8,628개 품목의 미국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중소기업들이 크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제1회 PMP 경영세미나

한인 경영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의가 처음 마련한 '제1회 PMP 경영세미나'가 4월 10일부터 4주간 총 8회의 세미나를 통해 진행되었다. 20여 명의 수강자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상속, 컴퓨터를 이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은행융자를 이용한 사업자금 등에 관하여 실무적인 경영기법을 수강하였다. PMP 경영세미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는 조달세미나도 마련하여 정보들을 공유하였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세미나

한인을 위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세미나가 LA한인상의와 이스트베이 한인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5월 4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주요 내용은 IRS 자진 신고제는 지난 8년가 보유한 해외 금융 구좌들의 가장 높았던 총액 기준으로 27.5%를 우선 벌금으로 납부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수입을 다시 정산하여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사면해 준다는 것이다.

2011. 11. 카톨릭의료원 대표신부 접견
2011. 11. 비즈니스믹서
(다운타운 쉐라톤호텔)
2011. 11. KOTRA 주최 FTA 회의 참석
2011. 12. 보험협회 회장이취임식 참석
2011. 12. 의류협회 회장이취임식 참석
2011. 12. 글로벌 CEO 관련 기자회견
2011. 12. 다울정 담장공사 기자회견
2011. 12. 봉제협회 회장이취임식 참석
2011. 12. 신인 이사 웍샵
2011. 12. 건설협회 회장이취임식 참석
2011. 12. 부동산협회 회장취임식 참석
2011. 12. Job Fair 기자회견
2011. 12. 상의 연말파티 개최
2011. 12. 음식업협회 연말파티 참석
2012. 1. 시무식 / 사무국 웍샵
2012. 1. 신년인사회 및 통일안보강연
2012. 1. 한인타운 거리청소 참가
2012. 1. 확대임원 웍샵 / 운영위원회

신년인사회 및 통일안보강연회

주니어 챔버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청년회의소 방문

상의가 차세대 상공인을 위해 기획한 멘토링 프로그램 첫 투어가 한국방문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7월 23일 한국청년회의소중앙회(전완옥 회장)에서 한국청년회의소 발전사를 배우고, 광주청년회의소(최경수 회장)를 방문하여 협력 관계를 맺었다.

멘토링 기업 탐방

제1차 멘토링 기업탐방은 2012년 1월 18일 이은 대표가 운영하는 Mansfield Textile에서 진행되었다. 총 55,000 스퀘어피트 규모에 60여 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을 돌아보았다. 이은 대표는 불경기에도 회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40%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것" 이라고 안정적인 경영 노하우를 전했다.

제2차 멘토링 기업 탐방은 2월 28일 E&C Fashion, 그리고 제3차 탐방은 3월 27일 Cal-City Construction을 방문하였다.

제4차 탐방은 4월 24일 의류업체로 성공한 권수진 대표가 운영하는 Westridge Golf Club에서 맨토링 프로그램을 하였다. 상태가 좋지 않은 골프클럽을 인수하여 과감한 투자로 1년 만에 이미지 개선에 성공하였다. 권 대표는 가족 단위의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과 레저타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는 Methodist Hospital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서비스

비즈니스센터 오픈

상의는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하여 미디어센터를 겸한 비즈니스센터를 12월 6일 오픈하였다. 유·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시설과 전화, 펙스 등 통신시설을 갖추었다. 비즈니스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동시에 개장한 것으로 LA상의 회원은 3일 전에 예약하고 서울에서 LA에 출장 오는 대한상의 회원은 1주일 전에 예약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LA상의 회원이 한국에 출장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12. 1. JC 소모임 참석
2012. 1. 신임 이사 사무국 오픈하우스
2012. 1. 기업방문(맨스필드)
2012. 1. 구정맞이 전직회장단 & 이사장단 오찬
2012. 1. 호남향우회 회장취임식 참석
2012. 1. Global CEO 프로그램 개강
2012. 1. 회장 서울 출장 (GALA 수상 예정자 관련)
2012. 2. 한미 FTA 실무 세미나 실시
2012. 2. 운영위원회 개최
2012. 2. 한미 FTA 무료 실무 상담회
2012. 2. 올림픽 BID 미팅
2012. 2. 신임 이사 초청 만찬
2012. 2. 임원, 기자단, 특파원 초청 부부동반 만찬
2012. 2. G CEO 제6기 졸업식
2012. 2. 한미 FTA 무료 실무 상담회
2012. 3. 제35회 상공인의 날 개최
2012. 3. 아시안 취업박람회 개최

제35회 상공인의 날

한미 FTA 실무 상담

상의는 지난 2월 9일 열린 FTA 실무세미나의 후속 조치로 22일부터 '한미 FTA 무료 실무 상담 "을 실시하였다. 한미 간 무역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FTA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하였다.

한국 관세청에서 관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천일국제물류 송창호 대표가 1대 1 상담을 맡아, 법률, 세금, 검역 등에 걸쳐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다울정 재 단장

LA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다울정' 주변 블록 및 담을 설치하는 재단장을 하였다. 상의는 LANI 지원금 25만 달러를 투입하여 2012년 5월 10일 단장을 완공하고, 3년 가까이 닫쳐있던 다울정을 다시 일반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LA시로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경비 및 유지비 지원 예산을 받아내었다.

오픈 행사에는 허브 웨슨 LA시의회 의장, 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 에밀 맥 LA 소방국 부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상의가 마련한 200인분의 비빔밥과 인절미를 나누었다.

한인커뮤니티 경제활동 보고서 & 상의홍보물 발행

상의는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의 정확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고조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경제활동 보고서'를 제작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세금 보고를 중심으로 사업자금의 흐름과 추이를 파악하여 통계화하였다.

또한 '상의 홍보 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상의 고유의 업무와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상의의 품격을 높였다. 아울러 상의 이사와 일반 회원 확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제35회 한인상공인의 날

상의 '40주년 기념 제35회 한인상공인의 날' 행사가 2012년 3월 22일 쉐라톤호텔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축제 분위기 가운데 열렸다. 정주현 전 회장이 대회장, 브라이언트 정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상을 많이 추가하여 시상하였다.

2012. 4. OC한인상의 임원진 오찬
2012. 4. 운영위원회 개최
2012. 4. PMP 경영세미나
2012. 4. 정기이사회 개최
2012. 4.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방문
2012. 4. 기업방문–웨스트릿지골프클럽
2012. 4. 정부조달세미나 기자회견
2012. 4. 경남 정무부지사 초청간담회
2012. 5. 제36대 회장단 입후보 마감
2012. 5. 정부조달세미나 개최
2012. 5. 중소기업청장 경제간담회
2012. 5. PMP 제1기 수료식
2012. 5. 해외보유자산 세미나
2012. 5. 회원의 밤–솔레이어 비즈믹스
2012. 5. 다울정 오픈 하우스
2012. 5. 남가주한인 경제동향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12. 5. 여성상공인 비즈믹서 오찬
2012. 5.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환영만찬 및 감사의 밤

다울정 재단장

시상에는 '자랑스런 글로벌 기술혁신상' 화신의 김옥렬 회장, '자랑스런글로벌 기업인상' 한국정수의 이규철 회장, '자랑스런 최우수 기업인상 'E&C 패션의 배무한 회장 '자랑스런 최우수 경영인상' 넥션타이어의 석창린 대표, '자랑스런 글로벌 블루오션상' 천일국 제물류의 김영식 사장, '자랑스런 글로벌 리더상' 동양건설 & 한국 JC 특우회의 이민수 회장, '자랑스런 한국 스포츠인상' 최경주 선수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제1회 아시안 취업박람회

상의가 주최하고 잡코리아USA가 주관하는 '2012 아시안 취업박람회(Asian Job Fair)' 가 3월 30일 LA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열었다. 취업 박람회는 기업들과 우수한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행사이다.

KOTRA와 LA총영사관이 특별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2년에 채용수요가 있는 우수기업과 단체 및 정부 기관이 참가하였다. 삼성, 현대, LG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 기업체, Bank of America를 비롯한 미국 기업, FBI, 수도전력국 등 국가 기관이 참가하여, 총 100여 개의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였다.

박람회에서는 취업 상담과 면접, 취업 정보 검색, 자격증 취득, 이력서 작성, 채용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저명인사, 우수기업 HR 담당자를 통해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과 세미나도 있었다.

행사장에는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상의 재정안정화 및 커뮤니티센터 기금조성

에드워드 구 회장은 수년간의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관리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업과 한국 기업과의 대외협력 사업을 통해 기금을 충당하였다. 총 7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고 사업비용을 절감하여 그동안 누적되었던 적자를 메꾸고, 약 13만 달러를 남기어 상의 특별 은행 계좌를 오픈하여 저축함으로써 상의 특별기금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인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위해 버몬트와 윌셔 코너 APT 설립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후원받아,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으로 한인사회 10개 단체 명의로 적립하였다.

36

제36대 회장 임우성

제36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임우성**
부회장 **장성헌, 강소아, 이은**
회장고문단
이청광, 한군석, 로버트리, 신구현
조익현, 하기환, 한문식, 강상윤
이용태,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최라나, 명원식, 김춘식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Gala분과위원회	**신디조**
EXPO분과위원회	**김필성**
세미나교육분과위원회	**구경완**
K-Town개발분과위원회	**이창엽**
경제개발및웹사이트	**로렌스한**
체육및문화위원회	**크리스티나정**
대외협력및비즈니스	**크리스틴리**
홍보및멤버쉽위원회	**전석호**
G-CEO분과위원회	**오영관**
쥬니어챔버준비위원회	**차비호**
정관위원회	**브라이언트정**
재정위원회	**최명진**

창업 컨설팅

제36대 임우성 회장 취임

상의는 2012년 5월 15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우성 부회장을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회장단에는 장성헌, 강소아, 이은 이사가 부회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임 당선자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인 상의"라는 모토를 내걸고 "상의를 비영리단체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금 확보와 기금마련 등 상의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우성 회장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Cal-City Construction INC.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상의 제36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2년 6월 28일 LA 다운타운 쉐라톤 호텔에서 신영성 총영사, 마이클 잉 주하원의원, 웬디 그루엘 LA시 감사관 등 400여 명의 한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임 회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한인 또는 타 커뮤니티와 교류를 증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의가 비영리재단 허가 '501-C-3' 코드를 받아 상의 내 직업교육 등 특수목적 인가를 받아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해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하고, 정부지원을 끌어내는 재정을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다.

제36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정동완**
부이사장 **박종태, 케니박, 오영관**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구에드워드 구경완, 권수진, 김기형, 김린다 김성배, 김성훈, 김써니, 김영준 김주연, 김춘식, 김필성, 노린다 독고량, 명원식, 박경식, 박미셸 박성수, 박영두, 박이화, 박종태 박철세, 박케니, 서상석, 석인환 배그레이스, 손스텔라, 송제이슨 신구현, 안세영, 오세경, 오영관 유재왕, 윤제필, 이브레드, 이상훈 이로버트, 이승열, 이승호, 이영내 이용범, 이용태, 이은, 이일건 이창엽, 이청광, 이혁, 이현숙 임우성, 임춘택, 임희원, 장봉진 장성현, 전석호, 전흥수, 정동완 정브라이언트, 정임경, 정주현 정필호, 정크리스틴, 정크리스티나 조갑제, 조범열, 조신디, 조익현 조현숙, 진철희, 차기민, 차알렉스 차비호, 최라나, 차제임스, 최명진 추철호,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황광연, 황성덕 황테레사

2012.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6대 임우성 회장 당선
2012.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2012. 6. 코리안-라티노 파트너쉽 행사 주관
2012. 7. 언론사 초청 기자 회견
2012. 7. 무역 · 창업 컨설팅 시작

회원 혜택 강화

상의는 기존의 이사 중심 구조를 회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회원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존의 3년간 100달러를 내던 가입 및 회비를 5년간 50달러로 크게 낮추고 할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기업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회원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한인 중소상공인들을 회원으로 동참시켜 한인 경제를 조직적으로 확장하려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매력적인 혜택을 살펴보면, 회원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형 송달 전문업체 UPS 이용시 70%까지 할인 혜택, 사무용품 전문업체 오피스 디포는 평균 25% 할인 혜택, 현대차의 경우 인보이스 가격에서 7~8% 할인되며 기존 리베이트와 중복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향후 홈디포, 로우스, 코스코 등 한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대형 업체들도 파트너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섭외에 들어갔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재단

임우성 회장은 LA 한인상공회의소 비영리재단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간 상의에 기부하려던 대기업과 주류 은행들의 기부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C-3 요구로 기부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었다. 이 사업은 제38대 전석호 회장 임기에 가서 비영리재단 허가 코드 '501-C-3'를 승인받았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501-C-3를 획득하여 비영리재단으로서 기부금 확보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업 확충의 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창업 컨설팅

제36대 상의의 최대 역점사업은 창업 컨설팅이다. 그간 연례행사로 진행하던 창업 컨설팅을 정례화하여 7월 18일부터 실시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예약에 따라 하루 2명의 예비 창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창업 컨설팅은 한미 FTA 컨설팅을 확대한 것으로써 수출입과 무역에 관한 창업에서부터 일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한인들의 창업을 돕고자 하였다. 건설팅 서비스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체에게도 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 사항과 마케팅 전략까지 포괄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2. 7. 런천 경제포럼 (소향)

2012. 7. 기업방문
(자생한방병원)

2012. 7. 회원모집 기자회견

2012. 7. 한인경제단체협의회 회의

2012. 7. 기업탐방
(퍼시픽 팜스 리조트)

2012. 8. 위안부기림비 설치 기자회견

2012. 9. 한국 중소기업중앙회
LA 사무소 개소식 참석

2012. 9. 1.5세, 2세미즈니스 믹서
(마당)

2012. 9.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2. 9. 1.5세 및 2세 비즈니스 믹서

2012. 9. 변호사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

2012. 9. 런천 경제포럼(세닉스)

2012. 9. LA한인축제 개막식 참석

2012. 9. 기업방문
(남가주한의과대학)

2012. 9. 정기이사회 개최
정관개정

창업 컨설팅에는 상의 이사로 활동하는 CPA, 변호사, 금융인 등 분야별 전문인들을 통해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무료로 전달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사업체 선정에서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법률, 서류, 절차와 무역 실무인 통관, 검역, 결제, FTA, 그리고 경영 실무로 재정, 회계, 직원 관리, 마케팅 등 전 분야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야까지 다루었다.

기업 방문

상의의 기업탐방은 주니어 챔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일반 이사들도 참석하는 사업으로 변화되어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기업체를 방문하여 멘토 기업인의 성공담을 듣고 그들의 경영철학, 사업 전략, 운영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첫 기업 방문은 7월 24일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자생한방병원은 풀러턴에 위치한 본원과 LA, 어바인, 샌디에고, 산호세 등 4개의 분원을 두고 있으며, 3년 안에 미 전역에 30여 개의 분원을 세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윤제필 원장은 밝혔다.

두 번째 기업탐방은 8월 24일 시티오브인더스트리에 위치한 '퍼시픽 팜스 리조트'이다. 이곳은 호텔, 스파, 골프장, 고급식당, 컨퍼런스룸을 가지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장소이다.

세 번째는 10월 4일 '남가주한의과대학' 탐방을 하였다. 김한규 총장은 "미국의 55개 한의과대학 가운데 가장 합격률이 높은 학교로서 그동안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UC 어바인, 한국과 중국의 한의과대학 등과 연수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는 '팔래스뷰티 미용대학'을 12월 17일 방문하였다. 대학에는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 미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조병덕 학장은 연방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업방문(자생한방병원)

2012. 10. Asian Chamber Business Summit 참석
2012. 10. 재즈 앤 와인 나이트 개최
2012. 10. 런천 경제포럼(세닉스)
2012. 10. 총영사관 주최 FTA 세미나 참석
2012. 1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012. 10. 제4차 런천포럼 개최
2012. 10. 관세청장 간담회 참석 (KOTRA)
2012. 11. 경제인친선골프대회 개최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2012. 11. 상의, 변호사협회, 보험협회 공동 법률 세미나 개최 (LA교육원)
2012. 11.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관세청 /중진공 간담회
2012. 11. 기획재정부 FTA세미나 참석
2012. 11. 제2차 비즈니스믹서 개최 (유니버셜 힐튼호텔)
2012. 11. 총영사관 주최 FTA 유관기관 협의회 참석

경제인친선골프대회

런천 포럼

런천 포럼은 경제 포럼으로 한인 상공인들에게 경영전략과 리더쉽 함양, 잠재력 개발, 장기적인 비젼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였다. 런천 포럼은 비즈니스 운영과 발전에 관심이 있는 한인이라면 점심 식비 20달러를 내고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상의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상의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우선 초청권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첫 포럼은 7월 19일 소향 식당 뱅킷룸에서 윌셔은행 유재환 행장이 강사로 나와 '경제 현황 분석과 우리의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9월 28일에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 시닉스의 데이빗 김 마케팅 디렉터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알파리더쉽센터의 구재욱 원장이 10월 24일 포럼에서 '고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한 협상이 원리' 를 주제로, 12월 14일 포럼에서는 '청중을 사로잡는 스피치 비법'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2013 신년 포럼으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유장희 박사를를 초대하여 '한국경제의 현황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과 협력' 이라는 주제 강연을 들었다.

비즈니스 믹서

1.5세, 2세 비즈니스 믹서

미주한인 경제계의 차세대 주역으로 활동할 '1.5세, 2세 비즈니스 믹서' 가 9월 27일 한식당 마당에서 열렸다. 상의가 주최한 행사에는 한인 1세대 자녀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 자리에 60여 명이 모여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상엽 복스바겐 수석디자이너는 강남스타일을 불러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싸이를 예로 들며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2. 11. KACCLA 후원 리셉션 개최
2012. 11. 김황식 국무총리 간담회참석
2012. 12. 파주시와 MOU 체결
2012. 12. 제6회 런천 포럼(소향)
2012. 12. 한남체인 & 경남무역 MOU
2012. 12. 기업방문
(팔래스뷰티 미용대학)
2012. 12. 롱비치상공회의소 Gala 참석
2012. 12. G-CEO총원우회 송년회참석
2012. 12. 한미은행 30주년기념식 참석
2012. 12. 상의 송년의 밤 개최(소향)
2013. 1. 신년 포럼 개최(소향)
2013. 1. 신년하례식 개최
2013. 1. LA Port 및 상무성 간담회
2013. 1. GCEO 7기 입학식
2013. 2. 브릿지 비즈믹서 개최
(Methodist Hospital)
2013. 2. 여성 상공인 비즈믹서 개최

여성상공인 비즈니스 믹서

FTA 1주년 비즈니스 믹서

상의는 11월 16일 '한미 FTA 체결 1주년 기념 한미 경제인 초청 비즈니스 믹서'를 유니버설 힐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그리고 상의 이사진과 상의 회원사 및 후원사까지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믹서였다. 특히 히스페닉 커뮤니티와 중국 커뮤니티 상공회의소에서도 참석하여 단체 간 우의를 다졌다.

한 · 중 비즈니스 믹서

LA한인상의는 중국계 LA 상의, 아케디아 상의와 함께 연합 비즈니스 믹서를 2013년 2월 7일 개최하였다. 아케디아의 메토디스트병원에서 열린 믹서에는 한상에서 60여 명, 중상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아케디아 중상과는 처음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으로 타지역 상의와 협력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상공인 비즈니스 믹서

상의는 2월 13일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여성상공인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하였다. 시티센터 쇼핑몰에 위치한 토오미 퓨전 일식당에서 열린 믹서에는 미셸 스틸 박 가주 조세형평국 부원장 등 25명의 여성 상공인들이 참석하였다.

탬플시티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와 탬플시티상공회의소는 2013년 3월 7일 MOU를 체결하였다. 샌가브리엘 지역 탬플시티상공회의소에 처음으로 한인이 회장에 올랐다. 피터 최 회장은 최운상 초대 주미대사의 아들로서 하바드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화 제작자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LA상의와 탬플시티상의간 MOU 체결을 통해 LA 동부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낳았다.

2013. 2. GCEO 7기 수료식
2013. 3. 3·1절 기념식 참석 (한인회관)
2013. 3. 템플시티 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 체결
2013. 3. 제7차 런천포럼 개최
2013. 3. 전직 회장단/이사장단 오찬
2013. 3.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간담회
2013. 3. 제36회 상공인의 밤 개최
2013. 4. Korean Latino Biz Mixer
2013. 4. 2013 Asian Job Fair 개최
2013. 4. 한남체인 골프대회 참가
2013. 4. 한인타운 노인센터 개관식 참석
2013. 5. 부산시 경제간담회 개최
2013. 5. Korean Latino Small Business Expo 실시
2013. 5. 중소기업중앙회 2세 상공인 관련 양해각서 체결

한-라티노 EXPO

제36회 상공인의 날

제36회 한인상공인의 날 ' 행사가 2013년 3월 28일 Hilton Universal City Hotel에서 열려 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상에는 '자랑스런 최우수 기업인상' 에 Mias Fashion의 피터 안대표, '자랑스런 최우수 경영인상'에 Amazing Shine Nails의 재키 김 대표, '자랑스런 블루오션상'에 Soho Fashion의 존 리 대표, '자랑스런 한국 문화인상' 에는 김지운 영화감독, '자랑스런 한국스포츠인상' 에 신시내티 레즈 외야수 추신수 선수와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한-라티노 EXPO

한인 상의와 라티노 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비즈니스 엑스포가 5월 18일 한인타운 에퀴터블 플라자에서 양 커뮤니티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음식, 식품, 공예품, 패션악세사리, 의류, 잡화, 은행, 보험 등 60여 곳의 한인과 라티노 업소들이 참가하였다. 한국의 삼북춤과 멕시코 와하칸지역의 전통무용 공연등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상의는 6개 라티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EXPO에 이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갖기로 하였다.

37

제37대 회장 케니 박

제37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케니 박**
부회장 **오영관, 린다 노, 황광연**
회장고문단
이청광, 한군석, 로버트리, 신구현 조익현, 하기환, 한문식, 강상윤 이용태,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최라나, 명원식, 김춘식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임우성 그레이스강, 오영관, 한희도
한인상공인의날위원회 **최라나**
엑스포분과위원회 **제임스차**
세미나분과위원회 **황성덕**
대외협력비즈니스위원회 **박성수**
홍보 및 멤버쉽위원회 **최명진**
코리아타운개발위원회 **브레드리**
최고경영자교육위원회 **이창엽**
문화 및 체육위원회 **임춘택**
정관위원회 **브라이언트정**
재정위원회 **에드워드구**

창업 컨설팅

제37대 케니 박 회장 취임

상의는 2013년 5월 16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케니박 후보를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제37대 회장 선거는 2008년 제32대 경선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제기된 경선이다. 케니 박 후보와 로렌스 한 후보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로렌스 한 후보의 이메일 파동을 겪으며 선거 열기가 높아졌다. 표결 결과 케니 박 후보가 37표를 얻어 33표를 얻은 로렌스 한 후보를 4표 차로 누르고 선출되었다.

박 당선자는 경선 과정을 발판 삼아 화합을 바탕으로 이사들과 소통하며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회장에는 린다 노(부동산), 오영관(인쇄업), 제임스 황(카드서비스)가 인준을 받았다.

케니박 회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도미하여 의류업에 뛰어들었고 여성복 생산업체 Voll을 운영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의 제37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3년 6월 27일 LA 다운타운 쉐라톤호텔에서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우성 이임 회장이 불참하였고, 장성헌 수석부회장이 대행하였다.

제37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전석호**
부이사장 **서상석, 이영내, 박진경**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구에드워드 구경완, 권수진, 김기형, 김린다 김성배, 김성훈, 김써니, 김영준 김주연, 김춘식, 김필성, 노린다 독고량, 명원식, 박경식, 박미셸 박성수, 박영두, 박이화, 박종태 박철세, 박케니, 서상석, 석인환 배그레이스, 손스텔라, 송제이슨 신구현, 안세영, 오세경, 오영관 유재왕, 윤제필, 이브레드, 이상훈 이로버트, 이승열, 이승호, 이영내 이용범, 이용태, 이은, 이일건 이창엽, 이청광, 이혁, 이현숙 임우성, 임춘택, 임희원, 장봉진 장성헌, 전석호, 전홍수, 정동완 정브라이언트, 정임경, 정주현 정필호, 정크리스틴, 정크리스티나 조갑제, 조범열, 조신디, 조익현 조현숙, 진철희, 차기민, 차알렉스 차비호, 최라나, 차제임스, 최명진 추철호,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황광연, 황성덕 황테레사

2013.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7대 케니박 회장 선출
2013.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쉐라톤호텔)
2013. 7. 경남 김윤모 소장 런천 미팅
(한-라티노 엑스포 관련)
2013. 7. 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
미팅
2013. 7. 경기도여성기업인간담회 참석
2013. 7. 윌셔라이온스 회장 이취임식
참석 (JJ그랜드호텔)

이사장 경선

상의 선거는 전통적으로 몇 차례를 재외하고 이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대하여 인준을 받아 선출하였고, 이사장은 신임 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선출되면 회장과 이사장이 손발을 맞추어 일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제37대 회장 선거에서는 정동완 이사장이 불출마하면서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하였고, 이사장 선출마저도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전석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이어서 회장 선거에 낙선한 로렌스 한 후보가 이사장 경선을 선언함으로써 23년 만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긴장된 가운데 치러진 선거는 재적 이사 87명 중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35:35 (기권 1, 무효 1)로 동률을 기록하여, 2차 투표 결과 36:31(조퇴 4, 무효 1)로 36표를 획득한 전석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회장 선거에 이어 이사장 선거를 치르면서 전직 회장들과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기도 하였으나 선의의 경쟁, 포용과 승복을 통해 봉합되었다. 부이사장에는 서상석, 박진경, 이영내 이사가 선임되었다.

젊어진 상의

상의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통과된 신임이사를 대상으로 8월 28일 상의 오픈 하우스를 개최하였다. 제37대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에 나서 30~40대 이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총 92명의 이사들의 출생 연대를 보면 1980년대 1명, 1970년대 10명, 1960년대 27명, 1950년대 39명으로 젊은 세대가 전체의 72%에 달한다. 중진 그룹으로 1940년대 12명, 1930년대 3명을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의류 18명, 부동산 7명, 금융 6명, 법률 6명, 건축 6명, 회계 5명, 의료 3명, 호텔 3명, 레저 3명, 제조 3명, 교육 2명, IT 2명, 홍보 2명, 식품유통 2명, 미용 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상의는 한인 커뮤니티 성장의 주춧돌을 놓았던 중진들과 젊은 감각과 의욕이 넘치는 젊은 이사들이 조화를 이룬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2013. 7. 건국대학교 국제진료센터장 정홍근 교수 미팅

2013. 7.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장 선출

2013. 7. 충남미주사무소 통상관 미팅

2013. 7. 가주 조세형평국 의장 Jerome Horton 방문

2013. 7. 라티노 비즈니스 리더 오찬

2013. 7. 농수산물유통공사 LA지사 방문

2013. 7. 한국외국어대학교 조남신 경영대학원장 미팅

2013. 7. 중소기업중앙회 LA사무소 김진태 소장 미팅

2013. 7. LA 카운티 조달청 방문

2013. 8. KOTRA 박동형 관장 미팅

2013. 8. 총영사관 중소기업지원 웹사이트 개통식 참석

2013. 8. CSULA 경영대학장 미팅

2013. 8. YTN 유대식 사장 미팅

비즈니스 믹서

제37대 상의 첫 행사로 타민족 상공인들과 교류의 장을 여는 메가 브리지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하였다. 2013년 7월 25일 아케디아 메토디스트병원에서 열린 믹서에는 각계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함께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 주요 인사 2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민족단위 상의로는 중국, 일본, 태국, 라티노, 지역별로는 아케디아, 탬플, 엘몬테, 몬트레이 파크 등 총 10개 상공회의소가 함께 하였다.

이날 탬플시티상공회의소 피터 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케니 박 회장은 "이 행사는 여러 지역과 민족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며, 교류의 장을 위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10월에 열릴 한-라티노 스몰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를 당부하고 큰 박수로 화답을 받았다.

북클럽

상의는 정기이사회 개최 장소에서 북클럽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출판사인 정음사와 교섭하여 8월 정기이사회부터 사업에 바빠 서점을 찾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제공되었다. 상공인들의 교양과 최신 경제 정보에 필요한 양서 20여 권을 정음사가 엄선하여 전시하는 형태이다. 역사, 고전, 건강, 운동 등 교양서적과 경영, 경제, 주식, 투자, IT 등 경제 관련 서적 등 최근 인기 있는 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판매하여 이사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았다.

2013. 8. HSBC 기업후원사 미팅

2013. 8. 경상남도 LA사무소장 미팅

2013. 8. City National Bank
Robert Ssikali 미팅

2013. 8. CIM Group 리본 커팅 참석

2013. 8. 신임이사초청 오픈하우스

2013. 8. 타이상의 골프대회
Kick-Off Meeting 참석

2013. 8. 중국상의 회장이취임식 참석

2013. 9. 통일전략포험 세미나 참석

2013. 9. Peru Village Luncheon
Meeting

2013. 9. 대한항공 미주본부장 미팅

2013. 9.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 개최

2013. 9. 경제인친선골프대회 개최

2013. 9. Regional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회장 미팅

2013. 9. 파주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2013. 9. LA한인축제 개막식 참석

2013. 9. 김문수 경기도지사 간담회
참석

대외 업무 협약

파주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상의는 파주상공회의소(회장 장동문)와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9월 26일 체결된 협약으로 두 기관은 향후 EXPO 행사 지원과 무역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현지 협조, 상호 교차 방문에 따른 간담회와 사업 시찰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 & 히스페닉 상의와 다자간 MOU 체결

상의 케니박 회장은 경상남도와 남가주히스페닉상공회의소의 홍준표 지사 그리고 샌디 가하스 회장과 9월 27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홍 지사는 제40회 LA한인축제 명예대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경북에서 24개 업체가 EXPO에서 100만 달러의 판매 수익과 총 1억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와 MOU 체결

미주한인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음대(문회영 학장)와 10월 24일 MOU를 체결하였다. 카톨릭 음대가 음악캠프를 설립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뿌리교육 프로그램이다.

순천향대학교와 MOU 체결

한상대회에 참석 중인 상의 회장단은 10월 30일 순천향대학교를 방문하고 글로벌 인턴쉽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학민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장은 순천향대 학생들이 LA 인턴쉽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광대학교와 MOU 체결

상의 회장단은 10월 30일 원광대학교를 방문하고 원광대학교병원과 의료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원광대 병원은 상의 회원들이 건강검진 받는 경우 할인 혜택 및 우선 검진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경상남도 · 히스페닉 · 상의 다자간 MOU

2013. 9. 경상남도 & 히스패닉상의 & LA한인상의 MOU 체결

2013. 10. 개천절 행사 참석(한인회)

2013. 10. 전직 회장단/이사장단 오찬

2013. 10. 이태원뉴스 전경수 회장 미팅

2013. 10. 오바마케어 세미나 개최 (LA교육원)

2013. 10. 방송기자단 초청 만찬

2013. 10. 아시아나항공 본부장 미팅

2013. 10. 상의이사 친선골프대회 개최 (Harding C. C.)

2013. 1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013. 10. 경기도청 방문

2013. 10.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방문

2013. 10. 대구가톨릭대학교 음대와 MOU 체결

2013. 10. 경북도청 방문

2013. 10. 광주발전위원회 방문

2013. 10. 순천향대학교와 MOU 체결

2013. 10. 원광대학교와 MOU 체결

원광대학교 병원과 의료협력 MOU 체결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와 MOU 체결

한미한인 중소기업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11월 2일 체결되었다.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와 미국의 NY한인회, NY한인 상공회의소, 그리고 LA한인상공회의소가 맺은 MOU는 차세대 기업인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체결되었다.

세미나

오바마 케어 세미나

상의는 10월 9일 LA교육원에서 오바마 케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는 시티보험 관계자들이 나와 오바마 케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브라이언 정 대표는 강사로 나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혼란스러워하는 한인들에게 오바마케어 가주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통상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은 2010년 3월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한 미국 연방법이다.

프로퍼티 택스 세미나

건물주를 위한 특별세미나가 2014년 2월 24일 LA교육원에서 열렸다. 상의 주최로 '프로퍼티 택스 절세에 관한 세미나'는 CSSI사의 파트너 마이클 기타야마 강연하였다. 강연 내용은 크게 '부동산 비용 분리'와 '유형자산 규정에 따른 폐기 자산 공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명 교체'에 따른 공제 혜택에 대하여 IRS가 확정한 규정에 따라 설명하였다.

2013. 11. 중소기업중앙회 가계승계 기업행사 참석
2013. 11. Tekmar(김영준 이사) 신기술 발표회 참석
2013. 11. 중소기업중앙회 베벌리힐스 매장 오픈식 참석
2013. 11. 한국거래소 최홍식 부이사장 주최 만찬 참석
2013. 11. 플라자 멕시코 방문 EXPO 관련 회의
2013. 11. LA총영사관 부총영사 미팅
2013. 12. 남가주부동산협회 행사 참석
2013. 12. 닥터 기환 하 스퀘어 명명식 참석
2013. 12. 상의 연말파티 개최
2013. 12. 아시안 잡페어 기자회견
2013. 12. 총영사관저 오픈행사 참석
2014. 1. 신년하례식 개최
2014. 1. 신임이사 오찬 미팅
2014. 1. G-CEO 8기 입학식 개최

경제인친선골프대회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창조경제' 라는 주제로 10월 29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 남가주 경제인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제12차 대회는 남가주의 홍명기 회장이 대회장을 맡았다.

상의 한국방문단은 한상대회 참가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광주발전위원회, 순천향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제37회 한인상공인의 밤

제37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14년 3월 19일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한미 커뮤니티 리더들과 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자랑스런 최우수 기업인상' 에 시그니처 헬스케어의 김순균 박사, '자랑스런 최우수 경영인상' 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이희봉 청장, '자랑스런 글러벌 리더상' 에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자랑스런 글로벌 음악인상' 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김회영 학장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제3회 아시안 취업박람회

제3회 아시안취업박람회가 연인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4월 3일부터 3일간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아시안을 넘어 다양한 인종이 참가하는 박람회로 확장되었다.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롯데호텔, 롯데주류, H마트, 플렉스피드, 농심 등 메인 스폰서와 한미은행, 윌셔은행, BOA, 버라이존, AT&T, DFS 등 업체들이 부스를 마련하였다.

연방마약단속국, 가주조세형평국, LA국제공항, 글렌데일 경찰국, 샌디에고 경찰국,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육군, 해군 등 국가 기관들도 참가하여 지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와 SM 앤터테인먼트는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4. 1. 언론사 특파원 초청 오찬

2014. 2. 전직 회장단/이사장단 오찬

2014. 2. G-CEO 8기 졸업식

2014. 2. 로즈힐스 투어

2014. 2. Korean Mexican Latino Festival MOU 체결

2014.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만찬

2014. 2. 경기도 경제사절단 오찬

2014. 2. 세금절세관련 세미나

2014.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접견 및 오찬

2014. 3. 제37회 상공인의 밤 개최

2014. 3.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 접견

2014. 4. 2014 아시안취업박람회 개최

2014. 4. YTN News 경제세미나 VIP 오찬 참석

2014. 4. 2014 Korean Mexican Latino Festival

2014. 4. 김현영 신임 총영사 접견

2014. 6. 한인타운 영문안내서 '출판 감사의 밤' 개최

코리안 · 멕시칸 · 라티노 페스티벌

린우드 소재 '플라자 멕시코'에서 '2014 코리안 · 멕시칸 · 라티노 패스티벌'이 열렸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축제는 인종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화합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의 23개 한인 업체와 17개 라티노 비즈니스 등 40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하였다. 식품, 의류, 신발, 악세서리, 화장품 등이 인기를 끌어, 한국 기업의 라티노 시장 진출에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한인타운 영문안내서

한인타운 영문안내서 'Welcome to Korestown LA Map & Guide'가 10년 만에 재발행되었다. 총 10만 부를 배포할 계획으로 2014년 6월 17일 '출판 감사의 밤'을 갖고 한인타운 250개소에 배포를 시작하였다. 안내서는 가로 14인치, 세로 18인치 크기로 36개 단체와 업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QR 코드를 넣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며 접속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6장 성숙기 활동

제38대 (2014–2015)

제39대 (2015–2016)

제40대 (2016–2017)

제41대 (2017–2018)

제42대 (2018–2019)

제43대 (1019–2020)

제44대 (2020–2021)

제45대 (2021–2022)

제46대 (2022–2023)

제47대 (2023–2024)

38

차세대 육성과 퀵북 비즈니스

제38대 회장 전석호

제38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전석호**
부회장 **알렉스차, 박진경, 이재원**
회장고문단
한군석, 로버트리, 이청광, 신구현 조익현, 하기환, 한문식, 이용태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최라나 이혁, 명원식, 김춘식,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임우성, 정동완 케니박
Gala분과위원회 **이혁진**
체육분과위원회 **김종석**
대외협력/비즈니스 **박성수**
세미나분과위원회 **구경완**
G-CEO분과위원회 **진철희**
K-Town개발위원회 **이창엽**
홍보및멤버쉽위원회 **강소아**
정관위원회 **김춘식**
재정위원회 **에드워드구**

제38대 전석호 회장 취임

상의는 2014년 5월 20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전석호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제38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함께 38대 상의를 이끌 회장단에는 알렉스 차, 박진경, 이재원 부회장으로 구성하였다. 회장단 모두 40대 젊은 세대로서 상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 시대에 진입하였다.

전석호 당선자는 상의 운영의 토대가 될 3가지 비젼을 제시하였다. "한인 상공인들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 한인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차세대 경제 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이다.

전석호 회장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재학중 도미하여 UCLA에서 경제·경영을 공부하였고, Golden Gate Univ. 대학원에서 세법학을 전공하였다. CPA로서 전석호 회계법인 대표, 윌셔은행과 Bank of Hope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전문 컬럼리스트, 컨설턴트,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의 제38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4년 6월 26일 더라인호텔에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행사는 Title Sponsor에 윌셔은행, Platinum Sponsor에 더라인호텔, 아우디자동차 등 47개 업체가 후원하였다.

제38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최명진**
부이사장 **김기형, 크리스티나정 전홍수**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구에드워드 구경완, 권수진, 김기형, 김길남 김써니, 김영준, 김종석, 김주연 김춘식, 김필성, 노린다, 로버트리 마애나, 명원식, 박미셸, 박성수 박이화, 박종태, 박진경, 박철세 박철웅, 박케니, 백신디, 서상석 배그레이스, 서준규, 손스텔라 석인환, 송제이슨, 신구현, 신지원 오세경, 오영관, 유재왕, 윤은희 이기욱, 이상백, 이상훈, 이승호 이영내, 이용태, 이은, 이브레드 이일건, 이일우, 이재우, 이재용 이재원, 이창엽, 이청광, 이 혁 이혁진, 임우성, 임중우, 임희원 장성헌, 전석호, 전흥수, 정동완 정상봉, 정브라이언트, 정임경 정주현, 정크리스티나, 정크리스틴 정필호, 조갑제, 조범열, 조신디 조익현, 조현숙, 진철희, 차기민 차알렉스, 최대희, 최라나, 최명진 차제임스, 추철호,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허연이 황성덕, 황제임스

2014.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8대 전석호 회장 선출
2014. 6. 예비위원장 웍샵
2014. 6. 차기회장단 언론사 방문
2014. 6. WTK 발간기념 감사의 밤
2014. 6. 지식재산보호협회 MOU 체결
2014.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퀵북 온라인 비디오 강좌

제38대 회장단이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퀵북 강좌이다. 퀵북은 사업체 및 개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회계업무, 재고관리, 거래처 관리, 소비자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회계 전문 프로그램이다.

상의는 2014년 7월 10일 '퀵북 온라인 비디오 강좌'를 개설하였다. 오픈한 강좌 사이트는 'lakaccedu.com'으로써 저렴한 비용의 유료 서비스로 강좌를 제공하였다. 수강료는 회원은 90달러, 비회원 120달러이며, 3개월 동안 무제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총 3시간 30분 분량의 강의는 현직 CPA가 강의를 맡았다.

더불어 사업 실무에 필요한 MS 엑셀 강좌도 총 4시간 30분 분량의 강의 프로그램을 함께 오픈하여 50달러의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글로벌 차세대 창업자 과정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상의와 순천향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순천향대학교 LA 해외창업캠프'에 2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글로벌 차세대 창업자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캠프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성공한 한인 기업들을 탐방하고 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멘토들로부터 창업 노하우를 듣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유니버설시티의 영화제작사 드림웍스, 웨스트 헐리우드 광고대행사 데일리 등 기업탐방과 대학, 기관을 견학하였다.

2014. 7. 제38대 사업발표 기자회견
2014. 7. 우리방송 인터뷰
2014. 7. CJ 앤터테인먼트 미팅
2014. 7. 순천향대학교 해외기업 탐방 학생 환영식
2014. 7. 경단협 친선 모임
2014. 7. BBCN 행장 런천 미팅
2014. 8. 순천향대학교 해외기업 탐방 학생 환송식
2014. 8. 사업 홍보 기자회견
2014. 8. 런천 포럼
2014. 9. 경제인 친선 골프대회
2014. 9. 경남 하동군과 MOU 체결
2014. 9.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문
2014. 9. 순천향대학교 방문
2014. 9. 세계 한상대회 참석
2014. 10. 정의화 국회의장 동포간담회
2014. 10. 변호사 협회 이취임식 참석

교육 및 세미나

런천 포럼

경제 불황의 그늘을 벗고 재도약을 위해 미국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런천 포럼은 8월 21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유니티은행 최운하 행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불경기를 이기는 지혜 : 미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사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분야별 경제 수치 발표에도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중요하다. 불황은 채무 증가, 신용하락, 소득 격차 확대를 초래하였다.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인 '뉴 노멀(New norami)'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바마케어 이용 설명회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이 11월 15일 다가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의 필요에 따라 상의는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센터와 공동으로 2번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차 설명회는 11월 8일 윌셔연합 감리교회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 신규 가입자를 위한 설명회를 하였다. 2차는 11월 11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룹보험 가입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제9기 GCEO 과정 대폭 개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CEO 과정'은 그동안 8기까지 27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OC상공회의소가 한양대학교와 제휴하여 '글로벌 CEO 과정'을 개설하고, LA한인무역협회가 연세대학교와 제휴하여 '연세 글로벌 CEO 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차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진행해온 커리큐럼은 학술적인 내용 위주의 강의로써 배운 지식을 사업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9기부터는 LA 한인 상공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동산,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지식을 강의하게 되었다.

2014. 10. 이혜경 경제영사 미팅
2014. 10. 방송 기자단 런치 미팅
2014. 10. OBA 이취임식
2014. 10. 총영사관저 라티노Mixer참석
2014. 10. 환경산업협회 사무처 방문
2014. 11. 신문기자단 점심 미팅
2014. 11. 전직 회장, 이사장 간담회
2014. 11. 중앙일보 글로벌 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2014. 11. Covered California 세미나
2014. 11. 한인회52주년 기념행사 참석
2014. 11. 중앙일보 40주년 행사 참석
2014. 11. 여성이사 특별모임
2014. 11. 총영사관초청 경협단 참석
2014. 12. O.C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4. 12. KBIZ 1주년 기념행사 참석
2014. 12.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송년의 밤 참석

경제인친선 골프대회

비즈니스 세미나

상의는 2015년 1월 17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알파리더쉽 센터 구재욱 원장이 강사를 맡은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제6회 경제인 친선 골프대회

한인 경제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제6회 경제인 친선 골프대회' 가 9월 11일 무어 파크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대회 처음으로 골프토너먼트 에이전시 '골프 가이드 USA' 에 대회 준비와 경기 운영, 그리고 스폰서 유치까지 위탁하였다.

파3 홀인원상으로 머세데스 벤츠 승용차, 현금 1만 달러 등 푸짐한 선물이 걸린 대회에 140명이 참가하였다.

2014. 12. OKTA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4. 12. 한인회 주최 정치인 당선자 축하행사 참석

2014. 12. Cyber 대학과 MOU 체결

2014. 12. 미주한인봉제협회 송년모임

2014. 12. 남가주한인부동사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4. 12. KOTRA 주관 Korean Latino Partnership 2012 참석

2014. 12. 남가주식품주류상협회 장학금 전달식 참석

2014. 12. 남가주건설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4. 12.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방문

LA Area Chamber of Commerce와 협력

전석호 회장은 2015년 1월 16일 조선갈비에서 LA지역상공회의소(LAACC) 게리 토벤 회장과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 단체가 LA지역 및 한인 커뮤니티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단체는 단체행사와 이벤트에 상호 초청하고 참가하여 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의가 한인 비즈니스에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 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LAACC 회장과 관계자들이 동행하여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또한 한인상공인의 밤 시상식에서는 두 상의가 공동으로 시상하기로 하였다.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제13차 세계한상대회가 '새 시대 경제 도약의 동반자,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 아래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금번 대회의 특징으로는 지역별, 업종별, 분야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맞춤형 정보 습득과 네크워킹 구축 기회를 제공하였다.

38개국에서 약 3,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LA지역 전체 60여 명 중 상의에서는 20여 명이 참가하였다. 상의 참가단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를 방문하고 G-CEO 프로그램과 창업 캠프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교환하였다.

커뮤니티 봉사

성탄 나눔 행사

상의는 연말을 맞아 12월 19일 LA 한인타운노인센터에서 성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상의 이사들과 팔레스뷰티칼리지 학생들이 봉사자로 참가하여 무료 이발 및 미용과 점심을 접대하고 선물로 따뜻한 담요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현명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 단체장들도 참여하여 노인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총영사관 만찬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글렌데일 소녀상

2015. 1. 신년하례식 개최
2015. 1. Wiltern Theater 방문
2015. 1. 비즈니스 기술 세미나
2015. 1. LA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2015. 1. 한국외국어대학교 LA G-CEO 9기 입학식
2015. 1. 대구경제자유구청장 상의내방
2015. 2. 상의 이사 번개 미팅
2015. 2. 한국외국어대학교 LA G-CEO 9기 졸업식
2015. 2.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2015. 3.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회의
2015. 3. 창원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2015. 3. 총영사관저 오찬 참석
2015. 3. 상공인의밤 행사
2015. 5. 제39대 회장단 입후보 마감
2015. 5. 웰스파고 한인타운 지점 개점식
2015. 5. 총영사관저 오찬 참석

한인 비상대책위원회

상의와 한인회 등 9개 단체는 모임을 갖고, 한인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비상위는 향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류 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인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구축, 비상연락번호 신설,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지침, 이에 따르는 교육과 훈련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참가 단체는 LA한인회, LA한인상공회의소, KYCC, KCCD, 재향군인회 LA지부, 재미해병동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남가주교회협의회,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등이다.

글렌데일 소녀상 헌화

상의 제38대 회장단은 2015년 2월 26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였다. 2013년 7월 30일 소녀상이 세워지고 1년 7개월 만에 한인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였다. 일본계 단체 GAHT가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낸 소녀상 철거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되고 3일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다.

제38회 한인상공인의 밤

제38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15년 3월 24일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한인 단체와 주류커뮤니티의 리더, 그리고 상공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최우수 기업인상'에 엘리트 교육 그룹의 박종환 대표, '최우수 경영인상'에 나비엔의 김학수 대표, '글로벌 교육상'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채명수 박사, '자랑스런 한인 스포츠상'에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39

제39대 회장 로렌스 한

제39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로렌스한**
부회장 **신디조, 임희원, 석인환**
회장고문단
한군석, 이청광, 신구현, 조익현
하기환, 한문식, 이용태,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최라나
명원식, 김춘식,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임우성, 정동완
케니박, 전석호

세미나교육위원회	**구경완**
K-Town개발위원회	**이창엽**
경제개발/웹사이트	**송제이슨**
대외협력/비즈니스	**브레드이**
홍보/멤버쉽위원회	**추철호**
체육분과위원회	**박성수**
G-CEO분과위원회	**진철희**
Gala분과위원회	**강소아**
정관위원회	**에드워드구**
재정위원회	**임우성**
여성분과위원회	**크리스티나정**
전략기획위원회	**이승호**
문화분과위원회	**마애나**

교육사업 강화

제39대 로렌스 한 회장 취임

상의는 2015년 5월 19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로렌스 한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39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 후보는 제37대 회장 선거와 이사장 선거에 도전 하였으나 경선에서 패배한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하였다. 회장단에는 신디 조, 임희원, 석인환 이사를 선임하여 구성하였다.

한 당선자는 '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교육사업 강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주류사회와 유대강화, 문화사업 활성화, 일반회원들의 활동 참여 유도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렌스 한 회장은 Pacific Allied Asset Management, LLC와 PA Consulting Group의 대표이며, 글렌데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국공화당 기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상의 제39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5년 6월 26일 더라인호텔에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행사는 Title Sponsor에 마제스틱 부동산, Platinum Sponsor에 BBCN Bank, 아우디 자동차 등 85개 업체가 후원하였다.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제39대 상의는 교육사업 강화를 표방하고 매월 포럼과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해 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실무에 도움을 주고 불경기에 고통받는 한인들의 경제활동에 기운을 불어넣으려 하였다. 매월 런천 포럼 개최를 기본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런천 포럼을 이용하여 타 기관과 공동 주최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런천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회차	날짜	장소	제목(강사)
제1차	2015. 7. 27	옥스포드팔레스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김중수 한국은행 전 총재)
제2차	2015. 8. 27	J.J. 그랜드호텔	**노동법 세미나** (박수영, 구경완 변호사)
제3차	2015. 9. 9	옥스포드팔레스	**한-미 택스 컨퍼런스** (상의, 총영사관, 국세청, IRS)
제4차	2015. 10. 29	J.J. 그랜드호텔	**사업과 융자** (고동호, 제이슨 송)
제5차	2015. 12. 9	옥스포드팔레스	**재미동포 건강관리의 특수성** (주중행 서울대 분당병원 센타장)
제6차	2016. 1. 21	광양불고기	**정부 조달 사업** (임우성, 방의돈)
제7차	2016. 2. 25	가든스위트호텔	**프랜차이즈 창업세미나** (10개 프랜차이즈 회사)
제8차	2016. 6. 3	옥스포드팔레스	**한국경제의 미래** (정운찬 전 국무총리)

한-미 택스 컨퍼런스

LA 한인상공회의소, LA 총영사관, 한미택스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연방국세청(IRS)와 한국국세청(NTS)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하는 '한-미 택스 컨퍼런스'를 2015년 9월 9일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세금 환경 변화 및 재미동포 세무권익 신장'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세션 1에서는 '한미 양국의 상속, 증여, 양도세 과세 사례 비교연구' 세션 2에서는 '한미 양국의 해외금융계좌 세금신고제도 및 오바마케어 세금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는 미국측에서는 IRS의 에릭 마티네즈 선인수사관, 앤드류 리 수사관, 알버트 황 수사관, 강영기 메니저가 참가했고, 한국측에서는 이승우 뉴욕총영사관 세금영사, 지성 주미한국대사관 세무담당관이 참가하였다.

제39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 은
부이사장 이승호, 스텔라손 추철호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구에드워드 강승헌, 강일한, 고충목, 구경완 권수진, 김기형, 김길남, 김동규 김리챠드, 김봉현, 김종석, 김춘식 김줄리엣, 김필성, 김해룡, 노린다 마애나, 명원식, 박미셸,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장희, 박진구 박진규, 박진경, 박철세, 박철웅 박케니, 방의돈, 변다이아나 백승민, 백신디, 서준규, 손스텔라 석인환, 송주한, 송제이슨, 신구현 신승영, 신영신, 신지원, 안철홍 오세경, 오영관, 윤은희, 이경희 이돈, 이브래드, 이상훈, 이승호 이영내, 이용태,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조앤, 이재용, 이재원 이창엽, 이청광, 이혁, 이혁진 이형승, 임선희, 임우성, 임희원 장성헌, 장진혁, 전석호, 전성규 전흥수, 정동완, 정브라이언트 정상봉, 정임경, 정크리스티나 정주현, 정크리스틴, 조갑제 조범열, 조신디, 조익현, 조현재 진철희, 주제니, 차알렉스, 최대희 차제임스, 최라나, 최명진, 최일우 추철호,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허연이, 홍은정

2015. 5. 정기이사회 개최
제39대 전석호 회장 선출
2015. 6. 제39대 회장단 취임식
2015. 6. WTK 발간기념 감사의 밤
2015. 6. FTA 무역지원 협의회 참석
2015. 6. Hanmi Bank 현판식 참석

2015. 7. Newyork Life Forum 참석
2015. 7. 총영사관저 초청 상사지사협 현대,기아 & 상의 모임 참석
2015. 7. 김중수 전한국은행 총재 Luncheon Forum
2015. 7. 황우여 부총리 동포간담회 참석
2015. 7. 민주평통 출범식 참석
2015. 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동포간담회 참석
2015. 8. YTN 방송 대담 프로 참석 (상의 소개 및 동향 발표)
2015. 8.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주관
2015. 8. 광복절 70주년 특별강연 참석 (강사: 김현명 총영사)
2015. 8. 광복절 70주년 LA 축제 개막식 참석
2015. 8. La County Business Foundation (BizFed) 회장단과 미팅

신라리안과 MOU 체결

프렌차이즈 및 체인스토어 창업세미나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 라디오서울, 신한은행, LA 총영사관, 한국지상사협의회(KITA), 리맥스부동산이 공동 후원하는 '2016 프랜차이즈 및 체인스토어 창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6년 2월 25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300여 명의 한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 행사는 신뢰받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요거트랜드, CJ 뚜레쥬르, 아모레화장품, 소호, 버팔로 스팟, 사이클 바, 헌팅턴 러닝센터, 마니네키 카센터 등이 참가하였다. 프랜차이즈 담당자와 1대1 상담에 더하여, 창업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은행관계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였다.

제10기 글로벌 G-CEO

상의가 주최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0기 글로벌 G-CEO 과정을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다.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강좌에 43명이 지원하여 진지하게 학습하였다. 특히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이 LA를 방문하여 특강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상의는 김인철 총장, 채명수 대학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여성위원회 활동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따라서 상의 여성 이사들의 숫자도 늘어나 역대 최고로 많은 여성 이사가 가입하였다. 제39회 회장단은 여성들의 특성을 살리는 활동을 통하여 상의에 적응하고 여성 사업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지원하였다.

2015. 8. 경북 우수상품 '실라리안' MOU 체결

2015. 8. 동양방송대학 인턴쉽 미팅

2015. 8. 상의 런천포럼 개최(노동법)

2015. 8. 사랑방 점심모임(신북경)

2015. 9. Korea-US Tax Conference 2015 주최

2015. 10. O.C 상공회의소 EXPO 참석

2015. 10. 상사지사협회 골프대회 참석

2015. 10. LA 한인회 창립기념 Heritage Night 참석

2015. 10. 함양군수 상의 사무처 내방

2015. 10. 의령군수 상의 사무처 내방

2015. 10. 부산상공회의소 미주 방문단 만찬 개최

2015. 10. 신임이사 오리엔테이션

2015. 10. 부동산협회 Business Mixer

2015. 10. 한상대회 참가

2015. 10. 부산상의 방문, 골프회동

2015. 11. KACPA Business Mixer

여성이사 모임

상의 여성분과위원회는 "Girls just want to have fun"라는 슬로건으로 여성 이사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졌다. 1차 미팅은 7월 16일, 2차 미팅은 9월 29일, 3차 미팅은 11월 11일, 총 3회 미팅을 Magno Little Italy at Grove Mall에서 가졌다.

이 여성 모임은 신입 여성 이사들을 환영하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 상의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미즈니스 믹서, 와인과 테이블 메너, 요리강좌, 메이크업, 워킹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품격있는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헬로우에서 와인 강좌, 2016년 1월 29일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 3월 2일 워킹 레슨을 하였다.

경북여성협의회와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와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 권순철 회장은 소속 회원 60명의 산업시찰단을 이끌고 LA에 들렸다. 양 단체는 2015년 10월 31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경제활동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MOU 체결'에 합의하였다. 상의에서도 20여 명의 여성 이사들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업체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송년파티

2015년을 마무리하며 12월 15일 파크플라자 호텔에서 12월 정기이사회 겸 송년파티를 하였다. 송년파티는 여성분과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초대손님과 이사 140여 명이 턱시도와 이브닝드레스 차림으로 부부동반하여 멋진 저녁 식사를 하였다. 재즈 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댄스를 즐기고 숨은 장기 자랑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5. 11. 총영사배 경제인 초청 Golf Tournament 참석

2015. 12. 총영사관저 라티노 파트너쉽 믹서 참석

2015. 12.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Gala 참석

2015. 12. 건강세미나 개최

2015. 12.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 대담

2015. 12. 한인타운 커뮤니센터 및 노인센터 기금전달

2016. 1. 경제단체협의회 친선골프대회

2016. 1. 정부조달 세미나 주최

2016. 1. G-CEO 10기 입학식

2016. 1. 중앙일보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 축사

2016. 2. 노인센터 설날잔치 축사

2016. 2. 외국어대학교 김인철 총장 특강

신년하례식

대외협력 활동

신라리안과 MOU 체결

LA한인상공회의소와 실라리안는 2015년 8월 17일 '실라리안'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실라리안은 '신라'와 '사람들'의 합성어로 신라의 화랑정신과 장인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서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이다.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로랜스 한상의 회장과 김재철 실라리안 대표가 서명하였으며, 수출상담회를 연이어 진행하였다.

노인센터 후원금 전달

상의는 연말을 맞아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12월 21일 가진 기금전달식에는 김명현 총영사를 비롯하여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LA한인상공회의소 로렌스 한 회장은 기금 5,000달러를 전달하였다. 윌셔은행 고석화 이사장 5,000달러,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 2,000달러 등 총 25,000달러의 후원금이 전달되었다.

청소년 교류사업

상의는 '2016 청소년 교류사업'을 재외동포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하였다. 재단측이 선발한 탈북, 다문화, 결손가정의 모범 청소년 14명이 2016년 4월 22일 LA에 도착하였다. 학생들은 상의 이사 8명이 홈스테이를 제공하여 일주일간 머물며 행사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은 헐리우드, 그리피스 천문대, LA 총영사관, 어바인한국학교, 올림픽경찰서,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 글랜데일아카데미, USC, 국립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LA시청, 게티센터, 산페드로항구 롱비치 소방선 탑승, 디즈니랜드 관광 등을 하였다.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제14차 세계한상대회가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천년의 고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 세계 40개국 1천여 명의 한상과 국내 기업 200개 업체 임원 등 총 3천여 명이 모여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의 특징으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들의 참여가 높아졌다.

2016. 2. Franchise 창업 세미나 개최

2016. 2. 일본 총영사관 초청 Japanese Business Association 참석

2016. 3. 부산시 경제진흥원장 대담

2016. 3. KITA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6. 3. The Pearl on Wilshire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

2016. 3. 제45회 Gala Night 개최

2016. 3. 부동산협회 Business Mixer

2016. 3. 수학경시대회 참석 (장학기금 전달)

2016. 4. '2016 청소년 교류사업' 프로그램 개최

2016. 4. 부동산협회 골프 토너먼트 참석

2016. 4. 상사지사협회 골프 토너먼트 참석

2016. 5. 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 센터 개관 3주년 기념식 참석

2016. 5. 전북 진안군수 상의 내방

2016. 5. OKTA 골프 토너먼트 참석

2016. 5. 미셸 박 Fund Raiser 참석

LA 한인상공회의소 참가단은 10월 11일 한상대회 참가자 서울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경북지사 주최 만찬, 경주시 관광, 동포재단 이사장 만찬, 부산시청 방문, 부산상공회의소 방문 및 골프회동 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관광 등을 하였다.

제39회 한인상공인의 밤

제39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16년 3월 24일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상의 멤버들과 한인 및 주류사회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올해의 기업인상'에 퍼버스 글래스의 토니 고 대표, '올해의 사업가상'에 북창동순두부의 이희숙 대표, '올해의 금융인상'에 센터스톤 SBA 렌딩의 제이슨 박 대표, '올해의 경영인상'에 퍼시픽팜스 리조트의 존 샘캔 대표, '올해의 연예인상'에 배우 & 싱어송 라이터 아덴 조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사 사은의 밤

상의는 5월 25일 LA 다운타운 웨스틴 보나베너 호텔에서 '이사 사은의 밤 및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 상의 발전에 기여한 이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초대한 한인사회 경제계 인사들과 우의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니티은행 최운하 행장, 한미은행 금종국 행장, 옥타 민병호 회장 등 6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40

제40대 회장 이 은

제40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이 은**
부회장 **박기홍, 신디조, 장진혁**
회장고문단
한군석, 이청광, 신구현, 조익현
하기환, 한문식,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임우성
정동완, 케니박, 전석호, 로랜스한

세미나분과위원회	**박성수**
EXPO분과위원회	**진철희**
비즈니스믹서위원회	**임우성**
Sponsorship위원회	**강소아**
홍보/멤버쉽위원회	**김봉현**
Website분과위원회	**신승영**
대외협력/비즈니스	**이형승**
K-Town개발위원회	**추철호**
체육분과위원회	**석인환**
문화분과위원회	**애나마**
Gala분과위원회	**임희원**
G-CEO분과위원회	**최명진**
여성분과위원회	**스텔라손**
정관위원회	**정주현**
재정위원회	**에드워드구**

정부와 협력 강화

제40대 이 은 회장 취임

상의는 2016년 5월 17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6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이은 후보을 만장일치로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은 후보는 지난 2008년 상의에 입문하여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사장 재임 시 뛰어난 친화력으로 많은 이사들과 세대간격을 넘나드는 소통을 해온 결과였다.

이 회장은 100명이 넘는 이사들이 가진 잠재력을 깨워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활성화, 비즈니스 믹서,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장단으로 박기홍, 신디조, 장진혁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은 회장은 원단생산업체 맨스필드 텍스타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스타휴 컨트리클럽과 PYK 투자회사의 파트너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상의 제40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6년 6월 23일 다운타운 LA 호텔에서 한인단체 및 주류사회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미셸 박 스틸 오랜지카운티 슈퍼바니저와 데이비드 류 LA 시의원 당선자가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으며, 오픈뱅크 민 김 행장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이 행사는 115개 업체가 찬조하여 역대 가장 많은 업체의 후원을 받았다.

비즈니스 믹서

뮤직 페스티발 & 믹서

친화력이 뛰어난 이은 회장은 첫 행사 장소로 자신의 자택을 선택하였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믹서로 Music Festival & Mixer를 추진하였다. 7월 30일 이은 회장 댁에서 문화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는 부부동반 모임으로 가족당 와인 1병씩 지참하고 40여 명이 자유 복장으로 참석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음악과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친밀한 교류를 하였다.

다울정 믹서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5일 LA한인타운의 상징물인 다울정에서 미즈니스 믹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인 경제인간 친목을 도모하고 다울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상의 회원을 비롯한 한인커뮤니티 인사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의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네트웍을 다지며 한인 커뮤니티 발전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LA 폭동 25주년 다민족 비즈니스 믹서

LA 폭동 25주년을 맞아 커뮤니티간 화합과 교류증진을 위한 다민족 비즈니스 믹서가 개최되었다. 상의와 한인회는 공동으로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초청하여 4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인타운의 상징물인 다울정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총영사관 믹서

제40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구경완**
부이사장 **서준규, 애나마, 신승영**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구에드워드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고중목 구경완, 김기형, 김동규, 김리차드 김명신, 김봉현, 김은숙, 김줄리엣 김춘식, 김필성, 김해룡, 노린다 독고량, 마애나, 명원식, 박기홍 박미셸,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진구, 박진규, 박철세, 박철웅 박케니, 방의돈, 변다이아나 백승민, 백신디, 서준규, 손스텔라 송주한, 송제이슨, 신구현, 신승영 신영신, 신지원, 안철홍, 오세경 오영관, 유재왕, 윤은희, 이경희 이돈, 이브래드, 이상훈, 이승호 이영내,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조앤, 이재용, 이재원, 이창엽 이청광, 이혁, 이혁진, 이형승 임선희, 임우성, 임희원, 장성헌 장진혁, 전석호, 정브라이언트 전홍수, 정상봉, 정크리스티나 정주현, 정크리스틴, 조갑제 조범열, 조신디, 조익현, 조현재 진철희, 주제니, 차알렉스, 최대희 차제임스, 최명진, 최일규, 추철호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허연이, 현호석, 홍은정, 홍정원

2016. 5. 정기이사회 개최
제40대 이은 회장 선출

2016.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2016. 6. 서울 중구상공회의소 임원진 오찬

2016. 6. 총영사관 총영사, 경제영사, 회장단 미팅

2015. 11. 총영사배 경제인 초청 Golf Tournament 참석

2015. 12. 총영사관저 라티노 파트너쉽 믹서 참석

2015. 12.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Gala 참석

2015. 12. 건강세미나 개최

2015. 12.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 대담

2015. 12. 한인타운 커뮤니센터 및 노인센터 기금전달

2016. 1. 경제단체협의회 친선골프대회

2016. 1. 정부조달 세미나 주최

2016. 1. G-CEO 10기 입학식

2016. 1. 중앙일보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 축사

2016. 2. 노인센터 설날잔치 축사

2016. 2. 외국어대학교 김인철 총장 특강

Meet the City

서울메디케어 건강검진센터와 MOU 체결

상의는 2016년 8월 2일 서울메디케어 건강검진센터와 MOU를 체결하였다. 김강호 대표원장의 상의 사무실 방문으로 이루어진 업무협약으로 상의 회원과 상의 추천 재미동포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에 특혜가 주어졌다.

서울메디케어 건강검진센터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 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급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이다. 각 분야별 전문의료진, 최첨단 검사장비, 편안한 검진환경으로 구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종합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다. 개인별 과거병력과 현재 건강상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희망나눔 골프대회

상의는 매년 실시하는 경제인 초청 골프대회를 '희망나눔 LA 한인상공회의소 자선골프대회'로 변경하였다. 8월 29일 Los Coyote Hill Golf Cours에서 열리 대회는 상의 회원들과 경제계 인사 160여 명이 참가하여 스포프를 통한 친목을 가졌다. 경품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비즈니스클래스 한국 왕복항공권과 3,000달러 상당의 건강진단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었다.

대회 목적에 따라 총 수입금 21,735달러 모두를 한인타운 노인 및 코뮤니티센터, 올림픽 경찰서, 올림픽 각막 기증사업, Love in Music 등에 기부하였다. 예년에는 일부 금액을 특수 목적에 기부하는 예는 있었으나 커뮤니티에 전액 환원하기는 처음이다.

Meet the City

한인사회 비즈니스 리더들과 시의 각 부서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로 'Meet the City'를 개최하였다. 9월 7일 LA시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LA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시장실, 시 검사장 등 20여 명의 부서 관계자들과 200여 명의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인 커뮤니티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발로 끝나지 않고 이후 허브 웨슨 시의장의 도움으로 경찰국, 소방국, 수도전력국, LA항만청, LA국제공항 등 무려 38개 부처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정부와 커뮤니티가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는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기에 상의와 경제단체연합회 그리고 LA 시 모두 큰 수확을 거두었으며, 제40대 상의 최고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 8. 상의 임원진 총영사관저 만찬 참석

2016. 8. 2016 희망나눔골프대회 개최

2016. 9. Meet the City 행사 개최

2016. 9. O.C 상의 주최 Asian Small Business EXPO 참석

2016. 9. 노인 커뮤니티센터 추석 잔치 참석

2016. 9. 다울정 비즈니스 믹서 행사

2016. 9. 한국 중구상공회의소 방문

2016. 9. 제주 한상대회 참석

2016. 9. 외국어대학교 홈커밍 참석

2016. 10. 노인 커뮤니티센터 기금마련 행사 참석

2016. 10.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 연구단 상의 방문

2016. 10. Community Chest of Korea &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Event 참석

2016. 10. KBIZ 미서부 중소기업연합회 창립총회

2016. 11. 상의사무처 오픈하우스 행사

Meet the City 2

제1차 포럼에 반하여 제2차 포럼은 LA시 관계자들이 커뮤니티를 찾았다. 2017년 2월 27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LA 시청 재무국, 계약행정관리국, 건설안전국에서 공무원 12명이 나와서 소규모 사업을 계획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15차 세계한상대회가 2016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매일경제, MBC가 후원하는 행사에는 56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고 국내외 합계 3,542명이 참여하였다.

상의는 방문단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대회를 전후로 서울 중구청, 중구상공회의소, 재외동포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대담을 나누고 돌아왔다.

세미나 광경

2016. 11.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Mixer참석

2016. 11. 상의 이사 Retreat

2016. 11.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미서부지회장 상의 내방

2016. 11. 상의 이사 기업 방문 (Wang Globalnet)

2016. 11. OKTA 무역인의 날 참석

2016. 11. 경제전망 세미나 주관 (Donald Trump 정책)

다울정 점등식

세미나

트럼프 경제정책 및 경제전망 세미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상의는 2017년 5일 '트럼프 경제정책 및 경제전망' 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A 교육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몰려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정책 전망과 실물 금융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경제적 효과를 가름해볼 때, 트럼프노믹스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지만 한인 비즈니스에는 보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창업 세미나 및 엑스포

프랜차이즈 창업에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상의는 행사를 확대하여 '2017 프랜차이즈 창업 세미나 및 엑스포' 를 개최하였다.

2017년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세미나 및 EXPO에 아침부터 많은 한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아모레 패시픽, 정관장, Tous les Jours, SOHO, Oleego 등 9개의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참여 하였다. 업체 창업자 또는 관계자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설명하고 1:1 상담을 통해 창업 절차를 안내하였다.

사이버 해킹과 랜섬웨어 차단 세미나

상의 세미나실에서 2017년 1월 '사이버 해킹과 랜섬웨어 바이러스 차단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강사는 CI-Disk 조성곤 대표가 맡아 강의와 문답의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사이버 해킹과 악성코드 감염이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특히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해킹행위로서 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2016. 11. 다울정 점등식

2017. 1.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신년 조찬 기도회 참석

2017. 1. 경남 하동군 MOU 체결

2017. 1. 2017 Franchise & Chain
Store EXPO 참석

2017. 1. 컴퓨터세미나 개최
(해킹과 바이러스 차단)

2017. 1. 노인센터 구정잔치 주관

2017. 1. 상의 이사 기업 방문

2017. 2.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 주관

2017. 3. Gala Night & Award Night

2017. 4. 4/29기념 다민족비즈니스믹서

제40회 한인상공인의 밤

사무실 단장

상의는 11월 2일 상의 사무처 오픈 하우스를 거행하였다. 총공사비 35,000달러를 투자하여 2달 여의 공사 끝에 예전에 있었던 회장실을 폐쇄하고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공개하였다. 새롭게 꾸며진 사무실은 행정업무 공간에서 행사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세미나실은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회의, 세미나, 상담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경제단체협의회 단체들 중 사무실이 없거나 세미나 공간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예약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다울정 점등식 및 사진 콘테스트

다울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의는 저녁에도 다울정의 화려한 문향과 채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신 LED 조명을 설치하고 12월 15일 점등식을 가졌다. 이 공사를 위해 허브 웨슨 LA시의회 의장의 도움으로 LA시로부터 1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다울정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명을 밝혀 저녁 시간에도 수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저녁에도 커뮤니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인타운 상징물에 관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상의는 사진 콤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응모 자격은 프로 작가를 제외하고 아마추어로 한정하였으며 1인당 5점 이하의 사진을 출품하게 하였다. 대상, 금상, 은상과 동상 2점 등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제40회 한인상공인의 밤

제40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17년 3월 23일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올해의 기업인상' 사브리나 케이, '올해의 경영인상' 금종국, '올해의 비즈니스상' 브라이언 정, '올해의 디벨로퍼 상' 스티븐 & 마이클, '올해의 의료인상' 차민영, '올해의 법조인상' 스캇 리, '올해의 뉴미디어상' 차영준, '올해의 예술인상' 홍선애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41
42

제41,42대 회장 하기환

제41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하기환**
부회장 **박성수, 신승영, 김봉현**
회장고문단
한군석, 이청광, 신구현, 조익현
한문식,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임우성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전석호, 로랜스한, 이 은
세미나분과위원회 **진철희**
EXPO분과위원회 **신디조**
비즈니스멕서위원회 **애나마**
Sponsorship위원회 **강소아**
멤버쉽분과위원회 **에드워드구**
홍보/웹사이트위원회 **임선희**
대외협력 **이형승**
K-Town개발위원회 **이승호**
체육분과위원회 **현호석**
문화분과위원회 **스텔라손**
Gala분과위원회 **임희원**
정관위원회 **임우성**
재정위원회 **조익현**

다시 찾아온 위기

제41대 하기환 회장 취임

제16대와 17대 회장을 지낸 하기환 회장은 25년 만에 다시 상의를 이끌게 되었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후보를 자처하고 나선 이사가 없어 난감해하던 중에 하기환 회장이 선 듯 나서 후보등록 마감일에 박성수, 셜리 신, 김봉현 이사 등 부회장 후보로 선관위원회에 등록서류와 함께 5천 달러 공탁금을 납부하였다.

상의는 2017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6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출마한 하기환 후보을 만장일치로 제41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하기환 회장은 그동안 주류사회와 쌓아온 광범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인 소상인들을 돕고 다양한 정부 지원 비지니스 프로그램을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제41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에 하기환 전 회장이 취임하였다. 2017년 6월 28일 할리웃 태글리안 콤플렉스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는 에릭 가세티 LA시장, 존 챙 가주 재무장관, 이기철 LA총영사, 데이빗 류 LA 시의원, 미셸 박 스틸 OC 수퍼바이저, 로라 전 LA 한인회장 등 각계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하였다.

하기환 회장은 세계한인의날 유공자 포상에서, 지난 30여 년간 한인커뮤니티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41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정상봉
부이사장 강일한, 백신디, 현호석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강창근, 구경완
구에드워드, 김광현, 김글로리아
김기형, 김동규, 김명신, 김봉현
김재향, 김줄리엣, 김철원, 김춘식
김캐티, 김해룡, 노린다, 독고량
루거리챠드, 마애나, 명원식
박기홍, 박미셸, 박성수, 박수영
박영선, 박윤재, 박진구, 박진규
박철세, 박철웅, 변다이아나
배무한, 백승민, 백신디, 석인환
소스텔라, 송제이슨, 신구현
신승영, 신영신, 신제인, 신지원
안철홍, 오영관, 오크리스틴
윤은희, 이경희, 이돈, 이브라이언
이승호, 이쎄라, 이영근, 이영내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조앤, 이창엽, 이청광
이혁, 이형승, 임선희, 임우성
임현, 임희원, 장성헌, 장진혁
장하비, 전석호, 전홍수, 정상봉
정브라이언트, 정주현, 정크리스틴
정찬용, 정피터, 조갑제, 조법열
조신디, 조익현, 조현재, 진철희
주제니, 차알렉스, 차제임스
최경석, 최대희, 최명진, 최일규
추철호, 하기환, 하경철,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허성열, 허연이
허짐, 현호석, 홍마크, 홍은정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두하

2017. 5. 정기이사회 개최
제42대 하기환 회장 선출
2017.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2017. 7. 에릭 가세티 LA시장 취임식 참석
2017. 7.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이민국 대처법 세미나

한인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리며 경기가 위축되고 일부 업체는 파산의 위기까지 찾아왔다. 한인 경제의 한 축인 다운타운 자바시장 봉제공장들은 대부분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이나 건축업자들이 고용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경우 상당 수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어 고용주는 물론 이민 사회 전체가 위협을 느꼈다. 이에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가 공동으로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기초상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7년 8월 3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6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시안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의 캣 최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서, 최근 이민 단속 동향과 종업원고용기록(I-9) 감사, 사업장 불시 단속 시 대처법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최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우선순위 없이 추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단속반도 개인사업자의 비공개 공간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이민 단속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Meet the City

제2회 Meet the City

한인사회와 로스앤젤레스시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Meet the City' 사업이 제40대 상의에서 시작하여 큰 호응을 받음에 따라 '2017 2nd Annual the City'를 개최하 였다. 상의는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 데이빗 류 시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재단, 로스앤젤레스한인회, 가주뷰티서플라이협회, 남가주한인식품상협회, 가주한인건설협회, 남가주한인부동산 협회,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미주한인봉제협회, 재미중소기업협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미주한인물류협회, 재미한인원단협회, 한국상사지사협회, 남가주한인무역협회 등이 후원하였다.

행사는 2017년 9월 20일 Los Angeles 시청에서 열렸으며 2부로 나누어, 1부는 John Ferraro Council Chamber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부는 시청 앞뜰에서 믹서를 진행하였다.

2017. 7. 총영사관저 만찬 참석
2017. 8. 사업주가 알아야할 이민국 세미나 개최
2017. 8. 상의 & 옥타 친선골프대회 개최
2017. 8. 충북 제천시의원 상의 내방
2017. 9. 경제단체장협회 간담회
2017. 10. 호텔협회(KOAHA) 컨벤션
2017. 10. 공주시와 MOU 체결
2017. 10. 노인센터 추석잔치
2017. 10. 평창동계올림픽 VIP 행사
2017. 10. 제16차 세계한상대회 참석
2017. 11. 총영사배 상의 골프토너먼트
2017. 11. 한인회 Heritage Night 참석
2017. 11. 마이클 슐 LA시 공원국 담당자 오찬
2017. 12. 송년 파티 개최
2018. 1. 신년하례식
2018. 1.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간담회
2018. 1. 신임이사 오리엔테이션
2018. 1. SBS International사장단미팅
2018. 1. 프랜차이즈 세미나 및 창업 엑스포
2018. 2. 시니어센터 설날큰잔치 참석
2018. 2. Japanese Business Association 연례행사 참석
2018. 3. 옥타 / KACCLA 친선 골프

제3회 Meet the City

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의 현장 '2018 3nd Annual the City'가 2018년 1월 31일 개최되었다. 300여 명의 상공인들과 30여 개 시청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에릭 가세티 시장, 허브웨슨 시 의장, 데이빗 류, 미치 오페럴, 커런 프라이스 등 시의원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날 건축업, 미용업, 부동산, 봉제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공인들이 참가하여 까다로운 서티피케이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문의처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직접 시 관계자들을 만나 상담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는 반응이었다.

골프대회

제1회 KACC LA & OKTA LA 친선 골프대회

'제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 친선골프대회'가 2017년 8월 23일 Wilson Municipal Golf Cours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KACCLA & OKTA LA 친선골프대회'가 2018년 3월 7일 Wilson Municipal Golf Course에서 개최되었다. 상의에서 37명 옥타에서 36명이 참가하였다.

2018. 3. 상공인의 밤 개최
2018. 4. OC & KACC Foundation Hiring Fair
2018. 4. 시니어센터 기금모금의 밤
2018. 5. 쉘터 공청회 참석
2018. 5. 방글라데시-한인타운 분할 저지 선거독려
2018. 6. 조윤제 주미대사간담회 참석
2018. 6. 마이클 무어 신임 LAPD 국장 취임식 참석
2018. 7. 삼성 SDI 협력업체 사장단 상의 방문
2018. 7. 일본상공회의소 주관 비지니스 믹서 참석
2018. 7. 브릿지 홈(쉘터) 관련 미팅
2018. 8. 한국 가톨릭 관동대 창업팀 사무처 방문
2018. 8. 중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2018. 9. 기업탐방 (Mega AVI)
2018. 9. 총영사배 상의골프대회 개최 (Industry Hills G.C.)
2018. 9.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 오찬
2018. 10. 에어프레미아와 MOU 체결
2018. 10. 전라남도와 수출 협약 MOU 체결
2018. 10.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와 MOU 체결
2018. 10. 2018 세계한상대회 참석

총영사배 골프대회

'2017 총영사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골프대회'가 11월 13일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개최되었다. 일정에 앞서 경품으로 출품한 제네시스 자동차 무료 시승회가 있었으며 퍼팅 콘테스트 참여자에게는 1~3위까지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다.

'2018 총영사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골프대회' 또한 10월 25일 Industry Hills Golf Club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천하보험'에서는 현금 4만 달러, ALLMER TS에서는 3만 달러를 홀인원 경품으로 내놓았다.

MOU 체결

공주시와 MOU 체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와 공주시는 경제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2017년 10월 12일 체결하였다. 하기환 회장과 오시덕 공주시장 그리고 박승문 원예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MOU는 문화, 관광, 교육, 상공, 농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프리미아와 MOU 체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에어프리미아 항공사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8년 10월 1일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MOU는 저가 항공의 한국노선을 상공인들이 애용하고, 항공사는 상의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와 MOU 체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KACCLA 경제사절단은 2018년 10월 14일 하노이를 방문하며 맺은 MOU는 상호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투자 협력, 기술개발, 시장 확대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10. 울릉군과 경제협력 MOU 체결
2018. 10. 월셔초등학교 폐교 대책을 위한 타운홀 미팅 참석
2019. 2. 한인상공인의 밤 개최
2019. 2. Fire Station 29 소방서 100주년 기념행사
2019. 2. 일본상공회의소 창립58주년 행사 참석
2019. 4. CMK 이미지 세미나 개최
2019. 5.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사무처)

제42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하기환**
부회장 **김봉현, 신영신, 박진규**
회장고문단
한군석, 이청광, 신구현, 조익현
한문식, 이혁,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임우성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전석호, 로랜스한, 이 은
비즈니스믹서위원회 **강승헌**
Gala분과위원회 **백신디**
차세대분과위원회 **강소아**
K-Town개발위원회 **김스티브**
멤버쉽분과위원회 **에드워드구**
세미나분과위원회 **장진혁**
Sponsorship위원회 **돈 이**
대외협력위원회 **마크홍**
문화분과위원회 **하경철**
여성분과위원회 **정크리스틴**
재정위원회 **구경완**
정관위원회 **한군석**
체육분과위원회 **브라이언이**
홍보/웹사이트위원회 **임선희**
북방경협분과위원회 **로렌스한**

세계한상대회

제16차 세계한상대회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201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59개국 총 4,924명(해외 8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매일경제 MBN이 주관하였으며, 가나공화국 글로텍엔지니어링 임도재 회장이 대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상의는 하기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25명의 방문단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방문단은 행정안전부 방문, 삼성전자 탐방, 경북도청 방문, 부산상공회의소 방문, 부산시청 방문, 한상대회 개막식 참석, 통영 한려수도 관광, 울산 현대자동차를 견학하였다.

제17차 세계한상대회 & 동남아 방문

상의는 동남아 경제사절단 및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에 나섰다. 2018년 10월 14일 하노이를 방문하여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아코르와트, 벵밀리아 사원, 톤레삽 호수 등을 관광하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당도하였다. 이응모 회장이 운영하는 T.A. 인더스트리 공장을 견학, 메콩강 투어, 21일 인천에 도착하여 한상대회에 참가하였다.

제17차 세계한상대회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62개국 총 5,070명(해외 8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매일경제 MBN이 주관하였으며, 싱가포르 PG 오토모티브 홀딩스 박기출 회장이 대회장을 맡았다.

프랜차이즈 창업 엑스포

'2018 프랜차이즈 & 체인스토어 성공창업 EXPO'가 2018년 1월 24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상의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LA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 언론사, 은행 및 남가주 경제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참가 업체로 COFFEEBAY, HOBAK, STREET CHURROS, 참다한 홍삼, SOHO, 미스터 보쌈 등의 업체가 있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프랜차이즈나 체인스토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업체들과 1:1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제42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박성수**
부이사장 **홍마크, 이일우, 이쎄라**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고민선, 공조셉
구경완, 구에드워드, 김글로리아
김경현, 김광현, 김기형, 김다이앤
김명신, 김봉현, 김은주, 김장우
김재항, 김제니, 김종식, 김준도
김준서, 김줄리엣, 김지나, 김창환
김철원, 김춘식, 김캐티, 김태영
김크리스티, 김태웅, 김해룡
노린다, 독고량, 루거리챠드,
마애나, 명원식, 문원석, 박기홍
박미셸, 박범진, 박성수, 박수영
박영선, 박윤재, 박이화, 박진규
박철세, 박철웅, 박태호, 박평식
배무한, 백사무엘, 백승민, 백신디
백피터, 변다이아나, 석인환
송신디, 송제이슨, 신구현, 신승영
신영신, 신영임, 신제인, 안아람
안철홍, 양민, 오영관, 오크리스틴
유돈희, 유미옥, 유웅식, 윤순주
윤은희, 이경희, 이대용, 이리사
이돈, 이브라이언, 이성일, 이승덕
이승호, 이쎄라, 이연수, 이영근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조앤, 이창엽, 이청광
이크리스틴, 이형승, 임란희, 임현
임문규, 임선희, 임우성, 임희원
장근희, 장동주, 장진혁, 장하비
전길자, 전석호, 전홍수, 정상봉
정브라이언트, 정주현, 정크리스틴
정찬용, 정피터, 조갑제, 조범열
조영성, 조현재, 주제니, 진철희
차민영, 차알렉스, 차제임스
최경석, 최대희, 최명진, 최수경
최일규, 추철호, 추크리스티, 허짐
하경철, 하기환, 한군석, 한로렌스
한문식, 한진성, 한현재, 허연이
현호석, 홍마크,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규숙, 황두하, 황수잔**

한인상공인의 밤

제41회 상공인의 밤

제41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18년 3월 23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올해의 글로벌 기업인상' Damon 윤경민 대표, '올해의 기업인상' Kaizen 데이빗 리 대표, '올해의 경영인상' US Metor Bank 김동일 행장, '올해의 기업 파트너상' Zespri International Limited 벤 휴즈 행장, '올해의 국제경영인상' 윤상기 하동군수, '올해의 법조인상' Jeong Likens, L.C. 정찬용 변호사, '올해의 예술인상' Park Trio 박윤재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제42회 상공인의 밤

제42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19년 2월 20일 Taglyan Cultural Complex에서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올해의 글로벌 기업인상' Jones Long La Salle 문 림 부회장, '올해의 국제기업인상' 한국중입자암 치료센터 조규면박사, 올해의 경영인상' Pacific City Bank의 조혜영 이사, '올해의 기업인상' Admission Masters 지나 김 대표, '올해의 의료인상' 한미메디칼 그룹 박태호 박사, '올해의 회계법인상' Kim & Lee 회계법인 장진혁 대표, '올해의 변호사상' 알렉스 차 변호사, '올해의 개척자상' VoMik USA 단 신 대표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2019. 5. 총영사관 동포간담회
2019. 5. 웰터 공청회 참석
2019. 5. 웰터 관련 기자회견(사무실)
2019. 5. 방글라데시-한미타운 분할 저지 선거독려(산페드로마트)
2019. 6. PAVA World 장학금수여식
2019. 6. 총영사관저 감사의 밤, 믹서
2019. 6. 웰터 관련 미팅(용수산)
2019. 6. 조윤제 주미대사 간담회 (옥스포드호텔)
2019. 6. CPA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
2019. 6.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취임식 참석
2019. 7. 삼성 SDI 협력업체 사장단 상의 내방
2019. 7. 빌리 전 LA시 경제 담당 부시장 오찬
2019. 7. 일본상공회의소 주관 믹서
2019. 7. 여성분과위원회 모임
2019. 7. 중국상의,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초청 런천 참석
2019. 7. 한인미디어 사장단 오찬
2019. 7. 비릿지 홈(웰터) 관련 미팅 (허브웻슨 사무실)
2019. 8. KOTRA 신임 정외영 관장 회장단 오찬
2019. 8. 비릿지 홈(웰터) 기자회견 (허브웻슨 사무실)

브라질 방문

상의의 브라질한인상공회의소 공식방문 일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10일간 진행되었다. LA한인상의와 브라질한인상의는 MOU 체결 상태로 이미 상호 교류가 활발하였다. 브라질한인상의는 '친선교류의 밤'을 개최하여 방문단을 환영하였으며, 브라질 교민 초대 만찬, 관광 안내 등 일정을 준비하여 상호 친근한 교류를 나누었다.

방문단은 상파울로 공식 일정 이전에 관광에 나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면을 구경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일행은 시내를 관광하고 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 연합회와 미팅을 가졌다. 다시 세계 3대 미항으로 이름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입국하여 명승지를 관광을 하였다. 일정 마지막 날에는 상파울루 한인 비즈니스 탐방과 시내 관광을 하였다.

남미 방문 일정

날짜	장소	일정
4/18 (수)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출발 (AA215편)
4/19 (목)	Sao Paulo	한국FTA통상협의회 & 상파울루상의와 간담회
4/20 (금)	Puerto Iguazu	이구아수폭포 브라질 부분 관광
4/21 (토)	Puerto Iguazu	이구아수폭포 아르헨티나 부분 관광
4/22 (일)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상의회장 미팅 및 시내 관광
4/23 (월)	Rio de Janeiro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관광
4/24 (화)	Sao Paulo	상파울루상공회의소 주최 환영 만찬
4/25 (수)	Sao Paulo	상파울루 시내 관광
4/26 (목)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도착 (AA216편)

2019. 8. 관동대 창업팀 사무처 내방
2019. 8. 김영옥 대령 기념 Highway 명명 축하 오찬 참석
2019. 8. 체육분과위원회 미팅
2019. 8. 광복73주년 LA시의회 선포식
2019. 8. 중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Monterey Park)
2019. 9. 골프위원회 미팅
2019. 9. 기업 탐방: Mega AVI
2019. 9. 중국상의 개업축하 참석
2019. 9. 시니어센터 추석잔치 참석
2019. 9. 올림픽경찰서 코왈스키 서장 오찬
2019. 9. 총영사배 골프대회 개최
2019. 9. 윤상기 하동군수 오찬
2019. 9. 태평양은행 15주년기념 참석
2019. 10. 에어프레미아와 MOU 체결
2019. 10. 경남도의원단 상의 내방
2019. 10. 전라남도와 MOU 체결
2019. 10. 한인축제 리셉션 참석
2019. 10. 신임이사 & 골드 스폰서 하기환 회장댁 초청
2019. 10. 전직 회장단 초청 오찬
2019. 10. 하노이상의와 MOU 체결
2019. 10. T.A. Industry 공장 견학
2019. 10.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2019. 10. 울릉군과 MOU 체결

홈리스 쉘터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 노숙자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위생상, 보안상 뿐만 아니라 상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0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였고, 2023년 미국 노숙자 수가 653,104명이었으며, 2024년 3월 현재 LA 카운티 노숙자는 75,518명, LA시 46,26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교회 김요한 신부가 쉘터를 오픈 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그 숫자가 급증하였고 2017년에 제10지구 내에 노숙자 수는 549명, 코리아타운에 148명으로 집계되었다. 심각성을 인지한 미연합회(KAC)는 여름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에서 노숙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그들의 조사 결과물을 "보이지 않는 이웃들 ; LA 코리아타운 노숙자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꾸몄습니다.

LA시에서는 홈리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LA시 전역 15개 부지에 홈리스 주거공간 건설을 추진하였다. 코리아타운에는 가장 먼저 지정이 되었고, 한인타운의 일부 주민들은 노숙자 쉘터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LA시에서는 에릭 가세티 시장과 허브 웨슨 의원이 나서 한인 단체장들을 만나 노숙자 문제를 논의하였다.

LA한인상의와 한미연합회가 앞장서고 LA한인회 등 단체장들과 수시로 대책을 숙의하였다. 공청회를 거쳐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조정을 거쳐 한인타운 월셔/벌몬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682 S Vermont에 건설이 확정되었다. 부지 24,600 스퀘어피트 면적에 약 65명의 홈리스 주민이 밤에 잠잘 수 있는 건물, 샤워시설, 화장실, 물품보관함 등의 시설을 하였다.

2019. 11. 윌셔초등학교 폐지대책 미팅
2019. 12. 상의 연말 파티 (Wilshire Country Club)
2019. 12. 올림픽경찰서 코왈스키 서장 고별 런치
2019. 12. KBS 라디오 인터뷰
2020. 1. 신년하례식 개최 (옥스포드호텔)
2020. 1. 김병수 울릉군수 상의 내방
2020. 1. 이언주 의원 상의 내방
2020. 1. KITA 회장 취임식 참석
2020. 2. 한인상공인의밤 개최
2020. 2. 29소방서 100주년 기념행사
2020. 2. 일본상의 창립58주년 참석
2020. 4. 윤병태 전남부지사 만찬미팅
2020. 4. 제3회 상의–옥타 골프대회
2020. 4. 이미지 메이킹 세미나 개최
2020. 4. 아시아나 두성국 본부장 오찬
2020. 4. 한인시니어센터 펀드레이징
2020. 4. PAVA World 갤라 참석
2020. 5. 부동산협회 골프대회 참가
2020. 5. 하동군 녹차축제 참가
2020. 5.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
2020. 6. OC Hiring Fair
2020. 6. 후원 감사의 밤

이미지 메이킹 세미나

'CMK 이미지 메이킹 세미나'가 2019년 4월 18일 아로마센터 5층 홀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LA한인상의가 주최하고 CMK 이미지코리아가 주관하며, 금산홍삼이 후원하였다.

강사인 조미경 교육학 박사는 CMK 이미지 코리아 대표로서 AICI 국제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서울챕터 명예회장으로 정부 장차관과 삼성그룹, 현대그룹, 하나은행, 신한은행 및 증권사 등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유명 강사이다.

총 3시간 강의는 개인 신원 분석, 개인 스타일 컨설팅, 바디 랭귀지로 꾸며졌으며, 개인 스타일 컨설팅 시간에는 남·녀반으로 나누어 메이크업과 컬러 진단 실습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진단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고 긍정의 바디랭귀지를 배워, 비즈니스 현장에서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을 체험하는 세미나였다.

후원 감사의 밤

하기환 회장은 총 4기의 상의를 이끈 유일한 인물로 상의 이사 150인 시대를 열었으며,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4·29 폭동, 불법체류자 단속, 홈리스 문제 등 시대의 고비마다, 그는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한인 커뮤니티와 경제계를 잘 이끌어 주었다. 2019년 6월 12일, 임기 동안 상의를 후원해주신 후원 기업 및 단체에 감사하고자 '후원 감사의 밤' 행사로 파사데나에 위치한 본인의 자택에 약 120여 명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43

커뮤니티와의 상생

제43대 회장 박성수

제43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박성수**
부회장 **백신디, 마크홍, 하경철**
회장고문단
하기환, 한문식,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임우성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전석호, 로랜스한, 이 은
비즈니스믹서위원회 **강승헌**
Gala분과위원회 **유미옥**
차세대분과위원회 **알렉스차**
K-Town개발위원회 **이창엽**
멤버쉽분과위원회 **김철원**
세미나분과위원회 **구경완**
스폰서십위원회 **에드워드구**
대외협력위원회 **이형승**
문화분과위원회 **박윤재**
여성분과위원회 **린다노**
재 정 위 원 회 **전홍수**
정 관 위 원 회 **최명진**
체 육 분 과 위 원 회 **현호석**
홍보/웹사이트위원회 **신승영**
북방경협분과위원회 **로렌스한**
경단협력분과위원회 **이 은**
감 사 **전석호**

제43대 박성수 회장 취임

상의는 2019년 5월 21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박성수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4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디 백, 마크 홍, 하경철 3인의 부회장도 인준을 통과하여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박 회장은 "통합과 상생, 커뮤니티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들끼리 문화를 탈피해서 타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북미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할 계획도 피력하였다.

박성수 회장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쌍용보험 동유럽 본부장으로 폴란드에 거주하였다. 1998년 미국에 정착하고 몸담은 보험회사를 성장시켜 주류업체와 통합해 '허브 인터내셔널'의 파트너 겸 수석부 사장으로 제직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남가주한국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상의 제43대 회장단 취임식이 2019년 6월 27일 Taglyan Complex에서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로라 전 LA 한인회장, 데이빗 류 LA시의원,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김완중 LA총영사 등 기관 및 단체장들과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행장, 퍼시픽시티뱅크 헨리 김 행장, 메트로뱅크 김동일 행장 등 한인 은행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제43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강일한
부이사장 이쎄라, 브라이언이
김준서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강현철, 고민선
공조셉, 구에드워드, 김글로리아
구경완, 김경현, 김광현, 김기형
김다이앤, 김명신, 김미향, 김봉현
김윤정, 김은주, 김재항, 김제니
김종식, 김준도, 김준서, 김지나
김창환, 김철원, 김춘식, 김캐티
김태영, 김태웅, 김해룡, 김형진
노린다, 루거리챠드, 마애나
명원식, 문원석, 박기홍, 박미셸
박범진,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이화, 박진규, 박철세, 박태호
배무한, 백사무엘, 백승민, 백신디
변다이아나, 서미셸, 석인환
송신디, 송제이슨, 신동환, 신승영
신영신, 신영임, 신제인, 안아람
안철홍, 양민, 오크리스틴, 유대식
유돈희, 유미옥, 유웅식, 윤순주
유스테이시, 윤은희, 이그레이스
이기욱, 이대용, 이돈, 이브라이언
이리사, 이상희, 이성일, 이승덕
이승호, 이쎄라, 이연수, 이영근
이영섭,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조앤, 이진주
이창엽, 이크리스틴, 이혁, 이형승
임란희, 임문규, 임선희, 임우성
임현, 임희원, 창희근, 창봉주
장진혁, 장하비, 전길자, 전석호
전홍수, 정브라이언트, 정상봉
정은기, 정주현, 정찬용, 정피터
정크리스틴, 조갑제, 조범열
조현재, 주제니, 진철희, 차민영
차알렉스, 차정호, 차제임스
최경석, 최대희, 최명진, 최일규
추철호, 추크리스티, 허짐, 하경철
하기환,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허연이 허짐, 현호석, 홍마크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두하
황수잔, 황영신

운영위원 워크샵

상의는 2019년 8월 7일 JJ Grand Hotel에서 제43대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역대 회장들을 비롯한 42 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16개 분과위원회별 연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분과위원회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북방경제협력분과위원회' 이다. 북방경협위원회는 제43대 상의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전문 부서이다. 대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자바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질 높은 노동력은 미주 한인 경제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 국무부 승인을 받아 4월쯤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 재미동포 간 경제교류의 교량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일 무역 분쟁

미주 한인 경제계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일 무역 분쟁이 미주 한인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킨 까닭이다.

징용공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열린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확정판결하였다.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기규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이 신일본재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1997년 12월 24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 판결의 일본 입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에 따라 일본이 지불한 3억 달러에 강제징용공 피해보상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다며 대법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강제에 의한 '한일병합 조약' 과 강제 징용공 차출은 불법적, 반인도적 행위로서 피해자 개인이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화이트 리스트 & 지소미아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 무역 제재에 돌입하였다. 이어 아소 다로 재무상은 한국인의 일본 취업, 비자 발급, 송금 거래, 이민, 여행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의 안보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국가로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 국가에 대하여 백색 국가라는 레벨을 지정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19. 5. 정기이사회 개최
제43대 박성수 회장 선출
2019. 6. 제43대 회장단 이취임식
2019. 7. 신구회장단 총영사관 만찬
2019. 7. 올림픽경찰서 Sandoval
사장 오찬
2019. 7. 회장 한국일보 인터뷰
2019. 7. 회장단 중앙일보 방문
2019. 7. 호프은행 케빈 김 행장 오찬
2019. 7. 한국학원 관련 대책논의
단체장 회의 참석
2019. 7. 회장단 라디오코리아 방문
2019. 7. 회장단 우리방송, MBC 방문
2019. 7. 남가주부동산협회 장학금
수여식 축사
2019. 7. KBS, 코리아타운데일리 방문
2019. 7. LAPD 도미닉 최 오찬
2019. 7. 한국학원 비상위 기자회견
2019. 8. 한국 우수모범학생 초청만찬
2019. 8. 일본정부-한국수출규제 사태
관련 단체장 회의
2019. 8. 라디오코리아 Square 제막식
2019. 8. LA City Council 광복절
기념 선포식
2019. 8. 일본 규탄 단체장 기자회견
2019. 8. 경제단체협의회 미팅

일본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파괴행위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ETO)에 제소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은 탈북자, 조총련, 국경네트워크, 위성, 이지즈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상품 불매운동

"NO,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품 규제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라는 강력한 한국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7월 3일에 일본제품불매목록 사이트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동참를 표시하였다. 네이버 카페 '네일동'에서 일본 여행 취소 운동이, 택배 노조는 유니클로 배달을 거부하였다.

서울시 중구청에서는 "NO JAPAN" 포스터 1,100개를 관내에 부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시의회는 284개의 전범기업 제품불매와 사놓은 제품에는 전범스티커를 붙이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서는 광복절 기념 노노재팬 815 대행진이 열렸다.

미주 한인사회의 대응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규탄과 불매운동에 동참을 선언하였다.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광복 7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 토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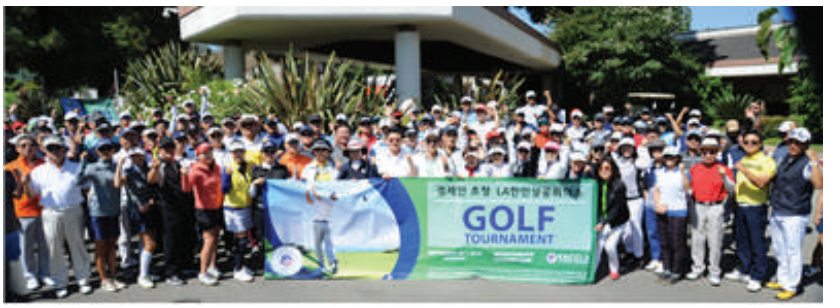
LA한인상의, LA한인회, 민주평통LA 등 20여 개 단체는 8월 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사태의 해결 방안을 모색을 위해 LA한인회관에 모여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의 행태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정부 차원에서 맞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매운동은 차별적 구매 행동이며 이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사는 사회이므로 한인사회가 배타적인 그룹으로 인식되지 않토록 자제해야 한다. 다만 일본의 행태를 바로잡도록 서명서 발표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미 의회에 압력을 넣는다는 것으로 교민사회의 동요를 안정시켰다.

2019. 8. LANI Grant Workshop 참석
2019. 8. 애틀란타 KTN dlsxjqb
2019. 8. 시니어센터 이사장 취임식 축사
2019. 8. SBS 사장 국장 미팅
2019. 8. 미주한국구악경연대회 축사
2019. 8. 군산, 포항 방문단 환영 만찬
2019. 8. PCB 행장 미팅
2019. 8. 오픈뱅크 행장 미팅
2019. 8. 상의 번개 미팅
2019. 9. 대한항공 본부장 미팅
2019. 9. CBB 행장 미팅
2019. 9. 대한민국 브랜드 EXPO 산전 협력 미팅
2019. 9. 회장단, 이사장단 총영사관 초청 만찬
2019. 9. 시니어센터 추석잔치 참석
2019. 9. 중앙일보 광장 제막식 참석
2019. 9. 식품상협회 골프대회 후원 및 참가
2019. 9. LA한인회 GALA 축사
2019. 9. 울산남구청장 및 중소기업 협회장(18명) 상의 내방
2019. 9. 부산해운대구 박기훈 시의원 상의 내방
2019. 9. "한인축제" 리셉션 축사

경제인 초청 골프대회

'경제인 초청 골프대회'가 2019년 9월 30일 Mountain Gate Country Club에서 개최되었다. 상의 회원들의 단합과 상공인들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골프대회는 많은 기업들의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는 남가주한인 경제단체 연합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해 144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2019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53개국 총 4,482명(해외 7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수시, 매일경제 MBN이 주관하였으며, 베트남 K&K 트레이딩 고상구 회장이 대회장을 맡았다.

상의는 박성수 회장과 22명의 방문단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10월 16일 일정을 시작한 방문단은 문경, 대구, 포항, 울릉도, 독도, 부산, 하동, 광양, 완도, 여수, 군산 등지를 순방하였다. 방문단은 광양시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방문 일정			
10/16	고윤환 문경시장 접견	10/22	정현복 광양시장 오찬(MOU)
	권영진 대구시장 만찬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10/17	왕신 오찬	10/23	완도해양치유산업단지 시찰
	이강덕 포항시장 만찬		권오봉 여수시장 만찬
10/18	울릉군수 만찬	10/24	여수시 관광
10/19	울릉도 관광		폐회식 / PCB 후원 뒷풀이
10/20	독도 관광	10/25	군산시장 오찬
10/21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방문		김관영 바른미래당의원 만찬
	윤상기 하동군수 만찬	10/26	하기환 회장 자택 만찬

2019. 9. 완도군과 MOU 체결
2019. 9. 경북지사 만찬 참가
2019. 9. 골프대회
2019. 10. 제18차 세계한상대회(여수)
2019. 10. Scarlet Eum 광장 제막식 참석
2019. 11. 제19기 민주평통출범식 축사
2019. 11. 터보재단 자선콘서트 참석
2019. 11. 중앙일보 경제포럼 참석
2019. 11. 경제단체협의회 회장단 오찬
2019. 12. 대한민국브랜드엑스포 참석 (Intercontinental Hotel)
2019. 12. 코리아타운의 날 기념식 참석 (JJ Grand Hotel)
2019. 12. OKTA 회장취임식 축사
2019. 12. 부동산협회 회장취임식 축사
2019. 12. 식품상협회 회장취임식 축사
2019. 12. 건설인협회 건설인의 밤 축사
2019. 12. 보험재정전문인협 GALA축사
2019. 12. LA 민주평통 GALA 축사
2019. 12. MBC 골프대회 참가
2020. 1. 경제단체협의회 미팅
2020. 1. US Metro Bank 토렌스지점 개점식 축사
2020. 1. 한인회 신년하례식 참석

독도방문

비즈니스 믹서

과학기술자협회 공동 믹서

상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동동으로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어진 믹서에는 상의 이사, 과기협회 회원 그리고 초대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에큐터블빌딩 14층 홀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한인 단체와 상생을 위한 소통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모임으로 평가되었다.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공동 믹서

상의를 비롯한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18개 단체는 2020년 1월 15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하였다. 퍼시픽시티은행 헨리 김 행장을 비롯한 은행관계자들과 김완중 총영사, 한인단체 대표 등 초대 손님 등 25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믹서를 거행하였다. 18개 전문분야 경영인들이 함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행사 참여 단체는 LA상의, 한인무역협, 섬유협, 봉제협, 부동산협, 보험재정전문인협, 건설협, 변호사협, 물류협, 의류협, 중소기업협, 한국지상사협, 미용협, 건축가협, 전자상거래협, 식품상협, 한식세계화협 등이다.

2020. 1. 거창대학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학생 30명 방문
2020. 1. 경기도중소기업 CEO협회와 MOU 체결
2020. 1. 시니어센터 설날 큰잔치 축사
2020. 1. 봉제협회 신년리셉션 축사
2020. 1. 호남향우회 설날큰잔치 축사
2020. 2. 자선기금 모금 연예인 골프대회 참가(Rio Hondo)
2020. 2. 한국예총 회장 이취임식 축사
2020. 3. 경단협회장단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논의
2020. 3. 안중근 흉상 제막식 참석 (LA한국교육원)
2020. 3. 코오나바이러스 대책 회의
2020. 4. Covid-19 Zoom Conference
2020. 5. 코로나 극복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 Zoom Conference
2020. 5. John Lee 시의원 "Townhall Meeting" 화상회의
2020. 6.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 소요사태에 따른 비상대책회의
2020. 6. 소요사태 대비 보호막 설치

코로나 극복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

코로나-19 충격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에 펜데믹(세계적 범유행)을 선포하였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펜데믹 선언으로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경제활동은 중단되었으며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상의 또한 2월 26일 사무실에서 열린 세미나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다. 펜데믹 선포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며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3월 18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지원 관련 긴급운영위원회 화상회의를 갖고, Covid-19 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로렌스 한)를 구성하고 SBS Loan 시청서 작성 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 대책에 나서기로 하였다.

코로나 정부대책 Webinar 개최

상의는 Covid-19 경제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2020년 4월 4일 Bank of Hope의 협조를 얻어 ' EIDL/PPP 업데이트 '를 주제로 Webiner를 가졌다. 이날 강의는 SVP & SBA Dept. 실버스터 김 메니저, Bank of Hope SBA 잰 박 메니저가 발표자로 나왔다.

코로나 극복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

상의는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 및 생계곤란자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펼쳤다. 제1차 캠페인은 5월 13일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고, 가구당 45달러 상당의 식품을 1박스(35파운드)씩 500명에게 배포하였다. 제2차 캠페인은 대상을 중국동포들에게도 확대하였으며, 6월 9일 몇 개의 지정된 대형 노인아파트에 배달하였고, 6월 10일에는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배포 하였다.

코비드-19 경제대책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전문인을 섭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시 보상(브라이언 리), 실업급여(박수영), 렌트비 유에방법(브래드 리), PPP 사용방법(제임스 차), 대학 입시준비(김지나), 코로나 대응방법(차민영), 보험 환급(조셉 공) 등 도영상을 촬영하여 You Tube에 업로드를 완료하였다.

44
45

다시 찾아온 위기

제44, 45대 회장 강일한

제44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강일한**
부회장	**쎄라이, 하경철, 브라이언이**
회장고문단	**하기환, 한문식,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임우성 에드워드구, 브라이언트정, 전석호, 로랜스한, 이은, 박성수**
비즈니스믹서위원회	**김재항**
Gala분과위원회	**황두하**
차세대분과위원회	**알렉스차**
K-Town개발위원회	**김철원**
멤버쉽분과위원회	**이일우**
세미나분과위원회	**장진혁**
Sponsorship위원회	**애나마**
대외협력위원회	**임 현**
문화분과위원회	**박윤재**
여성분과위원회	**윤은희**
재정위원회	**전홍수**
정관위원회	**최명진**
체육분과위원회	**현호석**
홍보/웹사이트위원회	**황두하**
비상대책분과위원회	**제임스차**
경단협분과위원회	**최명진**
의료분과위원회	**이승덕**
장학분과위원회	**그레이스강**
특별계좌 위원회	**강승헌**
이벤트분과위원회	**신영임**
감사	**구정완**

제44대 강일한 회장 취임

상의는 2020년 5월 정기이사회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고 강일한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제44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쎄라 리, 하경철, 브라이언 리 3인의 부회장도 동시에 인준받아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강일한 회장은 텍사스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의류비즈니스로 성공한 사업가이다. 중국 한국상회 화동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리더쉽을 인정받았다. 화동지방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19개 한국상회가 있다. 강 회장은 Sunrise Apparel Inc, Gayment Manufacture, Shine Import를 경영하고 있다.

비상사태 TF 팀 구성

강일한 회장은 제44대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격렬한 항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다. 4·29 폭동을 경험한 한인사회는 불안에 씻고, 이번 소요 사태의 한인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의가 주축이 되어 2020년 5월 31일(일요일) 'Emergency Task Force' 팀을 구성하였다.

Emergency TF 구성은 팀장 강일한 회장, LA총영사관 담당 이창엽, LAPD 담당 브레드 리, 한인비즈니스 담당 사라 리, 한인언론담당 유대식, 총영사관 TF 담당관 이용욱 영사, LAPD 올림픽경찰서 담당관 Sergeant Jesse Puente, LA시청 담당관 Mayor's Office Robert Park, 제4지구 시의원 담당관 Daniel Park 보좌관, 제12지구 시의원 담당관 Jieun Kim 보좌관으로 편성하였다.

제44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창엽**
부이사장 **한희도, 이혁, 박수영**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강현철, 고민선
공조셉, 곽문철, 구에드워드
구경완, 김경현, 김글로리아
김다이앤, 김명신, 김미향, 김봉현
김은주, 김재항, 김종식, 김준도
김준서, 김지나, 김철원, 김춘식
김캐티, 김태영, 김태웅, 김형진
노린다, 루거리챠드, 마애나
명원식, 문원석, 박기홍, 박미셸
박범진,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이화, 박진규, 박철세, 박태호
배무한, 백사무엘, 백승민, 백신디
변다이아나, 서미셸, 송제이슨
송신디, 신동환, 신영신, 신영임
신제인, 안아람, 안철홍, 여애니카
유대식, 유돈희, 유미옥, 유웅식
유스테이시, 윤순주, 이그레이스
윤은희, 이기욱, 이대용, 이리사
이브라이언, 이상철, 이상희
이성일, 이승덕, 이승호, 이쎄라
이연수, 이영근, 이영섭,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제영, 이조앤, 이진주, 이창엽
이크리스틴, 이혁, 이형승, 임현
임문규, 임선희, 임우성, 임희원
장희근, 장진혁, 장하비, 전석호
전홍수, 정동완, 정브라이언트
정상봉, 정주현, 정찬용, 정피터
정크리스틴, 조갑제, 조범열
조현재, 주제니, 진철희, 차민영
차알렉스, 차정호, 차제임스
최대희, 최명진, 최일규, 하경철
하기환,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허연이 허짐, 현호석, 홍마크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두하

주방위군 요청

비상사태 TF 팀은 총영사관, LAPD, LA시청, LA의회 뿐만 아니라 LA 한인회, 경단협 산하 11개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TF 팀은 제일 먼저 LA시 당국에 주 방위군의 배치를 요청하였다. 한인타운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등 웨스턴가의 몇몇 상점들이 이미 약탈당했다. 주 방위군은 6월 1일 오후 더 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코리아타운에 신속하게 배치되었다.

보호벽 설치

비상사태 TF 팀은 대응책의 하나로 한인 상가와 개인 상점의 보호벽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을 위하여 LA시장실과 시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위 지역의 은행은 휴점하고 마켓은 영업을 단축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하여 상가뿐 아니라 식당, 은행까지도 보호벽을 설치하고 야간 경비를 강화하였다.

코로나-19 & 팬데믹

LA 한인사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까지 터져 혼란의 도가니였다. 제44대 상의는 취임식도 미룬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 안전과 지원을 위해 팔방으로 뛰었다. 강일한 회장과 제44대 회장단은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한인사회와 비즈니스에 미친 여파가 상상 이상이라며 코로나 위기 타파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를 돕고 한인 상권을 살리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2020. 5. 정기이사회 개최
제44대 강일한 회장 선출

2020. 5. 비상사태 TF 구성

2020. 7. 제44대 회장단 총영사관 초청

2020. 7. 한인안전대책 및 Hate Crime
대책 면담회

2020. 7. 올림픽경찰서장 면담

2020. 7. LA커뮤니티 병원 방호복
전달식(에어프레미아)

2020. 7. 한국입국시 격리완화 요청
경제단체장 기자회견

2020. 7. Korean Community
COVID-19 타운홀 미팅

2020. 8. 총영사관 광복절 행사 참석

2020. 8.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인터뷰

2020. 8. SBS, MBC, KBS 방송인터뷰

2020. 8. 운영위원회 워샵

2020. 8. 한인의류협회 Covid-19
검사소 개소식 참석

2020. 9. 부동산협회 장학금수여 축사

2020. 9. LADOT 화상회의 참석

2020. 9. 로터리건설 프로젝트
화상회의 참석

2020. 11. 소요사태 대비 안전 대책
올림픽경찰서 기자회견 참석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가 일으키는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로 보고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세계 각국은 의료진 부족과 병상 부족, 의료기기 부족으로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저소득층과 후진국의 경우 발병률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는데 백신 접종률과 의료시설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팬데믹

팬데믹 두 개 대륙 이상의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전염병이 확산될 때, WTO가 선언하는 최고 단계의 전염병 경보이다. 팬데믹은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을 제한하여 여행은 중단되었고, 무역량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생산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역과 국가가 속출하였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교육으로 대체하였다.

팬데믹 극복 사업

방호복 기증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의료진의 부족은 물론이고 의료시설과 장비의 절대 부족으로 치료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의는 MOU 관계 협력업체인 '에어프리미아' 항공사와 협력하여 Covid-19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15,000달러 상당의 방호복 300벌을 기증하였다. 기증식에는 에어프리미아 심주엽 대표, 강일한 회장과 회장단, 박경재 총영사, Mark Thomas 제2지구 슈퍼바이저,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의무격리 완화 청원

각국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주 한인 경제인들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어서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2020. 12.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올림픽경찰서)
2020. 12.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LA총영사관 앞)
2021. 1. 올림픽 경찰서 청원서 전달
2021. 1. 민주평통 신년하례식 줌참석
2021. 1. 한인의 날 기념식 줌 참석

제45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강일한**
부회장 **하경철, 임현, 안철홍**
회장고문단
하기환, 한문식,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임우성 에드워드구, 전석호, 로랜스한 이은, 박성수

비즈니스믹서위원회	**김재항**
Gala분과위원회	**그레이스강**
차세대분과위원회	**알렉스차**
K-Town개발위원회	**이창엽**
멤버쉽분과위원회	**박진규**
세미나분과위원회	**제임스차**
Sponsorship위원회	**강승헌**
대외협력위원회	**유대식**
문화분과위원회	**박윤재**
여성분과위원회	**윤은희**
재정위원회	**임우성**
정관위원회	**하비정**
체육분과위원회	**허연이**
홍보/웹사이트위원회	**항두하**
경단협력분과위원회	**진철희**
비상대책분과위원회	**김철원**
의료분과위원회	**이승덕**
장학분과위원회	**이기욱**
한상대회위원회	**신영임**
이벤트분과위원회	**세라이**
감사	**전석호, 정동완**

비즈니스의 존폐가 걸린 급박한 상황에 놓인 상공인들을 위하여 상의는 2020년 7월 20일 LA세계한인무역인협회, 재미한인섬유협회, 한인의류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 입국 시 14일 의무격리 조치 완화를 청원하였다. 의무격리 기간을 대신하여 출국 12일 전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하고 한국에 지정한 장소에 1~일 머무는 안을 제시하였다.

방호복 기증

상의와 남가주경제단체협의회 18개 단체는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주동포들에게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를 청원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에게 보낸 청원서는 미국 cdc에서 발급한 백신 2회 접종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자, 탑승 72시간내 실시한 코로나음성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면제를 요청하였다.

한인커뮤니티 이웃돕기 캠페인

코로나-19와 소요 사태 상황에서 상의의 '한인커뮤니티 이웃돕기 캠페인' 은 지속되었다. 10월 6일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제3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 및 저소득층 생계곤란자를 도왔다. 식료품과 마스크 그리고 손 세정제를 준비하여 500객 백을 전달하였다. 노인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토록 선착순으로 번호 손목티를 두르고 있다가 다시 와서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서 David Ryu 의원실 1만 달러, 한남체인 5천 달러, 상의 3천 달러를 기부하였다.

제45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브라이언트정
부이사장 리챠드루거, 차정호
그레이스강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강현철, 고민선
공조셉, 곽문철, 구경완, 김경동
구에드워드, 김경현, 김글로리아
김명신, 김미향, 김봉현, 김재항
김종식, 김준서, 김지나, 김철원
김춘식, 김캐티, 김태영, 김태웅
김형진, 김홍철, 노린다, 마애나
루거리챠드, 명원식, 문원석
박기홍, 박미셸,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이화, 박진규, 배무한
배그레이스, 백승민, 변다이아나
백신디, 서미셸, 송신디, 송제이슨
송유진, 신영신, 신영임, 신제인
안철홍, 양학봉, 여애니카, 유대식
유돈희, 유미옥, 유웅식, 윤순주
유스테이시, 윤은희, 이그레이스
이기욱, 이대용, 이브라이언
이상철, 이상희, 이선례, 이성일
이세라, 이승덕, 이승호, 이연수
이영근,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제영, 이조앤
이창엽, 이크리스틴, 이혁, 이형승
임문규, 임선희, 임우성, 임현
임희원, 장희근, 장진혁, 장하비
전석호, 전홍수, 정동완, 정상봉
정브라이언트, 정주현, 정찬용
정크리스틴, 정크리스틴, 조갑제
조범열, 조준희, 조현재, 주제니
주학준, 진철희, 차민영, 차알렉스
차정호, 차제임스, 최대희, 최명진
최석균, 최일규, 하경철, 하기환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허연이
허짐, 현호석, 홍마크,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두하

한인 상권 살리기 캠페인

식당 살리기 캠페인

상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인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이 식당이기에 한인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먼저 식당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행사는 LA총영사관과 허브 웨슨 LA시의원이 캐페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10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식당 30곳을 선별하고, 이사들이 방문하여 "LA상의 추천 맛집" 명패를 붙여 주고, 식당 광고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떡국 나누기 행사

상의는 한인 상권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정을 맞아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도 못하는 심정을 위로하고, 나아가 침체된 한인타운의 경기를 진작 시키고자 상의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행사는 2021년 2월 12일 광양불고기, 선농단, 명동교자, 수원갈비, 마당국수 등 5곳의 한인 식당에서 15명의 상의 이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였다.

강일한 회장과 이사들은 500명의 한인들에게 떡국과 사랑을 나누었다.

상권 살리기 포스터 콘테스트

한인 상권 살리기 캠페인 일환으로 실시한 '포스터 콘테스트'는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인타운의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포스터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침체된 한인타운 비즈니스 살리기" 이다. 참가 대상은 초 · 중 · 고 재학생으로 하고, 시상은 대상(미셀박 연방하원상)1명, 1등(데이브 민 가주하원상) 초 · 중 · 고 각 1명, 2등(존리 시의원상) 초 · 중 · 고 각 1명, 3등(상공회장상) 10명이다.

제출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4월 2일 당선자를 상의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통지하여, 4월 9일 총영사관저에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수여식에는 펜데믹인 관계로 소수의 상의 임원과 총영사관 직원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등 총 50명이 인원만 참석하였다. 이 콘테스트에는 총상금 8,600달러가 회원들의 후원으로 마련하여,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3천 달러, 1등 1천 달러, 2등 7백달러, 3등 500달러를 부상으로 수여하였다.

추석맞이 나눔 행사

상의는 한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열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 지친 한인들을 위로하는 온정을 나누었다. 2021년 8월 20일 새누리교회에서 1,000명에게 무료로 나눔 페키지를 배포하였다. 이 행사에는 떡국, 라면 등 식품과 마스크, 손 세정제 코로나 방역제품 등 페키지 당 150달러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2021. 1. 경상북도지사 화상회의 참석
2021. 2. 총영사관 주관 재외동포 경제단체장 Zoom 간담회
2021. 2. KBS 사회봉사단 기증 KF94 마스크 LAPD 노조에 전달
2021. 3. 지상사협의회 신임회장 Zoom 이취임식 참석 축사
2021. 4. 호남향우회 회장취임식 축사
2021. 4. LA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포스터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2021. 4. 인종혐오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1. 5. 민주평통 정기이사회 축사
2021. 6. 감사의 밤 개최
2021. 7. 전임 회장단 만찬
2021. 7. 부동산협회 골프대회 참석
2021. 7. 봉제협회 골프대회 참석
2021. 7. 옥타 골프대회 참석
2021. 7. 도미닉 최 승진 축하연 참석
2021. 8. 제45대 회장단이취임식 개최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LA시의 경찰예산 삭감으로 인해 한인타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상의는 앞장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의류협회, 변호사협회, 부동산협회, 등 10개 한인단체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중국, 타이, 방글라데시 등 타 커뮤니티 단체와 함께 2020년 12월 18일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12월 18일, 21일, 28일 3차례의 기자회견,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청원 배너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총영사관, 다울정, 아주자동차, 올림픽 골프, 김스전기 등 한인 커뮤니티 10개, 타 커뮤니티에 10개의 영어 베너를 부착하였다. 2021년 1월 11일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에게 17,334명의 서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청원서를 전달하고, 올림픽경찰서 폐쇄 중지를 확약받았다.

2021. 8. 제45대 회장단이취임식 개최
2021. 9. KACCOC 골프대회 참석
2021. 9. 추석맞이 나눔행사 개최
2021. 9. 시니어센터 방역용품 기부
2021. 10. 제19회 세계한상대회 참가
2021. 10. 기업방문(선라이스 어페럴)
2021. 11. IRS 세금징수 웨비나
2021. 11. 경제인초청 골프대회 개최
2021. 12. 한인회 GALA 참석
2022. 1. 민주평통사무처장 초청간담회
2022. 2. 남가주호남향우회 설날잔치
2022. 3. 라디오서울 골프대회
2022. 3. 여서분과 분기모임
2022. 3. 김영환 총영사 오찬 회동
2022. 4. LA상의 친선골프대회 개최
2022. 4. 세계한상대회 업무 협약식
2022. 5. 상공회의소 감사의 밤 개최
2022. 6. LA 총영사관 만찬 참석
2022. 6. KACPA 이취임식 참석

비즈니스 탐방

장학금 수여

상의는 한인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 대상은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교사 또는 교수, 단체 책임자의 추천과 자기소개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선발하였다.

장학금 수여 후원에는 이기욱 1만 달러, 에니카 여 5천 달러, 제이슨 송 5천 달러, 진철희, 강일한, 허연이, 신영신, 그레이스강, 글로리아 김, 박지규, 강현철, 이영근, 문 림, 크리스틴 정 등이 참가하였다.

장학생 선발은 2021년 2월 12일 30명을 발표하였으며, 장학금 수여식은 2월 19일 엠코 카페 페리오에서 소수 인원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각 1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다

강일한 회장 2년의 임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이었다. 취임식을 비롯하여 세계한상대회와 상공인의 날 등 상의에서 가장 큰 행사들을 반납하고 팬데믹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한인들이 생겨나자 이들을 돕기 위한 일에 앞장섰다. 또한 한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한인타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였다.

46

상의 반세기를 넘어

제46대 장진혁 회장 취임

상의 반세기를 넘기며 1.5세로 수년간 상의에 몸담아온 차세대 리더를 회장으로 세웠다.

2022년 5월 17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장진혁 이사를 제 4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회장단으로는 강승헌 수석 부회장, 황두하, 박수영을 부회장으로 세웠다.

장진혁 회장은 Kim & Lee 회계법인 대표이며 1.5 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인사회에 차세대 인재로 일컬어져 왔다. 장진혁 회장은 한인 경제에 중심에 있는 LA한인 상공회의소가 차세대의 한인사회 동참을 이끌어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경제와 문화면에서 주류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인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LA한인상공회의소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제 46대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은 2022년 6월14일 헐리웃 테글리안 콤플렉스에서 35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제46대 회장 장진혁

제46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장진혁
부회장 강승헌, 황두하, 박수영
회장고문단
하기환, 한문식, 최명진, 정주현
이창엽, 명원식, 김춘식, 임우성
에드워드구, 전석호, 로랜스한
이은, 박성수, 강일한
멤버쉽분과위원회 이세라
세미나분과위원회 브라이언이
대외협력위원회 유대식
여성분과위원회 신영신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차정호
Sponsorship위원회 하경철
경단협력분과위원회 진철희
Gala분과위원회 김경현
커뮤니티분과위원회 알렉스차

제46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김봉현**
부이사장 **홍성모, 허연이, 김재항**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강현철, 고민선
공조셉, 곽문철, 구경완, 김경동
구에드워드, 김경현, 김글로리아
김명신, 김미향, 김봉현, 김재항
김세바스찬, 김종식, 김준서
김지나, 김철원, 김춘식, 김캐티
김태영, 김태웅, 김형진, 김홍철,
노린다, 마애나, 명원식, 문원석
박기홍, 박미셸,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이화, 박진규, 배무한
배그레이스, 백승민, 변다이아나
백신디, 서미셸, 송신디, 송제이슨
송유진, 신영신, 신영임, 신제인
신한준, 안철홍, 양학봉, 여애니카
유대식, 유돈희, 유미옥, 유웅식
유스테이시, 윤순주, 이그레이스
윤은희, 이기욱, 이브라이언
이대용, 이상철, 이상희, 이선례
이성일, 이세라, 이승호, 이연수
이영근, 이영내, 이은, 이일건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제영
이조앤, 이주미, 이창엽, 이현옥
이크리스틴, 이혁, 이형승, 임현
임문규, 임선희, 임우성, 임희원
장근희, 장진혁, 장하비, 전석호
전홍수, 정동완, 정브라이언트
정상봉, 정주현, 정찬용, 조갑제
정크리스틴, 정크리스틴, 조범열
조주영, 조준희, 조현재, 주부권
주학준, 진철희, 차민영, 차알렉스
차정호, 차제임스, 최대희, 최명진
최석균, 최일규, 하경철, 하기환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허짐
허연이, 현호석, 홍마크,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두하

제5회 K-프랜차이즈 투자설명회

상의가 주최하는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매번 각광을 받음에 따라 팬데믹 상황이지만 ZOOM을 통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022년 7월 25일에 열린 'K-프랜차이즈 미국 투자설명회'에는 한국의 요식업 브랜드 흑화당, 청년다방, 피슈마라홍탄, 생활맥주, 탄탄면공방 등이 참가하였다. 이 업체들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엄선한 회사들로, 한국에서 이미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성공한 기업들이다.

한국에는 5,000개가 넘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오픈되어 있다. 청년다방의 경우에는 한국 내 419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먹거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불황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추석 큰 잔치

상의는 LA한인타운 시니어센터와 공동으로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 큰 잔치'를 개최하였다. 2022년 9월 7일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으로, 3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은 점심 식사와 송편을 대접하고 쌀을 증정하였다. 시니어센터 하모니카반은 하모니카 우쿠렐레 연주를, 댄스반은 컨트리 댄스를, 장구반은 사물놀이 다체로운 공연과 함께 정겹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재단, 서울메디칼그룹, 휴매나가 후원하였다.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며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며,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30여 명의 상의 이사들이 봉사자로 나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섬겼으며, 장진혁 회장은 한인 1세들의 노력으로 후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을 대접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5. 정기이사회 개최
제46대 장진혁 회장 선출
2022. 6.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2022. 6. 전임 회장단 오찬 모임
2022. 7. 영사관 주최 LA한인 동포
간담회 참석
2022. 7. LA한인회 업무협약 관련오찬
2022. 8. 멤버쉽분과 연간계획 미팅
2022. 8. 경제단체협의회 오찬 미팅
2022. 8. 세미나분과 연간계획 미팅
2022. 8. 분과 위원회 워크샵
2022. 8. 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2022. 8. 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 오찬 미팅
2022. 8. Korea Youth Community
Center 오찬 미팅
2022. 8. 한국 국세청 오찬 미팅
2022. 8. LA KOTRA 오찬 미팅
2022. 9. 부총영사 오찬 미팅

강원대학교와 MOU 체결

차세대 믹서

상의는 다음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세대교체를 위해 2세와 3세 상공인들까지 아우르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차세대 믹서 (Nex-GenMixer)'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유학파 스타트업 비즈니스 맨에서 부터 미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대기업 임원에 이르기까지 전문인, 연예인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공인들이 함께 교류하였다.

제1차 차세대 믹서는 2022년 9월 29일 마마 라이언에서 개최하여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2차 믹서는 'S. California K-Group K-Night' 라는 명칭으로 LA 총영사관저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3차 믹서는 2023년 6월 1일 X Lanes에서 개최하여 젊은 상공인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캐주얼하게 공유하였다.

MOU 체결

상의와 전라북도는 2022년 9월 25일 한인타운 소재 한식당 용수산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상의가 전북 생산품의 미국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돕고 201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상의는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와 2022년 10월 3일 MOU를 체결하였다. 동아대 병원 조성식 국제진료센터장은 상의 사무처를 방문하고 장진혁 회장과 맺은 협약으로 상의 회원들의 의료복지와 종합진료에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상의와 강원대학교는 2022년 10월 31일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교류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외국어 학습 및 문화탐방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LA 우수 한인기업 중신의 일자리 창출로 졸업생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잭트를 개발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 9. 시니어센터 추석큰잔치 봉사
2022. 9. LA 시의회 간담회
2022. 9. 여성분과위원회 모임
2022. 9.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김봉주 회장 미팅
2022. 9. 제49회 LA한인 축제 VIP 리셉션 행사
2022. 9.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2022. 9. 제49회 LA한인 축제 VIP 리셉션 행사
2022. 9. 남도장터 USA 온라인쇼핑몰 오프닝행사 참석
2022. 9. 전라북도 관광설명회 참석
2022. 9. 코리안 퍼레이드 참석
2022. 9. 전라남도와 MOU 협약식
2022. 9. 갈라분과위원회 미팅
2022. 9. 경단협분과위원회 미팅
2022. 9. 차세대 믹서 네트워킹 행사
2022. 10. 동아대학교병원와 MOU 체결
2022. 10. 세계한인무역협회 행사 참석
2022. 10. 영사관 주최 개천절 행사
2022. 10. OC상의 한상대회 미팅 참석
2022. 10. 아르헨티나 상공인연합회 상의 내방
2022. 10. 통일전망대 방문

비즈니스의 존폐가 걸린 급박한 상황에 놓인 상공인들을 위하여 상의는 2020년 7월 20일 LA세계한인무역인협회, 재미한인섬유협회, 한인의류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 입국 시 14일 의무격리 조치 완화를 청원하였다. 의무격리 기간을 대신하여 출국 12일 전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하고 한국에 지정한 장소에 1~일 머무는 안을 제시하였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UECO)에서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오만의 Al Kaus Overseas Trading 김점배 회장이 대회장을 맡아, 재외동포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울산광역시, 매일경제, MBN이 후원하는 행사에는 53개국에서 2,046명이 참가하였다.

상의는 장진혁 회장과 김봉현 이사장, 그리고 하기환 전 회장을 비롯한 22명이 참가하였다. 한국방문 일정은 대한민국 최북단의 포구 강원도 거진항으로부터 울산까지 이르는 동해안을 관광하고, 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다음날 울산을 출발한 일행은 소백산맥을 넘어 전주와 군산을 관광하고 1박을 한 후 다시 울산에 돌아와 폐막식에 참석하였다. 서울로 상경한 방문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 미국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소통 체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소통 체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미나(웨비나)

상의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연세대학교의 협력을 얻어 2022년 11월 14일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연세대 조성훈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와 한국'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으며, 100여 명이 등록하여 수강하였다.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 10. 강원대학교 방문, MOU 체결
2022. 11. 2022 세계한상대회 참석
2022. 11.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2022. 11. Air Premia 임원 미팅
2022. 11. KOTRA 주관 취업세미나 장진혁 회장 연사 참여
2022. 11. KACCLA 정기 세미나 개최
2022. 11. 상의 달력 배포
2022. 12. 시장 당선자 Karen Bass 주관 LA 지역 로컬 비즈니스 리더 간담회 참석
2022. 12. OKTA 무역의 날 행사 참석
2022. 12. LA상의 송년파티
2022. 12. 시니어센터 기금모금 오찬
2022. 12. KACCOC 회장이취임식 참석
2022. 12. 보험재정전문인협회 갈라참석
2022. 12. LA한인회 60주년 Gala 참석
2022. 12. 식품상협회 회장취임식 참석
2023. 1. LA 상의 2023 신년하례식
2023. 1. 고양시 킨텍스전시장 관계자 상의 내방
2023. 1. 미주한인의 날 120주년 기념식 참석
2023. 1. 신임 이사 오리엔테이션
2023. 1. 미겔 산티에고 가주의원 미팅
2023. 2. 여성분과위원회 모임

신임 이사 오리엔테이션

제46대 상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이사 영입을 위해 노력하여 30대와 40대 이사 10여 명을 영입하였다. 2023년 1월 31일 용수산에서 열린 신임 이사 오리엔테이션에는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1년 이후에 가입한 25명의 신임 이사들과 전직 회장, 운영위원을 포함해 모두 38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LA 한인상의의 역사와 발전, 사업 및 활동 계획, 정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찬과 함께 친목을 다졌다.

제46회 한인상공인의 밤

제46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2023년 4월 6일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상의 멤버들과 한인 및 주류사회 각계 인사 3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최고기업인상' 캘코 보험 진철희 대표, '최고 경영자상' 한미은행 바니 리 행장, '레전드상' 벤자민 홍 전 나라은행장, '평생공로상' 이용기 전 트루에어 대표, '프로페셔널 리더상' UCLA 데 니스 홍교수, '글로벌지주니스리더상' CJ E&M, '기부단체상' 강드림파운데이션, '차세대리더쉽상 IT부분' 링글 이승훈 이성파 공동대표, '차세대 리더쉽 상 제 조부분' 드링크 레이 김, 저스틴 김 공동 창업자 '차세대 리더쉽상 소매 부분' 유타컵밥 송정훈 대표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2023. 2. 미겔 산티에고 가주의원 미팅
2023. 3. 총영사관저 디너 참석
2023. 3. Chinese /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오찬
2023. 3.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오찬
2023. 3. 전라북도 도청 조찬
2023. 3. Asian Business Roundtable (World Trade Association)
2023. 3. 리딩 CEO 디너 미팅
2023. 3.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방문
2023. 3. KOTRA 신임 관장 오찬 미팅
2023. 3. 통일전략포럼(이낙연 전 총리)
2023. 4. 46대 갈라 수상자 전야제
2023. 4. 상공인의 밤 개최
2023. 4. State of the City 시장 기조 연설 참석
2023. 4. Meet the City 개최
2023. 5. 한국무역협회 상의 내방
2023. 5. 여성분과위원회 모임
2023. 6. 안동병원 건강검진 MOU체결
2023. 6. KACC-OKTA 친선골프
2023. 6. 전라남도 사무소 상의 내방
2023. 6. OKTA 모국상품 수출진흥 포럼 참석

MEET THE CITY

상의는 2023년 4월 26일 LA시청 톰브래들리 타워룸에서 'Meet The City' 행사를 존 리 12지구 시의원실과 공동개최하였다. 한인사회와 LA시 정부가 유대를 강화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날 행사는 건설안전국, 계약행정관리국 재무국, 경제개발국, 조달국 담당자, 한인 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LA시 정부 각 기관은 해당 부서의 현안에 집중하여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WTO 앤데믹 선언

국제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5일 앤데믹을 선언하였다. 국제보건규칙(IHR) 긴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총 133억 회분 투여하였으며, 감염자는 전세계 79억 인구의 9.6%에 달하는 7억 6천만여 명, 총사망자 수는 700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023년 말까지 1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47

협력하고 도약하는 상의

제47대 회장 김봉현

제47대 운영위원회 조직

회 장 **김봉현**
부회장 **김경현, 김재향, 김지나**
회장고문단
하기환, 한문식, 최명진, 정주현
명원식, 김춘식, 에드워드구
임우성, 전석호, 로랜스한, 이은
박성수, 강일한, 장진혁
비즈니스믹서위원회 **이승호**
차세대분과위원회 **크리스틴정**
커뮤니티분과위원회 **황두하**
세미나분과위원회 **김미향**
대외협력위원회 **에드워드구**
겔라분과위원회 **신영신**
여성분과위원회 **그레이스강**
문화분과위원회 **이세라**
경제단체협의회위원회 **진철희**
체육분과위원회 **김경동**
홍보분과위원회 **최명진**

제47대 김봉현 회장 취임

상의는 2023년 5월 16일, 아로마센터 더 원 이벤트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김봉현 이사장을 최종 승인하여 제47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회장단에는 김경현, 김재향, 김지나 3인의 부회장이 인준을 통과하여 구성하였다.

김 회장은 '협력과 도약'을 키워드로, '한인 커뮤니티와 상생'을 목표로 정하고 상공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한인타운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계기를 상의가 만들어 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봉현 회장은 Cal. State University Long Beach에서 Business를 전공하였으며, C & I Enterprises와 Neo USA Foof Co. 그리고 The Plug Drink를 경영하고 있다.

상의 제47대 회장단 취임식이 2023년 7월 12일 Taglyan Complex에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회장단은 카를로스 모레노 판사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였다. 축사에 나선 케런 베스 LA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상공인들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해 전담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제47대 이사회 조직

이사장 홍성모
부이사장 조셉 공, 양학봉
에니카 여

이 사
강그레이스, 강소아, 강수현
강승헌, 강일한, 고민선, 공조셉
곽문철, 구경완, 김경동, 김경현
구에드워드, 김글로리아, 김미향
김봉현, 김비비안, 김세바스찬
김상우, 김재항, 김종민, 김종식
김준서, 김지나, 김철원, 김춘식
김태영, 김태웅, 김형진, 김홍철
류기형, 마애나, 명원식, 모 션
문원석, 민은아, 박기홍, 박미셸
박선용, 박성수, 박수영, 박윤재
박이화, 박제니, 배무한, 백승민
백신디, 서미셸, 송유진, 송제이슨
신영신, 신영임, 신한춘, 안철홍
양학봉, 여애니카, 유대식, 유동민
유미옥, 유웅식, 유정효, 윤순주
이기욱, 이브라이언, 이상희
이선례, 이세라, 이승호, 이영근
이영내, 이은, 이일건, 이일섭
이일우, 이재용, 이재원, 이조앤
이주미, 이진구, 이창수, 이현옥
이혁, 이형승, 임빅토리아, 임우성
임희원, 장근희, 장병우, 장진혁
장하비, 전석호, 전홍수, 정동완
정브라이언트, 정장봉, 정주현
정찬용, 정크리스틴, 정크리스틴M
조갑제, 조범열, 조정혁, 조주영
조준희, 조한경, 조현재, 주부권
주윤호, 주학준, 진철희, 차알렉스
차정호, 차제임스, 채재현, 최대철
최대희, 최명진, 최일규, 하경철
하기환, 한로렌스, 한문식, 한희도
허연이, 허짐, 현호석, 홍마크
홍선애, 홍성모, 홍정원, 황두하

2023. 5. 정기이사회 개최
제47대 김봉현 회장 선출

2023. 7.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제47대 운영위원회 Kick-off

제47대 운영위원회는 7월부터 시작되는 임기를 앞두고 2023년 6월 9일 LA 다운타운 캘리포니아클럽에서 '운영위원회 Kick-off Meeting'을 개최하였다. 운영위원 멤버들의 상견례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날 하기환, 최명진, 박성수, 강일한 등 전직 회장이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11개 분과위원장들은 분과별 행사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봉현 회장은 협력과 도약을 강조하고 임기 중 타운 내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임을 밝혔다.

'다울정' 관리 위탁

'다울정'은 상의가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건립하여 2006년에 완성한 한인타운의 상징물이다. 상의가 관리하는 동안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끔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의는 2023년 8월 1일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센터'에 관리를위탁하였다. 커뮤니티센터는 다울정 청소와 관리를 맡게 되며, 가드닝과 펜스 보수, LED 조명 관리 등의 예산 등은 상의가 계속해서 총괄한다.

다울정은 커뮤니티센터와 한 공간에 있어서 관리가 용이하며, 한인 시니어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 신영신 이사장은 10월 개강하는 새 학기부터 장구반, 합창반, 하모니카반 등 야외수업이 가능한 클래스를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이어서 다울정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

2023. 7. 50주년기념사업 자료수집위한 10대-20대 전임회장 오찬
2023. 7. 타운 맵 제작 1차 사전 미팅
2023. 7. 회장단 언론사 방문
2023. 7. Ark Ds 디지털 자산관리자 면담 및 설명회
2023. 7. OBA IOB 참석
2023. 8. 미서부한식세계화협회장 미팅
2023. 8.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2023. 8. 도산 안창호 동상제막 22주년 기념식 참석
2023. 8. 광복절 전야제 타종식 참석
2023. 8. 광복절 경축식 참석
2023. 8. ADA 장애인규정관련 세미나
2023. 8. K-Town Map 제작 미팅
2023. 8. 디지털자산 세미나 참석
2023. 8. KAGRO 골프대회 참가
2023. 9.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골프대회 참가
2023. 9. It's just a lunch
2023. 9. Next-Gen Mixer 준비 모임
2023. 9. 여성분과 모임
2023. 9. PCB Bank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2023. 9. 전임회장 모임
2023. 9. Next-Gen Mixer 개최

넥스트 젠 믹서

'2023 Nex-Gen Mixer'가 Ten Ten Downtown Rooftop에서 9월 20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인 1.5~3세대를 아우르는 차세대 상공인들의 주류 진출에 다리를 놓아주고자, 한인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MAUM 이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비지니스 믹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상공인뿐만 아니라, LA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청년봉사단체인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청년 상공인들의 활발한 역할을 격려하였다.

상의의 새로운 50년 미래를 위해 차세대 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 교류를 위해 해마다 넥스트 젠 믹서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경영세미나(웨비나)

'효율적인 401(k) 기업 연금 운영 및 컴플라이언스 문제 예방'을 주제로 하는 재정세미나가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9월 26일 웨비나로 열렸다. 본회 이사인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브라이언 리 회장이 강의를 맡아, 은퇴 및 연금 운영과 자율 준법 경영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신뢰를 보존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을 강의하였다.

2023. 9. OKTA 무역스쿨 입학식
2023. 9. 강드림파운데이션 그랜트 수여식 참석
2023. 9. 시니어센터 이사장 이취임식
2023. 9. 세미나
2023. 9. 경제단체협의회 모임
2023. 10. KAF 골프대회 참가
2023. 10. 개천절 기념식 참석 (총영사관 주최)
2023. 10.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23. 10. 경상북도지사 간담회
2023. 10. 군산시 과장, 도봉구청장 간담회
2023. 10. 한인축제 개막식 참석
2023. 10. 한인축제 바이어미팅 상담
2023. 10. 한인축제 퍼레이드 참가
2023. 10. 미리캔버스 MOU 체결
2023. 10. LA5지구 시의원 간담회
2023. 10. 우정의종보존회 연날리기대회 축사
2023. 10. Meet the City 기자회견
2023. 10. 민주평통LA협의회 출범식
2023. 11. OBA 골프대회 참가
2023. 11. 세미나(우주시대 우주경제)
2023. 11. K 르네상스

경제세미나(온 · 오프라인)

상의는 11월 3일 사무처에서 회원들을 위한 온 · 오프라인 동시로 열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방 항공우주국(NASA) 홍보대사인 윤명현 교수가 '우주시대 우주경제'라는 주제로 인류가 우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90분간 강연하였다. 윤 교수는 자원봉사로 NASA의 과학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주 탐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NASA의 여러 활동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태양계 홍보대사로 활약중이다.

미트 더 시티

상의는 LA 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당국자들과 한인 경제인들이 만나 현안을 공유하는 'Meet the City' 행사를 2023년 11월 8일 톰 브래들리 타워 룸에서 개최하였다. LA시의 계약인증 관할부서(BCA), 조달절차 관리부서(RAMP), 공공사업부(BPW), 공항관할부서(LAX), 항만관할부서(P-LA), 사업개발지원 및 교육부서(PACA)가 참가하였다.

이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여 비즈니스의 고충을 전달하고 1대 1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행사 진행부에서는 오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경제인들이 LA시의 조달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설명회와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 행사로 한인 소상공인들과 LA시와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2023. 11. Meet the City

2023. 11. 경제인초청 골프토너먼트

2023. 11. KCLA Annual Installation & Awards

2023. 11. 상의 50주년 기념사업 특위 모임

2023. 12.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조직위 해단식 참석

2023. 12. World OKTA LA 60주년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2023. 12. 시니어센터 기금모금 축사

2023. 12. LA GCEO 송년회 축사

2023. 12. KAIFPA Gala & Award Night 참석

2023. 12. LA한인회 헤리티지 Night Gala 참석

2023. 12.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전시회

2023. 12. 한국 Sappira 비즈니스 총괄매니저 상의 내방

2023. 12. 상의 연말파티 & 이사회

2023. 12. OC상의 이취임식 참석

2023. 12. KAGRO 장학금 전달식 참석

2023. 12. 한의사협회 송년회 참석

2023. 12. 한인건설협회 이취임식 참석

2023. 12. 한인부동사협회 취임식 참석

2023. 12. 도산기념사업회 GALA 참석

2023. 12. K-Town Food Map 미팅

MOU 체결

미리캔버스와 MOU 체결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회사인 ㈜미리디와 2023년 10월 16일 MOU를 체결하였다. 미리디는 웹사이트네 접속해 손쉽게 홍보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1, 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필요로 하는 학교, 기업체, 세일즈 맨에게 유용한 플랫폼이다.

관악구청과 MOU 체결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서울 관악구청은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2024년 1월 12일 박준희 구청장이 상의 사무처를 내방하여 성사되셨다.

공주대학교와 MOU 체결

LA 한인상공회의소와 국립공주대학교는 2014년 1월 15일 상호협력 및 재학생 인적교류 방안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공주대학교 임경호 총장, 장창기 대외협력본부장, 한요셉 주무관은 상의를 내방하고 공주대 졸업생들에게 미국 내 한인기업 취업과 충남지역 향토 기업들과 긴밀한 교류 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제47회 상공인의 날

제47회 한인상공인의 날(47th Annual Gala & Awards Night) 행사가 2024년 3월 15일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인 상공인들과 한인 및 주류사회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은 '최고경영자상' 오픈 뱅크 민 김 행장, '글로벌기업인상'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 '최고전문가상' 베스트 롤업 도어 에드 워드 최 대표, '최고기업인상' 로스락 웨이브즈 이현옥 대표, '최고혁신 기업가상' 바디프랜드 김창주 대표, '커뮤니티공헌상' 아발론 하시엔다 제니 서 대표, '차세대 리더상' 베리스와이프 제프 존 리 대표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2024. 1. 한인회 신년하례식 참석
2024. 1. 상의 신년하례식 개최
2024. 1. 6.25 유공자회 신년하례식
2024. 1. 강원도민회 회장취임식 참석
2024. 1. 유권자등록 캠페인 기자회견
2024. 1. 미주한국의 날 국기 게양식
2024. 1. 관악구청과 MOU 체결
2024. 1. 인천시 시의원 상의 내방
2024. 1. 공주대학교 총장 상의 내방
2024. 1. USMB 올림픽지점 개점식
2024. 1. OC상의 신년하례식 참석
2024. 1.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내방
2024. 2. 라디오코리아 창사35주년
2024. 2. 대명건설 사장 상의 내방
2024. 2. 중국동포연합회 설날대잔치
2024. 2. 시니어센터 설날큰잔치 참석
2024. 2. 호남향우회 이취임식 축사

K-Town Food Map 제작

상의는 LA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리아타운 맛집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K-Town Food Map' 을 제작 배포하였다. 지도는 전담 TF팀(위원장: 최명진)이 6개월간의 설문조사와 업체선정, 디자인 작업을 통해 완성하였다. 'K-Town Food Map' 은 타지에서 LA를 방문하는 분들이 빠르게 원하는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요소마다 비치하였다. 2024년 4월 23일 1차로 1만 장을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총 4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도에는 고기구이(10), 한식(18), 일중 & 외국식(12), 분식(6), 술집&카페(10) 등 총 56개 업소가 표기되어 있다. 이번에 만든 지도는 종이 버전과 웹 버전으로 제작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웹 버전은 더 많은 식당 들이 수록되어 있다.

상의 경제사절단 한 · 중 방문

김봉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의 경제사절단은 2024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사절단은 13일, 절강성 정부를 방문 하여 상무청 투자촉진센터 주건화 주임과 리메이 수석대표로부터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협력을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항주 대한 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서호 호수를 관광하고 송성천고정 중국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하였다.

2024. 2. 에릭 시달 검사장 후보 타운 시찰 동행
2024. 2. 법무법인 바른 상의 내방
2024. 2. 재외동포청장 K-Town Food Map 설명회
2024. 2. 재외동포청장 만찬 간담회
2024. 3. 3.1절 기념식 참석(한인회)
2024. 3. Gala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
2024. 3. Gala 수상자 전야제
2024. 3. 제47회 상공인의 날 개최
2024. 3. LAPD 도미닉 최 국장 취임 축하연 참석
2024. 4. 패스트푸드업계 최저시급 인상 관련 기자회견 참석
2024. 4. K-Town Food Map 배포
2004. 5. 상의 산업시찰단 한, 중 방문
2024. 6. 상의 50년사 발행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함께

항조우시와 MOU 체결

사절단은 항주센터를 방문하여 항주시 공서구 무역 및 투자 협력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항주한국상회한국인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감사패와 선물을 교환하였다. 항주센터는 호텔과 사무실, 백화점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써 항주 경제의 컨트롤타워이다.

14일, 강소성 남통시 해안시 경제개발구 쟁샌 국장을 접견하고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예원 옛거리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OKTA 중국상회지회 자경범 회장과 만찬을 나누며 교류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15일, 주 상하이총영사관 김영준 총영사를 접견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사절단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접견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 임원들과 오찬 미팅을 갖고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를 방문하여 윤승주 총장을 접견하고 항공부와 첨단산업부를 둘러보고 만찬을 나눈 후 수안보 온천장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2024년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밭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600여 명과 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 아래 수출 원동력을 키우자며 교류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상의 50년사 발행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가 발행되었다. 이 사업은 제46대에 논의가 시작되어 'LA상의 5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에드워드 구)를 구성하였다. 편저자로 정성업 주필을 선임하고, 제47대에 이르러 전임회장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사무처 보관 자료를 취합하는 등 실질적인 책자 발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정리에 1년이라는 긴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상의 역사 반세기를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나, 간추린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는 소중한 자료로 가치 있게 쓰여 지 길 소망한다.

제48대 회장단 출범

제48대 회장 선거에 정동완 후보의 단독 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에드워드 구)는 2024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완 후보의 당선을 선포하였다. 오는 6월 18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정동완 회장은 2004년 상의에 입회하여 제33대 부이사장과 제36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와싱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트리니티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DWC공인회계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이혁 부회장은 American College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CLA 변호사협회 회장, LAPD 올림픽경찰서후원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Brad Lee, A Prof. Law Corp.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박윤재 부회장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USC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클레어먼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플러튼대학교수, 플러튼문화원 자문위원, 전라북도 국제교류자문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고민선 부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YGCEO, 한국외대 GCEO 과정을 수료하였다. OKTA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AmGreen Solar & Electric Inc.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제48대 회장단

정동완 회장

박윤재 부회장

고민선 부회장

이 혁 수석부회장

부 록

정 관

운영 규정

역대 회장 및 이사장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의 명칭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라고 하고 영문으로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소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한인사회 및 상공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타 경제단체, 한미 정부 및 주류사회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한인사회 및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소의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도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회원) 범 로스앤젤레스 지역(영문으로는 Greater Los Angeles Area를 의미한다.) 내 소재한 상공업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제2항. (준회원) 본 회의소와 협력단체로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의 회원이거나 협력 파트너의 회원은 본 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간주하며,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 베네핏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본 회의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항. 정회원은 본 회의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3항. 회원의 사임 시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납치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및 직무)
제1항. 회장(1인) : 본 회의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3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 대행은 부회장 중 이사 경력순으로 한다. 부회장 중 1인은 재정 담당 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제1항.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회의소 이사직을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제2항. 회장단(회장, 부회장)은 해당 년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가 선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8조 (총회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 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건의가 있거나, 100명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본 회의소 정회원 총수가 500명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이사회로 위임된다.

제9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정관의 개정. 단,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항. 이사 선출
제3항. 사업 계획 및 보고 승인
제4항. 예산 및 결산 심의, 승인
제5항. 기타 본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절 이사회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의소의 이사회는 15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항. 이사장(1인):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회의소 이사직을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제2항. 부이사장(3인):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대행은 부이사장 중 이사 경력 순으로 한다.
제3항. 감사(2인): 본 회의소는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 및 이사회(2분기를 기준으로 최소 연 2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단, 특정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제4항. 본 회의소의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항.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해당연도 7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항. 명예이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이사의 자격, 선출, 권리 및 의무)
제1항. 이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항. 매 회계연도 이사회비는 12월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1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3항. 이사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항. 해임을 하거나 제명을 당한 이사는 만 2년 이내에 신임이사로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사임했을 경우에는 제 11조 제3항에 의거 신임이사로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이사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항. 이사는 이사회가 규정한 이사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갖는다.
제7항. 이사는 이사 사임 시 미납한 이사회비는 납부하여야하며 이미 납부된 이사회비는 반납치 않는다.

제12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이사회는 월례회로 한다.
제2항.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항. 이사장은 이사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본 회의소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제2항.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4항.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제5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6항. 회원의 회비, 이사 회비 및 임원 특별회비 책정
제7항.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제8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 채택
제9항. 본 회의소 결원이사의 선출, 임원의 임명 및 해고 심의
제10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제1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서면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하되 위임자의 결정은 참석자의 의결에 따른다.
제2항. 모든 회의의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항.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이사 징계안은(8장 31조 2항)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이 경우 부재자 투표를 인정한다
제4항. 이사 해임안은 8장 31조1항, 3항, 4항에 의거하여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절 위원회

제15조 (위원회 구성) 본 회의소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를 회장단이 구성한다.

제16조 (위원장 및 고문단 임명)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고문단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7조 (위원회 구성 및 소집)
제1항. 본 회의소는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정관위원회(By-Law Committee), 회원위원회 (Membership Committee), 커뮤니티봉사위원회 (Community Outreach Committee), 상공인의밤 위원회 (Annual GALA Night Committee), 엑스포위원회 (Expo Committee)등을 둘 수 있다.

제2항. 본 회의소에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경우, 회장이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본 회의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이사장단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회의는 정기이사회 1주일 전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항. 정기이사회 안건 심의
제2항. 신임 이사 후보자 심의
제3항. 추가 사업 계획 심의
제4항.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제5항. 기타 중요사항 심의

제19조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직회장을 역임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항. 본 회의소의 전체 예산 집행, 결산 및 재무상태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항. 본 회의소의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를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제3항. 기타 기금 모금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절 외부 고문, 자문위원 및 사무처

제20조 (외부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 고문 및 자문위원을 1년 임기로 둘 수 있다.

제21조 (사무처 직원) 본 회의소는 사무처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선임 시 공식매체에 공고하여 2명 이상의 복수 후보를 회장단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정) 본 회의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항. 회원의 회비(정회원 회비, 이사 회비, 임원 특별회비)
제2항. 자산의 이익 및 손실
제3항. 사업 수익금
제4항.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 (특별 은행계좌) 본 회의소가 보유하는 특별 은행계좌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제1항.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의 수입금은 회계연도 이후 잉여금 및 특별 수익금으로 한다.
제2항.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 이사장, 재정위원장 3인의 서명을 받아야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 단, 최종 회계감사 후 회장의 상환가능 보증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없이 집행한다.
제3항.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는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회계연도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제10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회의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선 거

제25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회계년도 안에 회장과 이사장에 출마할 수 없다.

제26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정관위원회가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 선거 세칙의 집행
제2항.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접수 및 관리
제3항. 투,개표 운영 및 관리
제4항. 선거관리 등 기타 선관위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제5항. 입후보자 자격 박탈의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장단 및 이사장단 선거)
제1항. 회장단 선거(부회장 3인 포함)는 회계연도 5월 이사회에서 실시하며 각 후보자는 선거 2주일 전까지 소정의 등록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항. 회장단 선거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제3항. 이사장단 선거(부이사장 3인 포함)는 회계연도 7월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제28조 (임기 및 보궐선거)
제1항. (임기) 회장단, 이사장단, 감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제2항.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정관 제6조에 의거 후임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7 장 해 산

제29조 (해산)
제1항. 본 회의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항. 본 회의소 해산 시 잔여금 및 자산은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비영리단체에 기부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0조 (포상)
본 회의소를 위해 헌신했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 또는 정회원의 해임, 제명 및 변상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소의 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년도 내에 3회 위임장 없이 무단으로 이사회에 결석할 경우(해임사유)
제2항. 본 회의소의 임원 및 이사가 고의로 본 회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 회의소의 화합에 해를 끼친 경우(징계사유)
제3항. 본 회의소의 회비를 해당 회계 년도 4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해임된다.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해임 및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해임사유)
제4항. 제1항과 별도로 본 회의소의 이사가 이사회에 위임을 회계년도 내에 4회 이상 할 경우. 단, 위임은 반드시 사무처로 서면으로 해야만 한다.(이메일, Fax, 카톡, SNS를 이용할 수 있다) (해임사유)

제 9 장 부 칙

제32조 (시행일)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후, 차기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또한 한글 정관과 영문정관이 상치될 때에는 한글 정관이 우선한다.

제33조
제1항. 본회의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항. 본 정관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항. 본 정관은 1986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현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98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항. 본 정관은 1990년 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본 정관에 따라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199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항. 본 정관은 1993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현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항. 본 정관은 1996년 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제8항. 본 정관은 1996년 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제9항. 본 정관은 2009년 2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제10항. 본 정관은 2011년 2월 15일에 개정하여, 2011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11항. 본 정관은 2012년 4월 17일에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12항. 본 정관은 2012년 10월 9일에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13항. 본 정관은 2016년 2월 16일 개정하여, 2016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단, 제25조 및 제27조 제3항은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14항. 본 정관은 2017년 8월 15일 개정하여,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운영 규정

2012년 10월 정기이사회 상정_2013년 4월 통과 (수정완본)

제1조 (연속성 유지)

LA한인상공회의소의 업무는 회장단이 바뀌더라도 그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신임회장단은 회장 당선 후 회장 이취임식을 위해 신임회장단 선거공탁금을 임시 운영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전임회장단의 결산보고 후 전임회장단의 임시 운영 은행계좌는 폐쇄하여야 하며, 신임회장단의 임시 운영 은행계좌는 정식 운영 은행계좌로 자동전환된다.
2) 매 회기 회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계 인수제도를 수립하여 회장단의 업무가 원활하게 인계되어야 한다.
3) 본 회의소는 운영 은행계좌 및 특별 은행계좌 각 1개씩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회장의 책임)

회장은 공공단체의 장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회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은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상환가능한 보증금 $15,000을 임기시작 후 1주일 이내 특별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최종 회계감사 후 $15,000까지의 적자는 보증금에서 처리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장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초과 적자분에 대한 처리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최종 회계감사 후 당기에 흑자가 났을 때에는 $15,000 전액을 해당 회장에게 이사회의 승인없이 돌려준다.
4) 해당 회계 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최종 회계감사 후 특별 은행계좌에 예치한다.
5) 본 조항은 2012년도 36대 회장단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3조 (재정 관련)

1) 회장은 부회장 3명 중 1명을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Controller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2) 재정위원회는 분기별로 사무처에서 재정보고를 받아 감사 및 재정담당 부회장과 함께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잉여자금 이체 후에는 바뀐 특별 은행 계좌의 서명인 명단, 체크 및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 은행 계좌의 관리)
 가. 전기 회장단의 결산이 끝나고 3주 이내에 잉여자금을 특별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특별 은행 계좌의 서명인을 현 회장, 이사장, 재정위원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특별 계좌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정기이사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단, 본 운영규정 제2조 3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조 (분과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1)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장단과 함께 사업의 기획, 예산 수립/승인/집행, 사후 심사 분석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고문들은 회장이 선임을 하도록 한다.
3) 도중에 해임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사임한 임원 및 위원장은 해당 회계연도를 제외한 회계연도 2년 이내 위원장 및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제5조 (지출관련)

1) $2,000 이상의 지출 시 Check 또는 Check 사본의 서명은 회장/재정담당부회장/이사장 3명 중 2명 이상이 하여야 한다.
2) 재정담당부회장은 해당 Check의 지출 후 Bank Statement 상 실제 지출된 해당 Check 복사본을 확인하고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 서명하여야 한다.
3) 소액현금(Petty Cash)은 500불 이하로 운영하되 사용 용도 및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모든 상환(Reimbursement)은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5) 회장의 상의 관련 공적인 출장 시, 연 1회에 한하여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의 제공, 출장지 교통비 및 호텔비용을 제공하고, 별도의 체재비를 최대 $1,000까지 지원한다. 단, 회장이 추가로 공적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장계획, 지출 예상 항목 및 한도금액을 승인받아 시행한다.
6) 회장의 공적인 경비(접대성 경비 포함)에 대해서는 매3개월마다 사무처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날짜, 목적, 참석인원, 장소 등) 이사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사무처, 분과위원회 및 회장의 지출 시 $500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금액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재 순서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8) 현물 Donation은 명세서를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계약관련)

$2,000이상의 계약 시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처가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계약을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인사관련)

1)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W-2를 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Fringe Benefit(Paid Vacation 및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2) 사무처 직원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노동부가 정한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사무처장은 회계년도 내에서1달치 급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한 번 더 지급할 수 있다.

3)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선임 시 Public에 공고를 하여 2명 이상의 후보를 회장단이 추천하여야 한다.
4) 사무처 직원에 대해 Job Description을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8조 (기업후원 및 명예이사)

1) 상의와 계약된 기업 후원금의 경우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원금은 차기 회장단과 비례배분되지 않는다.
2) 계약된 기업 후원 업체의 경우 업체가 지정한 자를 명예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정관 제10조 이사회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3) 명예이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 (이사회비)

1) 65세 이상, 상의에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이사에 한하여 50%의 이사회비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2) 회장단 및 이사장단의 선거공탁금에는 이사회비가 포함된다.
3) 재정위원회는 이사회비 수취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정관에 의해 1월 말까지 이사회비 미납 이사의 명단을 2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부칙)

1) (운영 회계 연도)
 가. 상의 운영 회계 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2개월이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회계 연도를 준수하기 위해 회장단이 운영회기 이외에 지출한 경상비 지출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지원하여 회기를 준수한다.
 다. 지원되는 경상비는 해당 회장단의 운영 회계 연도 이외에 해당하는 달에 사용한 인건비, 사무처 렌트비, 타 단체 지원금, 화환비용 등이 포함되며, 회장단과 재정위원회가 논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라. 재정위원회의 경상비 지원금은 2013년 6월 경상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하여, 2013년부터 회계 연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공적 사항에 대해
 가. 이메일을 보낼 경우 사무처를 통하여 이메일이 발송되어야한다.
 나. 상의에서 운영하는 카톡방, SNS 등의 공적 전자메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 회의소의 화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 상의에서 보관하는 자료(이사신상정보, 스폰서명단 등)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3) 본 운영규정은 2012년 10월 9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회장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4) 본 운영규정은 2016년 2월16일 개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2항은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끝.

역대 회장 및 이사장

PAST PRESIDENTS & CHAIRMAN OF THE BOARD

Period		President		Board Chairman	
Charter	1971	조지 최	George Chey		
2nd	1972 ~ 1973	이 용	Yong Lee	양 회 직	Hio Jik Yang
3rd	1974 ~ 1975	이 학 조	Hak Jyo Lee	최 희 만	Herman Choi
5th	1976 ~ 1977	윤 병 욱	Byung Wook Yoon	배 효 식	Hyo Sik Hae
6th	1978 ~ 1979	이 정 수	Jung Su Lee	양 효 길	Hyo Kil Yang
7th	1980 ~ 1981	장 기 열	Kenneth Chang	양 효 길	Hyo Kil Yang
8th	1982 ~ 1983	문 창 배	Chang Bae Moon	김 호 민	Ho Min KIm
9th	1984 ~ 1985	양 효 길	Hyo Kil Yang	이 청 광	Chase Rhee
10th	1986 ~ 1987	이 청 광	Chase Rhee	한 군 석	Goon Suk Han
11th	1987 ~ 1988	한 군 석	Goon Suk Han	이 영 송	Young Song Lee
12th	1988 ~ 1989	이 영 송	Young Song Lee	방 미 철	Mi Chel Bang
13th	1989 ~ 1990	방 미 철	Mi Chel Bang	이 용 기	Yong Ki Yi
14th	1990 ~ 1991	이 용 기	Yong Ki Yi	로버트리	Robert Lee
15th	1991 ~ 1992	강 득 휘	Duk Hwi Kang	이 은 용	Eun Yong Lee
16th	1992 ~ 1993	하 기 환	Kee Whan Ha	문 창 배	Chang Bae Moon
17th	1993 ~ 1994	하 기 환	Kee Whan Ha	임 종 칠	Jong Chil Lim
18th	1994 ~ 1995	정 인 철	Charles Chung	조 익 현	Ik Hyon Cho
19th	1995 ~ 1996	김 상 호	Sang Ho Kim	하 기 환	Kee Whan Ha
20th	1996 ~ 1997	김 상 호	Sang Ho Kim	강 상 윤	Sang Yoon Kang
21st	1997 ~ 1998	강 상 윤	Sang Yoon Kang	이 혁	Hyuk Lee
22nd	1998 ~ 1999	강 상 윤	Sang Yoon Kang	한 문 식	Edward Hahn
23rd	1999 ~ 2000	김 성 주	Sung Ju Kim	이 청 광	Chase Rhee
24th	2000 ~ 2001	김 성 주	Sung Ju Kim	강 상 윤	Sang Yoon Kang
25th	2001 ~ 2002	최 명 진	Mike Choe	정 인 철	Charles Chung
26th	2002 ~ 2003	이 용 태	Yong Tai Lee	이 리 섭	Robert Lee
27th	2003 ~ 2004	에리카김	Erica M. Kim	이 용 태	Yong Tai Lee
28th	2004 ~ 2005	한 문 식	Edward Hahn	신 구 현	Ku Hyon Shin
29th	2005 ~ 2006	신 구 현	Ku Hyon Shin	정 주 현	Joo Hyun Chung
30th	2006 ~ 2007	정 주 현	Joo Hyun Chung	이 창 엽	Chang Yop Lee
31st	2007 ~ 2008	이 창 엽	Chang Yop Lee	라나 최	Lana Choi
32nd	2008 ~ 2009	스테판하	Stephan Hah	명 원 식	Won Sik Myung
33rd	2009 ~ 2010	명 원 식	Won Sik Myung	김 춘 식	Frank Kim
34th	2010 ~ 2011	김 춘 식	Frank Kim	에드워드구	Edward Koo
35th	2011 ~ 2012	에드워드구	Edward Koo	브라이언트정	Bryant Chung
36th	2012 ~ 2013	임 우 성	Woo Sung Lim	정 동 완	Douglas Chong
37th	2013 ~ 2014	케니 박	Kenny Park	전 석 호	Lawrence Jeon
38th	2014 ~ 2015	전 석 호	Lawrence Jeon	최 명 진	Mike Choe
39th	2015 ~ 2016	로렌스한	Lawrence Han	이 은	Steve Yi
40th	2016 ~ 2017	이 은	Steve Yi	구 경 완	Benjamin Koo
41st	2017 ~ 2018	하 기 환	Kee Whan Ha	정 상 봉	Robert Choung
42nd	2018 ~ 2019	하 기 환	Kee Whan Ha	박 성 수	Daniel Park
43rd	2019 ~ 2020	박 성 수	Daniel Park	강 일 한	Peter Kang
44th	2020 ~ 2021	강 일 한	Peter Kang	이 창 엽	Chang Yop Lee
45th	2021 ~ 2022	강 일 한	Peter Kang	브라이언트정	Bryant Chung
46th	2022 ~ 2023	장 진 혁	Bryant Chang	김 봉 현	Bong Hyun Kim
47th	2023 ~ 2024	김 봉 현	Bong Hyun Kim	홍 성 모	Sung Mo Hong

편집후기

상의 50주년 특별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장 에드워드 구

상의 50주년 기념 책자 편찬을 마치며,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언 50년을 맞이하며 동시에 팬데믹을 겪게 되어 50주년 기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장으로 취임한 알버트 장 회장님이 지난 50년이 넘는 상의의 수많은 역사 자료와 영상을 정리 & 보존하여, 후대 상의 이사님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상의 50주년 특별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회장단과 몇 분 이사님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뜻깊은 사업이라도 특별 계좌에서 예산지출 등 여러 이슈로 50주년 기업사업에 대한 열띤 논의 끝에 사업추진이 힘들게 간신히 통과되었다. 회장단이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기금을 내놓기로 하여, 편저자로 정성업 주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다음 회장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다음 회장인 김봉현 회장님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다시 5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다. 몇 차례 논의 끝에 일단 50주년 기념 책자를 출간하기로 하며 예산이 설정되고 본격적으로 집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2024년 초 발간으로 시작했으나 전직 회장님들의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방대한 자료가 뒤늦게 발견되어 시간이 지연되며 6월 초로 시기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험이 많은 정성업 주필은 몇 분 이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무처에 있는 자료를 생각하며, 6개월 정도 파트타임 정도로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 줄 알고 집필을 맡았다. 전직 회장님들과의 만남 및 자료수집이 너무 힘들었고, 뒤늦게 상의 창고에서 발견된 엄청난 자료가 담긴 수많은 박스를 발견하게 되어 매일 풀타임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특히 이미 작고하시거나 연락이 않되는 전직 회장님들 당시 자료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김봉현 회장님의 열정과 최명진 공동 위원장님의 수고와 노고로 역사적인 50년사가 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인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상의 역사를 제대로 쓰겠다는 정성업 주필님의 끈기와 집념이 없었으면 아마 기념 책자는 요원했을 것이다.

전직 회장님들을 일일이 연락하여 뵙고 인터뷰하며 기록을 해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잊지 못할 한 분이 있다. 작년 가을에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기를 반가워한 제9대 양효길 회장님이다. 초기 10년사를 쓴 귀한 마지막 한 권의 책자를 들고 제7대 장기열 회장님과 함께한 첫 만남이었다. 50년 만에 쓰게 되는 기념 책자에 대해 너무 반가워하며 기쁨이 넘친 흥분으로 지나간 역사를 말씀해주셨다. 몇 차례 연락을 주시며 적극협력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팬데믹 후유증으로 올 초에 영원히 떠나셨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항상 긍정적이셨던 초대 조지 최 회장님도 생각이 난다.

모두가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50년 역사 기념 책자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드디어 애를 낳은 산모의 고통을 겪으며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지난 한인사회의 초동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한 자료수집과 집요하고 알기 쉽게 풀어나간 집필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공회의소 역사와 함께 한인사회의 발전 흐름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50년이 넘는 역사 자료와 사진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추후 어느 때라도 볼 수 있게 정리하게 되어 기쁘다. 편집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주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님께 감사드린다.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 주신 김봉현 회장님과 회장단, 기념 책자 태동을 위해 수고하신 알버트 장 직전 회장님, 최명진 공동위원장님, 열정을 쏟아 집필해주신 정성업 주필님,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경수 사무처장님, 협력해 주신 전직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7일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에드워드 구

편집자 소개

발행인 : 김 봉 현

- Neo USA Food Co. 대표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 LA 코리아타운 올림픽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상임부회장(전)

편집위원장 : 에드워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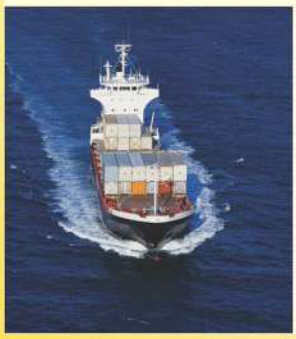
- J. Young Investment 대표
- 상의 5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전)
-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장(전)
- 미주한인민주당총연합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지역회 회장(전)

주 필 : 정 성 업

- 예수복음선교회 회장
- 조국평화통일기도운동 대표
- 한미평화협회 회장
- 남가주호남향우회 회장(전)
- 5 · 18기념재단LA 상임대표(전)

책　　명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50년사
초판발행 2024. 6. 7.
초판인쇄 2024. 6. 18.
발 행 인 김봉현 회장
편집위원장 에드워드 구
공동편집위원장 최명진
편집위원 김봉현, 알버트 장, 이 은
박성수, 브라이언트 정
그레이스 강, 김경현
제이 김, 양학봉
주　　필 정성업
사무처장 이경수
발 행 처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3435 Wilshire Blvd. Suite 2450
Los Angeles, CA 90010
T. (213)480-1115
E. info@lakacc.com
www.LAkacc.com

One-Stop
Logistics Service



- **Local & Interstate Trucking**
  - 48-state domestic trucking
  - Van & Flatbed
- **Project Cargo Management**
  - Oversized & super-heavy shipment
  - Export, Import & Domestic 48 states
- **International 3PL (Air & Ocean)**
  - Shipping international air & ocean
  - Import and Export Freight

3PLUS LOGISTICS

19750 S. Vermont Ave. Ste 112 Torrance. CA 90502
Tel: (310) 846-5858 / Fax: (310) 667-5166

50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LOS ANGELES